

신학적 강해의 대가 데이비스 박사의
전선지서 주해 시리즈 7



열왕기하 주해
권세와 분노



저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
역자 이창배

키드바로 주경연구소

2 KINGS

The Power and the Fury

By

Dale Ralph Davis

Translated by

Chang Bae Lee

© Dale Ralph Davis 2005

ISBN 978-1-84550-096-2

10 9 8 7 6 5 4 3 2 1

Published in 2005

Reprinted 2006, 2009, 2011, 2014 and 2018

By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Ltd.,

Geanies House, Fearn, Ross-shire, IV20 1TW, Great Britain

www.christianfocus.com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Chang Bae Lee

저자 소개

데일 랄프 데이비스(Dale Ralph Davis)는 전에 미시시피 해티스버그에 있는 우드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였다. 그 이전에 그는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 핵심 주해(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 가운데 **여호수아**(ISBN 978-1-84550-137-2), **사사기**(ISBN 978-1-84550-138-9), **사무엘상**(ISBN 978-1-85792-516-6), **사무엘하**(ISBN 978-1-84550-270-6), **열왕기상**(ISBN 978-1-85792-703-6)에 대한 주해들과 **구약 내러티브,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ISBN 978-1-84550-192-1)도 썼다.

역자 소개

이창배 목사는 국제대학교 영어영문과(B.A.),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M.E.), 총회신학연구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Ph.D.)를 졸업했다. 역자는 한국에서 총회신학연구원, 개혁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에서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a University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다. 역자는 엘리스 알 브로츠만의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와 데일 랄프 데이비스의 **구약 내러티브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 **여호수아 주해**, **사사기 주해**, **사무엘상 주해**, **사무엘하 주해**, **열왕기상 주해**를 번역하였고 **룻기 원문주석**, **십계명 원문주석**, **이사야 53 장 원문주석**,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교본**, **아람어 문법**을 썼다.

목차 (Contents)

서문 (Preface)	v
역자 서문 (Translator's Preface)	vi
약자 (Abbreviations)	ix
서론 (Introduction)	1

제 1 부 분열 왕국(The Torn Kingdom) 열왕기하 1-17 장

1. 이번에는 불 (왕하 1장 The Fire This Time)	4
2. 하나님 나라의 지각변동 (왕하 2장 Seismic Shift in the Kingdom of God)	16
3. 우리 세 왕 (왕하 3장 We Three Kings)	30
4. 힘 없고 이름 없는 자들의 도움 (왕하 4:1-7 Help of the Helpless and Nameless)	41
5. 하나님에 대한 슬픈 것들과 기쁜 것들 (왕하 4:8-37 The Sad and the Glad of God)	49
6. 교회 만찬의 위험 (왕하 4:38-41 The Peril of Church Suppers)	58
7.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핍 (왕하 4:42-44 Christ and Our Deficiencies)	65
8. 은혜가 국제화되다 (왕하 5장 Grace Goes International)	71
9.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도끼를 주셨을 때 (왕하 6:1-7)	86
10. 여호와와 그늘에서 안전함 (왕하 6:8-23 Safe in the Shadow of the Lord)	95
11. 확실하고 엄중한 구원 (왕하 6:24-7:20 A Sure and Severe Deliverance)	102
12. 살리시고 죽이시는 여호와 (왕하 8:1-15 The Lord Who Revives and Slays)	114
13. 한 대악 가문 (왕하 8:16-29 One, Big Evil Family)	122
14. 끔찍한 빠른 말씀 (왕하 9장 Terrible Swift Word (2 Kings 9)	129
15. 머리가 날아가는 때 (왕하 10장 When Heads Roll)	141
16. 성탄절을 구한 여인 (왕하 11장 The Lady Who Saved Christmas).....	151
17. 수리와 보상 (왕하 12장 Repairs and Payoffs)	164
18. 은혜와 심각한 해설 (왕하 13장 Grace and Grave Notes)	171
19. 짧디짧은 시월의 이야기 (왕하 14장 A Little Bit of October)	186
20. 망각에로의 빠른 진전 (기하 15장 Fast Forward to Oblivion)	198
21. 유다의 잔디는 더 푸른가? (왕하 16장 Is the Grass Greener...?)	208
22. 마지막 시기의 하나님 (왕하 17:1-23 God of the Last Days)	220

23. 종교 박람회? (왕하 17:24-41 A Religion Fair?)230

제 2 부 마지막 시기(The Last Days) 열왕기하 18-25 장

24. 신선한 공기, 어두운 날 (왕하 18장 Fresh Air, Dark Day)240

25. 밤의 공포 (왕하 19장 The Terror of the Night)255

26.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 과연 그런가? (왕하 20장 Yahweh Is All You Need! Or Is He?)271

27.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왕하 21장 The Point of No Return)281

28. 종교 개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왕하 22:1-23:30 Can a Reformation Save Us?) ...93

29. 파멸을 향한 돌진 (왕하 23:31-25:26 Rush to Ruin)307

30. 희망의 속삭임? (왕하 25:27-30 A Whisper of Hope?)316

서문(Preface)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마틴 루터의 생일인 11월 10일에 수업이 있을 때 나는 항상 기뻐다. 우리는 그날 "Luther"를 환호하며 수업을 시작하곤 했다. 내가 "L 을 주세요!"라고 외치면 그들은 L 을 외쳤다. 계속해서 형제 마틴의 성(Luther)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환호했다. 마지막에 내가 "그 이름의 철자가 무엇이나"라고 물으면 그들은 "Luther!"라고 소리쳤다. 그것은 수업을 시작하는 활기찬 방법이었고, 40 여명(대부분 남성)은 야단법석을 떨어보자는 초대에 기꺼이 소리 높여 응답했다. 지금은 다시 교인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란을 피울 기회가 훨씬 적다. 그러나 나는 올해 루터의 생일에 특히 기쁘다. 바로 이 날 이 열왕기하 주해의 초안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룻기를 제외한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전선지서"에 대한 강해 주석들을 내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마치게 되어 흐뭇하다. 나는 특히 크리스찬 포커스의 친절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중간에 "고아가 된" 시리즈를 다시 시작했다. 3월 어느 날 말콤 맥클린이 나를 찾아와 거절당한 사무엘하 원고를 스코틀랜드로 기꺼이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드랜드 장로교회의 장로님들께 큰 빛을 지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주석을 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번 물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글을 쓸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저녁 예배의 설교 봉사를 당분간 쉴 수 있게 해 주었다. (사실, 그 제안 뒤에는 내가 기꺼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관대하고 고무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이 책을 데렉과 로즈마리 토마스(Derek and Rosemary Thomas), 그리고 데이빗과 안드레아 주셀리(David and Andrea Jussely)에게 바친다. 그들은 내가 전에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함께 봉사하던 존경하는 동료들이고 항상 특별한 친구들이다. 데이빗은 내가 우드랜드 장로교회로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 회중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다. 그가 10년 동안 이 회중들에게 땀과 기도를 쏟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일은 훨씬 수월해졌다. 내가 지금 그리워하는 특권 중 하나는 데릭 집에서 15 피트 떨어진 곳에 사무실 문을 가졌던 것이다. 거기서 나는 보통 감각, 유쾌함,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었다. 내가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나는 그가 신학교에 매우 일찍 도착했지만 열쇠를 집에 두고 왔기에 내가 도착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택함 받은 부인들을 기리며 **열왕기하 주해**(부제: **권세와 분노**)를 바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2004년 대림절

역자 서문(Translator's Preface)

데이비스 박사가 전선지서(수, 샷, 삼상, 삼하, 왕상, 왕하)에 대한 주해를 20 년에 걸쳐 썼는데 그 마지막 책인 열왕기하의 번역을 마치게 되어 아주 기쁘다. 데이비스 박사의 열왕기하 주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매우 즐겁고 복된 일이었다. 저자는 역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많은 도전을 주었다.

항상 그렇듯이 데이비스 박사는 열왕기하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보고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주해를 하였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라, 리브가, 라헬, 마노아 부인, 한나, 엘리사벳과 더불어 수넬 여인(왕하 4 장)도 불임 여성이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언약 백성의 지속에 필수적이거나 언약 백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과 달리 수넬 여인의 아들은 그저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나아만)에게도 치유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아람의 포로가 되어 비극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소녀를 사용하셨다(왕하 5:2-3). 아람의 침입과 포위로 인해 아사 직전에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데 나병환자 4 명이 사용되고(왕하 7:9), 그들이 전한 소식을 확인해 보자고 제의한 무명의 신하(왕하 7:13)에 의해 정탐군이 파견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그분이 쓰고자 하시면 우리의 무명의 신분이나 일상적인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의 매일의 소명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힘써 중보 기도하고 왕으로서 적절한 징계와 보호를 하며 다스릴 때” 우리의 봉사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의 2 대 오류는 여로보암의 죄(이스라엘의 원죄)와 오므리의 시돈왕 옛바알과의 통혼으로 인한 바알 숭배 도입의 죄이다. 여로보암 1 세는 구약의 본디오 빌라도로서 혼합주의를 통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왕하 17:21-23). “우리는 열왕기상하의 전반에 걸쳐 그의 이름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을 읽으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지배적이었는지 듣게 된다.”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여로보암 따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2 계명을 위반하고 이세벨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1 계명을 위반한 최악의 왕이었다. 아합의 이교주의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왕하 17:16-17). “교리에서든, 예배에서든, 생활에서든, 불충성이 얼마나 끈질긴

사후 생명력을 가지는가! 그렇다면 기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자 개개인에게도 '네 자신(네 삶)과 네 가르침을 면밀히 살피는(딤후 4:16a)'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훗날의 운명은 그것에 달려 있다."

경건한 여호사밧이 정말 어리석게도 아합의 가문과 맺은 결혼 동맹으로 인해 유다에 사악한 왕들(여호람, 아하시야)이 다스리는 일이 일어났으며, 하마터면 사악한 아달라에 의해 다윗 왕조가 전멸될 뻔하였다. 여호세바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구한 일(왕하 11:2)은 "주전 840 년경 경각에 달린 여호와와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성탄절을 구한" 일이 되었다. 이 전멸의 위기가 극복되며 다스리게 된 왕들(요아스, 아마샤, 웃시야,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 제거와 같은 철저하고 온전한 종교적 헌신은 보여주지 못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유다의 여로보암으로 빗대어 묘사된다(왕하 16:12; 참고, 왕상 12:32-33 "그 제단에 올라갔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왕국의 여로보암으로 묘사된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왕상 15:26, 34)를 지었듯이 므낫세는 "유다에게 범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왕하 21:16).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는 여호와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오랜 관행이었다(왕하 21:15). 므낫세의 타락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도가 지나치게" 만들었다. 므낫세의 엄청난 사악함이 국가의 누적된 배교에 더해졌기 때문에 유다는 회복될 가망이 없어졌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왕하 23:26). 열왕기 저자는 바벨론 유수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 전에 모세가 언약을 어길 경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저주가 임하리라는 경고대로 일어난 일인 것을 보여 주었다. "최악이 국가나 개인을 회복의 가망을 넘어서게 하고 심판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엄숙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 지점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냉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상숭배와 타락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겁을 주어야 한다."

데이비스 박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했던 히스기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힘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했던 요시야의 개혁도 은혜의 시기를 이미 넘어버린 국가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려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열왕기는 종종 다윗 왕조의 지속이 다윗 언약에 근거한 심판의 연기에 기인한 것임을 언급하고(왕상 11:12-13, 35-36; 왕상 15:3-4; 왕하 8:19; 왕하 19:34; 20:6), 끝 부분(왕하 25:27-30)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와 왕다운 대접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지연된 심판 그리고 여호야긴의 회복에 대한 묘사는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포로기 백성들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무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창조적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열왕기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구원 역사를 거부하는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다.

마태복음 1:12-16 은 열왕기하 25 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이 이 실패하고 황폐하고 포로가 된 백성 밑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마 1:12)”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땅(아브라함의 약속)과 왕권(다윗의 약속)을 잃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암울한 이 시기에 메시아가 주어졌다(마 1:16)! 이 백성이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믿음과 타협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구속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고집이다. 능력과 분노의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후손을 통해 그분의 진노에서 돌이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개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극치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만물이 새롭게 되고 저주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날을 바라보는(계 22:1-5)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일상의 거룩을 위해 힘쓰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데이비스 박사의 전선지서 주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지 않고 선용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고 우리의 죄가 공동체의 원죄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자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말씀으로 철저히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2023 년 8 월 6 일 주일 저녁 북가주 더블린에서

약자(Abbreviations)

ABD	<i>Anchor Bible Dictionary</i>
ANET	<i>Ancient Near Eastern Texts</i> , 3rd ed.
BDB	Brown, Driver, and Briggs, <i>Hebrew and English Lexicon</i>
DCH	<i>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i> (ed. D. J. A. Clines)
ESV	Scripture quotations marked ESV are from <i>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i> , copyright © 2001 by Crossway Bibles, a divi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IDB	<i>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i>
IDBS	<i>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ume</i>
ISBE	<i>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i>
JB	Scripture quotations marked JB are taken from <i>The Jerusalem Bible</i> . Copyright © 1966 by Darton, Longman, and Todd, Ltd., and Doubleday, A Division of Bantam, Doubleday, Bell Publishing Group.
K-B	Koehler & Baumgartner, <i>Hebrew and Aramaic Lexicon</i>
LXX	The Septuagint
NASB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ASB are taken from the <i>New American Standard Bible</i> ®, Copyright © 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1973, 1975, 1977, 1995 by The Lockman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www.lockman.org)
NBD	<i>New Bible Dictionary</i>
NBV	New Berkley Version
NEB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EB are from <i>The New English Bible</i> © Oxford University Press 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1970.
NIDOTTE	<i>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i>
NIV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IV are taken from the <i>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i> ®. NIV®. Copyright©1973, 1978, 1984 by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All rights reserved.
NJB	New Jerusalem Bible
NJPS	Tanakh: A New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Hebrew Text (1985)

- NKJV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KJV are taken from the *New King James Version*. Copyright © 1982 by Thomas Nelson,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 NLT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LT are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Living Translation*, copy- right © 1996. Used by permission of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Wheaton, Illinois 60189. All rights reserved.
- NRSV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RSV are taken from the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copyright 1989,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 REB Scripture quotations marked REB are taken from *The Revised English Bible*. Copyright © Oxford University Press 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RSV Scripture quotations marked RSV are taken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1952 [2nd edition, 1971]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 TEV Scripture quotations marked GNT are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 in Today's English Version* – Second Edition Copyright © 1992 by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TWOT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서론(Introduction)

내가 신학교에서 봉사할 때 학기 초에 학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학생이 가끔 있었다. 말하자면, 그 학생은 학기 시작 3주가 지나서야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런 학생들은 수업의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하기 어려운 지점이 되었다. 그들은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며 빨리 학문적 배멀미에서 벗어나야 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중간에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극 전체를 보거나 소설 전체를 읽기를 원한다.

그러나 열왕기하는 우리가 중간에서 시작하게 한다. 그것은 2 층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치명상을 입은 아하시야 왕을 검사하는 구급대원들로 시작한다. 다소 갑작스럽다.

사실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가 항상 열왕기하로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열왕기란 단 한 권의 책이었다. 그러나 (주전 200 년경 이후에) 구약의 헬라어 역본들은 열왕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그 길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구분이었다. 이 구분은 그 후 1500 년대의 히브리어 본문의 인쇄본들에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어 성경의 전통에서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잠시 돌아가서 열왕기상을 전체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하나의 전체 문헌으로 보아야 한다. 열왕기상에서 나는 열왕기상하의 주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I. 황금 시대, 왕상 1-11장
- II. 분열 왕국 시대, 왕상 12장-왕하 17장
- III. 마지막 시대, 왕하 18-25장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 통치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부분은 분열 왕국, 즉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북왕국과 그 배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세 번째 부분은 홀로 남은 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 지연되기는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열왕기란 "책"의 큰 그림이다. 그러나 열왕기의 인위적인 구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각각 그 나름대로 뚜렷한 강조점들을 갖고 있다. 사실을 말하면, 두 책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에서 끔찍한 부정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권의 축복과 지혜(왕상 1-10 장)로 시작하여 솔로몬의 어리석음과 북 왕국의 왕들, 특히 교묘한 혼합주의(금송아지 숭배)를 시행하는 여로보암 1 세와 원색적인 이교주의(바알

송배)를 조장하는 아합의 어리석음(왕상 11-22 장)으로 이어진다. 열왕기하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권세를 보여주는 은혜의 개입(왕하 1-8 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은혜가 무시된 채 주어진 심판의 과정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앗수르인들과 바벨론인들의 부드러운 자비에 맡기실(왕하 9-25 장)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나는 이 **열왕기하 주해에 권세와 분노**라는 부제를 달았다.

제 1 부

분열 왕국

열왕기하 1-17 장

1. 이번에는 불 (왕하 1 장 The Fire This Time)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긍정적인 서술로 시작한다. 여러분은 이것이 심술궂은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합은 이교의 오물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한 통로였고(왕상 16:19-24), 불의를 용인했으며(왕상 21 장),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던(예: 왕상 22 장) 인물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아합과 같은 자들은 항상 죽는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아합의 2 세가 그를 따른다는 것이다. 아하시야는 죽은 아버지를 꼭 닮았다. 주전 852 년의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강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적 내러티브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알렉 모티어)”이므로, 나는 여호와께서 이 단락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I. 우리의 우상을 몹시 싫어하시는 하나님 (왕하 1:1-8 The God who detests our idols)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누가 정확히 알겠는가? 아하시야는 칸막이가 무너졌을 때 2 층에서 떨어졌다. 그의 문의는 그가 회복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것 같다. 우리는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인지 바알세불인지 논쟁할 필요가 없다. 바알이라는 접두어는 모든 것, 즉 그가 이세벨에 의해 충동된 그의 아버지의 종교적 전철(왕상 16:29-34)을 밟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마리아에 있는 왕은 다가올 해들에 대한 희망이 45 마일(72 킬로미터) 떨어진 블레셋의 한 신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왕하 1:3a).” 배교가 진행 중일 때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신다. 아하시야가 보낸 사자들이 있었고(왕하 1:2) 이제 그들을 가로막기 위해 보내진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준 메시지는 질문이자 심판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왕하 1:3-4)

그래서 엘리야는 지시대로 아하시야의 사자들을 만나러 갔다(왕하 1:4b).

다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하시야의 신하들이 돌아와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일이다(왕하 1:5). 저자는 우리가 똑똑한 독자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아하시야의 부하들과

엘리야의 실제 만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지시대로 실행되었다고 가정하고, 저자는 왕이 그들의 신속한 귀환에 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왕하 1:5b). 아하시야는 그들이 임무를 중단했다는 걸 알고,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라고 묻는다. 왕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준 명령, 그 사람이 선언한 메시지에 대해 말한다(왕하 1:6). 그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고 낯선 사람의 권위가 왕의 권위를 앞질렀다.¹ 왕은 그 장본인에 대한 묘사를 요구한다(왕하 1:7). 왕은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른 털이 많은²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그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아랑 없으신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시대의 교양 있는, 자칭 종교적 취향의 감식가들이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의 생애의 중차대한 순간에 그의 종교적 선호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야성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거룩하심을 보이시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실 수가 있는가? 여기 여호와와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따라 갈망하는 부류의 민주적인 신이 아니시다. 우리 시대는 고대 근동의 신화를 선호할 것이다. 거기서 남신들과 여신들은 관대하고 일상적이며 결코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신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신봉자가 다른 신들에게 헌신을 표시할지라도 그것을 치명적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면 우리는 그분의 첫 번째 계명(일계명, 출 20:3) 위반에 대해 계속 자책해야 한다.³ 신약에서도 그것은 결코 더 낫지 않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자신을 따르려면 우상을 쳐부수어야 한다고 자주 주장하신다(막 10:21-22). 예수님은 여호와만큼 고약하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또한 여기서 **뚜렷한 우상숭배**를 만난다. 우리는 아하시야가 바알세뱃에 의지한 것이 단지 나약한 순간에 절박하므로 취한 갑작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 페이지를 왕상 22:52-53 으로 되돌리면 저자가 아하시야의 통치 **정책**을 요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¹ 아하시야의 사자들은 엘리야의 권위에 감명을 받았었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그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돌아와 왕의 노여움을 기꺼이 감수한다. K. D.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Calwer, 1972), 19-20 을 참조하라.

² “hairy man 털이 많은 사람”이란 NKJV의 왕하 1:8의 번역은 옳다. “털이 많은”은 엘리야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지 그의 옷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³ 나는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1560)이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고백의 맨 첫 줄은 이렇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분만 우리는 붙좃아야 하고, 그분만 우리는 섬겨야 하고, 그분만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그분만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고 밝히지만 이 **요구**가 먼저 나온다.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게 예배했다(왕상 22:53).” 왕하 1:2 에서 아하시야는 그의 “믿음”의 **일관성**을 보여줄 뿐이다. 바알에 대한 그의 호소는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바알은 언제나 아하시야가 선택한 신이었다. 그에게는 여호와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의 우상숭배는 무지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선호도 때문이었다.

칼 헨리는 그의 저서 중 한 권에서 생명체가 우주에서 지구에 도착했다는 호일과 위크라마싱헤의 견해를 논한다. 그들은 “인간보다 다소 높으나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이지 못하므로 인격적인 신이 아닌, 초지상적인 원리인 지능을 상정한다.” 이러한 이론가들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지구를 넘어 전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뚜렷한 이점이 있다. 그들은 “우선, 그것은 우주 안에 하나님이 아닌 높은 지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라고 말한다.⁴ 그것은 가장 드러나는 진술이다. 그들은 누구를 피하려고 애쓰는가? 그들은 “그것”이 인격적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한, 어느 것이라도, 아니 아무것도라도 상정하는 데 있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아하시야의 것과 차원이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헌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왕에게 우상은 바알이었다면, 과학자들에게 우상은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신이 아닌, 모호한 초월적 지능이다.

그러나 아하시야의 우상 숭배도 **어리석은 우상 숭배**였다.⁵ 여호와를 믿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한 슬픔이 있다. 여기에 왕이 있다. 아마 임종이 가까웠던 것 같다. 적어도 그의 요청(왕하 1:2)은 아하시야가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듣는 것은 “가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는 말이다. 왕은 그토록 결정적인 순간에 그토록 어리석은 의지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반드시 좋은 감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워커 퍼시의 한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월 베렛이다. 그는 기독교 신자들과 불신자들, 특히 불신자들을 풍자하는 편지를 쓴다. 베렛에 의하면 불신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친 사람이다.

그는 안락하게 살고, 게임을 즐기고, 텔레비전을 보고, 술을 마시고, 웃고, 정치인을 욕하고, 때때로 지루함을 달라고 (그가 어렵듯이 의식하는) 소극을 위해 전투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쏜다. 마치 꼭 그의 전립선이 암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고 그의 동맥이 백암으로

⁴ C. F. H. Henry, *God, Revelation and Authority*, 6 vols. (Waco: Word, 1983), 6:178-79 에서 재인용.

⁵ 이 요점의 대부분은 나의 친구이자 전 동료인 데렉 토마스에게 빛진 것이다. 나는 그가 미시시피 주 잭슨에 있는 제일 장로 교회에서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 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굳어지지 않고 그의 두뇌의 세포가 수백만 개씩 죽어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벌레가 순식간에 그를 먹어 치우지 못할 것처럼 말이다.⁶

서서히든 갑자기든 우리의 최후를 응시하는 것은 우리를 진지함과 진실함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월 배럿의 요점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분명히 아하시야의 경우처럼)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찾는 것을 통해 보여주듯이) 똑똑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죽음은 막다른 종교적 선택지를 가지고 놀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겐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참고, 요 6:68)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 아하시야는 바알만 가지고, 아니, 말하자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인생의 고비를 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 단락에서 **친절한 엄격**을 만난다. 엄격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글거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왕하 1:3)?”라는 질문에서 그분의 경멸이 흘러나온다. 그분의 심판은 가차없다. 아하시야는 침상에 누운 채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왕하 1:4).

여호와의 말씀(질문과 심판 선언)은 세 번 반복된다(왕하 1:3, 6, 16).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의 중심 관심사를 강조한다. 아하시야가 사자들을 불레셋으로 보낼 때,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음을 암시한다. 그가 바알세불에게 호소할 때에, 그는 여호와께서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무관하시거나, 부적절하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이 아닌가? 다른 도움과 지원에 먼저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딜레마를 다루시는 데 부적절하시고 불충분하시다는 것을 은근히 고백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개입은 결코 유쾌하지 않고 결코 정중하지 않다. 그분은 엘리야를 보내 왕의 불경건한 원정을 차단하고 억누르게 하신다. 여기서 엘리야가 듣는 명령은 왕상 21:17-18 에서 받은 명령과 매우 비슷하다. 거기서 아합은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세벨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학살하도록 허용했다. 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였다(왕상 21:17-18).” 여기 열왕기하 1 장에서 우리는 똑같은 어구를 발견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고 하였다(왕하 1:3).” “일어나 내려가서 만나라(왕상 21:18).” “일어나 올라가서 만나라(왕하 1:3).” 하지만 이 두 명령은 동일하게 “즉시 그들을 멈추게 하라”는 함의를 갖고 있다.

⁶ Walker Percy, *The Second Coming*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1980), 189-90.

그러나 여호와께서 엄격하실지라도, 그분은 동시에 자비로우시다. 아하시야 왕이 볼 수만 있었다면, 그분이 왕의 사절단을 불쾌하게 가로막은 것은 마지막 기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시야의 우상숭배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공간을 침범하여 다시 일계명으로 그의 얼굴을 문지르셨다. 다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 여기서 여호와께는 격노하시되 관용을 보이지 않으시고, 거룩하시되 안심시키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되 다정하지 않으시다. 하지만 그분의 분노에는 사랑이 있다. 그분은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길을 쉽게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비로 길에 장애물을 두고 가로막으신다. 그가 우리의 우상을 그렇게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II. 자신의 증인을 옹호하시는 하나님 (왕하 1:9-12 The God who defends his witness)

일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꽤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존 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바알의 신탁에 호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엘리야의 항의에는 역사적 사실의 핵심이 있을 수 있다(왕하 1:2-8, 17). 그러나 왕의 무고한 사절들을 불로 몰살시키는 것(왕하 1:9-16)은 도덕적인 무의미함이 있다. 그것은 이 전승을 벤엘의 무례한 소년들에 대한 엘리사의 잔인한 저주(왕하 2:23-24)와 동일한 범주로 귀속시킨다.⁷

또 다른 주석가는 "기적적인 요소의 터무니없음"에 대하여 쓰며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50 명이 두 번에 걸쳐 죽임을 당하는 비인간적인 요소"에 대해 한탄한다.⁸ 몇몇 어려움들은 완화될 수 없다. 일부 학자와 독자는 언제나 기적적인 터무니없는 것들을 발견할 것이고, 102 명의 병사가 축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중산층 세련미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 그러나 "도덕적 무의미함"이 있는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 이야기를 읽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비난부터 시작해보자. 엘리야는 왜 그렇게 했는가? 대답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 두 오십부장은 각각 자신의 오만함을 가지고 뿔내며 현장에 들어온다. 첫 번째 오십부장은 왕의 권위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왕하

⁷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459. 내 견해로는 이 이야기가 도덕적으로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도덕적 무의미함이 그 자체로 역사성을 반대하는 타당한 논거가 되는지 모르겠다.

⁸ J. A.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King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 348.

1:9).”라고 말한다. 두 번째 오십부장은 속도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왕하 1:11).”라고 말한다. 각각의 경우에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를지로다(왕하 1:10a, 12a)”라고 대답한다.⁹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왕하 1:10b, 12b)”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들어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엘리야의 요청이 잘못되거나 비난받을 만하거나 비뚤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승낙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승낙하지 말았어야 하셨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불에 대한 엘리야의 요청을 승인하셨음을 보여준다.¹⁰ 그러므로 엘리야를 비난하는 것을 그만 두자. 여호와를 탓하라.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¹¹

이제 우리는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왕은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 두 번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가? 이 질문은 일부 주석가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사자들을 통해 엘리야의 말을 이미 받았던(왕하 1:6) 아하시야가 이제 군사들을 통해 그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⁹ 엘리야가 그들이 자신을 부를 때 쓴 용어를 다시 사용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당신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하는가? ‘하나님’이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에 불과하지 않음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말의 마지막 부분은 엘리야가 요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길!”이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시길!”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¹⁰ 월리스는 그의 초기 작품(R. S. Wallace, *Elijah and Elisha* [1957], 77-78)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엘리야가 그 산에서 행동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자주 착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리석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엘리야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는 설명을 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해 가장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사용하셨다. 사악하고 반역적인 왕과 어리석고 합당하지 않은 선지자 사이의 이 갈등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편을 들으셨다. 엘리야가 냉담하고 극적인 바보짓을 했다고 해서 엘리야에게서 그분의 도움을 철회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이 어느 편에 계실 것인지를 선택하시기 전에 한 편이 완벽하게 거룩한 방식으로 행동할 준비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그들의 비뚤어진 상태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열왕기하 1 장에서는 월리스의 설명이 해석학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응답은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의 요청이 적절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¹¹ 때때로 눅 9:54-55 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은 열왕기하 1 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행동에 대한 암시적인 반대로 간주된다.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현재 상황(그분께 환대를 거절하는 한 사마리아의 마을)을 잘못 읽은 것에 대하여 야고보와 요한을 질책하셨다. “그분의 현재 임무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기(E. Earle Ellis, *The Gospel of Luk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London: Oliphants, 1974], 152)” 때문에 그러한 심판은 아직 요구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¹² 불분명하다고?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자문을 구하려” 했다고? 여러분은 자문 위원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50 명의 직원을 보내는가? 일부 해석자들은 아하시야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락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엘리슨의 말이 옳다. “50 명은 의장대가 될 의도가 없었다! 그것은 적대 행위의 공개적인 선언이었고 엘리야는 그것을 그렇게 취급했다.”¹³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려고 계획했다. 아마도 엘리야를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침묵시킬 계획이었을 것이다(왕하 1:15 에 나오는 여호와와 사자의 말 가운데 엘리야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암시된 것을 참조하라). 왕이 엘리야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가? 여기 왕실이 파견한 군사력에 의해 위협받는 무방비 상태의 선지자가 있다. 왕은 선지자를 처치하기 위해 근위병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제 우리는 기능을 고려할 차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왜 불이 내려왔는가(왕하 1:10b, 12b)? 이런 형식으로 심판을 내리신 여호와와 목적은 무엇인가?

열왕기상 18 장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왕기하 1 장을 이해할 수 없다. 열왕기상 18 장은 갈멜산에서 여호와 대 바알의 “신 경연 대회”에 관한 것이다. 불은 그 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왕상 18:24).”] 바알이든 여호와이든 불을 내려 응답함으로써 참 신인 것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왕상 18:21, 23-24, 36-39). 그것은 증거의 문제였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 장에 나오는 불의 기능이다. 아, 그것은 불필요했어야 했다. 아하시야 왕은 불과 몇 년 전에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시대착오적으로 말하면) 모든 주요 뉴스 방송사들이 다루는 공개적인 황금 시간대 사건이었다. 그것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는 사람들의 간담을 썩늘하게 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갈멜산의 날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고 바알은 유감스럽게도 실체가 아니라는 요점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그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긴급한 건강 관리가 필요할 때, 바알(왕하 1:2), 곧 패자 바알(왕상 18 장)에게 호소한다. 어떤 사람이 너무 멍청하고 “우둔해서” 왕상 18:38 의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더 많은 불을 보낼 것이다(왕하 1:10b, 12b)! 요점은 똑같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불은 (열왕기상

¹²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376.

¹³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34. 그리고 Walter Brueggemann, *1 and 2 Kings*, Smyth & Helwys, 2000), 285 도 참조하라.

18 장에서처럼) 입증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 아하시야 덕분에 102 개의 그을린 유골이 보여주듯이) 파괴적이다. 일계명은 여호와께 정말 중요한데, 아하시야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¹⁴

그러나 불은 **보호** 기능도 한다. 여기서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곧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신의 선지자를 방어하시는 수단이다. 왕상 18:4, 13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으신다. 심지어 엘리야 자신의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세벨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 프로그램으로부터 면책권을 주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엘리야가 아하시야의 손아귀에서 보호된다. 이것의 의의(즉 상징적 가치)는 무엇인가? 아하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억누르고 증인을 침묵시키려는 모든 왕국, 모든 왕좌, 모든 통치자, 모든 정부의 권력을 대표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작은 시나리오는 어떤 왕도,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군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지 않는가?

아마도 코넬리우스 마르텐스는 또 다른 적절한 사례일 것이다. 1920 년대 소련의 침례교 설교자였던 마르텐스는 분명히 심문을 받기 위해 지역 공산당 우두머리의 사무실로 끌려간 적이 있었다. 공산당 우두머리는 두 부하에게 마르텐스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했지만, 마르텐스는 그들에게 자기 옷을 벗기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덧붙여 말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만약 그분이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결정하셨다면, 당신은 여기서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이 마지막 말은 공산당 우두머리를 격분시켰다. “당신의 신이 당신을 내 손에서 구하지 못할 것임을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는 권총을 들어 마르텐스를 당장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얼어붙었다. 그는 세 번이나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관상동맥 발작을 일으킬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총을 내려놓고 마르텐스가 무슨 죄목으로 기소되었는지를 하급 관리에게 물었다. 그 관리가 대답하였다. “그는 침례교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까?” 그 우두머리는 마르텐스에게 썩 꺼지라고 명령했다.¹⁵

¹⁴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기적을 갈망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이 본문의 기적(불을 보내심)은 믿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불신에 대한 심판이다.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하시야처럼 거의 희망이 없는 불신 상태에 있어야 한다. 기적은 하나님의 기쁨의 표시라기보다는 우리의 비뚤어짐의 표징일 수 있다.

¹⁵ James and Marti Hefley, *By Their Blood: Christian Martyrs of the Twentieth Century*,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6), 233-34.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정없이 으깨졌던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그들의 피는 깊숙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때때로 그 모든 것의 한 가운데서 교회의 주님은 이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무참히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를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거룩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작고 어리석고 아하시야와 같은 권력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기 때문이다!

III.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는 하나님 (왕하 1:13-15 The God who deflates our pride)

주전 850 년에 케이블 텔레비전 뉴스 보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기 한 오십부장이 막사에 앉아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모니터에 눈을 붙이고, 최근 발생한 비극의 생중계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 응급 차량이 현장으로 돌진하는 장면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 그때 궁전으로부터 급송 공문서가 이 오십부장에게 도착한다. 그는 “50 명을 데려가라...”는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 세 번째 오십부장은 이전의 오십부장들(왕하 1:9, 11)과 달리 오만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그의 자세와 목적과 간청에서 그들과 다르다. 그의 자세는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왕하 1:13b)” 것이었다. 그의 목적은 엘리아에게 은혜를 “간구하는(왕하 1:13c)” 것이었다. 그의 간청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왕하 1:13d).”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사람은 이전 두 파견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다. 왕하 1:14 에서 그는 “저는 제가 파멸의 1 센티미터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까지 한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는 간청했고, 그는 떨었다. 그래서 그는 살았다.

이 단락에 대한 나의 이전 연구에서 나는 보통 이 세 번째 오십부장의 반응을 무시해 왔다. 나는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반응은 처음 두 명의 오십부장의 반응과는 정반대이다. 확실히 저자는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기를 원한다. 아마 저자는 여기 세 번째 오십부장의 말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분노에 대한 반응의 좋은 모범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길 원했을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그들은 우리의 동기가 더 긍정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이 오십부장을 몰아넣은 단순한 공포와 같은 비굴하거나 부정적인 것에 의해 회개하도록 몰려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오십부장은 엘리아 곁에서 산채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고, 그런 감상적인 것이 터무니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공포인 한,

공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오십부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주는** 공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 웅덩이가 되는 것보다 떨어서 살아 있는 것이 더 낫다.

1756년 8월, 조지 화이트필드가 윌리엄 그림쇼의 요크셔 교구에서 설교했을 때, 청중을 사로잡은 것도 비슷한 두려움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림쇼는 교구 교회의 남쪽 벽 밖에 높은 강단을 지었다. 그 때 청중의 수는 교회 건물의 수용 능력에 제한되지 않았다. 화이트필드는 거기에 서서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했다. 기도 후에 그는 엄숙히 본문을 발표했다. 그것은 히 9:27 이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막 진행하려고 했지만, 회중 가운데서 들려오는 거친 비명소리에 가로막혔다. 그림쇼 목사는 서둘러 조사를 시작했고, 몇 분 후 화이트필드에게 돌아와 “불멸의 영혼이 영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잠시 후 화이트필드는 다시 자신의 본문을 발표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

또 다른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군중들의 또 다른 부분에서 들려왔다. **두 번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혼란이 다소 가라앉은 후, 화이트필드는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죽은 듯이 고요한 청중에게 그의 본문을 다시 발표하며 예배를 계속 진행했다.¹⁶ 여러분은 그들이 그날 그 본문에 관하여 화이트필드의 설교를 경청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했는가? 공포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말 공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시무시했지만 불건전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들을 겸허하게 만들어 경청하게 했다면, 그것은 불건전한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뉴턴의 찬송가의 첫 번째 연을 지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은혜**였다.”

IV. 자신의 위협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왕하 1:17-18 The God who delivers on his threats)

엘리야는 세 번째 오십부장과 함께 내려와 아하시야 왕에게 이르렀다. 서로 주고받는 면담은 없었다. 엘리야는 왕이 사자들을 통해 이미 듣고 거절한 동일한 말씀(왕하 1:3-4, 6), 곧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로 끝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왕에게 그저 선언할 뿐이었다(왕하 1:16).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왕하 1:17a).” 저자의 논평은 직접적이고 아주 간결하다. 마치 “당연한 것 아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열왕기상하의 본문에서 되감기 혹은 빨리 감기 단추를 누를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

¹⁶ Faith Cook, *William Grimshaw of Haworth*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7), 192-94 (citing, in part, A. C. H. Seymour.)

그러니 나로 여호와와의 말씀의 성취가 열왕기상하의 주요 주제라는 독단적인 견해를 취하게 하라. 여기에 또 다른 적절한 사례가 있다. 저자는 왕하 1:16-17a 에서 여러분이 그것(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분은 그분의 위협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러나 이 요점은 양면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위협을 그렇게 확실히 이행하신다면, 그분의 약속도 그만큼 확실히 이행하실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것은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요점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확언은 그분의 심판만큼 신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양떼는 요 6:37 혹은 요 14:3 을 볼 때 그것을 알아야 한다.¹⁷ 아하시야 왕은 여호와와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한 한 측면만을 경험했지만, 그 확실한 말씀은 여러분을 산산이 부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을 분쇄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다.

저자는 거의 관습적인 공식을 사용하여 아하시야의 통치를 정리한다(왕하 1:17b-18).¹⁸ 롱은 이 이야기의 특이한 성격에 관심을 기울인다.

모압의 배반에 대한 짧은 설명(왕하 1:1)을 제외하고 이 내러티브가 그의 통치에 대해 보고된 유일한 사건이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가 아니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¹⁹

그렇다면 아하시야의 짧은 재임 기간에 관한 이 기록에 대하여 뭔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아하시야는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전부이다. 그것은 슬프고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아하시야가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다. 하나님이 초점이다. 나는 대지에 제시된 요점들을 진술하는 방식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려고 애썼다. 여러분은 그분을 상대해야 한다. 물론 여러분은 이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전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여러분은 그것이 원시적인

¹⁷ [역자 주]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¹⁸ 왕하 1:17b 의 연대 문제는 열왕기하 3 장을 다룰 때 이야기할 것이다.

¹⁹ Burke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17.

수준의 종교를 다룬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불쾌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분은 그것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있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왜 하나님은 아하시야에 대해 그토록 관대하지 않으셨는가?
2. 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큰 모욕이 되는가?
3. 왜 아하시야는 어려울 때에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는가? 여호와보다 바알이 더 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여러분은 102 명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행위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 두 오십부장에 대한 에피소드와 갈멜산 에피소드 사이에 병행되는 것은 무엇인가?
6. 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그분의 위협을 심각하게 따르지 않는가?

2. 하나님 나라의 지각변동 (왕하 2 장 Seismic Shift in the Kingdom of God)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가 열정과 패기, 역동성과 활기로 가득 찬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읽다 보면 지칠 수 있다. 1912년 10월 14일, 그는 밀워키에서 신민족주의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그가 강당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 루즈벨트의 주치의는 그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간청했지만, 그는 강당으로 향했고 거기로 가겠다고 고집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총에 맞았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긴 연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런 다음 코트 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원고를 꺼내 90분간 연설을 계속했다!² 1919년 루즈벨트가 죽었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은 유럽의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전보로 “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마치 그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루즈벨트는 그 자체로 한 시대였던 것이다.

I. 우려 (Apprehension)

그것이 열왕기하 2장의 분위기인 것 같다. 1절 상반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이야기이다. 관련된 모든 사람, 즉 엘리야(왕하 2:9)와 엘리사(왕하 2:3b, 5b)와 선지자의 제자들(왕하 2:3a, 5a)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에는 억눌린 긴장의 분위기가 있다(왕하 2:1-6). 남은 자들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마음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엘리야가 떠나면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왕하 2:12에 나오는 엘리사의 외침은 엘리야가 얼마나 존경받았는지를 암시한다. 여기서 엘리사가 말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엘리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병거와 말은 군사적인 물품이었다. 엘리야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¹ 이 장의 많은 자료는 나의 이전 논문인 “The Kingdom of God in Transition: Interpreting 2 Kings 2,”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6 (1984): 384-95.”에 나왔던 것이다. 형식은 다른 모양이지만 많은 내용을 다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것에 대하여 *WTJ* 편집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매우 자극적인 논문인 Graham Beynon, “Chariots, Whirlwinds and Jesus—2 Kings 2:1-25,” 12 이하도 참고하라. 이 논문은 www.beginningwithmoses.org에서 볼 수 있다. 베이논은 열왕기하 2장을 성경 신학의 더 넓은 맥락에 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의 증언을 설명하려고 한다.

² Paul F. Boller, Jr., *Presidential Campaigns* (New York: Oxford, 1985), 195.

갖고 있다는 것과 같았다.³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방어 체계였다. 누군가 말했듯이, 엘리야는 “군대의 사단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사라졌다. 아니면 그렇게 보였다. 바알에게 입맞추는 정권과 선지자를 죽이는 압제의 한 가운데서 엘리야는 몸으로 막고 있었다. 이제 여호와와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한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한다.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과도기이고 지각 변동처럼 느껴진다. “사자”가 데려가심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II. 성가심 (Vexation)

우리는 잠시 벗어나 열왕기하 2 장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우리가 많은 성경 비평가들처럼 기적에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면, 이 내러티브는 몇 가지 어려움을 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아주 솔직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 내러티브의 세계는 확실히 현대 독자의 세계가 아니다. 물이 기적으로 갈라진다.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곰들이 숲에서 나온다. 마술적 의식이 오염된 샘을 정화시킨다.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위로” 올려 하나님께로 데려간다.⁴

이 논평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주요 취지는 정확한 것 같다. 나의 반응은 성경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만약 열왕기하 2 장에서 그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성경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은 특히 일부 학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기이하거나 잔인하거나 둘 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존 그레이는 우리에게 벤엘에서의 에피소드(왕하 2:23-25)는 “모든 면에서 유치한 이야기”이고 “이 사건에는 심각한 요점이 없다.”라고 역설한다.⁵

그러나 “장르”라는 주문(呪文)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다. 모든 해석에서

³ Raymond B.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1999), 85. 그런데 불수레와 불말은 엘리야가 타고 가는 운송 수단이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것들은 단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왕하 2:11).

⁴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157.

⁵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479. 그레이는 기탄없이 말한다. “엘리야가 여호와와 이름 불려 소년들을 저주하므로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가정은 위대한 대중적 인물에 대한 경멸이며, 신성모독에 가깝다(480 쪽).” 후자(신성 모독)에 대한 고려가 그레이로 하여금 그의 주석에서 내린 일부 결론을 말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신기하다.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문학의 유형(장르)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열왕기하 2 장의 자료는 "전설"이라고 불린다. 전설이란 놀랍고 기적적인 일을 부각시키지만 일어난 그대로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말한다.⁶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런 본문들을 "협소한 역사적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⁷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많은 학문에서 기적은 전설을 상징한다. 물론 예언적인 전설에 일말의 진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선지자들을 숭배한 자들이 환상적인 "기억"(예: 왕하 2:23-25 에 나오는 엘리사에 대한 과대 포장)으로 부풀렸기 때문에 원래의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문학적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고대 근동 문학에서 예언적인 전설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열왕기하 2 장의 이야기들이 다른 여러 표본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고대 근동 자료에는 "예언적 전설"이 없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2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학자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가? 그러나 그러한 식별을 위해 비교할 만한 문헌 자료가 우리에게 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전제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성경 저자들이 역사적 자료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학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임을 감지하게 된다.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이다. 우주가 닫힌 체계라고 가정한 데서 성경에 생긴 19 세기의 숙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가정에 대해 이미 충분한 불신을 갖고(참고, 막 9:24)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록들을 예언적인 내러티브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능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손을 더럽히셨다는 것을 인정한다.⁸

⁶ Burke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29, 34-35, 304.

⁷ Terence E.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9), 139.

⁸ 나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하우스의 논의(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50-58)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III. 관찰 (Observation)

강해로 나아가기 전에 열왕기하 2 장의 통일성과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두 가지 문학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문학적인 구조에 주목하라. 지리가 이 장을 구성하고 있다. 원래의 출발지는 길갈(왕하 2:1, 여리고와 요단 근처에 있는 길갈은 아닌 것 같음)이고, 최종 목적지는 갈멜산을 경유하는 사마리아(왕하 2:25)이다. 그러나 이 두 지점 사이에 뚜렷한 지리적 패턴이 발견된다.

엘리야 } 그리고 } 엘리사 }	벤엘, 왕하 2:2 여리고, 왕하 2:4 요단, 왕하 2:6
엘리사 } 혼자 }	요단, 왕하 2:13 여리고, 왕하 2:19 (18 절 참조) 벤엘, 왕하 2:23

열왕기하 2 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저자가 18 절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여리고와 벤엘 에피소드를 포함시켰다. 나는 이 지리적 패턴이 매우 의도적이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 에피소드(왕하 2:19-22)와 곰 에피소드(왕하 2:23-25)가 문학적 터전을 찾아 떠돌던 뿌리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내러티브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준다. 이 부분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의식적인 지리적 문학 패턴이 파괴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의 통일성에 대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 패턴은 엘리사가 정말로 엘리야의 영(왕하 2:9)에 대한 장자의 몫(참고, 신 21:17)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며 똑같이 능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열왕기하 2 장의 위치를 살펴보자. 그것은 아하시야에 대한 결론 공식(사망 공식, 왕하 1:17-18)과 여호람/요람에 대한 서론 공식(등극 공식, 왕하 3:1-3) 사이에 나온다.⁹ 우리가 열왕기하 2 장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 버릴 수 있고 결코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⁹ 왕하 1:17-18 에 주어진 연대는 왕하 3:1 에 주어진 연대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열왕기하 3 장을 다룰 때 이 어려움을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1 장의 끝은 아주 자연스럽게 3 장의 시작 부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이것을 어떤 이들은 열왕기하 2 장이 현재의 자리에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증거로 삼는다.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설명은 저자나 편집자가 천부적으로 지성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야기의 예측 가능한 흐름을 중단하고 이 엘리야-엘리사 이야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삽입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중요했다. 여호수아 1 장이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열왕기하 2 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제기하며 대답한다.

IV. 강해 (Exposition)

그렇다면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조용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왕하 2:1-6). 그러나 이 장은 하나님 백성이 처한 변화무쌍한 상황 중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닳들이 있다고 시사한다.

i.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한다 (왕하 2:7-15 God's power still reaches us)

이 부분(왕하 2:7-15)을 감싸고 있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에 대한 두 가지 짧은 설명(왕하 2:7, 15)이다. 나는 그들이 요단 강에서 일어났던 일은 보았지만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들은 엘리야가 자기 겹옷을 말아 요단 물을 치는 것을 보았고, 요단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왕하 2:8).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엘리사가 전에 자기 위에 던져졌던(왕상 19:19) 그 겹옷을 가지고 홀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겹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정말 그분은**—어디 계십니까?” 하고 말했다.¹¹ 그리고 그가 물을 칠 때 물이 이리 저리 갈라졌다. 그래서 엘리사는 건넜다. (왕하 2:14 데이비스 번역)

¹⁰ 여호수아 2 장에 대해서도 똑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나의 책 *Joshua: No Falling Word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29[= **여호수아 주해**, 11-12(2 장 I.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고백)]에 나오는 나의 논의를 보라.

¹¹ 나는 카일을 따르며 [아프 후]를 “심지어 그분은, even he”라는 강조 어구로 여긴다.

[역자 주] אֵלֹהֵי אֱלִיָּא | אֵלֹהֵי אֱלִיָּא אֵלֹהֵי אֱלִיָּא | אֵלֹהֵי אֱלִיָּא אֵלֹהֵי אֱלִיָּא [바요메르 아예 아도나이 엘로헤 엘리야후 아프-후 바야케 에트 하마임 ...]에 대한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 [아프 후]를 선행하는 의문문과 함께 가는 것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YLT, Davis, Hobbs) 뒤에 나오는 동사문과 함께 가는 것으로 번역한

엘리야가 했던 일을 이제 엘리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요점을 이해하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왕하 2:15).”라고 말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은 여전히 엘리사를 통해 유효하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왕하 2:14 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특정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열왕기하 2 장 8 절과 14 절의 사건은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끊으시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3-4 장의 사건을 분명하게 재현하고 있다. 다만 여기 열왕기하 2 장에서 요단 물의 가름은 그렇게 공개적이지 않다. 여기에서는 남은 자들 중 한 그룹만 그것을 본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물의 가름을 재현할 때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주전 1400 년의 하나님은 주전 850 년에도 똑같이 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팔은 위축되지 않았다.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다른 시대, 곧 결국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할지 상상해보라.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문화적 문제에 직면했고, 세계의 정치적 상황도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아무리 전위적으로 보일지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의 하나님(수 3-4 장)은 철기 시대(왕하 2 장)에도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이 논점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여전히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성령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인도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사역들은 오순절이나 종교개혁이나 18 세기 부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또한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글을 쓰면서 이제 목회자가 된 두 명의 제자가 생각한다. 이들은 자기 회중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분명한 징후를 보고 있다. 이것은 변화한 도시의 신나는 새

것도 있다(KJV, NKJV, NASB, 개역/개역개정). 대부분의 영어 성경(ESV, NIV)과 한글 성경은 [아프 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Davis: And he took Elijah's mantle which had fallen from him and struck the waters; and he said, '**Where is Yahweh, the God of Elijah—even he?**' So he struck the waters and they divided this way and that; and Elisha crossed over. (cf. YLT)

NASB: He took the mantle of Elijah that fell from him and struck the waters and said, "Where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And when **he also** had struck the waters, they were divided here and there; and Elisha crossed over. (cf. KJV, NKJV) = 개역개정: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ESV: Then he took the cloak of Elijah that had fallen from him and struck the water, saying, "Where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And when he had struck the water, the water was parted to the one side and to the other, and Elisha went over. (cf. NIV)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식료품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작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의 전통적인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왕하 2:14 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것을 보았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왕하 2:15).” 엘리사는 여호와와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왕하 2:8, 13-14).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종들을 우상화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아마도 “엘리야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궁금해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엘리사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14 절)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종들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바뀌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속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종들을 때때로 제거하시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우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도구를 통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의 힘에 시선을 집중할 것이다.

이 점은 칼빈의 장례식에 대한 에마누엘 스티켈버거의 설명을 생각나게 한다.

칼빈은 자기 장례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었다. 어떤 것도 자기 장례식이 어느 다른 시민의 장례식과 구별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의 시신은 흰 수의로 꿰매어 수수한 소나무 관에 안치되게 해야 했다. 무덤에서는 말도 노래도 없어야 했다.

고인의 소원은 철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유언에 따라 모든 화려함은 피했지만 수많은 군중이 깊은 존경과 침묵의 슬픔으로 관을 따라 플레인팔레(Plainpalais) 공동 묘지로 향했다.

모든 야망을 싫어했던 사람은 묘비조차 원하지 않았다. 불과 몇 개월 후 외국인 학생들이 그 종교개혁가의 유골이 안치된 곳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새로운 봉분들 사이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¹²

아주 적절하다. 우리에게 칼빈이 섬기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칼빈 동굴이 필요한가?

¹² Emanuel Stickelberger, *John Calvin* (Cambridge: James Clarke, 1959), 151.

ii.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를 안정시킨다 (왕하 2:15b-18 God's wisdom still settles us)

본문은 지혜가 중요하고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부복하는 것(왕하 2:15b)은 분명한 사실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것(왕하 2:14)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부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복종하지 않았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유해를 찾기 위해 일행을 보내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만(왕하 2:16) 그들은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강청한다.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못해 허락한다(왕하 2:17a). 그 수색은 헛수고였다. 그들은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는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소유자이다.

지혜는 중요하다. 몇 달 전에 나는 우리 지역 신문의 1 면에 실린 사진과 간단한 설명이 실린 기사를 보았다. 두 남자가 차를 훔쳤고, 잭슨 시 경찰은 추적 중이었다. 도둑들이 교차로에서 회전하려다 콘크리트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추격이 끝났다. 한 용의자는 수갑을 찬 채 바닥 등을 대고 누워 구급대원의 주의를 받았다. 이 이야기에는 특이한 반전이 있었다. 용의자들은 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쌍의 펜치(pliers)를 사용하여 차를 조종하고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핸들이 "곤봉"이나 잠금 장치로 고정되어 있으면 도둑들은 핸들을 통째로 떼어낸다고 말해 주었다.) 이해하기 바란다. 나는 자동차 도둑질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분명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고속 추격에서 한 쌍의 펜치로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자동차를 훔치기로 결심한다면, 항상 핸들이 있는 자동차를 훔쳐야 한다. 그것은 단지 지혜일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범죄자이자 바보이다.

교회는 자동차 도둑들과 선지자의 제자들과 상당히 비슷하다. 교회는 지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엘리사의 여정에서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 지혜는 하나님의 더 번뜩이는 선물 중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조용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종종 파도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 잔잔하다. 지혜는 이용 가능하지만(약 1:5—그것이 인내로 시험을 이겨내는 요령이 있는 지혜임에 유의하라, 2-4 절),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다.

회중은 그 구성원 중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의료 검사 결과가 나온다. 암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연히 성도들은 매우 기뻐한다. 장로교인들도 그런 일에 열광한다. 그러나 그들이 또 다른 신자가 (신용 카드들이 그로 과도하게 구매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신용 카드들을 잘라서 버리고 빚을 갚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누가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겠는가? 그것은 지혜일 뿐이다. 또는 한 목회자가 성령께서 말씀의 꾸준한 가르침을 사용하시어 교구에 있는 한 남편이요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는 그것을 보고 흥분한다. 그러나 그 동일한 목회자가 아내에게는 알 권리가 없는 기밀 정보를 그녀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에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지혜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그것을 높이 평가하겠는가?

iii.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킨다 (왕하 2:19-22 God's grace still thrills us) 엘리사는 여리고에 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있고 사해 북쪽 끝에서 약간 위쪽에 있다. 여리고는 물 공급에 문제가 있다. NIV와 NASB 에 의하면 그 땅은 "비생산적"이거나 "열매가 없다(왕하 2:19)." 그러나 이러한 번역들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내 판단으로는, 새예루살렘성경(NJB)이 그 의미를 더 잘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읍은 살기는 좋은데 물이 나쁘고 마을 사람들은 유산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고생하다"는 번역은 히브리어 동사 [샤할]의 의미를 더 잘 포착하고 있다(K-B, 4:1491-92 참조). 더욱이,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물을 "고치셨다"고 발표하며 이 물이 더 이상 사망이나 유산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성읍 사람들에게 장담한다(왕하 2:21). 그 문제는 비생산적인 땅(참조, NIV)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물 공급에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가축과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러므로 왕하 2:19 이 "땅이 유산한다"라고 말할 때, 나는 "땅"을 그것의 거주자, 즉 가축과 사람들에 대한 암호로 받아들인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¹³ 소금을 담아 오라고 요구한다. 그는 이 물품들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져가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선언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유산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왕하 2:21)." 그리고 저자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왕하 2:22)."고 덧붙인다.¹⁴

¹³ [출로히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기에만 사용되었다. 가장 좋은 추측은 그릇 혹은 작은 용기라고 보는 것이다(참고, K-B, 3:1027).

¹⁴ 출 15:22-26 의 마라 이야기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왕하 2:19-22 과 아주 흥미로운 유사점을 갖고 있다. 그 경우에도 물에 문제가 있었는데(쓴 물, 출 15:23),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물 속에 나무(혹은 나무 조각)를 던지자(출 15:25 [살라흐], 여기 왕하 2:21 과 같은 동사) 물이 달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언약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소금 때문에 질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소금을 담은 새 그릇—그것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많은 기적들에서 능한 일에 수반되는 일종의 가시적인 행동을 만난다.¹⁵ 소금은 외적인 표징이고 말씀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물들을 고쳤다’라고 하셨다(왕하 2:21).” 그러므로 이 에피소드에서 가시적인 표징과 선포된 말씀의 사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그 은혜의 변화시키는 영향을 강조한다.

잠시 여리고와 관련된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리고라는 장소는 중요하다. 우리는 여기에 이전의 본문들을 끌어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¹⁶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 정죄받은 곳을 감히 재건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수 6:26)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던 어두운 아합 시대에, 한 건축업자가 그 도전에 응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아합]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왕상 16:34)

히엘은 그의 업적을 위한 기념물로 적어도 두 개의 무덤을 갖게 되었다. 여리고는 저주가 선언되고 내려진 곳이었다. 여리고는 저주 아래 있는 곳이었다.

이 배경은 왕하 2:19-22 에 중요하지 않은가? 저주 아래 있는 성읍이 이제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파괴적인 말씀을 선언하셨던 곳이 이제 치유적인 말씀을 즐기고 있다. 오래

신실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치료자(출 15:26 [로페], 여기 왕하 2:21, 22 에 사용된 동사 [라파]의 분사형)”로 계속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이 따른다.

¹⁵ 어떤 이들은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한다. 예를 들어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46 을 보라.

¹⁶ 이 부분에 대해 나는 에드 헐리 목사님께 큰 빛을 지고 있다. 나의 성경 해석학을 들던 학생일 때 그는 처음으로 여호수아 6 장과 열왕기상 16 장이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에게 지적해 주었다.

전 마라에서(출 15:22-26), 여호와께서는 파괴하기보다 치료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다. 여기 열왕기하 2 장에서 저주의 성읍(Curseville)이 은혜의 성읍(Graceburgh)이 되게 하셨다. 이 사건은 여호와 자신의 성품에 대한 카메오가 아닌가? 여호와께서 저주에 시달리고, 죄에 짓눌리고, 심판을 받는 상황들을 생생한 색채로 자신의 은혜의 에피소드로 바꾸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보라. 그것은 진실이라기에는 너무 좋고, 제정신인 죄인들이 바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 본문의 증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이런 여리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 집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목사라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닐까? 과거에 두 번의 낙태를 경험한,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여인을 위한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 본문은 고의로 반역적이고 죄로 뒤틀린 결정을 한 것을 되돌아보고 여전히 절망하는 사람, 곧 오래 전에 눈물과 진심으로 회개하였을지라도 그의 삶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 다시는 하나님의 미소의 햇빛을 결코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냐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여러 해 전에 당신은 결혼 생활을 오염시키고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으나 마침내 고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납하셨지만 결코 당신을 환영하거나 기뻐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 때때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목살을 움켜잡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이봐요, 당신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라고 물을 때, 우리는 “나는 당신을 여리고로 데려갈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외칠” 것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자기 백성의 상한 것을 싸매시고, 그분이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사 30:26)”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

iv.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한다 (왕하 2:23-25 God's judgment still frightens us)

글쎄, 어쨌든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해야 한다**. 이 작은 구절에는 온갖 종류의 반대론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가 얼마나 유머가 없고/없거나 야만적인지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다. 엘리사가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셨다면 아마도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상황을 조목조목 검토해보자. 첫째로, 그룹에 대해 살펴보자. 왕하 2:23 에 나오는 히브리어 어구는 [느아림 크타님]이다. 나는 이것을 “소년들(young lads)”로 번역할 것이다.¹⁷ 나는 엘리슨이

¹⁷ 이 번역에 대한 지지를 위해 각주 1 에서 인용된 나의 논문 392-93 쪽을 보라.

“우리가 그들을 10 살에서 12 살 사이라고 간주하면, 우리는 사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말에¹⁸ 동의한다. 둘째로, 장소에 대해 살펴보자. 벤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다(왕상 12:25-33). 그것은 80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십중팔구 그 숭배자들은 여호와와의 참된 선지자에 대한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소년들의 조롱이 그들 부모의 적개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로, 이 소년들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점에 유의하라. 본문은 “엘리사가 길에서 올라갈 때, 소년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다(왕하 2:23b).”라고 되어 있다. 그들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다. 엘리사가 벤엘을 지나는 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소년들은 엘리사에게 다가가기 위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에서 성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본문은 엘리사가 느린 걸음으로 성읍을 통과하고 있었고 소년들이 우연히 벤엘 당구장 앞에서 어울려 놀다가 선지자의 대머리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농담했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런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선지자는 성읍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밖의 길로 올라가고 있었고, 이 소년들은 성읍에서 “나왔다.” 그들의 의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

넷째로, 조롱에 대해 말해보자. “그들이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왕하 2:23c).” 여기서 “대머리”는 경멸의 용어이다. 소년들이 즉각적인 관찰에 의해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여행을 할 때 일반적인 관습대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⁹ 그러므로 그들은 그가 실제로 대머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조롱하는 가운데 그 용어를 사용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한다. 그들의 조소에는 왕하 2:11 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것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동사 [알라]가 들어있다. 아마도 소년들은 “대머리여, 당신도 승천을 하는 게 어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왕하 2:23 의 앞부분(“엘리사가 거기서 벤엘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에 두 번 사용된 [알라]와 연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조롱하는 자들이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한 것은 “계속 올라가라—바로 성 밖으로 말이야.”라는 뜻이다. 요컨대, “당신 모습을 보이지 말라(우리 성읍에서 꺼지라).”는 뜻이다.

다섯째로, 사망자의 수에 유의하라. 암곰 둘이 수풀에서 나와 “그들 중 42 명의 소년을 찢었다(왕하 2:24b).” “그들 중”이란 어구는 중요하다. 곰들이 42 명을 찢었다. “그들 중”이란

¹⁸ Ellison, *Prophets of Israel*, 47. 어쨌든 그들은 유치원에서 탈출하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5 살 짜리 꼬마들이 아니다.

¹⁹ Gray, *I & II Kings*, 480.

일부가 도망쳤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쨌든 그건 작은 무리이다.

그렇다면 왕하 2:23-24 에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만한 나이의 소년들이 여호와의 대리자에 대해 모욕, 멸시,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황은 그러했다. 이제 그 결과로 넘어가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 중 42 명의 소년들을 찢었다(왕하 2:24).” 엘리사가 여기서 한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저주였다. 그리고 곰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 곰들에 대해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것들은 언약을 위한 곰이었다. 레 26:22 의 언약 저주(“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킬 것이다.”)가 이 에피소드를 설명한다. (여호와의 대표에 대한 증오와 아마도 벤엘의 비뚤어진 숭배를 고집하는) 언약의 불성실함이 언약의 저주를 가져왔다. 엘리사의 저주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성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엘리사의 저주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짜증을 내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의 의의는 무엇인가? 적절한 대답은 장 전체를 살펴볼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엘리사는 여호와에 의해 임명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왕하 2:16-18)를 부여받고, 은혜(왕하 2:19-22)나 심판(왕하 2:23-24)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왕하 2:23-25 을 그것의 짝인 왕하 2:19-22 절과 함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함께 간다. 여호와의 말씀은 치유(왕하 2:21)와 해(왕하 2:24)를 둘 다 가져올 수 있으며, 구원(왕하 2:19-22)이나 재앙(왕하 2:23-24)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두 에피소드에서 양날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은혜(여리고)와 심판(벤엘)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전반적인 의의이다. 그렇다면 벤엘 재앙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저주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가? 그들이 언약 백성의 공인된 정식 회원일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저주의 레이더는 그분의 종들을 멸시함으로써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겸손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가? 학자적인 오만이 자주 이 단락을 기이한 이야기로 치부하지만, 매튜 헨리는 오래 전에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와 반응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사악하고 형편없는 자식들의 끔찍한 비명과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를 떨게 하라.”²⁰ 그러나 그 메시지는 우리 서양 문화의 신관, 즉 대충 말하면 신은 항상 좋은 친구임을 증명해야

²⁰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Fleming H. Revell, n.d.), 2:718.

한다는 시각과 상반된다. 현재의 복음주의 교회의 “정서”는 그러한 부정주의, 그러한 공포 신학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알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5)

교회가 회복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엘리야는 “데려가심”을 받았다. 그러나 능력과 지혜, 은혜와 심판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았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라는 바른 질문을 던졌다. 그 대답은 그분은 고군분투하며 고통받는 종들과 함께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여호와께서는 남아 계신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은 일부 주석가들이 이 단락을 하나님의 능력의 진정한 표시가 아니라 “전설”로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3.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보다는 어떤 특별한 종교 지도자와 그의 은사에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가?
4. 어떻게 여러분은 다른 신자들이 조용하게 경건한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5. 여러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날 어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6. 이 “언약을 위한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 에피소드를 더 맛있게 만드는가?

3. 우리 세 왕 (왕하 3 장 We Three Kings)

우리는 애리조나에 있는 나의 만형님을 방문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형수님은 형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높은 산에서 정오에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점심을 싸 주셨다. 누군가 당근 몇 개를 가져왔지만, 슬픈 사실은 우리가 그 점심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상대로 차 트렁크에 있지 않고 형님의 집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필요한 필수품 하나 없이도 어떤 일에 뛰어들 수 있다. 그것이 열왕기하 3 장의 상황이다. 이 세 왕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죽은 고기가 될 것이다(참고, 왕하 3:13).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것을 찾는다. 세 명의 정치인이 종교로 돌아선다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가? 그들은 말씀의 종 엘리사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강해를 전개할 것이다.

I. 하나님 말씀의 총체적인 주장 (왕하 3:1-3 The Totalitarian Claim of the Word of God)

여기서 우리는 주전 850 년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함께 있다.¹ 저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그의 종교 정책에 대해 즉시 그를 평가한다(왕하 3:2-3). 그의 평가는 히브리어 불변화사

¹ 두 명의 여호람이 있으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왕은 북왕국의 여호람(NIV 같은 역본들은 “요람”으로 번역함)으로 아합의 아들이며 아하시야(왕하 1 장)의 형제이다. 기민한 독자는 왕하 1:17b 와 왕하 3:1 이 보이는 연대상의 난제를 알아차릴 것이다. 왕하 1:17b 은 북왕국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에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왕하 3:1 은 북왕국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열여덟째 해에”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칠십인역은 1:17b 를 삭제하고 1:18 을 (3:1-3 과 많이 비슷하도록) 확대하여 여호람이 (3:1 처럼) 여호사밧의 열여덟째 해에 통치를 시작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역자 주: Brenton: “**17** So he died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which Eliu has spoken. **18** And the rest of the acts of Ochozias which he did, behol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chronicles of the kings of Israel? **18α** and **Joram son of Achaab reigns over Israel in Samaria twelve years [beginning] in the eighteenth year of Josaphat king of Juda: 18β** and he did that which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only not as his brethren, nor as his mother: **18γ** and he removed the pillars of Baal which his father made, and broke them in pieces: only he was joined to the sins of the house of Jeroboam, who led Israel to sin; he departed not from them. **18δ** And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the house of Achaab.”] 그러나 남 왕국에 섭정이 있었다면 여호람의 둘째 해와 여호사밧의 열여덟째 해 사이에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왕하 8:16 의 본문은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대신하여 섭정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보수주의적인 소원-성취가 아니다. 심지어 그레이(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481)조차도 섭정을

[라크]("오직, 단지, ...만")를 두 번 사용한다. 여호람은 악을 행했으나 **오직** 그의 부모처럼 악을 행하지는 아니했다(왕하 3:2). 그는 **오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에 몰두했다(왕하 3:3). 다시 말하면, 그는 그가 사악할 수 있었던 만큼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마땅히 의로워야 했던 만큼 의롭지는 않았다. 저자는 [수르]("돌아서다, 돌이키다")를 두 번 사용하며 동일한 강조를 한다.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에서 **돌아섰지만**(‘없애 버렸지만,’ 왕하 3:2), 그 자신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왕하 3:3b).

이 글에서 여러분은 곤두서는 조바심을 느끼는가? 여러분은 본문이 주는 이중 요점을 보는가? 한편으로, 본문은 악의 정도를 인정한다. 여호람은 적어도 원시적인 이교인 바알 숭배의 일부를 억압했다. 인정하건대, 그 사악함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끔찍하지 않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 의미에서는 더 낫다. 그러나 여호람은 세련된 이교, 곧 여로보암의 숭배(왕상 12:25-33)에 몰두했다(창 2:24 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것에 사용되었던 [다바크]라는 강한 의미의 동사가 여기 사용된 것에 유의할 것). 영어 번역들은 왕하 3:3 을 시작하는 [라크]("오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바르게 번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 몰두했다." 왕하 3:2 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기서 성경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가? 성경은 전적 복종 외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마치 저자가 역겨워서 펜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함지르는 것 같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나쁘지는 않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고 충실한 1 계명과 2 계명의 준수 외에는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

언젠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존 거스트너는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분명히 그의 설교는 우리의 타락, 죄로 인한 우리의 완전한 비참함,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없는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예배 후 한 여성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두고 거스트너 박사에게 "그 설교는 나를 이만큼 크게 느끼게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거스트너는 "그건 너무 큼니다!"라고 대꾸했다. 분명히 그녀는 죄악의 총체적인 것에 대해 뭔가를 놓쳤다. 어쨌든, 거스트너 박사가 보기에, 그녀의 죄성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이 왕하 3:2-3 의 요점이다. 사람들은 더 큰 악(바알 숭배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면서도

지지한다. 특히 Walter C. Kaiser, Jr., *A History of Israel from the Bronze Age through the Jewish Wars*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8), 297 을 참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여로보암의 혼합주의)에 몰두할 수 있다.² 우리가 더 타락한 형태의 우상숭배를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다시 한번 [다바크, '불쫄다']의 의미에 유의할 것). 그 원리는 하나이지만 그 적용은 다양하다. 전적인 충성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의 이러한 조급함은 여러분이 전심 전력을 다하길 고집하시는 불관용의 하나님에 대한 반영일 뿐이다.

II.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위험 (왕하 3:4-14 The Alarming Danger of the Word of God)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의 봉신이였다. 그는 양을 치는 자이었기 때문에 양과 양털로³ 공물을 바쳤다(왕하 3:4). 메사는 점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왕하 3:5).⁴ 여호람은 모압 양털이 이스라엘 경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반항적인 메사보다 유순한 메사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여호람은 “메사를 쳐서 다시 복종하게 하려고” 연합군을 구성하기 시작했다(왕하 3:6-7).⁵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전처럼(참조, 왕상 22:4)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아마 유다의 봉신이였을) 에돔의 “왕”과 함께 유다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여 사해 아래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남쪽에서 모압으로 접근한다. 군대와 따라가는

² 그러나 카이저(Kaiser, *A History of Israel*, 333)는 여호람이 결정적으로 바알 숭배를 버렸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부모의 바알 숭배에 대한 여호람의 태도는 단정하기 어렵다. 처음에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함으로써(왕하 3:2) 바알 숭배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그의 부모의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촉구하였기 때문이다(왕하 3:13). 그의 부모의 선지자들이란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다. 이것은 어쨌든 그런 것이 그의 일상적인 관행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호람의 후계자인 왕위 찬탈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여야 했다. ...” 여기 카이저의 설명의 마지막에 언급된 사건은 왕하 10:18-30 을 가리킨다.

³ [역자 주] 영어 성경은 대부분 “100,000 lambs and the wool of 100,000 rams.”로 번역한다. 개역개정은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로, 새번역/공동번역은 “암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로, 쉬운 성경/우리말성경은 영어 성경들처럼 “어린 양 십만 마리와 숫양 십만 마리의 털”로 번역한다.

⁴ 소위 모압 비문에 나오는 이것에 관한 모든 것을 읽어보라. D. Winton Thomas, ed., *Documents from Old Testament Times* (New York: Harper & Row, 1958), 195-98 을 참고하라. 아합이 그의 말년에 아람과 전쟁을 하는 동안(참조, 왕상 22 장) 모압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메사의 반역은 아합이 죽고 이어서 아하시야가 거의 바로 즉시 죽으면서 확실히 최고조에 달하였다. 간략한 설명을 위해 J. A. Thompson, “Moabite Stone,” *NBD*, 3rd ed., 777 을 참고하라.

⁵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350.

가축이 재난에 빠진다. 그들은 물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마실 물이 없다(왕하 3:9b).⁶ 여호람은 그 모든 혼란을 여호와와 주권 탓으로 돌린다(왕하 3:10).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졌을 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말을 들으면 모압은 곧 동맹군을 완전히 소탕할 것이다. 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떤 점에서는 둔하지만 쉽게 절망하지는 않는다. 그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다라시]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라고 묻는다(왕하 3:11a).⁷ 당황스러울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여호람의 신하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⁸ 흥미롭게도, 남왕국 왕은 북왕국의 선지자에 대하여 전해 듣고 인정한다(왕하 3:12a). 세 왕 모두 함께 엘리사를 찾아간다(왕하 3:12b).

엘리사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왜 군대와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엘리사는 먼저 사교적인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 저자는 도입문이나 왕들의 질문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첫 마디는 더욱 적나라하고 잔인하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왕하 3:13).”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갑자기 여호와와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같다. “당신의 어머니가 먹었던 바알 선지자들(왕상 18:19)에게로 가거나 당신의 아버지가 궁정에 두었던 아첨꾼들(왕상 22:6-8)에게로 가소서.” 분명히 이 군사적 원정이 있기 전에는 여호와와 인도를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궁지에 몰리자 여호람은 여호와를 찾는다. 그리고 갑자기 여호람은 여호와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왕상 3:13b 절에 다시 표현됨). (예배하고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명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는 자들을 항상 조심하라.)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대답은 조심스럽게 엄숙하고(왕하 3:14a의 맹세 공식에 유의하라) 고통스러운 정도로 직설적이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⁶ 열왕기하 2장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것(8, 14 절)은 여호수아서 3-4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끊으셨던 일을 생각나게 한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여호와와 능력이 여전히 약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물의 부족은 여호와께서 물을 공급하신 출애굽 이후의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출 15:22-27; 17:1-7; 민 20:1-13; 21:4-5 등을 참조하라.

⁷ NJB의 “consult, 상담하다, 의견을 묻다”는 히브리어 [다라시] (“구하다, 묻다”)의 번역이다. 아하시야는 여호와와 말씀(왕하 1:16)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말(왕하 1:3, 6, 16)을 구했고[다라시]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적절한 반응의 모범을 제시한다.

⁸ Robert Cohn,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2000), 21: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는 질문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의 신하로부터 엘리사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한다. 이 정보를 이스라엘 왕 자신의 입이 아니라 한 신하의 입에 넣음으로써 저자는 첫 반응이 절망인 왕을 미묘하게 폄하한다.”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왕하 3:14b).” “친절하고 은혜로운” 엘리사의 고정된 이미지가 사라진다.

이제 엘리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여러분에게 그의 말이 들리는가? 그는 여호사밧이 없었더라면 여호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두려운 함축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시나 도움을 받을 지점을 넘어버린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둘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런 위험 처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의 패턴이 여호람처럼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여호람이 그랬다. 그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길 원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에 복종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여호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상시를 위한 것으로만 보고, 평상시를 위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저 인생의 재앙시에 사용되는 에어백일 뿐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패턴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받을 지점을 넘어버린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위험이다.

III. 하나님의 말씀의 전형적인 경향 (왕하 3:15-25 The Typical Tendency of the Word of God)

엘리사는 음악을 듣고 싶었다. 음악이 연주될 때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예언을 했다(왕하 3:15). 여호와와 말씀은 물(왕하 3:16-17)과 승리(왕하 3:18-19)에 대한 이중 약속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마른 와디(시내)를 못이 되게 하실 것이고, 비록 군대가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할지라도 군대와 가축을 위한 충분한 물이 있을 것이다(왕하 3:17).⁹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완전하게 모압을 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⁹ 왕하 3:16은 영어 번역들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어려운 구절이다. 문자적으로 그것은 “Making this wadi full of pools, 이 와디를 웅덩이들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번역된다. 여기 “pools, 웅덩이들”로 번역된 단어[게브]는 구약 성경에 두세 번만 나오는데 구덩이, 개천, 혹은 어쩌면 도랑(pit, cistern, or trench)을 가리킨다. (물이 있으면 이들 중 어느 것이든 ‘웅덩이(pool)’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웅덩이를 만드실 것인가(예: ESV, RSV)? 아니면 군대가 약속된 물을 받기 위해 구덩이나 도랑을 파라는 명령을 받은 것인가(예: NASB, NIV)? 월트키와 오코너는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받아들인다(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119, 594)! [역자 주: 월트키와 오코너의 책에서 119 쪽은 “I will make this (dry) wadi into *pools*.”로 되어 있고 594 쪽은 “*Make this valley full of ditches.*”로 번역되어 있다. 한글 성경들은 모두 군대가 개천/도랑/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여호와와 그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G. H. Jones, *1 and 2 Kings*, New

당신들은 모든 요새화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칠 것이고
 당신들은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어버릴 것이고¹⁰
 당신들은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아버릴 것이고
 당신들은 모든 좋은 밭을 돌로 채워 못쓰게 만들 것이다. (왕하 3:19)

그리고 나서 저자는 이 이중 약속의 이중 성취를 스케치한다. 아침에 물이 거기에 있었고(왕하 3:20) 아침에 승리가 시작되었다(왕하 3:22-25). 그러나 왕하 3:20-25 는 우리가 왕하 3:16-19 의 엘리사의 예언에서는 짐작할 수 없었던 묘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묘안에는 물과 승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물은 모압의 패배를 가져온다. 모압 군대는 아침 해가 물에 비칠 때 그 물이 붉은 것을 보고 그것이 피이며 연합군에 자중지란으로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고 추론한다(왕하 3:22-23a).¹¹ 기뻐하며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러 돌진하다가 도리어 칼에 맞는다(왕하 3:23b-24a). 그들은 맹렬히 추격하는 연합군의 칼을 피해 도망친다. 연합군은 계속해서 모압인들을 쳐부순다(왕하 3:24b; 본문은 어렵지만 불분명하지는 않음). 그들의 승리(왕하 3:25)는 엘리사의 예언(왕하 3:19)의 성취를 보여준다. 모압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것 같다(왕하 3:25b).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이 “전형적인 경향”은 어디에 있는가? 왕하 3:18 에 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396-97, 그리고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45 을 보라

¹⁰ 어떤 사람들(예: Seow, *New Interpreter's Bible*, 3:183)은 여기서 나무를 베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신 20:19-20 의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신명기 본문은 포위 공격을 위한 목재로 쓰기 위해 식량이 될 수 있는 나무(과수)를 베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홉스(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37)의 설명대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신 20:19-20 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명기의 법은 군대의 식량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제외된다.” 여기서의 가혹함은 메사가 “모압 비문”에서 자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가한 가혹함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49 을 참조하라.

¹¹ 존 그레이는 초기 전투가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동쪽(Zered 또는 Wadi Hasa 의 머리 너머)에서 발생한 것으로 잘 설명한다. 그는 내러티브의 세부 사항을 이 지리적 제안/가정과 잘 조화시킨다. 특히 왕하 3:8, 17 에 대한 그의 주석(John Gray, *I & II Kings*, 485, 487)을 보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침입 경로가 (부분적으로는 알려진 기상 조건에 비추어) 훨씬 더 서쪽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Bruce R. Crew, “Did Edom's Original Territories Extended West of Wadi Arabah?”, *Bible and Spade* 15/1(Winter 2002): (특히) 7-8 쪽을 보라.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굶주린 온 군대를 위하여 물을 공급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엘리사는 목마른 이스라엘 군대와 가축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여호와께 “케이크 한 조각(식은 죽 먹기)”, 더 정확하게는 “작은 감자(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소한 일에 국한되지 않고 모압도 넘겨주실 것이다.¹²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경향이다. 여호와께서는 즉각적인 딜레마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요청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여호와이다.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러 그에게 나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요 1:16). 여호와의 선하심은 분에 넘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여호람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렇다(왕하 3:13-14). 물 더하기 모압은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방정식이다. 쇠약해진 군대에 물을 주시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결코 거창하지도 않고 분에 넘치지도 않다!

1950 년대에 한 회사는 아이스크림의 마케팅을 돕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컨설턴트는 현재의 아이스크림 광고들을 점검했다. 그것들은 뛰어난 품질과 맛이 있었지만 감동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는 면접관들을 고용하여 아이스크림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10 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아주 풍부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생생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농장에서 우리는 매일 밤 현관에 앉아 수프 접시로 아이스크림을 먹곤 했습니다. 당신은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풍요로움과 연결했다. 그들은 “당신의 입이 바로 거기에 빠져들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그런 심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컨설턴트는 아이스크림 제조사에게 그 광고들에서 아이스크림을 접시나 콘에 깔끔하게 다듬어 넣지 말고 콘이나 그릇에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듬뿍 담으라고 촉구했다.¹³

나는 신학을 마케팅 방식으로 전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에 대하여

¹² 우리는 사 49:5-6에서 같은 관용구와 논증을 만난다. 여호와의 종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가벼운”, 즉 (비교적으로 말하면) 아주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또 너를 **이방**[고임, ESV: nations; NIV: Gentiles; 새번역: 못 민족; 우리말성경: 못 나라; 공동번역: 만국]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저자 데이비스의 강조).” 내가 불경건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장난스러운 표현 같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은 아주 하찮은 일이다. 이 구원을 온 세계에 베풀어 이방인들을 끌어들이자. 그것이 나에게 더 어울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¹³ Vance Packard, *The Hidden Persuaders* (New York: Pocket books, 1958), 85–86.

느끼는 강력한 매력이 아닌가? 우리는 쉽게 그분의 넘치는 관대하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한 가지만 요청한 것들이 자주 3 중 축복으로 충족되어왔다. 우리는 그분이 선하신—엄청나게 선하신—분이라는 것을 안다. 그분은 그저 그런 경향이 있으시다.

그러나 이 섹션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불량배 여호람이 그런 은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중얼거린다. 물론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은택을 받은 **이유**는 다윗 계보의 왕 여호사밧 때문이었음에 주목하라(왕하 3:14 에 나오는 엘리사의 명확한 설명 참조). 여호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은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윗 계보의 왕, 곧 다윗과 여호사밧의 후손인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정확히 여호람과 같은 위치에 있다. 여러분이 하늘의 부스러기라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엄청난 자비를 받아 누리는 것은 오직 다윗 계보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IV. 하나님의 말씀의 쉬운 멍에 (왕하 3:26-27 The Easy Yoke of the Word of God)

모압의 마지막 보루는 모압 남부의 요새 도시 길하레셋인 것처럼 보인다(왕하 3:25). 메사에게 두 번의 작전이 남아 있었다. 둘 모두 절망적이었다. 첫 번째 남은 작전에서 그는 칼을 쓰는 군사 7 백명을 거느리고 에돔 왕이 있는 적진을 돌파하여 나가려고 한다(왕하 3:26). 그는 실패한다. 그래서 두 번째 수단에 의지한다. 그는 자기의 말아들, 세자를 데려와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친다(왕하 3:27). 그는 성공한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장을 떠난다.

까다로운 문제는 메사가 드린 인간 희생 제사가 그가 원하는 구원을 가져다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그의 제사에 대한 보고 다음에 나오는 “큰 분노/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절에 있다. 누구의 분노인가? 다시 말해, 누구의 진노인가? 우리의 딜레마는 이 설명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상투적인 생각, 즉 4 가지 견해에 의지할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케체프]가 일반적으로 여호와와 분노를 가리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욱이 (여기서 사용된 것처럼) [케체프 가돌](“큰 분노”)이 다른 곳에서 나올 때마다¹⁴ 그것은 여호와와 분노를 나타낸다.

¹⁴ 다른 곳에서 [케체프 가돌]은 5 번(신 29:28; 렘 21:5; 32:37, 속 1:15; 7:12) 나온다. 각각의 경우 문맥은 “큰 분노”가 여호와와 분노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여기 왕하 3:27 의 경우 명확하지 않다.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들이 우리의 결정을 저울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케체프]는 구약에서 28 번 사용되었는데 2 번을 제외하고 항상 여호와와 진노를 가리킨다. 반면에

본문이 여호와와의 진노를 가리킨다면 그분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유(Seow)는 하나님의 분노가 "전쟁에서의 초토화 정책에 대한 신명기의 금지의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왕하 3:19 에 대한 견해를 이미 거부했다(위의 각주 10 참조).

두 번째 견해는 분노가 신의 분노라는 점에서는 첫 번째 견해와 같지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의 분노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분노는 모압의 신 그모스의 것이다. 메사가 인간 제사를 드리자, 그모스가 노하여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하여 그 땅에서 도망치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⁶ 다신교의 흔적인가? 비밀의 그모스주의자가 몰래 들어와 성경 본문을 조작한 것인가? 이러한 학자들은 진지한가? 분명, 그들은 진지하다. 그러나 이 견해는 많은 구약성경 비평가들이 열왕기에 대해 갖고 있는 전제들에서도 지지될 수 없다. 그들은 열왕기가 "신명기 사가들(Deuteronomists, 신명기주의자들)"에 의해 (아마도 한 번 이상)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명기 사가들은 그들의 관점에 맞게 열왕기 자료를 구성한, 경계심 많은 신학자들이다. 그들은 이교주의를 무척 싫어하고, 혼합주의를 혐오하고, 배타적인 여호와주의를 주창했다. 만일 왕하 3:27 이 그모스의 분노와 "행위"를 언급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소위 신명기 사가들(신명기주의자들)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을 간파하였을 것이다. 그렘린(고장을 일으키는 가상의 존재)이 편집 공장에 침입하여 거기서 일하는 모든 신명기 사가들에게 진정제를 주어 그런 의미의 그런 본문이 살아남게 해야만 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이 신명기 사가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확신하는 어떤 여호와주의자라도 그모스에게 여호와와의 주권을 단 1 평방 인치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세 번째 견해는 분노 혹은 진노가 모압 사람들 자신의 것이며 메사의 군대가 "이 절망적인 행위에 초인간적인 진노로 대응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주장한다.¹⁷ 그들의 왕이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모압 군대가 격분하여 이스라엘을 전장에서

동쪽 동사[카차프]는 주어로 하나님[역자 주: 예: 신 1:34]을 취하기도 하고 인간[역자 주: 예: 예 1:12]을 취하기도 한다.

¹⁵ *New Interpreter's Bible*, 3:185.

¹⁶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400, 그리고 K. D.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Calwer, 1972), 48-49 을 보라.

¹⁷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86.

쫓아냈다는 것이다.

네 번째 견해는 분노가 사람의 분노라는 점에서는 세 번째 견해와 같지만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노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전치사 [알]을 “대항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위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알]는 문맥에 따라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진노를 가졌거나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¹⁸ 그렇다면 본문은 이스라엘이 메사의 행위에 대하여 느꼈던 진노, 공포, 혹은 혐오감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은 채 전장을 떠났다.¹⁹

지금까지 “큰 분노/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라는 절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을 감안하여 나는 네 번째를 견해를 따른다. 본문은 분노 혹은 진노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분노라면 그 근거에 대한 어떤 암시가 기대되지만 본문에는 없다. 더욱이 이 절은 메사의 인간 희생 제사에 대한 보고 직후에 나오므로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한 반응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열왕기하 3 장은 대조를 보여준다. 세 왕과 그들의 군대는 곤경에 처해 있다(9-10 절). 여호사밧의 주도로 그들은 여호와께 “물기” 위해 그분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간다(11-12 절). 엘리사를 통해 그들은 명료함과 확신을 얻는다(16-19 절). 박멸이 모압 왕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그의 거의 마지막 필사적인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다(26 절). 이때 그는 자기 신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의 만아들이요 백성의 왕세자를 성벽 위에서 신에게 바쳐보라. 어쩌면 인육을 불태우는 냄새를 맡고 그모스가 일어나 보살펴주지 않겠느냐?

왕하 3:27 은 이교에서 “신을 찾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여러분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 신을 강요하고 조종해야 한다(미 6:6-7 참조). 심지어 아주 충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¹⁸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33.

¹⁹ Walter C. Kaiser, Jr., *A History of Israel*, 333-34 을 보라. 카이저는 우가릿 문헌에서 그럴 듯한 비슷한 본문을 인용한다. 그리고 B. Margalit, “Why King Mesha of Moab Sacrificed His Oldest Son,”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2.6 (1986): 62-63, 67 을 보라. 덧붙여서, 우리가 여호람의 눈으로 열왕기하 3 장을 보면 그에게 반복되는 좌절의 패턴을 볼 수 있다. 그가 왕위에 오르지만(1-3 절) 모압이 반역한다(4-5 절). 그가 보복을 계획하지만(6-8 절) 군대는 물이 없게 된다(9-10 절).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지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11-12 절) 심하게 거절당한다(13-14 절). 그가 이중의 약속과 공급을 받지만(16-25 절) 점령하기보다는 물러나야 했다(26-27 절).

사람들도 혐오감을 느끼고 겁에 질려 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보는가? 그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교도들이 절망에 빠질 때 어디로 가는지 보라. 이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라. 너희는 살아 계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뇌물 없이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비할 데 없는 모든 선물을 잘 알고 있느냐?” 저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안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보물을 인식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런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모압에서는 너희가 너희 머리를 성벽에 부딪치거나 성벽 위에서 너희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지 모른다. 둘 다 똑같이 헛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주셨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빛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신 18:9-14 에 비추어 신 18:15-22 을 볼 것).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쉬운 명예가 있다. 성경의 종교를 믿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이교를 믿으라.

돈 맥클루어가 수단의 아누아크족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아누아크 신자 중 한 명이 그의 아들을 치료를 위해 맥클루어에게 데려왔다. 그 소년은 낚시를 하고 있다가 맹독의 독사에게 물렸었다. 그 아버지는 침착했고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약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맥클루어는 그 아버지를 놀리며 “왜 3 년 전처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아들에게 뿌리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건 지난 날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믿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아니면 선지자를 찾으라. 양의 피를 뿌려라.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라. 둘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신 4:7)?”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이 아는 바 겉으로는 미워하면서 은밀히 붙들고 있는 죄가 있는가?
2.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일상의 삶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분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3.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받을 지점을 넘어버린 자리에 자신을 둘 수 있는가?
4. 무슨 사악함을 볼 경우에 불신자들조차도 움찔할 것 같은가?
5. 어떻게 신자들조차도 인도나 지시를 위해 하나님 이외의 자원을 찾는 죄를 범하는가?

4. 힘 없고 이름 없는 자들의 도움 (왕하 4:1-7 Help of the Helpless and Nameless)

이제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의 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 엘리사는 여호와의 권능이 빛(왕하 4:1-7), 죽음(왕하 4:8-37), 가뭄(왕하 4:38-44; 두 에피소드), 질병(왕하 5:1-27), 어려움(왕하 6:1-7)을 이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꽤 지속적인 주장이다. 우리는 이 단락(왕하 4:1-6:7)을 마가복음(막 4:35-5:43)에 나오는 일련의 예수님의 기적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엘리사의 이야기 중 일부는 확장된 내러티브(예: 열왕기하 5 장)이지만 다른 것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데 인색한 매우 짧은 이야기이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하는 본문인 왕하 4:1-7 은 후자에 속한다.

때때로 그러한 짧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어렵다. 그런 간결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실용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는가?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는 언젠가 **빈 그릇과 기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왕하 4:1-7 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것에 대하여 말한다. 그 메시지의 요점은 “우리가 자아를 비우는 정도에 맞추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이었다.¹ 이 메시지에 따르면, 결국 기름은 항상 성령의 상징이다. (참고: 해석학적 가정에 “항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태롭다.) 이처럼 간결한 본문이 “유용한” 본문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는 본문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든 더 신나게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본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왕하 4:1-7 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주전 840 년경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기록되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힘 없고 이름 없는 자들의 도움**이시라는 계시였다. 그것이 참조점(맞점, anchor point)이다. 본문이 제공하는 섬광들을 통해 본문을 접근해보자.

I. 하나님의 절망적인 백성 (왕하 4:1 God's Desperate People)

여기 이중으로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했고, 그 슬픔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파산으로 아들들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들은

¹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1), 198. 카이저는 또한 일부 청중이 그 메시지를 들은 후에 보인 회의적인 반응을 우연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요점은 기름이 항상 성령을 의미한다면, 왕하 4:7 에서 그 여자는 나가서 성령을 팔아 빛을 값으라는 말을 들은 셈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부양 수단이자 생명줄이다. 그러나 그들이 빛을 갠기 위한 노예가 되어 끌려간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채권자가 필시 가혹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정말 그랬는지 우리는 모른다.² 아마도 그는 단지 그의 권한 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을 것이다.³ 그 아들들은 상당한 액수의 빛을 갠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부는 죽음과 궁핍 이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녀의 절망에는 그것들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 그녀의 말에 유의하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왕하 4:1).” 그녀의 남편은 여호와와 그분에 대한 참된 경배에 신실했었다. 그러한 충성은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었던 시기에 행해진 것이었다.⁴ 그것은 이세벨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숙청했던 아합 통치 시기이었을지도 모른다(참고, 왕상 16:29-34; 18:4, 13).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시기들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왕국에는 항상 종교적 “현상,” 곧 국가의 지원 아래 벰엘에서 자행된 왜곡된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다(왕상 12:25-33). 어쨌든 이 엘리사의 제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당시의 종교적 풍조를 거스르고, 그의 문화와 정부의 흐름에 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앙에 직면한다. 여러분은 그녀가 표현하는 어려움을 느끼는가? 우리는 이것을 백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만나지 않는가? 여기 그리스도를 희생적으로 섬겼으나 이제 암이 재발한 기독교인 여인이 있다. 여기 미시시피 델타의 한 농부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의 농작물은 2 년 연속 실패했고 곧 그의 농장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 아니면 여기 독실한 기독교인 남편이요 아버지가 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학교 농구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그들을 들이받아 모두 죽게 한다.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와 있습니다.” 이

² 우리는 이 채권자를 크리스마스 신화에 나오는 베들레헴 여관의 주인과 같은 괴물로 만들 근거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채권자가 그녀의 최근의 슬픔을 감안하여 유예 기간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다.

³ 빛과 빛 청산을 위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Ze'ev W. Falk, *Hebrew Law in Biblical Times*, 2nd ed. (Provo, UT: BYU, 2001), 93-97 을 참고하라. 우리는 그 채권자가 이자를 부과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동포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출 22:25; 레 25:35-38). 그러나 성공회 교인과 장로교 교인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율법을 짓밟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법은 20%에서 50%에 이르는 이자를 부과하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관습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귀금속보다 곡물에 더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바벨론 시대에 보리에 대한 이자는 33 1/3%이었고 은에 대한 이자는 20%였다(J. E. Hartley, “Debt,” ISBE, 1:905, 일부 Saggs 의 말을 인용하고 있음).”

⁴ M. Cogan and H. Tadmor, *//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56 을 참조하라.

여인은 이 영원한 수수께끼에 직면하여 여호와께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은 **신실한** 신자의 절망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을 보는가? 그녀가 여호와와 종인 엘리사에게 “울부짖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그녀의 믿음은 그저 달라붙고, 그저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것은 추측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앞에 그 문제를 놓아둔다.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 당신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방식이었다(요 11:3). 권장 사항도 없고 절차의 개요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것으로 믿을 수 있으니 그냥 상황을 그분께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여호사밧의 의지 방식이었다. 여호사밧은 침입한 무리와 마주했을 때 여호와께로 향하며 투명한 솔직함으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말했다(대하 20:12).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호와께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 이 여인이 여호와와 종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한, 그녀는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짐을 엘리사에게 던질 때, 그녀는 그것을 여호와께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숙한 조합을 본다. 그녀는 곤경에 처해있고 그녀는 믿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믿음 이상의 것이 있다. 그녀의 절박함에는 **특권**이 있다. 왕하 4:1 은 그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런 다음 왕하 4:2 에 나오는 내용에 유의하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은 그것을 듣는가? 여러분은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지 듣는가? 이제 이것을 세 왕의 이전 이야기와 비교해 보라. 왕하 3:13-14 로 돌아가서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가차 없이 거부하는 것을 들어보라.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동일할지라도,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밖에 자신을 놓아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이름 없는 과부의 경우와 얼마나 다른가!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왔고 엘리사는 그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뭐가 다른지 알겠는가? 그녀는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위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142 편 2 절이 묘사하는 자비는 얼마나 대단한가!

II. 하나님의 전형적인 성향 (왕하 4:2-6 God's Typical Tendencies)

아주 작은 이야기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이야기에 그분의 방식에 대한 지문을 남기신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향을 보여주는 방식, 즉 절대적인 절차가 아니라 전형적인 패턴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구체적인 적용의 수준이 아니라 광범위한 원리의 수준에서 이러한 패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시작하시는지** 주목하라(왕하 4:2). 엘리사가 "당신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 여인은 "당신의 여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왕하 4:2b)."라고 대답한다. 분명히 그녀의 대답은 자원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원의 부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여인이 자신의 말을 마치고 잠시 멈추었다가 눈에 번쩍이는 빛을 내며 선지자에게 "아, 알겠어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부의 도움 시작 세트말입니다!"라고 외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녀는 전혀 몰랐다. 그 기름 병은 그녀의 궁핍의 표시이다.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빈약함을 강조한다.⁵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지점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지!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당신의 여종은 ...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여기서처럼 우리의 힘 없음을 상징하는 바로 그 물품을 가지고 시작하시어 그것을 그분의 도움의 수단으로 삼으실 수 있다.

그런 종류의 일은 엘라배마 남동부에서 한 번 일어났다. 1910 년경 그 지역에 목화 바구미가 도착하여 이 지역의 주요 현금 작물인 목화에 큰 피해를 입혔다. 목화 생산량은 1914 년 38,000 뭉치에서 1917 년 7,000 뭉치로 감소했다. 농부들은 바구미를 죽이기 위해 석탄산, 재, 살충제, 위스키 등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래서 일부 농부들은 땅콩 재배로 전환했고, 일부 농부들은 옥수수, 건초,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 이러한 다각화로 경제는 안정되었고 지역 사회는 번영했다. 그래서 1919 년에 상인 중 한 명이 기념비가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엘라배마 주 엔터프라이즈로 차를 몰고 가면 그런 기념비, 즉 흘러내리는 옷을 입고 축구공 크기의 17.5 파운드 철제 바구미 형상을 들고 있는 여인상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궁핍의 상징이자 회복의 시작이었다.

⁵ 본문은 흥미로운 대조를 시사한다. 기름병에 대한 단 1 번의 언급(왕하 4:2) 다음에 많은 "그릇(혹은 용기)"에 대한 6 번의 언급이 뒤따른다(왕하 4:3-6).

예수님은 마가복음 6 장에서 엘리사처럼 일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막 6:38). 그분은 “너희는 충분히 갖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들이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분은 그 오병이어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바로 그것으로 시작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추시는지** 관찰하라(왕하 4:3-5a). 이 사건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왕하 4:4) 닫힌 문 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했다. 그 과부는 그 지시대로 조심스럽게 이행했다(왕하 4:5a).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가(참조, 왕하 4:33)?

이제 그것은 완전한 비밀이 아니었다. 이웃 사람들은 그들의 여분의 도자기를 모두 빌려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아마도 우리는 그 여인이나 그녀의 아이들이 오늘날의 패스트 푸드 상점을 돌아다니며 거저 줄 빈 5 갤런 피클 통이 있는지 묻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일에 대하여 문은 닫혀야 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가 때때로 대중의 시선이나 보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조용히 은밀하게 일하신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공급에 대하여 웅성웅성하는 소리나 대대적인 축하나 종교적인 환호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 열왕기하 4 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에 대한 이 표본은 그리스도인이 여호와께서 주신 어떤 은혜에 관하여 간증해서는 **안 되는** 때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 34:4-6; 40:9-10; 66:16-19 등을 보라.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기독교 여성 클럽 오찬에서 간증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대답하기 위해 본문의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과 그리스도인의 가식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마 6:1-18 참조). 오, 우리는 여전히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를 가득 채우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뭔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일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 일부는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위한 것도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기독교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시키신 일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왕하 4:5-6).

왕하 4:5 은 과부의 완전한 순종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계속 가져오는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부었다.”⁶ 이야기는 그녀가 이웃들에게 한 부탁, 설명, 대화를 반복하지 않는다. 본문은 그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났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을 중간에서 저지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강해하는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퍼붓는 것을 듣는다. 그들은 왕하 4:6 의 끝에 나오는 “기름이 그쳤다.”라는 진술을 거론하며 한 마디 한다. “한탄하며 아, 기름이 그치고 말았어요! 그 여인이 더 많은 그릇을 얻었더라면 더 많은 기름이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군요.”라고 말이다. 물론, 이런 접근 방식도 “훈계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엘리사의 지시에 대한 그녀의 분명한 순종을 묘사하고 있고, 그녀의 기대감에 어떤 부족함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왕하 4:3-4 은 선지자의 지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왕하 4:5-6 은 여자의 순종을 전한다. 그녀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공급은 그녀의 순종을 정말로 요구했다. 응답이 있었고, 그녀가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⁷ 나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허점을 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가시화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경향이 있다.

1954 년 새해 첫날이었다. 나는 작은 소년이었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삼촌을 방문하셨다. 베이드 삼촌(어떻게 이 별명을 얻었는지 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마라.)은 라디오에서 “보울”(Bowls 하루 종일 하는 미식 축구) 경기들을 듣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경기들 중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라이스 대학교는 앨라배마와 경기를 하고 있었다. 라이스는 공을 가지고 있었다. 라이스의 러닝 백 중 하나가 달아나서 그와 골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필드를 달려가고 있었다. 스포츠 중계자는 그가 “끝까지” (혹은 그와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득점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앨라배마 선수가

⁶ 왕하 4:5b 에 나오는 동사의 어형은 분사들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독자는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생생한 그림을 본다: “그들은 계속 ... 가져왔고, 그녀는 계속 부었다.”

⁷ 아무도 예언적 마술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엘리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벤치에서 뛰쳐나와 그 라이스 주자에게 태클을 걸었다! 물론, 그건 반칙이었다. 그 선수는 경기에 합법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라이스에게 터치다운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 반칙에 놀라운 것이 있다. 그 선수는 그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라이스가 득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경기 속으로 바로 달려 들어갔던 것이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과정에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분은 보통 우리를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로 만드시는 것처럼 보인다. 놀랍게든 일상적으로든 여호와께서 공급하실 때, 그분은 자주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촉발시키도록 계획하신다.

III.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 (왕하 4:7 God's Overflowing Kindness)

그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모든 단서를 얻는다.⁸ 그는 그녀에게 팔고, 갚고, 살라는 세 가지 명령을 내린다. 기름을 팔고,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살아라. 여호와께서는 당장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호와께서는 당면한 비상 사태(빛, 부채)와 지속적인 필요(생계) 둘 모두를 주시하고 계셨다.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시기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관대하심 가운데 흔히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러나 이 “더 많은 것” 중 일부는 우리가 선호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롬 5:1-5 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의 일부를 나열한다(하나님과 화목, 1 절; 은혜에 들어감, 2a 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2b)). 그런 다음 그는 “다만 이뿐 아니라...(3a 절)”라고 쓴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은 동일하다. 즉 그분의 선하심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행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의 잔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잔을 넘치도록 만드시는 경향이 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손에는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복이 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과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⁸ 엘리사가 (여기서 내레이터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 P. Hamilton 에 따르면 이 문구는 구약에서 76 번 나오며 그 중 55 번은 열왕기상하에 나온다. 이 용어는 다른 누구보다 엘리사(29 회)에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NIDOTTE, 1:390). 아마도 이 용어는 특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 독특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에 주목하라(왕하 1:10, 12).

밝혀지지 않은 여인을 말이다. 여러분은 열왕기 저자가 왕상 16:23-28 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오므리 왕의 통치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⁹ 그의 모든 명백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므리는 저자로부터 6 절을 할애받는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부는 오므리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받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기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불공평해 보이는가?
2.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대중에게 숨기시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그분이 치유하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3. 과부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그릇이 더 없는 것이었는가?
4.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복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⁹ 왕상 16:21-22 은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의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며 오므리를 언급하지만 오므리 자신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은 왕상 16:23-28 이다.

5. 하나님에 대한 슬픈 것들과 기쁜 것들 (왕하 4:8-37 The Sad and the Glad of God)

나는 처음으로 내 차를 갖게 되었던 때를 기억한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가족용 차를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고 올 수 있었다. 자유가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고속도로에서 터져버렸던 라디에이터 호스, 차륜 정렬, 그리고 구입해야 했던 두 개의 새 타이어도 기억한다. 그 차는 신선한 자유와 함께 따분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아들들이 처음으로 개를 갖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장난감을 갖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기함이 사라졌다. 그들은 항상 사라(개의 이름)에게 음식과 물이 있는지 살펴야 했다. 사라는 늘 뛰고 놀고 싶어했지만 그들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그들은 뒤뜰을 샅샅이 뒤지며 사라가 남긴 오물들을 치워야 했다. 사라는 재미있으면서도 말썽꾸러기였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동물이었다.

우리의 내러티브는 이 패턴에 들어맞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열왕기하 2-8 장은 엘리사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선지자인 것을 묘사한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이 이야기에서처럼 섞여 있는 대상처럼 보인다. 기쁜 것과 함께 슬픈 것도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슬픈 것들과 기쁜 것들이 모두 담겨 있을 수 있다.** 나는 일련의 관찰을 통해 강해를 전개할 것이다.

I.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순성 (왕하 4:14-17 The Simplicity of God's Goodness)

엘리사는 수냄(갈릴리 바다의 남단에서 남서쪽으로 약 15 마일 떨어진 곳)을 지나간다. 한 "(직역) 귀한 여인 (즉 어느 정도의 지위와 십중팔구 재력을 지닌 여인)"이 그를 간권(懇權)하여 음식을 먹도록 한다(왕하 4:8a). 이리하여 정기적인 관행이 시작된다. 엘리사는 수냄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환대를 즐긴다(왕하 4:8b). 그녀는 필요한 물품들이 비치될 수 있는 폐쇄된 작은 방을 증축할 것을 남편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할 수 있었다(왕하 4:9-10). 그녀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왕하 4:9a)"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라면 그녀를 자랑스러워하셨을 것이다(마 10:41-42).

하지만 엘리사는 그녀의 친절한 제공에 대해 보상하고 싶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하던 어느 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자를 불러 그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알아보게 했다. 엘리사는 왕이나 사령관에게 그녀를 위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연줄"이 있었다(왕하 4:13a). 그녀는 이 제안을 거절하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왕하 4:13b)."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여기 내 자신의 친족과 공동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것을 가진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게하시에게 좋은 생각이 있었다. 그는 엘리사에게 두 가지 사실, 곧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다는 것을 알린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포하며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왕하 4:16a).”고 말한다. 그 여인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왕하 4:16b),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계속해서 간결하게 “그 선포가 사실임을 강조하는(‘물론’)”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인이 [개역개정판의 추가: ‘과연’ = 알고보니 정말]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왕하 4:17).”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왕하 4:16, 17 에는 [카에트 하야](תַּיָּא הַבְּרִיָּא; NASB “next year”)라는 어구가 있다. 이 어구는 다른 한 단락, 곧 창 18:10, 14 에만 나온다. 물론, 그것은 또 하나의 “불가능한” 출생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창 18:11)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출생의 이야기이다. 여기 왕하 4:16, 17 에서 [카에트 하야]라는 어구를 사용한 것은 창세기 18 장의 사라는 회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체 성경에 나오는 한 주제, 즉 불임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는 주제를 떠오르게 한다. 창세기 11-21 장에 나오는 사라의 이야기는 이 패턴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리브가를 만난다. 창 25:19-26 의 묘사를 따라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결혼 생활 20 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라헬이 등장한다. 그녀는 창 29:31-30:24 의 연속극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 내내 아이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가 마침내 요셉을 낳는다. 사사기 13 장에서 우리는 자식이 없는 마노아 부인을 만나는데, 그녀는 삼손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다음 사무엘상 1 장에서 한나가 등장하는데, 그녀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4 장에 수넴 여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엘리사벳을 만난다(눅 1:7).

그러나 열왕기하 4 장은 이 모든 “불임 여성” 패턴의 사례 중에서 독특하다. 다른 모든 경우에 아이의 탄생은 언약 백성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거나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기에 중요한 지도자가 된다.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언약 백성의 가나안 가계는 사라졌을 것이다.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멸망했을 것이다. 삼손은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긴장을 풀고 쉬지 못하게 그들 포도원의 멧돼지였다. 사무엘은 왕정으로서의 격동적인 전환기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수님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켰다. 이 중 어느 것도

열왕기하 4 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 아이의 탄생은 국가의 연속성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삶에서 뛰어난 지도자나 탁월한 인물이 되지도 않는다. 그는 아마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요점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때때로 그러한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가 어떤 원대한 구속사적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찰스 슐츠의 **피너츠** 만화 중 하나는 찰리 브라운이 라이너스의 예술 작품 일부를 조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이너스는 한 남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찰리는 라이너스가 손들이 등 뒤에 있는 남자의 그림을 그린 것을 보았을지라도 매우 칭찬한다. 찰리는 분명히 치료적인 기분에 빠져 라이너스의 비하인드 테크닉을 계속해서 해석한다. 찰리는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네 자신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말했다. 그러자 라이너스는 "나 자신이 손을 그릴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라고 열렬히 반박했다. 그건 그렇게 간단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방식도 그렇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유명하거나(참고: 우리는 수넴 여인의 이름도 모른다) 유용하기(우리가 아는 한, 그녀나 그녀의 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어떤 "뛰어난 공헌"을 하지 않았다)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그러하신 하나님,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딤후 6:17b)"이시기 때문이다. 벨직 신앙 고백 1 조에서 하나님을 "모든 선의 넘치는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선물로 인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기독교의 어떤 비뚤어진 버전도 여러분에게서 이 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뱀에 의한 복음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창 3:1-2) 속이는(참고: 창 3:5 에 나오는 이유의 절) 분으로 만든다.

II. 하나님의 방식의 모순 (왕하 4:18-30 The Inconsistency of God's Ways)¹

우리는 왕하 4:18-20 에 이 소년의 짧은 전기를 갖는다. 그것은 "그 아이가 자랐다(왕하 4:18a)."로 시작해서 "그가 죽었다(왕하 4:20)."라고 끝난다. 몹시 갑작스럽다. "그가 자랐다. ... 그가 죽었다." 총 3 절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밭에서 있었던 치명적인 시나리오만 언급한다. 여러분은 왕하 4:13 에 나오는 그녀의 말을 기억하는가? 그녀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은 왕하

¹ 어떤 독자들은 "모순"이라고 인용 부호를 표시하는 것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방식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진흙탕 속을 걸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인식하는 대로 그것을 묘사하려고 애쓰고 있다.

4:28 에 나오는 그녀를 보고 있는가? 그녀는 매우 절박하다. **그녀를 절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여호와와 선물이었다.** 왕하 4:1-7 의 가난한 과부는 절박한 필요에 직면했었다. 이제 왕하 4:8-37 의 부유한 여인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채권자들이 과부의 아들들을 데려가려고 했었다. 죽음이 이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갔다. 사회적 지위가 재앙을 예방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가(왕하 4:16-17) 그것을 빼앗아 가셨다(왕하 4:18-20). 그녀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혔다. 그녀는 그것이 엘리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미리 읽어보며 그녀의 강렬함(왕하 4:27)을 보고 그녀의 절규(왕하 4:28)를 들어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언젠가 그들은 그들 중 한 명이 경험한 대체 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짐작건대 이 대체 교사는 정규 교사만큼 자애롭지도 않았고 친절하지도 않았고 아마도 관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마침내 세스는 그 문제를 관대하고 직설적으로 “그녀는 기독교인이지만 못된/심술궂은(mean) 기독교인이다.”라고 요약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딜레마를 숙고하도록 유도한다. 여호와께서도 그러하신가?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못된/심술궂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가져왔지만 여기에 그 약속된 아들의 죽음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기뻐하게 하시다가 고통을 증가시키는가? 그분은 우리를 그만큼 더 세계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가?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종들과 여종들은 (이 본문에서처럼) 오랫동안 그것을 질문해 오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심한 고통 속에서(왕하 4:27)” 흐느껴 울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짓누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이 특별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넴 여인은 말을 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한다(왕하 4:22). 그녀는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는 그녀의 여행 계획에 대해 당황했다(왕하 4:23).² 그녀는 15 마일에서 18 마일을 달려 갈멜산에

² 그녀의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 카일(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311)은 이렇게 설명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로부터 이끌어낸 올바른 결론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율법(레 23:3; 민 28:11 이하)에 정해진 날에 예배와 건덕을 위하여 선지자의 집에 함께 모이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헤르츠와 헝스텐베르크는

이른다. 그녀에게 달려와서 묻는 게하시의 질문을 무시하고(왕하 4:26), 그녀는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그녀의 쓰라린 불평을 쏟아낸다(왕하 4:27-28). 그녀는 그를 떠나지도 않으려고 한다(왕하 4:30).³

그러나 열왕기하 4 장 28 절과 30 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왕하 4:21-30 에서 엘리사에 대하여 6 번이나 사용된 칭호: 21, 22, 25[두 번], 27[두 번])에게 매달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호와께 매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엘리사가 신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 의지할 때 그것은 마치 그녀가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로 향하는가? 그녀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그녀를 곤혹스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갈 수 있을 뿐이다. 그녀가 갈 수 있는 다른 대상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자비가 악의로 변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쓰라린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라. 우리가 이에 대한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평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III. 하나님의 종의 한계 (왕하 4:27-33 The Limitations of God's Servant)

[그 수넵 여인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마는 **여호와께서**[강조]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왕하 4:27)

일부 학자들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적인 전설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엘리사의 사역이 "경건한 전설과 기적 이야기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엘리사의 추종자들이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기억에 매료되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엘리사의 이야기들이 "전설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의 명성을 높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

열 지파로 구성된 왕국(=북 이스라엘)에서 (암 8:5 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안식일과 초하루(월삭)가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 왕국에 있는 경건한 자들에게 사라진 레위 제사장 직분을 대신 제공했다고 추론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거나(왕상 16:29-34) 금송아지를 숭배하는(왕하 12:25-33) 동안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를 양육했다.

³ 그녀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여러 지역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엘리사 자신이 왕하 2:2, 4, 6 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맹세 공식을 사용한다.

⁴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S. Szikszai, "Elisha," IDB, 2:91-92, 그리고 Claus Westermann, *A Thousand Years and a Day* (Philadelphia: Muhlenberg, 1962), 148-50 을 보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엘리사의 신봉자들이 여기서 형편없는 일을 한 것이다. 선지자의 명성을 높이고 싶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마치 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을 숨기셨음을 인정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언자의 이미지를 좋게 하지도 않고 형편없는 전설에 이바지하지도 않는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왕하 4:8-37 에서 8 번 나오는 용어)이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왕하 4:27]; 왕하 2:16-18 과 대조적으로) 지식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지팡이 에피소드[왕하 4:29-31]가 보여주듯이)⁵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왕하 4:33)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왕하 4:34 에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강조점은 엘리사의 독창성이 아니라 그의 전적인 의존에 있다. 왕하 4:34 에 나오는 엘리사의 행동은 왕하 4:33 에 나오는 그의 기도의 **표현** 또는 **연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⁶ 그렇다면 능력은 전적으로 여호와 의 것이며, 엘리사는 그것을 위해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의 한계를 암시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종들도 포함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준 특정한 성경 교사나 목회자를 생각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제자화”하고 기독교인의 행로의 어둡고 위험한 전환점에서 빛이 된 멘토를 생각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 곧 중보 기도와

⁵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시체 위에 올려 놓았을 때, 왕하 4:31 은 문자 그대로 “[브엔 콜 브엔 카세트]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라고 말한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바알의 무력함을 강조하는 왕상 18:29 의 “[브엔 콜 브엔 오네 브엔 카세트]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와 비교하라.

⁶ 존 그레이(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Westminster: Philadelphia, 1970], 498-99)는 입, 눈, 손의 접촉을 “한 당사자의 속성이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접촉 마법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그 당시의 민간 신앙과 관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사이몬 드브리스(Simon DeVries, *1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222)가 그러한 예언적 행동을 더 잘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왕상 17:21 에 나오는 엘리야의 비슷한 행동에 대한 그의 해석은 여기에도 똑같이 잘 적용된다. “그때에 엘리야는 그 아이 “(접촉면 없게) 위로” 또는 “(접촉면 있게) 위로” 몸을 세 번 뺀다. 그것은 마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익숙한 전형적인 상징적 행위이다. 그것은 “그의 생명없는 몸이 나의 살아있는 몸과 같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실연해 보이는” 방식이다. 왕하 4:34-35 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다.”라는 기록을 두 번 읽는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가하르]('엎드리다')이고 다른 곳에서 오직 한 번 더 나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사 [가하르]는 여기 왕하 4:34-35 를 제외하고 왕상 18:42 에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자세를 묘사할 때 오직 한 번 더 나온다.

꾸준한 교제를 통해 불확실한 시기에 필요한 안정기 역할을 해 준 친구를 회상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만큼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감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감히 그들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옅고 옅은 대용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라는 초대이기도 하다. 엘리사는 이러한 고난을 대처하는 데 많은 지혜를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게 숨기시고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도다(왕하 4:27).” 그는 대답이 없었다. 우리도 항상 “해답”을 줄 필요는 없다.⁷ 어떤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의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아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의 겸손을 배우고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의 곤경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IV.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 (왕하 4:32-37 The Witness to God's Power)

여호와의 귀는 엘리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참고, 왕하 4:33). 그 아이의 코가 눈보다 먼저 회복되었다(왕하 4:35b). 재치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다.

이제 이것은 “실마리” 에피소드이다. 다시 말하면,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실 승리의 표본, 표징, 보증, 미리보기이다. 때때로 이런 질문이 생긴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머물렀던 것과 같은 이유로, 아직 모든 사람이 살아날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살리셨는가? 확실히 그렇지만(마 11:4-5; 막 5:35-43; 눅 7:11-17; 요 11:38-44), 분명히 그렇게

⁷ 이것은 성경 진리를 중시하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과 상충될 수 있다. 나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는 있으나 낮은 수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진정한 분별력 없이 성경 본문을 들어 누군가를 때리는 데 빠르다. 동시에 (나는 다음 진술이 명백하기를 바라며 말하는데) 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지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러한 견해를 전파하는 “목회 신학” 과정에서 복구되어야 했다. 지능적으로 공공거리는 것은 괜찮았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서는 안 되었다.

많지는 않았다. 그분은 지상 사역 동안 묘지들을 비우지 않으셨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재림 때 부활의 날에 일으켜질 것이다(살전 4:13-18 참조).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리보기”를 주시며 죽음이 그들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신다. 나는 열왕기하 4 장을 그 미리보기들 중 하나로 간주한다. 결국,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추론하지 않았겠는가?

나와 함께 잠시 여행을 떠나보자. 본문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수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가보자. 눅 7:11-17 로 가서 나인 마을 밖에 서 보라. 여기 신약의 나인은 구약의 수넴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것은 둘 다 에스드렐론 평원의 동쪽 끝에 있는 모레 언덕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넴은 그 언덕의 남쪽에 있었고 나인은 그 언덕의 북쪽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억하기 쉽다. 왜냐하면 수넴(Shunem)과 남쪽(south)은 모두 “s[에스]”로 시작하고 나인(Nain)과 북쪽(north)은 모두 “n[엔]”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인에서 장례식을 취소시키셨다. 누가복음 7 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전 800 년경에 그 언덕 바로 너머 수넴에서 일어난 매우 유사한 일을 떠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글썄, 그것은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은 매우 근처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열왕기하 4 장과 누가복음 7 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엘리사는 그 여자의 쓰라린 고통을 인정하는 일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인의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다(눅 7:13). 그녀가 우는 원인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 그분의 말은 가장 터무니없고 냉담한 말이다. 더구나 엘리사는 기도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젊은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눅 7:14), 그는 일어나 앉는다(눅 7:15).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7 장의 문맥에 주목해야 한다. 눅 7:2 에서 백부장은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죽음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그를 고쳐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눅 7:12 은 전혀 다른 경우를 제시한다. 이 젊은이는 이미 죽었고 그와 함께 어머니의 미래도 끝났다. 주님은 여기서도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단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실 수만 있는가? 아니면 말하자면 죽음 자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먹이를 약탈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은 누가복음 7 장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음조차도 당신을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의 음성의 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 둘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닦이 되어야 한다!

존 '랍비' 던컨 박사는 이 닦이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1839 년경 그의 아내는 둘째 딸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시신을 보았다. 그는 서서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몸을 보며 일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소교리문답 37 번에 대한 답을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엄숙함으로” 되풀이했다. “신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해지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다.”⁸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열왕기하 4 장과 누가복음 7 장과 같은 “미리보기” 본문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확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그러한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두 여인을 볼 수 있다. 그 부유한 여인은 수넴을 떠나 모레 언덕의 남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나인의 과부는 그렇게 말쑥하게 옷을 입지 못한 채 북쪽 비탈길로 올라와 그녀를 만난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모레 언덕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에 관하여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철기 시대의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평범한” 백성을 자기의 선물로 놀라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이 가져오시는 불가사의한 슬픔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제한을 두시므로 우리가 그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주전 800 년경에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임을 살짝 미리 보여주신 분이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이것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친절에 대해 축복하기를 원했을 때 엘리사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2.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3.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을 때때로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있는가?
5.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좋은 선물로 평범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았는가?
6. 죽음의 저주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가?

⁸ A. Moody Stuart, *The Life of John Duncan* (1872; reprint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1), 62-63.

6. 교회 만찬의 위험 (왕하 4:38-41 The Peril of Church Suppers)

언젠가 내 동생이 펜실베이니아 서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주요 교차로까지 차를 몰고 갔다. 신호등이 있는 유일한 교차로였고, 신호등은 빨간색이었다. 동생이 멈춘 모퉁이에는 주유소가 있었다. 그 모퉁이에 서 있는 장대 꼭대기에는 석유와 휘발유 브랜드를 알리는 표지판이 높이 걸려 있었다. 어떤 일인지 트럭 한 대가 그 장대를 들이받았다. 그 장대가 넘어지더니 동생의 차 앞을 가로질러 추락했다. 그는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휘발유 표지판이 추락되는 것을 보았다. 누가 그것을 예상하겠는가? 누가 “주유소의 표지판이 내 차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차로까지 운전하겠는가?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국(stew) 사건을 기억했음에 틀림없다. 그들이 전에 얼마나 많은 식사를 나누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전에 “큰 냄비에 끓인 국”을 먹었을 것이고, 그것은 초록색 불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은 구역질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질식하고, 또 한 사람은 비명을 지른다. 그 국은 완전히 입에 안 맞거나 매우 치명적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한 후,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채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들호박을 발견하고 한 다발을 모아 가지고 돌아와 솥에 넣어 넣었다(왕하 4:39). “들호박”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만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강력한 완하제 역할을 하는 작은 노란색 멜론을 생산하는 시트룰러스 콜신 투스(*citrullus colcynthus*)와 동일시된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¹

¹ M. Cogan and H. Tadmor, //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58 을 참고하라. 이 이야기는 짧지만 난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때, 그들은 과장해서 국을 정말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의미하는가? 아니면 둘 다일까? 어쨌든 그 음식은 나쁘고, 어쨌든 그 식사는 해롭다(왕하 4:41 참조). 그리고 왕하 4:39 의 마지막 절은 두 번째 난제를 제시한다. 일부 번역본은 동사를 단수로 간주하며 들호박들을 모아 썰어 솥에 넣은 사람을 의미상 주어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른 것이 된다(ESV, RSV). 그러나 그 동사는 사실상 복수형으로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말이며, 전체 집단을 가리킨다. 이 경우 모든 남자들이 이 들호박들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그것들의 나쁜 속성을 알지 못한 것이 된다(NASB, NIV). 그 이유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지역에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는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본문은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이 들호박을 국에 썰어 넣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더라면, 그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시식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이 간결한 에피소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요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의 친교 그룹과 함께 절대 식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야채와 호박은 멀리하라는 것인가? 이 짧은 단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I. 하나님 백성의 상황 (왕하 4:38a The Situation of God's People)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가르쳐 준다. “엘리사가 길갈로² 돌아왔다. 그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왕하 4:38a).” 아마도 이 기근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증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근은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삶에 대한 상세한 언약적 해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특히, 레위기 26 장과 신명기 28 장 참조). 언약의 저주에서 기근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한 표현이었다(레 26:20, 26; 신 28:38-40, 53-57; 암 4:6).³ 그래서 나는 여기에 언급된 기근이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고생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믿는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다. 엘리사의 지도 아래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배교한 나라 안에 있는 “참 교회”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들도 온 이스라엘이 겪는 기근을 면할 수는 없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면 좋았을 것인데 말이다. 1950 년대의 유명한 브루클린 다저스 야구팀 중 몇 명이 과속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피 위 리즈는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잘 하여 교통 위반 딱지를 받지 않는 데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4 번 유니폼을 입는) 중견수 듀크 스나이더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차에 접근했을 때 스나이더는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저는 다저스의 듀크 스나이더입니다. 이쪽은 ...”라고 말했다. 그 경찰관은 “난 야구가 싫어.”라고 소리질렀다.⁴ 야구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저스 선수들조차도 교통 위반 딱지를 받는다. 여기 열왕기하 4 장에서도 여호와의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급이 없다.

이것은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 닥친 현실일 수 있다. 이 기근에서 여호와의 남은 자들도 그 민족의 죄로 인한 결과를 겪고 있다. 오늘날 어떤 재난이 한 나라를 강타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완전히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때로 그것은 주로 사악한 인간의

² 우리는 이 길갈이 여러고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인지(수 5:9 참조) 아니면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길갈이었는지 알 수 없다.

³ 언약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ouglas Stuart, *Hosea-Jonah*,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7), xxxii-xlii 를 참고하라.

⁴ Duke Snider and Bill Gilbert, *The Duke of Flatbush* (New York: Zebra, 1988), 117.

압제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대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은택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 어떤 침략자가 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멸망시키면, 그 나라에 있는 교회도 그 나라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누를 수 있는 안전 버튼도 없고,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결코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그분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또한 현재 전쟁과 고통으로 황폐해진 나라 안에 사는 예수님의 양 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재촉할 수 있다.

II. 하나님의 관심사의 세속성 (왕하 4:38, 40 The Earthiness of God's Interests)

이 강해에서 나는 왕하 4:38-41 과 왕하 4:42-44 을 따로따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잠시 이 두 에피소드들을 함께 보면 이 두 단락에서 동사 [아할]("먹다")이 8 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점을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세속적이다. 일용할 양식은 그분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

기근이 있다는 사실(왕하 4:38)은 음식이 감히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근의 상황에서 국이 못 먹게 되거나 해가 된다면 비극이다(왕하 4:40). 여기에 어떤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적은 불필요하거나 우스꽝스럽지 않다. 그것은 자비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을 사소한 일로 본다면, 그들은 단지 동정심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레이 딜러드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엘리아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들 중 아주 많은 부분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놀랍다. 현대 서구의 독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평범한 개인에게 농경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의 삶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당시 굶주림과 힘든 시간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 현대 서구 국가에서 음식은 가게 예산에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을 모으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그리고 아마도 작은 가족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제한된다. 고대 이스라엘의 삶은 매우 달랐다. 생계형 경제 또는 미미한 경제에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큰 지출일 수 있고 또 깨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⁵

⁵ Raymond B.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9), 106.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일 수 있는 필요한 것들도 사실을 알고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때때로 어떤 신자가 상점이나 사무실에 갈 때 주차장소를 위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주님을 우리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님을 지니(genie, 요정)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매가 다리에 버팀대를 착용하고 있거나 그 형제가 심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삶의 실제적인 상세함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주기도문의 청원 부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닌가?

III.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징조 (왕하 4:41 The Sign of God's Work)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솔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솔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왕하 4:41)

이것은 밀가루의 시간이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쯤이면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여리고의 물 공급을 치료할 때 소금을 사용한 것을 기억하는가(왕하 2:20-21)? 성경의 기적들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명백한 행동을 동반한다. 예수님께서도 필요하시면 외적인 표적을 얼마든지 사용하셨다. 막 7:31-37 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한 그의 치유에 주목하라. 그분은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밀어 넣은 다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⁶ 우리는 우리가 이 수준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초적인 보조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세례를 위한 물 그리고 성찬을 위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가?

왜 주님은 이 진보된 "포스트 모던(탈 근대/후 현대주의)" 시대에 사는 세련된 신자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표징을 사용하라고 주장하시는가? 부분적으로, 나는 우리에게 그의 사역에 대한 기억을 걸 수 있는 못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릴랜드 라이켄은 삶의 평범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보는 청교도의 요령에 대해 썼다. 그는 월터 프링글이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정확한 장소들을 어떻게 말했는지 언급한다. 그의 첫 번째 기도 활동은 "스티철힐의 북동쪽"에서 이루어졌다. 한참 후에 그는 새로 태어난

⁶ 몇 가지 배경에 관해서는,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302-303 을 참고하라. 프랜스는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신체 접촉은 분명코 더 적절하다."라고 지적한다.

아들을 “동산 문 북쪽에 있는 매화나무에서” 하나님께 맡겼다.⁷ 그 매화나무는 프링클이 자기 어린 아이를 위해 드린 중보 기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비전문적인 성례전이 된다. 우리는 그 매화 나무가 다른 것들과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지상의 유물은 항상 그 기도의 시간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눈에 보이는 표징들을 그분의 능하신 사역에 섞으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억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눈에 보이는 표적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아니다(예: 왕하 4:42-44 참조). 하지만 지혜로우신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임을 아시므로 논증 대신 그림을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 해 후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재회하는 모임에 여러분이 참석했다고 상상해보라. 그들 중 한 사람은 “웃시야가 그 이상한 들호박을 썰어 넣으므로 하마터면 우리 모두가 죽을 뻔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또 말하기 시작한다. 그가 “퍼다가 주어 먹게 하라(왕하 4:41b)”는 엘리사의 명령을 인용하는가? 아니다. 그는 이렇게 외친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그 모든 밀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부었는지 기억하냐?” 눈에 보이는 표징은 영적 기억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방어이다.

그러나 이 기적은 눈에 보이는 표징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예언적 표징**, 즉 앞으로 올 일의 예고편이 된다. 기적은 분명히 해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사 11:6-9; 65:17-25 에서 보는 것처럼) 저주의 최종 역전의 전조, 곧 다가올 일에 대한 작은 징조로 간주될 수도 있다.⁸

제 3 제국의 말기에 연합군 폭격기들이 베를린 근처로 연달아 날아왔다. 루돌프 레슈케의 어머니는 열네 살 난 아들을 붙잡아 지하실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아홉 살 난 여동생이 떨어져 울고 있었다. 대피소가 흔들리고 있었다. 석고가 떨어지고 불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안 있어 루돌프도 그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읊었다. 폭격은 더욱 심해졌다. 대피소가 더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많은 습격을 겪었지만 이번과 같은 습격은 처음이었다. 루돌프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팔로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군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때 거기에는 이러한 폭탄들이 있었다. 루돌프는 어머니를 놀라게 한 비행기에 화를 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미처 제지하기도 전에, 그는 대피소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그들의 1 층 아파트로 달려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장난감 병정들 앞에 섰다. 그는 도자기 얼굴에 특별한 특징들이 그려진

⁷ Leland Ryken, *Worldly Saints: The Puritans as They Really Were*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09.

⁸ 이 요점은 이전에 나의 학생들이었던 Jeff Voorhees 와 Alonzo Ramirez 가 지적한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군인”을 골랐다. 그는 그것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의 목직한 식칼을 들고 공습이 한창일 때 아파트 안뜰로 나갔다. 그는 인형을 땅 바닥에 내려 놓았다. 그리고 한 번의 타격으로 그것의 머리를 잘랐다. “저기!” 그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소리쳤다. 그는 후회하지 않고 아돌프 히틀러의 잘린 머리를 내려다보았다.⁹

그것은 장난감 병정에 대한 폭력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1945년 4월 30일 오후에 히틀러가 발터 권총을 집어 입에 넣고 뇌를 날려버리는 실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루돌프의 타격은 그것에 대한 예비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그 원리가 우리 본문에도 동일하다고 제안하지만, 가리키는 현실은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무해하게 된 한 솔의 국에 불과하지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사 11:9a)” 날의 작은 스케치이다. 종들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다면 그림 언어에 몸을 굽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IV. 하나님의 종들의 실수 (왕하 4:39 The Fallibility of God's Servants)

본문은 채소를 캐고 들호박을 따서 썰어 넣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의도했을 수 있다. 딜러드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수고를 구속하셔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본다.”라고 생각했다.¹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최선의 의도를 가졌지만 하마터면 구역질하는 모든 동료들을 응급실로 보내 위를 세척하게 할 뻔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히 성실했고, 악의가 없었지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여섯 살쯤 되었을 때 언젠가 나는 우리의 오래된 1940년식 시보레 차를 세척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는 양동이를 꺼내 물을 삼분의 일 정도 채운 다음 차고 주위에 축 늘어진 낮은 형겅을 발견하고 내가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세차”했다. 나는 형겅을 양동이에 담가 그것으로 흙받이와 문을 문지르는 일을 끝날 때까지 계속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초콜릿색 진흙으로 뒤덮인 아버지의 검은 시보레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나는 그토록 충실하게 문지른 것을 호스와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헹구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저 이미 더러워진 형겅을 점점 더 더러워지는 물에 계속 담가 문질렀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가 얼마나 성실했었는지 기억한다. 내 의도는 좋았었다. 그러나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⁹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263.

¹⁰ Raymond B.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108. 그리고 Ronald S. Wallace, *Elijah and Elisha* (Grand Rapids: Eerdmans, 1957), 120-23 (“Christ and our mistakes”)도 참고하라.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비슷한 일을 할 때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훈련되지 않은 열심을 발휘한 나머지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쫓아 버리는 일을 했는지 모른다.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모로 잘 고려했다고 확신하며 주었던 조언이 결국 잘못된 것이거나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또는 우리가 자녀 중 한 명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우리가 부과하거나 허용한 것이 결국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어버린 것을 깨닫기도 한다. 그것은 국 술에 독한 설사제 같은 들호박을 잘라 넣은 사람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요리사의 실수를 극복했다. 이 본문은 실수하기 쉬운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격려가 되는가! 너무 자주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실수들”의 에피소드들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그분의 왕국을 망하게 하거나 그분의 백성을 멸망시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무력화시키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은 이제 교회 만찬에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심하라. 그리고 하마터면 재앙이 될 뻔했던 일을 다룬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배우라.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신자들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부터 항상 면제되는가?
2.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보아 왔는가?
3.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가?
4.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낼 가시적인 표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5. 언제 여러분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 결과가 나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7.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핍 (왕하 4:42-44 Christ and Our Deficiencies)

그들은 제퍼슨 데이비스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로 불러서 남부 연합의 대통령직을 맡게 했다. 1861년 2월 중순, 데이비스는 철도를 이용하여 미시시피 주 잭슨을 떠나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 동쪽으로 테네시를 가로질러 채터누가에 도착했다. 그는 2일간의 여행 동안 25번의 연설을 했다. 그는 채터누가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애틀랜타로 이동했고, 거기서 또 몽고메리로 이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행이 제프 데이비스에게 기력을 잃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는 잭슨에서 동쪽으로 300마일도 안 되는 몽고메리로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철도를 이용해 북쪽으로 테네시로, 동쪽으로 채터누가로, 그런 다음 남쪽으로 애틀랜타와 몽고메리까지 약 850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세 개의 다른 궤간(gauges of track)을 사용하는 여섯 개의 다른 철로를 따라 이동해야 했다. 그것은 나쁜 징조였다. 남부는 어떻게 그토록 총체적으로 부적절한 시스템으로 인력과 보급품을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¹

엘리사의 사환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는 “내가 어찌 이것[=이처럼 완전히 부족한 식량]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라고 엘리사에게 말했다(왕하 4:43 참조). 단지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증자를 탓하지 말라. 그러나 기증자의 그렇게 많은 떡과 곡식(왕하 4:42)도 백 명에게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을 알아내는 데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전 이야기(왕하 4:38-41)에서 공급은 위험스러웠고, 여기서 공급은 부족하다. 이 이야기는 간결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빠르게 살필 것이다.² 우리는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무엇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가?

¹ Paul Johnson, *A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York: HarperCollins, 1997), 457-58, 그리고 William C. Davis, *Jefferson Davis: The Man and His Hour*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2), 304-305을 보라. 덧붙여서, 나는 이 장의 제목이 로널드 윌리스가 그의 책 *Elijah and Elisha* (123 쪽)에서 “Christ and our inadequacies”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다룬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² 여기 왕하 4:42에서만 사용된 [치클론]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자루” 혹은 “가방”은 추측이지만 아마도 좋은 추측일 것이다.

I. 믿음이 없는 땅에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 (왕하 4:42a The faith that still lives in a faithless land)

그 사람의 주소는 에브라임의 산지 어딘가에 있는 바알 살리사였다.³ 그는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스무 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새번역).”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은 우리를 모세오경으로 돌아가게 한다(출 23:19; 레 23:20; 민 18:13; 신 18:4-5). 이 중 마지막 두 참조 구절은 첫 열매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바알 살리사의 이 시민은 엘리사에게 첫 열매를 가져다준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나는 H. L. 엘리슨이 바르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엘리사를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대표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바알화된 여호와 예배나 심지어 바알 숭배 자체로 더럽혀진 제사장들에게 첫 열매를 가져다주고 싶지 않았다. 막 3:31-35 을 연상시키는 몸짓으로, 엘리사는 그의 청중에게 [비후림] (“첫 열매”)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도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동참하고 있다고 선언했다.⁴

그 당시 북왕국의 제사장들, 곧 아합의 열렬한 바알 지지자들(왕상 18:20-22 참조)이나 여로보암에 의해 임명되어 벰엘에서 사역하는 자들(왕상 12:31)은 여호와께 불충함으로써 여호와의 제사장직의 기능과 특권에서 스스로를 파문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합당하게 첫 열매를 바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 그는 여호와의 남은 자들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에게 그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 본문은 매우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배교한 국가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바알 살리사의 시민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9 장 18 절 말씀은 진리이다. 여호와께서 옮으셨다. 이렇게 부패하고 강박한 나라 안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악한 사회의 우여곡절 속에서 한 백성을 보호하신다. 어디서

³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59, 그리고 Carl G. Rasmussen, *Zondervan NIV Atlas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9), 228 은 바알 살리사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6 일 떨어진 키르벳 마르자메(Khirbet Marjame)라고 제안한다.

⁴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MI: Eerdmans, 1969), 51. 그리고 Paul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5), 269)에 나오는 다음 설명도 참고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여로보암과 바알의 종교를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 신실한 개인들은 구별된 여호와 선지자들을 후원했다(왕상 18:1-15 참조). 여호와께서는 바알 숭배를 거절하는 ‘7 천명’을 실제로 남겨두셨다(왕상 19:18 참조).”

여러분이 그들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아마 바알 살리사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나는 에릭 리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중국을 여행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모든 집을 검사하러 들어왔을 때 그는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리델이 그의 집을 열자 그 남자의 눈은 거기 들어있던 신약 성경으로 향했다. 그는 느리고 서투른 영어로 말했다. “성경이군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는 손을 내밀어 리델과 악수한 후 몸을 돌이켜 가버렸다. 예수님께서 일본 군대에 한 종을 두셨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나는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로 시작하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의 가사(많은 찬송가 판에 들어있지 않음)를 좋아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그들 주변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놀랄 것 없다. 그것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여전히 믿음이 없는 땅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마주치는 이유이다. 결단코 아합이나 여로보암이 그것을 꺾을 수 없다.

II. 궁핍한 백성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말씀 (왕하 4:43-44 The word that still supplies a needy people)

이 에피소드에서 강조점은 여호와 자신의 말씀에 있다. 이번에는 눈에 띄는 표징, 즉 소금이나 밀가루를 집어넣는 것이나 시체 위에 몸을 뺀 것도 없다. 그의 사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저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명령한 다음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왕하 4:43b).”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먹을 것이고 너무 많아 배불리 먹고도 남길 음식이 있을 것이다.⁵ “그 사환이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왕하 4:44).”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얼마든지 보리떡 몇 개로 백 사람을 먹이실 것이다.

아마도 신명기 8장 2-3 절은 여호와와 말씀과 이스라엘의 공급에 대한 이 가르침의 고전적인 구절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고생시키시고 시험하셨다(신 8:2). 그분은 그들을 낮추시어 그들이 그분의 전례 없는 만나 공급에 의존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신 8:3)” 줄을 알게 하려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계속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떡(여기서는 만나)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만나든 어떤 다른 수단이든 그들을 먹여 살리기로 작정하셨기(이 작정은 그분의 입에서 나옴) 때문에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어느 수요일 아침에 진영에서 나가서 땅에

⁵ 여기 “남겨지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야타르]이다. 이 동사는 왕하 4:7 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말한다.

떨어져 있는 만나를 보았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로 또 하루를 살도록 결정하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는 생계 유지를 제공하는 반복적인 매일의 결정에 대한 그 배후를 살펴야 한다. 여호와와 말씀은 일용할 수 있는 만나로든, 절망적으로 적은 보리떡으로든, 아니면 잘 비축된 식료품 선반을 통해서든, 그의 백성을 먹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 마지막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곳에 산다면, 나는 결코 비축된 선반을 우상으로 삼아서 안 되며, 여호와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나를 먹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축되어 있다고 고백해야 한다.

열왕기하 4 장으로 돌아가자. 43 절의 불가능성은 여호와와 말씀에 의해 극복된다. 43-44 절은 여호와와 말씀이 경험적 현상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만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여호와와 말씀을 선택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추론을 이끌어 내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은 결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하기 쉽다. ⁶ 그러나 이 명백한⁶ 추론이 반드시 유일하거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금주에 관한 강연을 하러 돌아다녔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한번은 그가 청중 앞에 술 한 잔을 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벌레를 그 안에 떨어뜨렸다. 당연히 그 벌레는 죽었다. 알코올의 치명적인 영향은 분명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요점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는 청중에게 자신의 시연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물었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기생충이 있으면 술을 마시면 되겠어요!”라고 소리쳤다. 어쩌면 그 연사는 그런 대안을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다.

열왕기하 4 장 42-44 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신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그러한 일반화가 자연스럽게 보일지라도 말이다. 오히려 본문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음식을 가져왔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⁶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실제로 이것이 그의 일상적이고 일관된 관행이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결코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일행을 위해 음식이 많아지게 하신 것으로부터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5000 명과 4000 명을 먹이신 사건들로부터 그런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말씀하신다. 만일 여호와께서 부족한 것이 충분할 것이라고, 아니 심지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4 장은 나를 신명기 8 장 3 절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나 굶주림으로부터의 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수요일 아침에 만나를 찾는 이스라엘 사람 옆에 서서 “여호와께서 내가 충분히 갖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된다면 나는 오늘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찬양을 낳는다.

III. 여전히 적절한 구세주를 가리키는 이야기 (The story that still points to an adequate Savior)

이 이야기는 또한 앞을 내다보며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기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5000 명(예: 막 6:30-44)과 4000 명(예: 막 8:1-10)을 먹이신 것을 기억한다. 전자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난다. 이에 대한 요한 복음의 기록에서 안드레는 흥미로운 역할을 한다. 그는 점심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한 소년을 만났고, 그래서 안드레는 반쯤 절망적으로 “여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요 6:9)?”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또 다른, 그러나 더 존경스러운 형태로, 엘리사의 종이 제기했었던 것(왕하 4:43a)과 같은 결핍의 문제이다.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정말 똑같은 병행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물며 ... 하겠는가?”라는 범주에 속한다. 그분은 100 명이 아니라 5,000 명과 4,000 명을 먹이셨다. 두 경우 모두 그분은 엘리사보다 적은 떡을 가지고 계셨다(막 6:38; 8:5). 예수님의 공급은 또한 “먹고 남기는(왕하 4:43b)” 종류에 속하지만, 우리는 먹고 “남긴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막 6:43, 8:8)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기적은 열왕기하 4 장에 묻혀 있는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말고도 다른 구약의 연결 고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억할 지성이 있는 자들은 틀림없이 엘리사의 행위를 기억하고 “엘리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자신의 결핍이나 우리가 그분 앞에 가져온 결핍으로 인해 방해받거나 좌절하지 않으시는 구세주가 계신다. 우리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중얼거린다. 우리의 결핍은 예수님의 적절성에 비하면 위기가 아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재능과 자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에 필요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우울할 정도로 부족해 보인다.”⁷ 그러나

⁷ Ronald S. Wallace, *Readings in 2 Kings* (Eugene, OR: Wipf & Stock, 1997), 57.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며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충분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결핍 증후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세주 앞에서 우리의 기독교적 성공의 일들을 뿜내며 우쭐대는 가장 거만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구세주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 4 장을 마쳤다. 한번 요약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은 열왕기하 4 장에 대해 4 번의 강해를 하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방식이었고, 결국 나는 그렇게 책을 쓰고 있다! 열왕기하 4 장을 죽 훑어보면 연대적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수벰 여인이 아들을 얻어 키운 일(8-37 절)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던 과부가 빛을 청산한 일(1-7 절) **이후에**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연대적 순서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저자는 주제적 배열을 따르며 한 가지 요점을 주기 위해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무슨 요점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지고함 그리고 빛(1-7 절), 죽음(8-37 절), 위험(38-41 절), 결핍(42-44 절)을 극복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⁸ 저자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오늘날 믿음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2. 여러분의 "것"이 지금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가?
3.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물질적 필요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셨는가?
4.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는가?
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셨는가?

⁸ 참고,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175: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죽음에서 구출된 생명, 절망에서 구출된 소망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유한다. 각각의 경우에 생명은 경제적 비극과 노예 제도, 외아들의 죽음, 기근과 독, 식량 부족으로 위협받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절망에 개입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산산조각 낸다."

8. 은혜가 국제화되다 (왕하 5 장 Grace Goes International)

여기에 지위, 존경, 칭찬, 성공, 용맹 등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나병환자였다. 물론, 많은 성경 개론서나 성경 번역의 각주들은 서둘러 이것이 반드시 한센병, 즉 현대의 나병이 아니라 건선이나 옴이나 다른 피부병이었을 수 있다고 확신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나아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었을 때, 그는 “눈같이” 하얗게(왕하 5:27) 되었다고 했는데, 한센병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는 결코 하얗지 않기 때문이다.¹ 그러나 나아만의 상태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왕하 5:3), 치유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왕하 5:4-5) 만큼 심각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깔끔하게 논할 수도 있고 대충대충 논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 깔끔하게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경우 나는 “대충대충”의 접근을 더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신학적 주안점들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I. 하나님의 주권은 총체적이다 (왕하 5:1-4 God’s sovereignty is total)

나아만의 나병이 왕하 5:1 의 끝에 쿵 하는 소리처럼 나오지만,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다. 우리의 성경 신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본문에 있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본문은 나아만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큰 명성을 얻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는 그를 통해[보, by him]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승리[트슈아, 직역: 구원, salvation, deliverance]를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큰 사건**이라 부르는 것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람에게, 아람에서, 아람을 위해, 일어나는 것을 지시하신다. 여호와는 아람 군대에게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람의 정치와 외교를 통제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호와는 한 이스라엘 거주지의 삼류 감독도 아니시고, 한 작은 이스라엘 클럽의 마스코트도 아니시다. 여기에 시편 24 편 1 절이 묘사하는 하나님이 있다. 여호와는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교도들이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왕하 5:2 은 동전의 다른 면이다. 여호와는 큰 사건(1 절)뿐만 아니라 **작은 상황**, 즉 단 한 어린 소녀의 삶에 대해서도 주권자이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왕하 5:2).”라는 설명은 아주

¹ 이에 대해 매우 균형 잡힌 설명을 하는 R. K. Harrison, “Leper, Leprosy,” ISBE, 3:103-06 을 참고하라.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을지라도 가슴이 미어진다. 저자는 “큰/위대한 사람[이시 가돌, 1 절]” 나아만과 “작은/어린 소녀[나아라 크타나, 2 절]”를 대조한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리프네 아도나브]” 큰 자였고,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앞에서[리프네 에세트 나아만]” 섬기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이 작은 아가씨에게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면서 그녀는 불쌍한 주인의 상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말했다. “주인에게 치유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왕하 5:3)!” 절박해 보이는 나아만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왕하 5:4).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안다.

그러나 왕하 5:2 을 조금씩 쪼개가며 그 안에 있는 비극을 감지하라. 그 소녀의 부모들은 아람의 습격으로 죽었는가? 그녀는 침입자들에 의해 끌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며, 타국에서 남은 생애를 (나아만의 아내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노예로 살아야 했다. 그 목요일 아침 그녀가 멀리 끌려갔을 때 어떠했는가? 그녀는 혼비백산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녀의 실종 날짜와 함께 “이 소녀를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문구가 있는 이 소녀의 사진을 담은 별지는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녀는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후에 아마도 그녀는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최악의 외상을 겪었을 것이다. 그녀가 가졌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어떤 꿈이나 가족과 마을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꿈도 깨져버렸다. 엘리사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보면(왕하 5:3), 그녀는 경건한 가정, 남은 자의 가정 출신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섭리 가운데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은 이 어린 소녀에 달려있고, 특히 그녀의 비극적인 노예 생활에 달려있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나아만은 결코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의 큰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 ... 글썄, 너무나 우연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여기 어린 포로 소녀처럼 말이다. 아니면 버려진 책일 수도 있다. 아르노 개블라인은 그의 첫 번째 책인 **스가랴 연구**(*Studies in Zechariah*)의 무료 사본을 뉴욕시의 모든 랍비에게 보냈으나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 후 한 젊은 히브리 기독교인이 개블라인의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잘 알려진 랍비의 비서였다. 그 랍비는 **스가랴 연구**를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그 비서는 그것을 꺼내서 읽고 그리스도를 믿었다!² 여호와와의 주권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² Warren W. Wiersbe, *Living with the Giants* (Grand Rapids: Baker, 1993), 176.

그리고 여호와와의 주권은 총체적이다. 여러분은 왕하 5:1-2 에서 본문이 국제 정치(1 절)와 개인 상황(2 절), 세계 문제(1 절)와 개인적 딜레마(2 절), 이 둘 모두가 어떻게 여호와와의 지배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는지 보고 있는가? 큰 그림과 사소한 세부 사항, 이 둘 모두 그분에게 속한다. 그분의 지배는 의회와 전쟁 부서에서부터 문고리와 전화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사 66:1 과 마 10:29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 없기 때문이다.

II. 하나님의 "종들"은 한심할 수 있다 (왕하 5:5-8 God's 'servants' can be pathetic)

나아만은 공식 서신과³ 정부의 번거로운 형식 절차를 밟고 성공적인 치료자에게 보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⁴ 갖고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아마도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선지자라면 누구나 왕의 궁정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망연자실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며 경악하고 있다.⁵ 그는 아람 왕이 싸움을 걸어올 구실을 찾고 있을 뿐이라고 확신한다(왕하 5:7). 열왕기하 5 장의 5-8 절을 1-4 절과 나란히 두고 보면, 상당한 대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왕의 절망(왕하 5:7)과 대조되는 어린 소녀의 믿음(왕하 5:3)이 돋보인다. 이제 열왕기하 5 장 전체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³ 의료 문제에 대한 국제 서신은 드문 일이 아니다. Donald J. Wiseman, *1 and 2 King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3), 207, 그리고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415 을 보라.

⁴ 홉스(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63-64)는 나아만의 선물(왕하 5:5b)이 은 340 kg 과 금 90kg 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한다.

⁵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 왕이 여호람(참조, 왕하 3 장)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열왕기하 5 장의 구조⁶

나병환자, 왕하 5:1

대조 1: 믿는 하녀, 왕하 5:2-4

두려워하는 왕, 왕하 5:5-8

선지자와 군대장관, 왕하 5:9-14

엘리사의말, 왕하 5:9-10

나아만의 분노, 왕하 5:11-12

종들의 주장, 왕하 5:13

나아만의 순종, 왕하 5:14

대조 2: 개종한 이방인, 왕하 5:15-18

변질된 이스라엘인, 왕하 5:20-26

나병환자, 왕하 5:27

물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대조에 관심이 있다.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소녀는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스라엘 왕은 공포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다. 엘리사는 주도권을 쥐고 왕의 당면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왕은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다.

그 때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참조, 마 22:29). 그러나 그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은 단지 공식에 불과했다. 그는 정치를 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⁷ 우리는 왕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태도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아닌 왕인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적어도 언약 국가의 일원이었던 백성의 왕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 그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미국의 초기 영화 산업은 "서부 영화"에 매료되었다. 영화 속 "서부"는 1860-1890 년경

⁶ 대조 2에 나오는 나아만(a converted pagan 정교로 돌아온/개종한 이방인)과 게하시(a perverted Israelite 사도[邪道]에 빠진/변질된 이스라엘인) 사이의 대조는 월리스에게 빚진 것이다. 월리스(Ronald Wallace, *Elijah and Elisha*, 135)는 "이스라엘인 나아만 그리고 아람인 게하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⁷ 정치의 이상 숭배에 대해서는 Jacques Ellul, *The Politics of God and the Politics of Man* (Grand Rapids: Eerdmans, 1972), 29 을 보라.

미시시피 강 너머의 지역이었다. 최초의 서부 영화들 중 하나는 에드윈 포터가 1903 년에 만든 인기 있는 단편 영화 **대열차강도**(*The Great Train Robbery*)이었다. 이 영화는 기차 강도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던 먼 서부를 묘사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뉴저지에서 촬영되었다!⁸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문제이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문제일 것이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의 일원 혹은 언약 백성의 통치자이지만 언약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왕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계수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명부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랜 장로교(아니면 다양한 다른 교파) 교인일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분 없이 살아간다.

III. 하나님의 방식은 모욕적이다 (왕하 5:9-14 God's ways are offensive)

왕은 미친듯이 자기 내실 안에서 서성거리며 아람이 일으키려고 하는 “국제적 사건”에 대해 중얼거린다(왕하 5:7b). 여러 고문들은 멍하니 대기하고 있다. 엘리사의 전갈이 도착하여 마음이 산란한 왕에게 안도감을 준다. 이제 왕은 엘리사의 거주지로 외국 군대 장관을 보낼 수 있다(왕하 5:8). 틀림없이 재미있었을 것이다. 나는 엘리사의 거처가 매우 뽀낼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외교 사절단이 그의 문 밖에 멈추어 서있다. 이웃들은 아마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아람의 병거가 그들의 앞 잔디밭에 주차하는 것에 약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가?

i.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자존심을 초라하게 만든다 (God's ways humble our pride).

어쩌면 엘리사는 그저 “사람들을 대하는 기술”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는 나아만에게 틀림없이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태도로 그와의 관계를 시작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개인 인사말을 건네는 품위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나아만에게 좋은 소식과 함께 “사자를 보냈다(왕하 5:10).” 왕이 사자를 보내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사는 왕처럼 행동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아마 나아만은 이 하찮은 먼지 같은 선지자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사환을 나에게 보내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왕하 5:11 에 나오는 나아만의 말은 엘리사가 그를 화나게 했음을 보여준다.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⁸ Paul F. Boller, Jr. and Ronald L. Davis, *Hollywood Anecdotes* (New York: William Morrow, 1987), 280.

그가 **내게로** 와서 ...”라고 외친다. 여기 “내게로”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다.⁹ 나아만은 잘난 사람이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가 받은 모든 것은 선지자의 이름없는 종으로부터 나온 말뿐이었다(왕하 5:10b). 엘리사는 나아만을 치료가 필요한 나병 환자처럼 대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추켜올리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ii.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를 뒤집는다 (God's ways reverse our expectations).

그 모든 것이 왕하 5:11 에 나온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해 주실 일에 대한 대본을 써 놓았었다. 그는 모든 외침과 현란한 행동이 완비된 고대 근동의 신앙 치유의 정상적인 방식을 기대했다.¹⁰ 그는 단순한 약속의 말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원했다. 우리는 나아만에서 그리 멀지 않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용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가! 그가 우리의 기대에 딱 들어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다.

필립스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거짓 신, 곧 그가 “지속되는 불만”이라고 부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사람들은 내가 신뢰했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나 합당하지 않은 재앙으로 나를 실망시키셨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거나 하셔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 놓고, 그분이 그들의 특정한

⁹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506; Rick Dale Moore, *God Saves: Lessons from the Elisha Stories*, JSOT Supplement Series (Sheffield: JSOT, 1990), 75.

¹⁰ 딜러드(Raymond B.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9], 116)는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한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선지자가 손바닥 굽기와 마술 쇼처럼 고국에서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기를 기대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선지자가 마술을 이행하기를 기대했다. 나아만은 “자판기와 같은 은혜,” 즉 당신의 돈을 넣고 당신의 복을 받는 은혜를 원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보수를 받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쳐’ 주기를 기대했다.” 프리케(K. D.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Calwer, 1972], 72)가 지적했듯이, 엘리사는 그 자신이 나아만이 알고 있었을 모든 공언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싶었다. 따라서 치유는 요단강에서, 곧 선지자가 있는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했다. 이런 식으로 기적은 선지자의 임재나 개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행해진 하나님의 일로 인식될 것이다.

방침에 따르지 않으실 때 불만을 느낀다.”¹¹ 나아만은 이 틀에 잘 들어맞는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가져오셔야 하는 방식을 지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어버리신다.

iii.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폭넓은 생각을 짓밟으신다 (God's ways trample our broadmindedness).

엘리사의 말은 독단으로 가득했다.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왕하 5:10).” 왜 요단강이어야 했는가? 왜 이런 식이어야 하고 다른 식으로는 안 되는 건가? 왜 이러한 “특수주의의 어려움”인가? 왜 그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실행 가능한 접근법이 있을 수 없는가? 왜 그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서 씻으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가(왕하 5:12)?¹²

1948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에게 서서히 목이 졸리고 있을 때, 일부 극단적 정통 랍비들은 남은 유대인들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 캐나다 변호사 도브 요셉에게 그들 자신의 구역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아랍인들과 직접 협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의 구역은 아랍 군단의 포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백기를 들면, 적어도 그들의 여성과 아이들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은 그러한 방법이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랍비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대변인은 도브 요셉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누군가 백기를 게양하려고 시도하면, 그는 총살당할 것이다.”라고 대꾸했다.¹³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관용은 없었다. 내 방식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라. 이런 식으로 하라. 아니면 나병환자로 머물러 있으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서도 발견하는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 고린도의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기대에도 아랑곳없이 그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고전 1:23).”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구도자에 대한 민감성의 끔찍한 부재가 보인다.

나는 나아만의 불평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표시하는 바로 그 반대인지를

¹¹ J. B. Phillips, *Your God Is Too Small* (New York: Macmillan, 1963), 51.

¹² 아바나 강은 보통 현재의 바라다 강과 동일시되고, 바르발 강은 다메섹 남쪽에 있는 엘-아우와즈(el-Auwaj) 강일 수 있다.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64 을 참고하라.

¹³ Larry Collins and Dominique La Pierre, *O Jerusale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2), 499.

지적하기 위해 내가 “영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아만(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굴욕**(왕하 5:9-11a)이나 복음의 **단순성**(왕하 5:10, 11b; “씻고 깨끗해지라”)이나 복음의 **협소함**(왕하 5:12)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버거웠다. 딜러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한다.

“요단강에서 씻고 나병을 고치라.”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생각인가! 나는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을 생각할 수 없다!

글쎄, 한 가지 일은 더 우스꽝스러울지 모른다. 그건 바로 거의 2 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한 사람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 죄로부터의 용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영생 등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¹⁴

IV. 하나님의 일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왕하 5:15-19 God's work is unmistakable)

나아만은 전과 동일하지 않다. 첫째, 나아만의 변화는 그의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는 왕하 5:15-18 에서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5 번이나 “당신의 종”이라고 부른다.¹⁵ 사마리아의 하찮은 선지자에 대한 왕하 5:11-12 의 오만한 폭언과는 상당히 다른 변화이다. 둘째, 나아만의 변화는 그의 **고백**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왕하 5:15b).” 엘리사가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하시야왕(왕하 1:3, 6, 16)은 결코 그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에 유일한 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아람인이 있다.¹⁶ 셋째,

¹⁴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118. 다시 이름 없는(참조, 왕하 5:2-3) 자들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다고 판명되는 것에 유의하라. 나아만의 분노(왕하 5:12b)는 그를 곧바로 아람으로 돌아가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무리의 이름 없는 그의 종들이 그의 허영심에 부분적으로 호소함으로써(왕하 5:13) 성공적으로 그를 설득하여 요단강으로 가게 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러한 자연적인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단장한다.

¹⁵ Rick Dale Moore, *God Saves*, 78.

¹⁶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93: “그러나 치유가 이루어졌던 방식이 그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단순히 부자연스러운 예언적 능력에 대한 편리한 은유가 아니라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치유는 선지자의 손의 마술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왕하 5:11). 그것은 선지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살아 계신 주님께 의해 전달되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실재를 확신시킨 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직접성이며, 그 직접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으로 그를 데려갈 필요가 있었다. 만약 엘리사가 관여했다면, 모호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나아만의 변화는 그의 **결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흠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왕하 5:17b).” 흠 샘플에¹⁷ 너무 매료되어서 아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전적으로 여호와만 숭배하겠다는 나아만의 헌신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넷째, 나아만의 변화는 그의 **감수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왕상 5:18). 이 마지막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왕하 5:18 에 이르러 어떤 독자들은 실망할지도 모른다. 나아만은 그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막 고백하고서 이제 얼버무리며 다음과 같은 단서, 곧 다음과 같은 예외를 허락받기를 구한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은 왕이 림몬을 숭배하러 갈 때 그의 임무의 일환으로 왕을 호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만은 이런 의식을 행할 때 그 자신이 림몬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임무상 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물론 나아만은 자기 집 근처 어딘가에서 이스라엘의 흠 위에서 숭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의식적 변칙에 대해 나아만은 미리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나아만의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만의 불완전한 헌신을 비난할 근거를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작은 타협의 위험”을 주장하거나 90 퍼센트의 헌신에 대한 실망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평안히 가도록 보냈고(왕하 5:19a), 그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나아만이 수십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왕하 5:18 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¹⁷ 요한복음 4 장의 피상적인 지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나아만을 후원하는 것은 너무 쉽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특정 영역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아만은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통찰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프레트하임(T. E. Frethheim, *Deuteronomic History* [Nashville: Abingdon, 1983], 155)은 이렇게 제안한다. 나아만은 “그가 가지고 돌아가는 흠 위에 세워진 제단에서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엘리사가 대표하는 신앙 공동체와 물질적 유대 관계가 제공된다.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그 공동체와의 영적 관계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관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적인 유대가 필요하다.” 흠을 옮기는 일을 하였던 다른 사람들도 있다. Barbara Tuchman, *The First Salute* (New York: Alfred A. Knopf, 1988), 292 에 의하면, 미국 독립 혁명 이후에 라파예트는 “무덤을 만들기엔 충분한 양의 미국 흠을 가지고 집으로 왔고, 1834 년에 죽었을 때 그 흠에 묻혔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목하라. 그것은 민감한 양심을 보여준다. 여기 여호와에 대한 그의 배타적인 충성과 그의 임지에서의 기대들 사이에서 마찰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괴롭힌다**. 벤엘을 방문하거나 바알에게 입을 맞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이 이방인의 불안해하는 양심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명백한 불일치로 인해 그들이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후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의 은혜는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실하고 두려워하는 숭배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여기서 살전 1:9-10의 구약판을 갖는다. 나아만은 그날 요단강에서 나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교 신앙도 잃었다. 이것은 (요약하면) 그의 태도, 고백, 결심, 감수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증거를 남긴다. 그것은 (로이드 존스 박사의 첫 번째 목사관) 샌드필즈 근처의 소년과 같다. 그는 자기 선생님에게 그의 가족이 어느 정오에 즐겼던 만찬, 곧 그레이비, 감자, 고기, 양배추, 심지어 쌀 푸딩까지 먹었던 만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제 아버지께서 개종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아버지는 금요일 밤에 술을 마시는 데 허비하던 돈으로 이제 가족을 먹이기 위해 식료품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온 것이었다.¹⁸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에 회원이 되기를 원했던 가정부가 있었다. 스펀전은 그녀에게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묻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변화시키셨던 **증거**를 대라고 다그쳤을 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글쎄요, 저는 (매트 아래로 쓸어넣듯이) 남의 허물을 용서하거나 숨겨주며 잊어버립니다.”라고 자백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양배추와 쌀 푸딩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매트 아래로 무언가를 쓸어 넣는 빗자루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는 그 여파로 흔적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아만의 변화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것을 다루기 전에, 나는 열왕기상 2-8장의 구조를 통해 저자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자세를 바르게 하며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도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왕하 2:1-8:6의 전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서론: 은혜와 심판을 베푸는 참 하나님의 사람, 왕하 2:1-25

B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 왕하 3:1-27(여호람 왕)

¹⁸ Iain H. Murray, *Davi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2), 220-21.

C 남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 왕하 4:1-44(3-4 에피소드)

D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 왕하 5:1-27(나아만)

C' 남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 왕하 6:1-7

B'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 왕하 6:8-23; 6:24-7:20

A' 결론: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왕하 8:1-6

열왕기하 2 장(A)은 열왕기하 2-8 장의 적절한 서론으로 엘리사를 소개한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왕하 2:9-14)과 하나님의 지혜(왕하 2:15-18)에 의해 입증된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에게 은혜(왕하 2:19-22)와 심판(왕하 2:23-25)을 베푸는 선지자이다. 이에 상응하는 왕하 8:1-6(A')은 적절한 결론이다. 분명히 저자는 여기서 연대 순서를 무시했다. 왜냐하면 왕하 8:1-6 에서 왕은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왕하 5:20-27 의 에피소드는 먼저 묘사되어 있지만 이 왕실 면담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왕은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왕하 8:4)."고 게하시에게 청한다. 저자에게 이것은 열왕기하 2 장 이후에 일어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제목이었을 것이다. 열왕기하 3-7 장에 묘사된 엘리사의 행위는 주로 은혜의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교한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B, B'), 믿는 남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C, C'),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앙에 나오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D)이다.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의 중심에 나아만 이야기를 배치한 것은 저자가 그것이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암시한다.

여러분은 나아만 이야기의 특별한 중요성에 대한 이 구조적인 논증에 감명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중요하며 중요한 요점, 곧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나쁜 소식이라는 요점을 제시한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가? 굳이 말한다면, 나아만이 왕하 5:15-18 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정죄한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어디에서 나아만의 고백(왕하 5:15)과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를 제외하고 누가 여호와만을 예배하기로 결심하는가(왕하 5:17)? 여러분은 이스라엘 어디에서 배타적인 예배에 대한 여호와의 요구의 양자 택일을 직감하는 양심을 찾을 수 있는가(왕하 5:18)? 나아만의 믿음은 혼합주의적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아람인은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을 정죄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지나가버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분은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하셨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눅 4:27).” 이 말에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이 화가 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나치시면서 나아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나병환자는 나병환자로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인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확장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장을 포착하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노를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온 특권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교회 배경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그리고 동거하는 남자 친구가 있는 어머니를 부모로 둔 대학 1학년 학생은 교목이 그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반면,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에서 자라왔고 거의 평생 동안 복음을 알고 지내온 또 다른 학생은 복음에 초연해 있고 전혀 감동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아람인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지나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복음주의 교회가 그들의 특권 가운데서 멀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V. 하나님의 은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왕하 5:20-27 God's grace can be dangerous)

이제 우리는 개종한 이방인 나아만(왕하 5:15-19)과 변질된 이스라엘인 게하시(왕하 5:20-27)사이의 또 다른 주요 대조를 살펴볼 것이다. 게하시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치유를 경험한 후 엘리사와 나눈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¹⁹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할 때 왜 그렇게(그의 맹세에 유의하라) 단호했는가(왕하 5:16)?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나아만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호와를 뇌물로 매수하거나 조종하거나 회유할 수 없다. 영원히 여호와를 대가를 바라며 자신의 손을 내미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를 그야말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게하시의 범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에게 더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다른 범죄들도 있다. 왕하 5:20 절에서 그가 세 번째 계명(삼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는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확실히 민족적 비아냥거림)에게서 아무런 보답품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짜증이 났던 것 같다. 그래서 게하시는 여호와와

¹⁹ 프리케(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7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내러티브의 정점은 단지 반절(왕하 5:14b) 밖에 할애되지 않은 나아만의 치유가 아니라 무려 5 절(왕하 5:15-19)이나 할애된 나아만의 선지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이다.

이름으로("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자신이 나아만에게서 그의 재물의 일부를 빼앗겠다고 다짐한다. 그의 새빨간 거짓말(왕하 5:22)은 아홉 번째 계명(구계명)을 짓밟고, 그의 탐심(열 번째 계명, 십계명)은 처음부터 그를 부추긴다(참조, 왕하 5:26 에 나오는 엘리사의 말). 그러나 게하시의 가장 끔찍한 범죄는 그가 **여호와에 대한 진리를 왜곡한 것이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왕하 5:16 에서 나아만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예상치 못한 두 손님에 대한 그의 새빨간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왜곡했다. 그의 새빨간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져 버렸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어 버렸다.

왜곡하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 장년 주일 학교를 가르치는 장로 중 한 분이 한 여인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자신이 갈망했던 긴 술 혹은 보석을 발견한 후 일어났던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 가격은 터무니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보를 쳐서 자신의 욕망 그리고 그 가격을 알렸다. 그녀의 남편은 "No, price too high. 안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라고 답신을 보냈다. 그런데 이 답신은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에서 전신 교환원이 심표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No price too high. 너무 비싼 가격이란 없소."라는 답신을 받았고 유럽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심표 하나가 빠진 것에 불과했는데 엄청 다른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게하시의 경우에, 판명된 대로 그것은 두 달란트의 은과 두 벌의 옷에 불과하였다(왕하 5:22-23). 그러나 피해는 막심했다. 엘리슨은 다음과 같이 옳게 잘 말하였다.

동양인의 예절은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외견상 주저함을 요구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이 문제를 평소보다 다소 더 멀리 끌어가고 있었다고 간주하고 게하시의 이야기(왕하 5:22)를 단지 예의바른 착안이라고 생각했다.²⁰

어쨌든, 게하시의 탐욕은 근동에 흩어져 있는 다른 모든 신들처럼 여호와도 "취하는 자"임을 암시했다. 따라서 게하시의 범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게하시의 형벌(왕하 5:27)이 왜 그렇게 가혹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시는지를 설명해준다. 딜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²⁰ H. L. Ellison, "I and II Kings," *The New Bible Commentar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54), 320.

선하심에 대한 값을 매기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돈의 의해 조종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존심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은혜는 공짜였다. 게하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²¹

은혜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섭다. 갈 1:8-9 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우리의 간담을 썩늘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싸웠던 싸움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충되어야 했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해야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는 이러한 예수님-플러스 운동이 있었다. 예수님께 할례를 더하거나 예수님께 나의 선행을 더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 한 큰 "교파"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더한 것이다.

어떤 그룹들은 단호하게 은혜를 거부한다. 프리메이슨 장례식 기도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 후에 당신의 영원한 왕국으로 받아들여져 죽은 친구들의 영혼과 함께 **경건하고 고결한 삶의 정당한 보상을** 즐길 수 있기를" 구한다.²²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연이어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선언한다. 한 물몬교 출판물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죄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직 우리 각자의 회개, 세례, 선한 삶을 조건으로 용서될 뿐이다."라고 주장한다.²³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속죄를 이루셨지만, 크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플러스! 그런데 그 "플러스"가 예수님을 흐리게 한다.

복음주의 교회조차도 이런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때때로

²¹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115.

²² *Masonry in Light of the Bible* (St. Louis: Concordia, 1954), 20 에서 재인용.

²³ Edgar P. Kaiser, *How to Respond to...The Latter-Day Saints* (St. Louis: Concordia, 1977), 18-19 에서 재인용.

복음을 이해하거나 실천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운동이 교회의 내부나 옆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저런 운동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것이 예수님의 분신이 아닌지 궁금해할 수 있다. 제발 이해해주라. 이들은 자주 유용한 사역을 제공하는 훌륭하고 도움이 되는 그룹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님-플러스 형식으로 끝나게 하는 아이콘들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수님-플러스-약속-지킴이, 예수님-플러스-가족 중심, 예수님-플러스-빌-고트하드(즉 -우리가-감히-그것을-인정하는가?) 그리고 예수님-플러스-개혁신학 등이 될 것이다.²⁴

V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나 일로 보이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 오셨는가?
2.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유명한 인물 대신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3.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범한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아 왔는가?
4.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이 왜 그렇게 "극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는가?
5.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결과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달랐는가?
6. 어떤 일을 해야 했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내키지 않은 적은 없었는가? 왜 나아만은 그렇게 했는가?
7. 언제 여러분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은혜에 다른 것이 "더해진(플러스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²⁴ 이러한 적용은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지만, 우상숭배에 대한 자신의 성향에 눈이 멀어 있는 경우에만 그럴 것이다.

9.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도끼를 주셨을 때 (왕하 6:1-7 When God Gave a Preacher the Axe)

존 “랍비” 던컨 박사는 애버딘에서 7 마일 떨어진 한 마을에서 성찬 금식일에 설교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코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싶을 때 걸어서 좋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자 그는 담배를 피우려고 몸을 돌렸고, 담배를 피운 후에도 돌아서서 원래 가던 길로 돌아갈 생각도 안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던컨은 애버딘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정신을 차렸다. 그는 던컨이 그가 들으러 가는 설교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그는 던컨 박사를 코담배 이전의 원래 가던 방향으로 돌려놓았다.¹

이제 여러분은 이 단락을 다룰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작은 사건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물에 빠진 도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가?” 라고 묻고,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사실이긴 하지만 ... 그건 너무 사소하고,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불필요하고, 너무 이상해 보인다. 이것 말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가? 랍비 던컨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피소드를 **합리화**한다. 모든 종류의 불가피한 부가 사항들과 선의의 보충 사항들 아래 묻혀 있을지라도, 이 합리화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일은 엘리사가 잘라낸 나뭇가지로 주위를 이리저리 찢어 보다가 도끼 머리의 구멍에 성공적으로 그것을 삽입하여 들어올려서 그 기다리는 신학생의 손에 주었다는 것이다. 아니면 엘리사가 자기 나뭇가지로 도끼 머리를 더 얇은 물 속으로 밀어서 그 신학생이 그것을 회수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² 본문이 이런 식으로 읽히지 않으니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합리화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그것이 “분명히 전설적”인 것으로 보며 엘리사의 추종자/제자들에 의해 과장된 사건이라고 선언한다.³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을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풍유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쇠도끼 머리는 사람의 영혼이고, 요단강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은 절망적으로 심판의

¹ David Brown, *The Life of Rabbi Duncan* (1872; reprint ed., Glasgow: Free Presbyterian, 1986), 178.

² 이 제안에 대해서는 John Gray 와 G. H. Jones 의 주석을 참고하라.

³ Claus Westermann, *A Thousand Years and a Day* (Philadelphia: Muhlenberg, 1962), 148-50 을 참고하라.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막대기나 가지는 물론 나무이고, 십자가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상황에 들어오면 사람의 영혼은 구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이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⁴

풍유화의 문제점은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편이라면 아내의 장보기 목록을 감히 풍유화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장보기 목록에 국수(noodle)를 적어 놓았다. 남편은 “머리를 써라(use your head)”는 뜻의 “머리를 써라(use your noodle)”는 표현이 있다고 혼잣말을 하며 상추 한 포기(head)를 장바구니에 집어넣었다. 아내의 목록에 마시멜로가 있다. 마시멜로는 부드럽다. 그녀는 부드러운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게들에서 가장 부드러운 화장실 휴지로 간주되는) 4 팩짜리 차민(Charmin)을 산다. 아내의 목록에 닭(chicken)이 있다. 남편은 사람들이 용기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겁쟁이(chicken)”이라고 부르거나 “겁쟁이(yellow)”라고 비난하는 것을 회상한다. 여기서 그는 곧 힌트를 얻고서 그녀가 노란색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버터인가 아니면 치즈인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내의 장보기 목록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나는 여러분이 그런 장보기를 마치고 식료품점을 나섰다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석양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고 제안할 것이다. 이 본문에 풍유화를 위한 보증이 없다. 도끼 머리는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진짜 쇠 덩어리이고, 막대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뭇가지이고, 강은 그저 요단강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도덕화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문이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훈을 찾는다. 그럴 때 상상력이 마구 발휘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빌린 것에 대한 질책이다. 아니면 “강 근처에서는 나무를 베지 말라”는 속담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속담은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어쨌면 그것은 건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소책자일 것이다. 아니면 그것은 도끼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고/하거나 도끼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가? 이 중 일부는 분명히 우스꽝스럽다. 그러나 도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더 우수한 도덕화를 따로 떼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⁵

⁴ Raymond Calkins, “II Kings: Exposition,” *The Interpreter’s Bible*, 12 vols. (New York: Abingdon, 1954), 3:215-16 을 보라. 칼킨스 자신은 이 단락에 보고된 기적이 다른 구약의 기적들처럼 사소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여기서 예로 제시한 것과 유사한) 풍유적 해석을 포함시켰고, 그는 그것을 전도자 J. 윌버 채프먼의 것이라고 했다.

⁵ 나는 알렉산더 스튜어트(*A Prophet of Grace* [Edinburgh: Knox, 1980], 185-94)가 여기서 도덕화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선지자들의 모임 장소가 “너무 좁다(1 절)”는 사실은 “성장이 건강한 종교 생활의 정상적인 상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그룹의 부흥의 비결은 “각 사람이 재물을 가져오는 것(2 절),” 즉 모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일 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럴 경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⁶

I. 단순한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왕하 6:5a God's concern for a simple need)

이 한 사람이 재목 혹은 그가 바라는 것을 베고 있을 때 “쇠도끼—그것이 물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 도끼 머리가 가장 무거운 것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기 전에 우리는 이 물에 빠진 도끼를 문맥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한다.

여기 왕하 6:1-7 에는 단순한 욕구와 개인적인 욕구가 모두 있다. 열왕기하 5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를 가진 나아만을 다시 보게 되지만, 그의 필요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이스라엘 왕에게 물어보라). 그것은 결국 나아만이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듯이, 5:11)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쇠도끼 이야기 후에 우리는 왕하 6:8-23 에서 아람(시리아)과의 군사적 교전 이야기와 왕하 6:24-7:20 에서 아람인의 사마리아 포위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제 정치, 외교 문제, 군사 전략 및 국가 위기의 장면이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도끼 머리에 관심을 보이신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중동의 혼란, 세계적인 테러 위협, 아르헨티나의 경제 붕괴, 콜롬비아의 내란,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기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세부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가? 그분의 의제는 이미 짝 차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대체로 그분이 “작은 것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greatness)을 “크심(bigness)”과 혼동하거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크심과만 연관시킬 때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있고/있거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이 과연 이러한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⁶ 이 단락(왕하 6:1-7)은 이전 이야기들과 언어적 연관성이 있다. 왕하 6:5 의 [차아크] (“부르짖다”)는 과부가 부르짖을(왕하 4:1) 때와 제자들이 치명적인 국을 맛보고 부르짖을(왕하 4:40) 때에도 나온다. 왕하 6:6 에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막대기를 “던진다[살라흐].” 이 동사는 그가 여리고의 샘에 소금을 던질(왕하 2:21) 때와 망가진 국에 밀가루를 던질(왕하 4:41) 때에도 나온다. 왕하 6:6a 에 나오는 엘리사의 질문은 왕하 4:2 에서 과부에게 던진 질문과 유사하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하 6:7 과 왕하 4:7 에서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해야 할 일을 지시한다. 왕하 4:3 에서 과부가 그릇을 빌려야[샤알, “ask”] 했던 것처럼 왕하 6:5 에서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그것이 빌려온[샤울 “asked”] 것이라고 말한다. 열왕기하 6:1-7 에서 누가 가장 많이 말하는지 보는 것은 다소 흥미롭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1-2 절에 25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 반면, 엘리사는 7 개(2b 에 1 개, 3b 에 2 개, 6a 에 2 개, 7a 에 2 개)의 단어만 사용한다.

형상대로 조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너무 바쁘시고, 너무 정신이 팔려 산만하시며, 시간 제약에 시달리고 계신다. 이런 회장님 유형의 하나님은 허드레꾼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아, 그렇지만,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의 위대함의 일부는 그분이 신자의 삶의 사소한 문제, 희미한 세부 사항, 개인의 필요, 세속적이고 평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여러분의 머리털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쇠도끼 머리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몇 년 전에 나는 **장로교 저널**(*The Presbyterian Journal*)에 실린 윌리엄 글래드스톤에 관한 일화를 읽은 적이 있다.⁷ 글래드스톤이 영국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국회 의사당 건물 근처의 거리를 청소하던, 다소 눈에 띄지 않는 환경미화원이 있었다. 그는 업무상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 미화원이 매일 하던 일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한 기독교인 사역자가 그를 수소문한 결과, 마침내 최소한의 필수품만 구비된 작은 다락방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 기독교인 사역자는 그 사람에게 외롭지는 않는지, 혹시 누군가 그를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그래요. 한 방문자가 있었어요.”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글래드스톤 씨가 나를 방문했어요.” 그 도시 선교사는 깜짝 놀라며 그가 바로 총리인 글래드스톤 씨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네, 글래드스톤 씨가 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그 의자에 앉아서 나에게 성경을 읽어 주셨어요.” 여기에 그날 아마도 48 가지 이상의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거리 미화원의 다락방에 앉아 있는 영국의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작은 필요처럼 보이는 것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에 대한 빈약하고 흐릿한 비유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올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문제들, 작은 세부 사항들, 사소한 일들이 쌓이게 되어도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그런 일들로 그분을 성가시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는가? 하늘은 그분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판이다(사 6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쇠도끼 머리는 그분께 중요하다.

II. 진정한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 (왕하 6:5b God's power for a genuine need)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왕하 6:5b)!” 얼마나 애처로운 부르짖음인가! 본문은 이들 중 일부가 살았던 곤경을 분명히 반영한다. 이 사람은 자신의 도끼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도끼를 빌려야 했다. 따라서 그것이 물에 가라앉았을 때, 곧 식사나 도구나 동전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철 도구는 꽤 비쌌을 것이므로, 이

⁷ 나는 그 이야기를 검증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사람은 아마도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⁸ 우리는 그를 이해하는 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의 얼빠진 반응은 “그냥 철물점에 가서 새 공구를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젊은 선지자는 거의 화를 내며 “뭘로요?”라고 대꾸하였을 것이다.⁹ 그러므로 이 기적은 불필요한 걸치레의 현란함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재미 삼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했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이 강력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본문은 여러분이 어떤 진정한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필요”를 부풀려서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서구의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본문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궁핍이 여호와의 도움을 위한 무대이며 우리의 위급함이 그분의 가장 훌륭한 행위를 위한 소품임을 증언한다.

III. 미래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왕하 6:3-4a God's providence for a future need)

내가 말하는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매혹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것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사람(왕하 6:6 에 나오는 칭호) 엘리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명된다. 그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가 가기를 거부했다면 어땠을까?¹⁰ 그가 그곳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도끼가 요단강에서 떠오르게

⁸ 참고, 딜러드(Ray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9], 125)의 해설: “우리는 주전 9 세기의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세계에 산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철기 시대의 시작을 주전 1200 년경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적어도 한동안 이스라엘이 이 금속, 곧 철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웃 국가들보다 뒤쳐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삼상 13:20-21). 철 도구는 엄청나게 비쌌을 것이다. 불을 피울 나무를 모으고, 광석을 다듬고, 도구를 만들어 날카롭게 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재량 소득(가처분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잔액)’이 많지 않았다. 빌린 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은 오늘날 빌린 차를 망가뜨리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⁹ 일부 학자들이 이 이야기/기적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선지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가 이 문제를 보았던 그대로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¹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체 단락(왕하 6:1-7)을 구분할 수 있다.

문제, 1절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한 선지자의 제자에게 박수를 보내자. “부디 주도 주의 종들과 함께 거주하십시오.” 알고 보니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었다! 그런 세미한 작은 세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해질 수 있는가! 그것들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이 선지자의 제자나 엘리사는 그들의 요청과 그의 응답이 그렇게 중요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주 미리 예비하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야기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요청(왕하 6:3a)과 동의(왕하 6:3b)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적인 예의처럼 보이지만, 그 사소한 일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아직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필요를 공급하고 계셨다.

데니스 르 블랑 (Dennis Le Blanc)은 레이건 대통령이 존 힝클리(John Hinckley)의 총에 의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을 회상한다. 총알이 명중한 부위 중 하나는 복부 근육 주변이었다. 레이건은 너무 자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가슴과 배 근육이 너무 발달되어 결국 탈장으로 이어질 까봐 염려하며 몇 년 전부터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제안, 2a절

동의, 2b절

요청, 3a절

동의, 3b절

존재, 4a

일, 4b절

사고, 5a절

괴로움, 5b절

질문과 위치, 6ab절

표징과 기적, 6c절

지시와 회복, 7절

그러나 단어의 수에 있어서 이 단락의 중심은 위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동의” 부분(3b)이다. 흥미롭게도 상황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은 이 이야기의 정중앙에 나오는 엘리사의 동의의 말에 달려 있다. [역자 주: 이 단락은 첫 번째 단어가 왕하 6:1의 [바움루, ‘그들이 말했다’]이고 마지막 단어가 왕하 6:7의 [바이카헤후, ‘그가 그것을 집었다’]이며 총 83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 중 40-42 번째의 단어가 왕하 6:3b의 [바요메르 아니 엘레흐](“그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이다.]

발달된 그의 복부 근육은 총알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고, 총알은 그의 심장에서 1 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¹¹ 필요가 생기기 오래 전부터 “준비”가 있었다.

내 독자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에 대한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동요시키지 않은 사소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여호와와 엄청난 선하심의 경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에 자기 백성의 선과 구원을 위해 가장 하찮은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재미있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IV. 영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 (God's appeal to a spiritual need)

여기서 나는 이 작은 이야기 전체가 줄 수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나는 이 절차가 다소 추측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연습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작은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또는 어떻게 들었어야 했는지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열왕기상하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열왕기하 24-25 장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엘리사 이후 약 300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왕하 6:1-7 을 왕하 4:1-44 에 있는 네 가지 이야기와 연결해야 한다. 그 이야기들은 왕하 6:1-7 과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신실한 소수자 중 저마다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베푸셨다. 왕하 4:1-44 과 6:1-7 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채프만(J. Wilbur Chapman)의 찬송의 마지막 가사인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¹² 가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크든 작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땅과 왕국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여러 해가 지난 유다 백성에게 이런 증언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 이야기들(그 중 6:1-7)은 길을 잃고 충성보다 배교를 더 좋아했던 이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을까? 그것들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들은 암시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¹¹ 이것은 Peggy Noonan, *When Character Was King* (New York: Viking, 2001), 116 에 언급되어 있다.

¹² “Jesus! What a Friend for Sinners!”의 마지막 가사는 “Saving, helping, keeping, loving, he is with me to the end.”이다.

“여호와와 그의 팔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보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찾으라.”

어느 날 스톤월(나중에 알려진 이름) 잭슨의 세계가 붕괴되었다. 그의 갓 태어난 아들은 죽은 채로 태어났고 그의 사랑하는 엘리는 그 일요일 저녁에 출혈로 사망했다. 그는 여동생 로라에게 슬픈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엘리는 아이가 죽은 채로 태어난 바로 그날, 곧 일요일 저녁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오! 종교의 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면 나는 무엇이든 기꺼이 복종할 수 있다. 오! 나의 누이여, 네가 그분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바랐다! 비록 만물이 나에게 가려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기쁘다.¹³

이 메모, 특히 “네가 그분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기를!”이란 호소에는 적지 않은 파토스가 있다. 나는 그것이 바벨론에 고립된 이스라엘을 위한 왕하 6:1-7 (그리고 왕하 4:1-44)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여기 모든 종류의 비상 사태 속에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란다!”

어쩌면 왕하 6:1-7 은 방대한 신학 개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그러니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적어도 이번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도끼를 주신 것이 **기쁘지** 않은가?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필요가 너무 작다고 느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2.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목격했는가?
3.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어디에서 보았는가?
4.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힘든 시기에 어떻게 당신을 지탱해 주는가?

¹³ James I. Robertson, Jr., *Stonewall Jackson: The Man, the Soldier, the Legend* (New York: Macmillan, 1997), 158.

5. 이 이야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10. 여호와와 그늘에서 안전함 (왕하 6:8-23 Safe in the Shadow of the Lord)

광고는 보안에 대한 호소를 할 때 잘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재산이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생명 보험이 있다.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한 광고는 절대적인 안전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x-브랜드 타이어 안에 아기가 앉아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틀니 접착제에 대한 광고도 그것을 사용하여 (공공 장소에서) “직접 사과를 드십시오.”라고 동일한 호소를 한다. 안전에 대한 이러한 호소는 조작되고,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종교의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는 **아무리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주님의 백성만큼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증언이 언제나 사실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이 흥미진진하고 웃기는 내러티브의 증언이다.

이 내러티브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것이 앞의 것과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왕하 6:9, 12). 우리는 아람과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모른다. 나는 벤하닷 2세와 여호람일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그렇지만 이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반드시 연대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어쨌든, 엘리사를 제외한 모든 등장 인물은 익명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개인적인 이름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또한 우리는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아람인/시리아인 신복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 845 년경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답변이 불가능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구조에서 보듯이 매우 예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하 6:8-23 의 구조

이스라엘을 살려주심, 8-10절

좌절과 사실 확인, 11-12절

옳은 장소, 13-14절

두려움의 위기, 15절

시력을 위한 기도, 16-17a절

기도의 응답, 17b절

“공격” 위기, 18a절

시각 장애를 위한 기도, 18b절

기도의 응답, 18c절

틀린 장소, 19절

사실 확인과 위험, 20-21절
아람을 살려주심, 22-23절

이 구조는 본문에 대한 지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강해에서 문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주요 증언, 곧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감싸주신다(시 125:2)는 증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I. 지상의 나라들은 그분의 기이한 보호를 만난다 (왕하 6:8-13 The kingdoms of earth meet His uncanny protection)

참, 그것은 기이했다. 아람 왕은 자신의 전략을 세웠지만(왕하 6:8) 이스라엘은 그것에 지혜롭게 대처했고(왕하 6:10)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왕하 6:10b). 대적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계략과 매복을 피하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군사 기밀을 누출하는 첩자, 곧 배신자가 그들 내부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어느 날 전쟁 회의에서 왕은 좌절감을 표출하며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다(왕하 6:11b).¹ 그제서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이 줄곧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그에게 말한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왕하 6:12; 또한 왕하 6:9 참조).” 당연히 왕은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그를 잡고 싶어한다(왕하 6:13a). (그는 이 계획도 엘리사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가?)

왕의 좌절감은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19 세기 미국 서부의 로키 산맥 메뚜기의 재앙과 같았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들의 부서진 몸에서 나온 기름이 기관차의 바퀴를 회전시켰기 때문에 그것들은 선로에서 기차를 멈추게 하곤 했다.² 그 많은 힘에도 불구하고 견인력이 없었다. 그것은 여기 아람의 왕의 상황이었다. 그의 모든 계획, 그의 속임수와 전략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되는 패턴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기이하고 아이러니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의 적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1970 년대에 중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그렇듯이)

¹ 나는 왕의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로글랜드(Max Rogland, 'Pro or Contra? 2 Kings 6:11,' *Presbyterion* 27/1 [Spring 2001]: 56-58)는 전치사 [알]을 “위하여, for”가 아니라 “대적하여/거슬러, against”로 읽는다. 다시 말하면, 왕은 비꼬듯이 그들의 실패를 “자기 신복들의 이해할 수 없는 역량 부족” 탓으로 돌렸다. 그러므로 왕의 질문은 “(나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뜻이다. 어느 경우이든 왕의 질문은 비꼬는 것이다.

² Otto L. Bettman, *The Good Old Days—They Were Terrible!* (New York: Random House, 1974), 60.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집회 장소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곤 했다. 한 특별한 모임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매우 강하게 느꼈다. 집회가 끝날 무렵 다섯 명의 방문객이 일어나더니 자신들이 체포를 위해 파견되었었다고 발표했다. 이제 그들도 믿기를 원했다.³ 교회의 수호자께서 적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 흔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막 13:13)”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적들에 의해 파멸되고 짓밟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들, 교회의 역사, 기독교인들의 전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상한(그리고 종종 재미있는) 보호의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 아람 왕이 회의 탁자 위의 지도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가 에워쌌던 유다로 인해 분노가 부글거리지만, 우리는 자기 백성의 수호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거나 해칠 수 없다는 심각한 요점을 포착한다. 시편 124 편의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와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 왕국들이 그들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그분을 찬양해야 할 때가 많다.

II.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보호를 누린다 (왕하 6:14-17 The servants of God enjoy His unseen protection)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할 경우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진다. 적어도 엘리사의 사환은 그랬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가서 아람 왕이 도단에 파견한 군대, 곧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왕하 6:15a)”를 보았을 때 그런 충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망을 친 문을 통해 다시 뛰어 들어가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왕하 6:15b)?” 하고 소리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엘리사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왕하 6:16) 종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기도한다(왕하 6:17).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왕하 6:16)”는 말을 듣는 것과 그 현실에 강하게, 의식적으로, 생생하게 감동받는(왕하 6:17)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환에게 엘리사를 수호하는 군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므로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왕하 6:17b).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고, (엘리야의 “승천”을 보여주는) 왕하 2:11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이다.⁴ 그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그의 사환도

³ James and Marti Hefley, *By Their Blood*,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6), 77.

⁴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76의 해설을 참고하라.

둘러싸고 있다. 이 진리를 듣는 것(왕하 6:16)도 좋지만, 이 진리에 사로잡히는 것(왕하 6:17)이 훨씬 더 위안이 된다.⁵

이 본문은 **천로역정**에서 아름다운 궁전(미궁)에 대한 크리스천(기독교)의 접근에 대한 번연의 묘사를 생각나게 한다. 짐꾼의 오두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크리스천은 매우 좁은 통로로 들어가서 앞을 가로막는 두 마리의 사자를 목격했다. 그런 다음 번연은 덧붙인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슬을 보지 못했다.” 그 사슬을 보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호와와 보이지 않는 보호에 대한 이 계시가 오랜 세월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에 전해졌을까? 이것은 단순히 주전 9 세기에 발생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하, 곧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킨 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⁵ 어떤 이유에서인지 흠스는 이 “불말과 불병거” 군대를 아람 군대와 동일시하는 것 같다. 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74: “그러나 엘리사의 안심시키는 말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환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공격하려는 적들뿐이다.” 그리고 흠스는 덧붙인다. “산에 가득한 병거와 ‘불말’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일 리가 없다. 그들은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 내려가는 자들과 똑같다(78 쪽).” 나는 흠스의 설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고 비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레이(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512-13)는 물론 말과 불병거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역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신하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한다.

불말과 불병거(왕하 6:17)에 대한 그럴듯한 환상과 아람인의 시각 장애(왕하 6:18; 창 19:11 참조)는 확실히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설임을 암시한다. 말과 병거에 대한 환상과 적을 사마리아로 데려온 것에 대한 전승의 역사적 근거는 도단 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에 매복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병거 부대가 평야의 출구를 막고 아람 사람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엘리사는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여 또 다른 매복 장소, 곧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근처, 즉 아마도 도시 북쪽에 있는 천연 원형 극장에 이르게 했다.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보여준 것은 도단에 매복한 것을 가리키며, 아람인들의 눈을 멀게 해 달라는 그의 기도는 사마리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알게 될 때까지 그들이 그림자를 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다. 이것과 그의 일반적인 기동성과 많은 현지 접촉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망의 조직, 그리고 포로를 돌려보내라는 외교적 조언은 아람의 실제 공격이 있었을 때 엘리사가 실제로 했던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불신에 대한 멋진 용어인) 합리화의 본보기이다. 그리고 그레이의 개정판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필요로 한다. 그의 재구성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성경 저자들(복수형에 유의—결코 하나일 리 없음)은 실제로 그레이가 서술한 사건을 취하여 현존하는 성경 본문의 형태로 그것을 “다시 말한(retell)” 창의적인 문학적 천재였음에 틀림없다.

책의 일부임을 기억하라(열왕기하 24-25 장 참조). 사건 발생 300 년 후에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은 왕하 6:8-23 을 어떻게 읽었을까? 특히 회개한 남은 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들은 조국과 단절되어 이방 초강대국 아래 살며 하찮은 민족의 일부로 삼켜져 역사의 찌꺼기로 내려버려질 것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다(왕하 6:16). 그러나 그들은 십중팔구 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경험은 보이지 않는 보호가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예수님은 겻세마네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 26:53)?”라고 말씀하셨다. 72,000 명의 강력한 영들이 예수님의 방어에 빨리 개입하고 싶어 못 견뎌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군단은 한가했다. 이것은 겻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조용히 “베드로야, 나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하 6:8-23 의 보이지 않는 보호를 아시고 그 아래 사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어떠할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하 6:17 의 보게 해 달라는 기도가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왕하 6:16 의 사실에 기대어 계속 나아가야 한다. 보이지 않는 군단이 얼마나 필요한가! 어쩌면 여러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부서져 버린 가정 파탄의 비통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여러분은 종양학 부서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면 여러분은 미움을 받는 사람 중 하나를 말로 공격하지만 반복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곤 할지 모른다. 그분께 불말과 불병거를 살짝 보여달라고 부탁해도 괜찮다.

III. 하나님의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 (왕하 6:18-23 The enemies of God receive His unexpected protection)

여기에 유머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왕하 6:18-23)가 있다. 엘리사는 이 이야기 내내 간단한 기도를 드린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왕하 6:17 에 있었고] 그의 두 번째 기도는 왕하 6:18 에 있고 세 번째 기도는 왕하 6:20 에 있다. 왕하 6:18 에서 아람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엘리사는 여호와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그들을 눈멀, 혹은 눈멀게 하는 빛[NJPS]으로 치시라”)고 기도한다. “눈멀”을 뜻하는 [싼베림]이란 단어는 여기 왕하 6:18 과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문 근처에 있었을 때) 창 19:11 에서만 사용되었다. 분명히 여기와 십중팔구 창세기 19 장에 나오는 “눈멀”은 시력의 부재가 아니라 일종의 환상적 어리둥절 또는 시각적 혼란이다. 엘리사는 결국 (그들이 정말로 찾고 있던 사람에게 그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확신시킨 후에) 10 마일 되는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왕하 6:19). 또 다른 기도, 곧 세 번째 기도(왕하 6:20)가 나온다.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여셨다. “너희가 어디 있는지 맞춰 보라, 친구들아?!” 이 때

이스라엘의 왕은 약간의 자제가 필요했다. 그는 잔치보다는 피바다를 생각하고 있었다(왕하 6:21). 그러나 엘리사는 왕에게 적의 군대에 대한 지시를 내린다(왕하 6:22). 그는 그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은 적군에게 잔치를 베풀고 잘 먹여 고국으로 돌려보냈다(왕하 6:23).

이제 우리는 이것 또한 은혜와 소망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이 기이한 사건의 반전은 특히 아람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그들은 여호와와 선지자의 손에 넘어갔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살려주셨다.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적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⁶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네덜란드의 마켓 가든 공세에서 글라이더 조종사 연대의 마이클 롱 중위는 우거진 덤불을 뚫고 전투 순찰대를 이끌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젊은 독일인과 마주쳤다. 롱은 리볼버 권총으로 사격을 개시했지만 그 독일군의 기관단총 사격으로 인해 허벅지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롱은 그 독일인의 오른쪽 귀만 스쳤을 뿐이었다. 그 독일군은 침착하게 총상을 입은 롱의 가슴에 앉아 기관단총으로 그 부근을 쏘아댔다. 그러는 동안 뜨거운 탄피가 롱의 옷 자락으로 떨어지곤 했다. 분노한 롱은 독일인을 쿡쿡 찌르고 포탄 케이스를 가리키며 "아주 따뜻해"라고 외쳤다. 그 독일군은 "오, 야!"라고 대답하며 포탄이 롱을 태우지 않도록 위치를 바꿨다. 그 독일군은 사격을 멈추고 롱을 수색한 후 그의 구급 상자를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롱은 그의 허벅지를 가리켰고, 그 독일인은 그의 귀를 가리켰다. 그들 주변에서 총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에 붓대를 감아 주었고, 롱은 포로가 되었다.⁷

그것은 적들 사이에서 기대되는 일종의 "보살핌"이 아니다. 그것은 다소 예외적이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을 때 그들의 심장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쿵쾅거렸을 것이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왕하 6:20b)!" 그들은 그것이 "연막 작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건졌다. 만일 그때 아람인들이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납득했을 것이다. 여호와와 보호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제공되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아람인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제지하심으로써 아람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태양과 방패로 삼을 수 있다. 이 아람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

⁶ 아람인들을 살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쁜 소식일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곧 자기 백성을 채찍질할 자들을 보존하고 계신다(왕하 8:12-13 참조).

⁷ Cornelius Ryan, *A Bridge Too F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513-14.

이 본문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단지 교회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피난처는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다. 우리는 조셉 하트의 놀라운 찬송가를 “오라, 너희 아람인들아! 오라, 가엾고 비참하고, 나약하고 상처입고, 병들고 아픈 자들아!”라고 고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⁸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하거나 특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2.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불말과 불병거”를 한 번이라도 엿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상황이 있었는가?
3. 여러분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목격하고 있는가?
4. 여러분이 원수를 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⁸ [역자 주] 저자는 Joseph Hart 의 다음과 같은 Verse 1 에 나오는 “ye sinners”를 “ye Syrians”라고 대치하고 있다.

Come, **ye sinners**, poor and needy,
Weak and wounded, sick and sore,
Jesus ready stands to save you,
Full of pity, love, and power.

11. 확실하고 엄중한 구원 (왕하 6:24-7:20 A Sure and Severe Deliverance)

1865 년 3 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상점 창문에 붙어있는 간판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베이컨, 파운드당 \$ 20; 살아있는 암탉, 개당 \$ 50; 쇠고기, 파운드당 \$ 15; 신선한 청어, 한 쌍당 \$ 50; 버터, 파운드당 \$ 20 달러.¹ 그것은 남북 전쟁 중 식료품 가격이였다. 전시에는 도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마리아에게 물어보라.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0 마일 떨어진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이다. 아람/시리아의 벤하닷 2 세는²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와 포위망을 구축했다.³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신다.** 나는 강해를 통해 그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⁴

I. 구원에 대한 절실한 필요 (왕하 6:24-33 The Desperate Need for Deliverance)

우리는 아람인들이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파괴했는지 알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은 사마리아를 급습하여 중앙 정부를 초토화시켜 온 나라가 항복하도록 수도 공격에 집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람의 전략에 대한 더 큰 질문들은 단순히 살아 남기 위해 애쓰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는 문제다. 여기 사마리아에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에 대한 한 그림을 본다.

¹ Burke Davis, *To Appomattox* (New York: Rinehart, 1959), 9.

² 어떤 사람들은 이 아람 왕을 벤하닷 3 세와 동일시하며 이 이야기가 여호아하스(주전 814-798 년경) 또는 여호아스(주전 798-782 년경)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람(주전 852-841 년경)이고 아람 왕은 벤하닷 2 세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전군을 소집한 이 공격(왕하 6:24)과 이전의 공격 및 기습(왕하 6:8-23) 사이의 차이점도 유의하라. 이 차이점은 왕하 6:23 과 왕하 6:24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여준다.

³ ABD, 5:915: "사마리아는 북쪽, 서쪽, 남쪽의 계곡 위로 300 피트 이상 솟아 있는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동쪽으로 길고 경사진 능선의 장엄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George A. Turner,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Grand Rapids: Baker, 1973), 212: "동쪽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접시에 놓인 둥근 원뿔처럼 사방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 예루살렘이나 두로와 같은 자연적인 방어 시설은 없지만 그 위치와 고도 및 주변 언덕과의 거리 때문에 방어벽들은 사마리아를 거의 난공불락이 되게 했다." 사마리아의 방어들에 대한 설명은 ABD, 5:917 을 참조하라.

⁴ 문학적 구조를 보면 6 개의 장면, 즉 왕하 6:24-25(포위의 심각성), 왕하 6:26-31(왕과 여인—인육을 먹은 사건), 왕하 6:32-7:2(공격을 받는 엘리사), 왕하 7:3-11(네 명의 나병환자), 왕하 7:12-15(불안한 왕과 아무개[한 신하]의 논리), 왕하 7:16-20(엘리사의 말의 성취와 왕의 장관의 죽음) 등의 장면이 있다. 그러나 나는 강해가 이 문학적 구조에 얼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식비는 그 절망의 일부를 반영한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팔십 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에 팔리는 형편이었다(왕하 6:25).”⁵ 나귀 머리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아마 영양가가 별로 없었을 것이고 확실히 정결한 것이 아니었다.⁶ 표준 임금이 한 달에 약 1 세겔이라면⁷ (그리고 세겔이 왕하 6:25 에서 계산된 무게라면), 쓰레기 같은 당나귀 머리의 값으로서 80 세겔은 사람들이 음식에 광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비둘기 똥”은 비둘기 배설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카드어 문헌에 비추어 그것이 구주 콩깍지(carob pod)에 대한 통속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⁸ 음식으로 섭취하든 연료로 태우든 반 파인트에 5 세겔이나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값이었다.

그러나 인적 희생 비용은 식품에 대한 공황조차도 무색하게 만든다. 왕이 성벽을 지나며 아마도 사적인 정찰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왕하 6:26). 그녀는 그의 도움을 원한다. 냉소적으로 거절한(왕하 6:27) 후,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문제에 대해 묻는다(왕하 6:28a).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 여인은 이웃 여인과 동의하며 하루는 그녀의 아들을 먹고 다음 날에는 그 이웃 여인의 아들을 먹기로 했다. 고소인은 동의한 대로 자기 아들을 요리 솥에 넘겼지만, 다른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을 먹기로 맹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이 되자 그 아들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숨겼다. 그것은 전혀 옳지 않았다(왕하 6:28b-29). 어쩌면 왕은 결코 심판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왕은 그저 이 포위 공격이 초래하고 있는 공포에 대한 고뇌에 빠졌을 뿐이다(왕하 6:30).⁹

⁵ 이 구절에서 세겔이란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여기서 지정된 무게가 세겔이라고 가정한다(왕하 7:1, 18 참조).

⁶ 나귀는 발굽이 하나이고 (갈라지지 않았고) 새김질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귀의 고기는 이스라엘에게 부정하다(레 11:3-8 참조).

⁷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and Mark W. Chavala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0), 393.

⁸ 학교의 음식 서비스를 “독약 궁전(Poison Palace)”이라고 부르곤 하는 오늘날의 대학생과 비교해 보라.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 음식에 대한 그들의 이름이자 아마도 평가일 것이다. 따라서 “비둘기의 똥”은 다른 것에 대한 통속적인 이름이었을 수 있다.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79 을 참조하라.

⁹ 앗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주전 669-633 년경)의 포위 공격은 로마군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육 섭취(ANET, 298, 300)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Josephus, *War*, 6:201-13 참조). 클라렌스 매카트니(Clarence Macartney, *Chariots of Fire and Other Sermons on Bible Characters* [New York: Abingdon-Cokesbury, 1951], 115-16)는 주후 19 세기의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회상한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절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도 마주한다. 언약의 저주들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불충을 고수할 경우 바로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셨다(레 26:27-29; 신 28:52-57; 또한 애 2:20; 4:10 도 참조할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목격하는 것은 아람의 잔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다.

또한 우리는 왕의 반응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인내심**을 볼 수 있다(왕하 6:30-33). 그 여인의 이야기(왕하 6:28b-29)를 듣고 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가 옷을 찢었을 때 모든 사람은 그가 속에 입고 있던 붉은 베옷을 보았다(왕하 6:30). 그러나 왕은 회개보다는 살인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왕하 6:31). 엘리사의 머리가 잘려 나갈 판이었다.

엘리사는 왕이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왕하 6:32).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사 전략을 알고 있다면(왕하 6:12),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왕의 살인 계획도 알고 있을 것이다. 왕은 그의 심복 중 한 명을 보냈지만,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거실에 앉아 있는 장로들에게 살인을 저지르려는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들어올 수 없는 심복은 적어도 왕의 메시지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 “[보라, 여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왕하 6:33b)?”¹⁰

엘리사가 왕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붉은 베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모른다(왕하 6:30). 왕하 6:33 에 나오는 왕의 격노는 그가 엘리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엘리사는 왕에게 여호와의 구원과 도움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들이 인육을 먹은 것을 듣고 이 선택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다. 왕하 6:33 에서 왕은 종교에 대한 자신의 공리주의적 견해를 이렇게 지지한다. “나는 이러한 회개와 믿음의 접근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재앙만 내리실 뿐이고

“캘리포니아에로의 골드 러시 당시, 일리노이와 다른 중서부의 주들에서 온 고급 종교인들로 구성된 도너 일행은 현재의 도너 호수에서 시에라 산맥의 눈에 휩쓸려 대부분이 사망했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죽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죽으면 그들의 인육을 먹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생존자들은 시신이라도 먹기 위해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

¹⁰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313: “The tautologous אַר also occurs with הנה.” [הנה] זֹאת הָרָעָה מֵאֵת יְהוָה. Look (here), the disaster is from YHWH.”]. 이것은 확실히 왕의 메시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말야흐], 사자”를 “[하멜레흐], 왕”으로 정정해서 읽으며 왕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왕하 6:32-33 의 구문과 연결은 조금 어렵지만 그림은 충분히 명확하다.

구원하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시다.” 굵은 베포와 냉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그러나 확실히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받는 주요 인상은 **정치적 무력감**이다. 제임스 미드(James Mead)의 말처럼, “이 내러티브는 오직 여호와만이 되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왕권의 비효율성**을 주장한다.”¹¹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우리 희망의 큰 부분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몇 년 전 나는 NBC 아침 뉴스 하나를 접했다. 데보라 노빌이 뉴스 앵커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뉴스는 현지의 재난이 발생한 한 지역으로 전환되었다. 노빌은 그 지역의 한 남성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의 질문 중 하나를 기억한다. 그녀는 “정부가 돕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것은 아주 흔히 우리의 희망이다. 물론 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복하고 또 다른 정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바바라 터크먼(Barbara Tuchman)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혁명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낳는다.”¹² 정치에는 확고한 희망이 없다. 우리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속삭이는 교묘한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한다. 본문은 정부가 아주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의와 시민 질서를 보장하고 부패와 부정직이 완전히 만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우리는 시편 146:3-6 에 답을 내려야 한다. 칼빈의 주일 아침 예배식(liturgy, 典禮)에 나오는 첫 마디 말씀, 곧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 124:8).”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끊임없는 교정이다.¹³

¹¹ James Kirk Mead, *“Elisha Will Kill?”: The Deuteronomistic Rhetoric of Life and Death in the Theology of the Elisha Narratives* (Ann Arbor: UMI, 1999), 154 (강조는 그가 한 것). 다음에 나오는 Jacques Ellul (*The Politics of God and the Politics of Man* [Grand Rapids: Eerdmans, 1972], 61)의 글도 참고하라.

사마리아는 구원을 받게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의 용기, 장군들의 기술, 왕의 정치, 또는 모든 백성의 미덕과 도덕으로의 회귀를 사용하거나 의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기적을 통해 사마리아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가장 우스꽝스럽고 공허하고 환상적인 기적으로, 소음과 바람과 메아리로, 그리고 승리한 군대를 달아나게 하는 환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폐하시려 하신다(고전 1:28)”는 사실을 예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람이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고 얼마나 무게나 가치나 의미가 없는지를 보여준다. 정치와 큰 돈과 선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도 이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승리한 군대, 파괴적인 전쟁, 제국주의 정치, 그리고 그로 인한 여파가 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술렁대는 것을 경멸하시고자 참으로 웃으신다(시 2:1 이하). 그는 우리의 정치적 열정과 군사적이고 혁명적인 소동을 비웃으신다.

¹² Barbara W. Tuchman, *The First Salute* (New York: Knopf, 1988), 300.

¹³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61), 197.

II. 구원에 대한 놀라운 약속 (왕하 7:1-2 The Astounding Promise of Deliverance)

엘리사는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왕하 7:1).” 단 24 시간이면 된다. 그 소식은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었다.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비꼬는 은사를 발휘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왕하 7:2a)?”라고 말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의 약속에 이어 다음과 같은 위협의 말을 전한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왕하 7:2b).”

엘리사는 값싼 식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포위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약 7.5 퀴트이고 여전히 약 한 달 치의 품삯이 든다. 바벨론 문헌에 따르면, 평상시에 은 한 세겔은 약 100 퀴트의 보리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15 퀴트(2 스아)의 보리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왕하 7:1 에서 식료품 가격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원, 즉 왕하 6:25 의 상황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크게 호전되는 구원을 예측하고 있었다.¹⁴ 비둘기 똥 대신 보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개선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장관이 믿기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無理)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누리는 것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받았다(왕하 7:2).¹⁵ 구약이 (신약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믿음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주목하라. 그러나 구약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요구하는지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일, 기이한 일,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을 꼭 감고, 손을 꼭 쥐고, 믿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야외 파티에서 20 갤런의 케첩 솔과 함께 길이 12 피트, 너비 4 피트의 피클을 떨어뜨려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테로이드에 절인 피클을 과시하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소풍을 위해 이상한

¹⁴ Walton, Matthews, and Chavalas, *Bible Background Commentary*, 394, and in Cogan and Tadmor, // *Kings*, 81 에 나오는 계산법과 논의를 보라.

¹⁵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201: “하나님께 가능한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 장관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지만 그 자신은 **먹지 못할** 것이다. 백성을 위한 구원은 이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수반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념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황당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믿기 힘든 말씀이 많이 있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요 14,19; 참조 6:40).”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며 점점 더 많은 장례(하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것을 믿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빌 2:10-11).”라는 말씀을 믿는가? 그것은 역사가 테러, 쿠데타, 억압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일 때 허황된 꿈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4).”는 말씀을 듣는다. 나는 이것을 실제로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 즉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 또는 둘 모두가 자신을 불구로 만들고 그들의 반응을 결정했기 때문에 죄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성화를 거부하기 위해 희생을 이용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고 하신 예수님의 확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완고함, 연약함, 어리석음에 비추어 믿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영광스럽게 사실인가?

III. 예상 밖의 구원의 도구들 (왕하 7:3-11, 12-15 The Unlikely Instruments of Deliverance)

언뜻 보면 왕하 7:3 이 지금까지 읽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할지 모르겠다.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었다(왕하 7:3a).” 거기에 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 이야기의 어떤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 여기 있는 그대로의 순서는 닐 포스트만이 텔레비전의 뉴스 방송에서 매우 혐오하는 “자, ... 이것은”이란 연결을 생각나게 한다.

뉴스 진행자는 여러분이 앞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오래 생각했고(약 45 초), 그것에 병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며(예를 들어, 90 초 동안), 이제 다른 뉴스나 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그러나 성경 내러티브는 현대 텔레비전만큼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왜 그렇게 갑자기 이 나환자들을 소개하는지 분명히 밝혀줄 것이다.

¹⁶ Neil Postman, *Amusing Ourselves to Death* (New York: Penguin Books, 1986), 99-100.

사실, 전체 “나병 환자 에피소드”는 매우 주의깊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것의 명백한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왕하 7:3-11의 구조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환자들, 3a절

결정, 3b-4절

행동, 5절

해설, 6-7절

행동, 8절

결정, 9절

성문으로 돌아가는 나병환자들, 10-11절

이 단락의 중심은 이 이야기의 주요 신학을 표현하는 “해설 부분(왕하 7:6-7)”이다. 아람인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 도망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왕하 7:6-7)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참조, 시 118:23). 찬양은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한다. 저자는 여호와의 역할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이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을 선포할 전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나병환자들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그들의 작은 논리에서 시작되었다(왕하 7:3b-4).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기근과 죽음이 닥칠 것이다.¹⁷ 그들이 성문 밖에 남아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이 아람인들에게 항복하면 처형당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쉬운 문제이다. 그들은 아람인들을 찾으러 떠난다.

그들이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보니 아람인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왕하 7:5). 시점이 아주 극적이다. 나병환자들은 항복하기 위해 “해질 무렵에 일어났고([바야쿠무 < 콤 + 바네세프] 왕하 7:5a)” 아람인들은 도망하기 위해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바야쿠무 < 콤 + 바네세프] 왕하

¹⁷ 물론 나병 환자들은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지만(레 13:45-46), 이 포위된 상황에서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

7:7a).“ 나병환자들은 아람 진영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고, 아람인들은 공포에 질려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 이에 나병환자들은 잔치를 즐긴다. 먹고 마시고 마치 은퇴 계좌와 옷장을 위한 것처럼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춘다(왕하 7:8). 한 장막에서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장막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들은 불안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왕하 7:9a).” 그들은 왕궁으로 가서 알려야 했다([나가드], 왕하 7:9b). 그들은 가서 성읍 문지기들에게 알렸고([나가드] 왕하 7:10a), 어떤 이들은 왕궁에 알렸다([나가드] 왕하 7:11).¹⁸ 여기서 구원의 도구는 **부정한 나병환자**이다.

그러나 그들만 홀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이름 없는 신**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왕하 7:12-15). 그 장면은 왕궁에서 펼쳐진다. 우리는 여호람이 바지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잔뜩 찌푸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적어도 순진하지 않다. 그는 군사 전술을 공부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내가 너희에게 아람 사람이 행한 것을 알려주겠다([나가드], 왕하 7:12).” 왕은 짐작으로 그것을 알아 냈다. 물론 그 진영은 비어 있다. 아람인들은 숨어 있다가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올 것이다. 그것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바보만이 속을 것이다. 왕은 엘리사의 이전 약속에도

¹⁸ [역자 주] 왕하 7:11 :וַיִּקְרָא הַשְּׂעָרִים וַיִּגִּדּוּ בֵּית הַמֶּלֶךְ פְּנִימָה; [바이크라 하쇼아림 바야기두 베트 하멜레흐 프니마]

YLT: and **he calleth the gatekeepers**, and they declare to the house of the king within.

KJV: And he called the porters; and they told *it* to the king's house within.

개역개정: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참고: 칠십인역, 별게이트역, 타르곰역 등은 단수 [바이크라] 대신 복수 [바이크르우]로 읽는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과 한글 번역도 복수로 읽는다.

NASB: **The gatekeepers called** and told it within the king's household.

ESV: Then the gatekeepers called out, and it was told within the king's household.

NIV: The gatekeepers shouted the news, and it was reported within the palace.

새번역: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공동번역: 성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외치자 왕궁 안에까지 전해졌다.

쉬운성경: 그러자 성의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현대어성경: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도성 안으로 전하자 신하들이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였다.

우리말성경: 성문지기들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에도 보고했습니다.

불구하고 다른 대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¹⁹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왕하 7:6-7)과 나병환자를 통한 좋은 소식의 보고(왕하 7:10-11)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망할 운명의 도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분별 있는 말을 한 이 이름 없는 신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왕하 7:13의 본문은 좀 어렵지만 실제로 불분명하지는 않다.

(새번역, 왕하 7:13)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다섯 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경찰이나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위험이 더 남아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것이 별로 없다. 그들은 정탐하러 간다(왕하 7:14). 아람인들은 사라지고 한 사람도 없었다(왕하 7:15a). 그들은 돌아와 왕에게 알린다([나가드], 왕하 7:15b).

부정한 나병환자들과 이름 없는 종들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것은 전형적인 여호와의 방식이다. 엘룰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잘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본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자신과 이차적으로 연관시키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연관시키시는가? 가장 많은 자격이 있고, 가장 많은 정보가 있고, 가장 많은 가치가 있고, 가장 기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나병환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본다. 이것은 여인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위대한 기적을 발견한 것과 똑같다. 나병환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부정하다.²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발견은 부정한 자들과 이름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진다. 분명히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의 옷깃을 잡고 우리를 끌어당겨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느낀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건강한 자들도 저명한 자들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시는 비천한 종들로 인해 높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¹⁹ Mead, *Elisha Will Kill?*, 157: "그 전날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으나, 그는 아직 기이하고 기적적인 벗어남에 대한 여호와의 공로를 인정할 수 없다."

²⁰ Ellul, *The Politics of God and the Politics of Man*, 62.

조지 콜린스는 자기 고향 교회의 존경받는 한 장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의 교회에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회중에 대한 지도력의 대부분은 던컨 맥레이에게 넘어갔다. 던컨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읽곤 했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이든 토마스 보스턴이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설교할” 수도 있었다. 교회를 돌보는 일은 종종 이 장로를 짓누르고 낙담시켰다. 그는 그것에 대해 꽤 많이 기도해 오고 있었다. 어느 주일 아침 던컨 맥레이는 교회로 가는 길에 콜린스가 “지역 반편이—즉 어린 아이의 지능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추월당했다. 그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의 옷이 긴 킬트와 그에 어울리는 헐렁한 재킷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교회에 갔다. 맥레이는 그날 아침 걸어가면서 풀이 죽은 상태였고, 이 친구가 그를 추월했을 때 그저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말해주듯이 맥레이는 그에게 말했다. “머도, 나는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말 한 마디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라는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맥레이는 어안이 병병할 정도였지만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그 대답은 게일어로 하였지만, 영어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 102:17 을 인용하고 있었다.²¹ 여호와께서는 풀이 죽은 한 종을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분명히 배울 수도 없었고 심지어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였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계속해서 재연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무명의 신분이 내가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는 못하며, 나의 일상적인 상황이 내가 그분께 쓰임 받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매일의 소명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사마리아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IV. 구원의 도중에 일어난 잊혀지지 않는 비극 (왕하 7:16-20 The Haunting Tragedy of Deliverance)

그래서 백성들은 아람 진영을 노략했고(왕하 7:16a)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왕하 7:16b).” 이것은 엘리사의 말(왕하 7:1) 속에 분명히 들어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신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왕의 장관을 겨냥하여 말한 위협이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왕하 7:2b).” 그것은 분명해졌다. 왕은 이 장관을 성문을 책임지도록 임명했지만 광적인 군중은 통제될 수 없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²¹ G. N. M. Collins, *The Days of the Years of My Pilgrimage* (Edinburgh: Knox Press, 1991), 30-31.

사람의 말대로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그가 죽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 번이나 읽게 된다(왕하 7:17, 20).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위협이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구절은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와의 말씀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 번이나 듣는다. 먼저, 성문에서 새로 거래되는 가격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왕하 7:16). 그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죽었다(왕하 7:17).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되었다(왕하 7:18).” 사실, 그 말씀은 모든 외적 상황과 상반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간의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로 판명될 것이었다.**

그러나 구원의 도중에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은 비극이다. 코넬리우스 라이언(Cornelius Ryan)은 1945 년 베를린을 향한 진격하는 과정에서 미국 탱크 소대가 탕어민데(Tangermünde) 마을에 어떻게 진입했는지 알려준다. 그들이 마을 광장에 들어설 때까지는 모든 것이 조용했으나, 그 다음에 소동이 일어났다. 독일군이 발포했다. 계속되는 전투와 혼란 속에서 한 미군 병사가 로버트 니코데무스(Nicodemus) 중위의 탱크에 뛰어올라 자신이 독일군에 잡혀 있는 포로라고 밝혔다. 그는 약 500 명의 포로가 두 개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니코데무스 중위는 포병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미군 포로들로 가득 찬 마을에 포격을 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 수용소를 해방시켜 사람들을 그 사격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포로는 니코데무스를 한 수용소로 인도했다. 포로들은 미군 장교를 보자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곧 무장 해제시켰다. 니코데무스는 포로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 일행이 적군이 점령한 마지막 거리 근처에 이르러 미군 탱크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한 포로가 니코데무스를 향해 “나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때 이 불쌍한 사람이 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독일군 저격수가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²² 구출되는 순간에 재앙이 닥쳤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다. 여기서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장관 자신의 불신이 초래한 비극이다.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올 자신의 유익을 상실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히브리서로 곧장 이끌어야 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히 12:25).”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불신에 대해 그렇게 화내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

²²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312-13.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끝내실 만큼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느껴 좌절한 적이 있었는가?
2. 국민을 돕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민들은 정부에 너무 많은 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3.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시어 여러분으로 그분을 향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나게 하신 적이 있는가?
5.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6.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여러분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도 불신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 살리시고 죽이시는 여호와 (왕하 8:1-15 The Lord Who Revives and Slays)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여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환과 왕 사이의 자유 토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고대 근동의 한 나라의 또 다른 쿠데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일이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한다. 왕하 8:1-6 에서 엘리사가 수넬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것(참고, 왕하 4:8-37)과 관련하여 동사 [하야]("살리다")가 네 번(1 절에 한 번, 5 절에 3 번) 사용되었다. 같은 동사가 왕하 8:7-15 에서 벤하닷이 병에서 "회복될" 것인지 물을 때 적어도 네 번(8, 9, 10, 14 절에 각각 한 번) 사용된다. 그러나 왕하 8:7-15 은 벤하닷 왕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가 가져올 파멸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단락은 **여호와를 생명을 주시는 분**(1-2 절과 3-6 절)이자 **죽음을 가져오시는 분**(7-15 절)으로 계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I. 작은 친절 (왕하 8:1-2 Small Kindness)

왕하 8:1-2 은 모두 배경 설명인데, 저자는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말한 것을 부각시킨다. 이 여인은 왕하 4:8-37 에 나왔던 여인이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다가올 어려운 시기, 곧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라(왕하 8:1c)."는 정보를 알려주며, 그녀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곧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왕하 8:1b)."는 조언을 해 준다. 그녀는 분명히 그녀에게 유리하도록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며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에 7 년 동안 머문다(왕하 8:2).

왜 이런 도움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남편에게 작은 집을 개조하자고 제안했던 왕하 4:9-10 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가?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즉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감지하고 그를 위해 이 숙소를 마련하고 싶어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했다. 이것은 마 10:41-42(참조, 히 6:10)에 대한 구약의 사례이다.¹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다(마 10:42). 그분은 이 여인이 그분의 종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¹ 물론 그러한 친절을 베푼 대상이 반드시 선지자일 필요는 없다. 마 25:40 은 그 대상이 그리스도의 백성 중 가장 미천한 자("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가장 보잘 것 없는] 자 하나")일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 기근 경보 체계에는 하나님의 친절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보라. 물론 이 두 구절은 이 이야기의 주된 초점이 아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조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결코 그녀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주며 그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인가!² 작은 친절이 엄청난 격려를 지니고 다닌다.

마르틴 니몰러 목사는 나치의 테러 기간 동안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그는 비밀 경찰에 의해 끌려 갔다. 니몰러 부인은 이제 남편이 돌아올 수나 있을지, 돌아온다면 언제 돌아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남게 되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노랫소리가 들리자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걸어갔다. 창문 아래에서 그녀는 교회 여성 찬양대를 보았다. 그들은 목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위해 노래하러 온 것이었다.³ 그것은 그녀의 남편을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녀가 잊히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작은 친절이었다. 주님이 주시는 징표들은 종종 그와 같다. 그것들은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한 것을 준다.

II. 막중한 책임 (왕하 8:3-6 Huge Responsibility)

7 년이 지났다. 기근은 끝났다. 수넴 여인은 블레셋에서 돌아온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녀의 농가를 차지해왔거나 왕실이 전용했던 것 같다. 그녀는 왕에게 가서 바로잡아 줄 것을 간청한다(왕하 8:3). 저자는 왕하 8:4 에서 왕이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생생한 장면을 묘사한다.

잠깐 짚어볼 문제가 있다. 왕하 5:27 에서 게하시의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대중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았단 말인가? 십중팔구 그는 격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자가 여러분이 머리를 사용해서 그의 내러티브들이 반드시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아만 에피소드는 실제로 왕하 8:4-6 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 이후에 발생했다. 만약 열왕기하 5 장에서 내가 다룬 것과 특히 열왕기하 2-8 장의 구조에서 5 장의 위치를 참고한다면, 여러분은 저자가 열왕기하 5 장을 그 중앙에 오도록 배열하는 것이 주제적 또는 신학적 고려를 한 데서 비롯된 것에 주목할 것이다. 저자에게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왕하 8:4 로 돌아가보자. 왕(분명히 여호람)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동사 [싸파르] (“말하다, 이야기하다”)는 핵심 단어이고, 왕하 8:4-6 에 세 번이나 나온다. 왕이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공개되지 않은 엘리사의 행적에

²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의 남편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이미 고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참고, 왕하 4:14: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증명할 수는 없다.

³ James and Marti Hefley, *By Their Blood: Christian Martyrs of the Twentieth Century*,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6), 208-09.

대하여 듣고 싶어한다. 엘리사의 사역 중 일부는 왕에게 잘 알려져 있었지만(왕하 3 장; 6:8-23; 6:24-7:20 참조),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엘리사가 남은 자들이나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행적들에 대해 듣고 싶어했다. 그러한 행적들 중에는 열왕기하 4 장 전부와 6 장 1-7 절이 포함될 것이고 아마도 열왕기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왕은 게하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며 수넴 여인과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왕하 4:8-37). 게하시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을 것 같다. 그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 왕께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왕하 8:5b)! 게하시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며 왕에게 말한다.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왕하 8:5c). 나는 그가 죽었던 것을 압니다. 이 아들이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이입니다!”

얼마나 시의적절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할 때 나는 서재에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늦은 오후였다. 우리 둘 다 가야 했고, 우리 둘 다 거의 동시에 “조엘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거의 오싹할 정도였다. 그의 맏아들도 조엘이었고 나의 막내 아들도 조엘이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동시에 우리 조엘을 데리러 그들의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것은 작지만 놀라운 일이었다.

하물며 게하시가 왕하 4:8-37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왕은 그 여인에게 직접 물었고, 그녀는 게하시의 보고를 확증하며 동일한 이야기를 되풀이했다([싸파르], 왕하 8:6a). 이것은 왕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왕은 그녀의 사건을 다룰 한 관리를 임명하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왕하 8:6b).”고 명령했다.

이 본문이 여기에 배치된 이유는 무엇인가? 왕(아마도 여호람)은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우리에게는 이것이 열왕기하 2-7 장일 것이고, 여호람에게는 열왕기하 2-7 장 중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비(왕하 3 장 그리고 왕하 6:8-7:20)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은 능하신 행적들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왕에게 막중한 책임을 갖게 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엄청난 증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⁴ 엘리사는 한때 그가 거짓 충성을 한다고 꾸짖은 적이 있다(왕하 3:13-14). 그는 변했는가? 그는 변할 것인가? 왕하 3:1-3(특히 3b)의 요약 평가에 따르면, 여호람은 여호와께 일편단심의 헌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를 통한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증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수넴 여인에게 공의를 베풀 수 있을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왕하 8:6b). 분명히 그는 그 이야기들에 관심을 보였고, 외견상 그 증언에 매료되었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다(왕하 3:1-3).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왕은 호기심이 있었지만 헌신적이지 못했고, 엘리사의 사역에 매료되었지만 엘리사의 주님께는 복종하지 않은 왕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매료에 불과했다.

이것은 슬프지만 흔한 반응이다. 1941 년 부활절 방학 동안 기독교학생회(InterVarsity Fellowship)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에서 연례 회의를 열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아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눅 8:41-56)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는 인간 지식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했다(눅 8:53 을 중심으로). 트리니티 대학의 학장인 역사가 트레벨리언(G. M. Trevelyan)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로이드 존스에게 인사하고 칭찬했다. 그는 “선생님, 당신이 큰 능력으로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⁵ 그것이 바로 여호람 증후군이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복음의 힘과 매력을 인식할 수 있다. 진리에 매료되는 것과 진리로 회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니스워 사람들은 심판 때에 일어나서 여호람과 그의 후계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심판의 말만 있을 뿐 은혜의 목록이 전혀 없었을 때 회개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눅 11:32).

III. 슬픈 필요 (왕하 8:7-15 Sad Necessity)

우리가 엘리사를 따라 다메섹으로 갈 때(왕하 8:7a) 온갖 의문이 생긴다. 그는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벤하닷/하사엘의 낙타 사십 마리에 실린 선물(왕하 8:9a)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엄청난 성직자 비용에 대한 과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사엘이 자신의 병에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벤하닷의 질문을 전달한 후 나눈 대화에 나온다. 딜레마는 왕하 8:10 에 나오는 엘리사의 반응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본문상의 문제도 포함한다.

⁴ 왕하 8:1-6 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2-7 장 뒤에 배치된 것은 독자가 여호람 왕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 같다. 여섯 장에 걸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증대되는 은혜와 능력에 대해 읽은 후, 우리 또한 여호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분은 증언을 들어왔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⁵ Oliver Barclay 를 인용하고 있는 Timothy Dudley-Smith, *John Stott: The Making of a Lead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9), 123 을 보라.

본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역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의 번역 중에 NIV 만 대안적 독법을 각주에 표시하고 있다. 왕하 8:10 에 나오는 엘리사의 메시지의 첫 부분은 보통 긍정적으로 읽힌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오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⁶ 그러나 물론 그는 회복되지 못하며 (분명히) 하사엘이 그의 목숨을 끊어버린다(왕하 8:15). 패터슨과 오스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다.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했다(왕하 8:10). “예”라는 것은 정상적인 치유의 상황에 맞기면 왕은 회복될 것이었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것은 그 순간에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부은(?) 엘리사는 이 배신자가 왕의 병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사엘은 왕에게 진실하게 증언할 수도 있었다. 그 병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다.⁷

그렇다면 벤하닷의 회복에 대한 엘리사의 말은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이란 암시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사엘이 손대지 않는다면 그는 회복될 것이었다.

다른 가능성은 왕하 8:10 에 있는 전통적인 기록된 본문을 따르며 “너는 가서 그에게 ‘당신은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라.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나에게 보여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이 독법에 따르면 하사엘은 왕하 8:14 에서 벤하닷에게 거짓말을 하고 엘리사의 예언(및 정보, 왕하 8:13b)이 이루어지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차이점은 두 경우 모두 [로]라고 발음되지만 철자가 다른 한 작은 단어에서 발생한다. 한 경우는 전명구인 **ל** [로] (“그에게”)이고, 다른 경우는 부정어인 **לא** [로] (“아니다”)이다.⁸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아마도 필사자들이 엘리사가 사악한 선지자로 나타나는 것을

⁶ [역자 주] NIV: “Go and say to him, ‘You will certainly recover.’ Nevertheless,^a the Lord has revealed to me that he will in fact die.” [^a **10** The Hebrew may also be read *Go and say, ‘You will certainly not recover,’ for.] ESV 도 NIV 와 비슷한 각주(^a **10** Some manuscripts say, ‘You shall certainly not recover,’ for)를 달고 있다. 한글 성경의 경우 새번역만 “가서, 왕에게는 ¹⁾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라고 번역하고, 각주에 ¹⁾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란 대안적 독법을 제시한다.*

⁷ R.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and 2 King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200.

⁸ [역자 주] WLC תַּחֲיֶה תַּחֲיֶה (לֹא כִּי) [לֹא אֶמְרָךְ] [레흐 에모르 로(크티브 **לא**, not)/로(크레 לו, to him) 하요 티흐예]

막기 위해 "그에게"를 "아니다"로 변경했을 것이라는 것이다.⁹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양쪽에 다 통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니다"가 "그에게"로 변경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니다"가 남아 있다면 엘리사의 말(왕하 8:10)과 하사엘의 전언(왕하 8:14) 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아마도 왕위를 노리는 아람인들이 끔찍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로 읽는 독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위의 패터슨과 오스텔 참조), 나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¹⁰ 어쨌든 두 번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왕하 8:10, 13)."라는 절이 주된 어조를 지닌다. 결론은 "그는 죽을 것이고(왕하 8:10), 너는 왕이 될 것이다(왕하 8:13b)."라는 것이다.

이 시점은 엘리사 사역의 전환점이 된다. 여기서 엘리사와 하사엘의 대화를 엿듣다 보면, 여호와께서 호렘산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왕상 19:15-17). 엘리야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징벌할 세 가지 심판 도구인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엘리사를 불렀다(왕상 19:19-21).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하사엘과 예후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자는 우리에게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기 위한 여호와의 도구로 하사엘을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왕하 8:12 참조). 열왕기하 2-7 장에서 엘리사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역자로 섬겼지만, 열왕기하 8-10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사역자로 나타날 것이다.¹¹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질러서 은혜의 날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단락(왕하 8:7-15)의 강조점은 11-12 절에 있다.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다가(왕하 8:11 은 어렵다) 울기 시작한다. 군인들은 우는 선지자들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것은 하사엘을 심란하게 한다. 그는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라고 묻는다(왕하 8:12a). 엘리사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매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고 대답한다(왕하 8:12b). 이것은 전쟁의 일반적인 잔학 행위이다. 하사엘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다. 그는 그러한 참상이 그의 이력서에서 놀랍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⁹ 이러한 명백한 사악함은 TEV 에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다. "The Lord has revealed to me that he will die; but go to him and tell him that he will recover.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가 죽을 것이라고 알려 주셨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가서 그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라."

¹⁰ "아니다"로 읽는 독법의 변호를 위해서는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334-35 을 보라.

¹¹ 이에 대한 좋은 논의는 K. D.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Calwer, 1972), 101 을 보라.

그러한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왕하 8:13a 절). 엘리사가 그에게 그가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기 전까지는(왕하 8:13b) 말이다. 하사엘이 예언적 비전을 돕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벤하닷의 종말을 의미한다(왕하 8:15).¹²

우리는 하사엘이 달려가 그의 정치적 미래를 계획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머물면서 엘리사가 우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하 8:11-12 에 나오는 엘리사의 태도에서 여호와와 태도(겔 33:11)와 예수님의 태도(눅 19:41-44)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므로, 배교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하셔야만 한다. 그러나 여호와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므로, 그분의 심판에는 신성한 슬픔의 요소가 있다. 앤드류 보나르(Andrew Bonar)는 자신만의 생생한 방식으로 이 점을 잘 포착했다. “나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우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우셨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영원히 회자될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다.” 또는, 다시 전형적인 보나르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불과 유향의 소나기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에 젖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¹³

하사엘은 자기 앞에 놓인 좋은 미래, 즉 이스라엘을 때리고 짓밟을 미래에 대해 열광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우울하다. 그는 여호와께서 믿음 없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사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심판은 필요하면서도 슬픈 일이다. 엘리사의 눈물은 위에서 보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심판을 보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심판에는 악마적인 기쁨이 없다. 여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분의 눈물을 불과 유향과 섞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훈적이다. 그 여인이 받은 한 가지 친절에서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는 은혜를 보아야 한다. 왕이 받은 진실에서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는 책임을 보아야 한다. 선지자가 흘린

¹² 왕하 8:15 의 세부 사항은 재구성하기가 약간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흐베르] (“이불, 담요, 두꺼운 천, thick cloth, cover, blanket”)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사엘이 왕을 질식시켜 죽인 것으로 보인다.

¹³ Marjory Bonar, ed., *Andrew A. Bonar: Diary and Life* (1893; reprint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0), 511.

눈물에서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는 심판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살리시고 죽이시는 여호와를 보았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해 준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났는가?
2. 여러분은 왕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누군가가 은사를 통해 교회를 기꺼이 “도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 헌신하지는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4. 여호람이 게하시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지만 여호와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엘리사가 다가올 하사엘의 왕권에 대해 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여러분은 엘리사가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13. 한 대악 가문 (왕하 8:16-29 One, Big Evil Family)

결혼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나에게서는 50 대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대단한 이모가 있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녀의 남편은 근면하고 온화하며 친절했다. 우리 가족 중 아무도 무엇이 그를 유혹했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아무도 그가 불평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모는 항상 더럽고 종종 버릇없이 굴었다. 그래서 그 이모부가 그런 여인 집의 오물과 악취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했다. 약 30 년 후에 자비롭게도 죽음이 그를 데려갔고, 이모는 99 세까지 살았다. 그녀와 부부로 사느니 차라리 총각으로 3 번의 삶을 사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결혼은 그런 결과를 수반한다.

어쨌든 유다의 경우가 그랬다. 지금 여러분은 “유다? 전에 내가 어디서 그것을 들었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열왕기하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유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저자가 유다의 왕국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마지막 경우는 왕상 22:41-50(여호사밧의 통치)에 나온다. 그 이후 북왕국에 초점을 맞추며 거의 여덟 장[왕상 22:51-왕하 8:15]을 할애한 후, 이제 저자는 여호람을 여호사밧의 후계자로 소개한다(왕하 8:16).¹ 그는 주전

¹ [역자 주] 열왕기는 분열 왕국(왕상 12-왕하 17)을 다루며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을 교차적으로 묘사하는 공간 역사를 보여준다. 분열 왕국의 묘사는 북왕국의 설립 배경을 다루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시작된 왕의 이야기는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어서 교대로 언급할 상대국 왕(들)의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상대국 왕의 사망 연도를 넘을 때까지 계속된다. 여로보암과 예후 사이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차 역사는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있다.

이스라엘			유다		
(1)	1 여로보암 1	930-909(왕상 12:1-14:20)			
			(2)	1 르호보암	930-913(왕상 14:21-31)
			(3)	2 아비얌	913-910(15:1-8)
			(4)	3 아사—선정	910-869(15:9-24)
(5)	2 나답	909-908(15:25-32)			
(6)	3 바아사	908-886(15:33-16:7)			
(7)	4 엘라	886-885(16:8-14)			
(8)	5 시므리	885(16:15-20)			
(9)	6 (디브니)	885-880(16:21-22)			
(10)	7 오므리	885-874(16:23-28)			
(11)	8 아합	874-853(16:29-22:40)			
			(12)	4 여호사밧	872-848(왕상 22:41-50)

848 년경부터 독자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² 여호람의 결혼은 한 대악(大惡) 가문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문의 가르침을 살피면서 이 문제를 좀더 다루어 보자.

I. 불신앙은 전염성이 있다 (왕하 8:16-18, 25-27 Infidelity is contagious)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왕하 8:18).” 여기 아합의 딸은 아달라였다(왕하 8:26 참조).³ 여러분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갖는다면 여러분은 아합의 사고방식에 젖어들기 시작하고 아합의 길을 따를 것이다. 그것이 왕하 8:18 의 요점이다. 이스라엘의 암이 유다로 전이되었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저자는 아하시야의 통치를 묘사할 때 자신의 요점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이 여호람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딸(왕하 8:26)”인 아달라를 어머니로 두고 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왕하 8:27).” 이 한 구절에 “아합의 집”이란 어구가 세 번이나 나온다. 유다의 정책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윗의 집은 아합의 딸의 짓는 소리에 맹종하고 있다.

여호사밧이 왜 그의 아들(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킴으로써(왕하 8:18; 대하 18:1)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지(왕상 22:44) 궁금하다. 아마도 그는 그것이 아슈르나시르팔 2 세와 살만에셀 3 세 치하에서 부활하는 앗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현명한조치라고 생각했을

(13)	9 아하시야	853-852 (왕상 22:51-왕하 1:18)			
(14)	10 여호람 (요람)	852- 841 (3:1-8:15)			
			(15)	5 여호람 (요람)	853-841(왕하 8:16-24)
			(16)	6 아하시야	841 (8:25-29)
(17)	11 예후	841- 814 (9:1-10:36)			

² 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 문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다루는 유다의 여호람에 대해서는 Edwin R. Thiele, *The Mystery Numbers of the Hebrew Kings*,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32, 34-35, 65-71 을 참고하라. 왕들의 전반적인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Leslie McFall, “Has the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s finally been settled?”, *Themelios* 17:1 (1991): 6-11 을 참고하라.

³ 왕하 8:26 에서 그녀는 오므리(아합의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리지만, “딸”은 “여자 후손”으로도 사용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것이다.⁴ 그러나 그것은 영적, 도덕적, 국가적 재앙이었다. 여호사밧은 경건은 뛰어났으나 분별력은 부족했던 것 같다.

패튼(John G. Paton)이 뉴헤브리디스의 탄나 섬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백인 상인들이 섬을 돌아다니며 홍역에 걸린 네 명의 젊은이를 여러 항구에 상륙시켰다. 그들의 계획은 원주민을 이 전염병에 감염시켜 전멸시킨 다음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었다. 전염병이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원주민들이 상인과 선교사를 (둘 다 백인이므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은 차질을 빚었다.⁵ 패튼의 적들은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활동했다. 이에 비하여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없이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염은 어느 쪽이든 퍼진다. 이제 북왕국의 불신앙이 남왕국을 지배하고 있다. 배교는 결코 자연사하지 않는다.

II. 언약은 끈질기다 (왕하 8:19 Covenant is tenacious)

아합의 바이러스가 유다를 감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왕하 8:18), 우리는 적어도 다가오는 유향 냄새를 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대신, 우리는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절시키지 **않으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왕하 8:19)

이 구절은 등불로 상징되는 다윗의 언약(삼하 7:12-16)을 가리킨다. 원래 다윗은 마치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삶과 번영을 구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등불, [네르](삼하 21:17)”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계속되는 후손들은 다윗에게 “등불, [니르]”이 되었다(왕상 11:36; 15:4; 그리고 여기 왕하 8:19). 시 132:17 에서 등불([네르])은 다윗 계보의 절정에 달하는 오실 메시아 왕을 가리킨다.⁶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왕하 8:19)은 단순히 여호와의 “다윗을 위한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유다에 있는 두 명의 아합과 같은 왕들의 사악함이 그것을 전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⁴ J. Barton Payne, “1, 2 Chronicle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498 을 참조하라.

⁵ James Paton, ed., *John G. Paton: Missionary to the New Hebrides* (1889;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5), 150-52.

⁶ W. A. VanGemeren, “Psalm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1), 5:809 을 보라. “등불(lamp)”보다 “지배(fief)” 혹은 “통치(dominion)”가 선호되는 번역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Richard L. Pratt, Jr., *1 & 2 Chronicles*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8), 352 을 참고하라. 그러나 신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인구 5,000 명의 마을에 식당을 여는 남자를 상상해 보라. 그는 지역 사회에 헌신하며 자신의 식당을 그곳에 유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기로 결심한다. 몇 년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때 집주인은 건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한다. 그 친구는 임대료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고 필요한 수익을 낼 수 없어서 길 건너편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이듬해 화재로 그 건물의 일부가 불타서 그는 다시 이전해야 한다. 그의 종업원 중 몇 명이 거의 동시에 떠나므로 믿을 만한 일손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와 함께 일하게 된다. 한 새로운 식당이 마을에 문을 열고, 더 아늑한 분위기와 더 화려하고 비싼 메뉴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는 부유한 고객 중 일부를 잃게 된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그의 식당 밖의 젖은 보도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소송을 제기한다.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변호사 비용만 늘어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직계 가족 중 누구도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는 자기의 은퇴와 더불어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조카 중 한 명이 관심을 갖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분명히 그곳 사람들과 삼촌의 훌륭한 식당의 전통을 “좋아하게” 된다. 이 과도기 동안 그 사람도 간접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아차리고 가격을 약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에는 “평소와 같은” 일들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 계산원 중 한 명이 약간의 돈을 착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결심을 잘 지켜왔다.

우리는 이 마지막 것을 그 사람의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상황은 반복적으로 그의 정책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정책은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했다. 이것이 왕하 8:19의 요점이다. 여호와의 정책은 그분의 언약이라고 불린다. 이 경우, 다윗과 맺은 그분의 언약은 그분이 자기 왕국을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그의 계획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 정책을 꼭 좌절시킬 것처럼 보이는 무수한 상황이 있다. 아달랴와 결혼하고, 북왕국 정책을 그의 정강으로 삼고, 자신의 왕가를 피로 물들이는(대하 21:4) 여호람처럼 말이다. 여호람은 그 자신의 창자가 빠져나와 죽을 것이지만(대하 21:15, 18-19), 여호와와 그분의 왕국을 잃지 않으실 것이다. 언약의 파기가 언약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왕하 8:19a).” 여기에 주님의 성도를 위한 소망의 보루가 있다.

III. 상실은 충격적이다 (왕하 8:20-22 Losses are disturbing)

본문은 여기서 좀 어렵다. 분명한 것은 에돔이 여호람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왕하 8:20). 그렇게 명확하지 못한 것은 왕하 8:21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는 그것을 이렇게 본다.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위치에 대해 논쟁 중이고,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함)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야간 공격을 감행하여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다. 그러자 유다 군대(직역하면 “백성”)는 집을 향해 도망칠 수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나는 여호람이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갔을 때 에돔 군대에 의해 뒷에 걸려 갇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필사적인 야간 공격을 통해 그는 에돔 군대와 병거가 장악한 전선의 일부를 돌파하여 유다의 군대가 확실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왕하 8:22a 가 분명하게 밝히듯이 에돔의 반역은 성공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목숨은 건지지만 에돔은 잃게 된다.⁷

“그 때에 립나도 배반하였더라(왕하 8:22b).” 지금 우리는 립나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그곳은 유다 서부의 낮은 언덕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0 마일 떨어진 곳이었을 것이다.⁸ 그러나 그곳은 유다의 한 성읍이었다. 여호람의 권위에서 그 자신의 성읍 하나가 벗어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블레셋의 압박(대하 21:16-17 참조)이 립나의 지방 정부에 변화를 강요했을 것이다. 어쨌든 여호람은 그것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실들은 충격적이다.

내 생각에 저자는 우리가 에돔과 립나의 배반을 여호람에 대한 여호와와의 초기 채찍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점이 열왕기상 11 장의 솔로몬의 경우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거기서 저자는 솔로몬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명시했다(왕상 11:9-13, 14, 23 참조). (그리고 우리는 옴의 친구들처럼 고난을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특정한 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저자는 여기 열왕기하 8 장에서 열왕기상 11 장에서보다 더 미묘하게 자신의 요점을 제시한다. 그는 여호람의 사악한 통치를 묘사한 다음 계속해서 그의 상당한 상실들을 묘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와의 손이 그것들 뒤에, 안에, 그리고 아래에 있었음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두 묘사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칼 마르크스의 삶에 대한 폴 존슨의 설명에 매료되었다. 마르크스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를 많이 피웠고, 술을 많이 마셨고, 매운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 그런 다음

⁷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4:97: “어쨌든 에돔의 반란은 유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광산과 조선소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의 대상 무역 전체가 사라졌다.”

⁸ 립나는 원래 유다 지파(수 15:42)와 레위 제사장들(수 21:13)에게 할당된 성읍이었다. Carl G. Rasmussen, *Zondervan NIV Atlas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9), 128, 243 을 참고하라.

존슨은 마르크스가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5년 동안 “참으로 종기”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의 짜증이 커졌다. 이 종기들은 크기와 불쾌감이 다양했지만 “때때로 전신에 나타나기도 했다.” 존슨은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의 일반적인 더러움과 그의 종기의 재앙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한다.⁹ “칼이여, 당신은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 문제는 거의 필연적으로 다른 문제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방식이다. 여호람은 “북왕국” 유형의 정권을 도입하고 예비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이 점을 개인 차원에서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 그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자기 성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아주 흔하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시 103:10(“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과 같은 본문을 지적하고 그 구절 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다음 주황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여호람의 자격으로 개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본문이 묘사하는 것은 사람이 여호와에 대한 언약적 헌신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이다. 이런 죄나 저런 죄, 이런 실패나 저런 불충을 들추어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갖고서도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하고서도 그분에게서 돌아섰다면, 여호람과 같은 대우를 받더라도 놀라지 말라.

IV. 상황은 준비되어 있다 (왕하 8:28-29 Circumstances are prepared)

본문은 좀 어렵다. 왕하 8:28은 아하시야(유다 여호람의 아들)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¹⁰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한다. 그 싸움에서 요람은 심한 상처를 입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왕하 8:29a). 요람이 요양 치료를 하는 동안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러 내려갔다(왕하 8:29b).¹¹ 이 마지막 부분은 아하시야가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왕하 8:28에서 아하시야가 요람과

⁹ Paul Johnson, *Intellectuals*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0), 73.

¹⁰ 히브리어 본문은 여기서 “요람”으로 표기하지만 때때로 “여호람”으로도 표기한다(예: 왕하 1:17; 3:1). 왕하 8:16에서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요람(여호람)과 유다의 여호람을 동시에 접할 때 특히 혼동하기 쉽다.

¹¹ 아하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고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듯이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때에도 고도 면에서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기” 때문인 것 같다.

함께 전투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아하시야가 유다에서 군대를 보내 그 싸움을 지원했다는 의미일 것이고, 반드시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 공을 세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어쨌든, 아하시야는 병문안하러 요람에게 갔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병문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열왕기하 8장의 이 마지막 두 구절(28-29 절)은 9장에서 나올 일을 위한 무대(모든 소품이 제자리에 있음)를 설정한다. 완벽한 설정인 것 같다. 미국 하원 의장(1903-1911)인 조 캐논(Joe Cannon) 삼촌이 친구들과 함께 옐로스톤 국립 공원으로 여름 여행을 떠난다고 발표하던 때와 같다. 공원의 도로 시스템 건설자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일행을 태우고 갈 4대의 역마차를 마련하고 조 캐논이 마지막 역마차에 있는지 확인했다. 운전자는 합리적인 안전이 허용하는 한 캐논의 역마차를 앞의 역마차와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관광 도중 조 캐논은 도로의 화산재에서 엄청난 가루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공원 도로의 상태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다. 그때 도로 담당자는 캐논에게 도로 개선을 위한 계획들이 **있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예산)이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다음 의회에서는 도로 재건을 위한 넉넉한 예산이 책정되었다.¹² 조 캐논은 자신도 모르게 영리한 도로 감독관에게 완벽한 계락을 세울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열왕기하 8장의 끝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요양 중인 요람 그리고 요양 중인 왕을 방문하는 아하시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이 계획되어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안락한 환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8장의 끝에 묘사된 순간을 음미하려면 열왕기하 9장을 읽어야 할 것이다. 무대가 설정되었다. 등장 인물들이 제자리에 있다. 심판이 준비되었다.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위한 약간의 기름뿐이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고후 6:14).”는 성경의 명령이 여기에 적용되는가?
2. 하나님께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언약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3.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¹² Paul F. Boller, Jr., *Congressional Anecdotes* (New York: Oxford, 1991), 246.

14. 끔찍한 빠른 말씀 (왕하 9 장 Terrible Swift Word)

1941 년 6 월 22 일 새벽 3 시, 300 만 명의 독일군이 러시아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조 스탈린은 적절하고 반복적인 경고를 받아왔지만 독일이 공격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어쨌든 그들 사이에는 불가침 조약이 있었다. 그러나 15 년 전 그의 책 **나의 투쟁**(*Mein Kampf*)의 제 2 권의 끝 부분에 히틀러는 독일이 동쪽에서 그들의 **생활권**(*Lebensraum*)을 찾아야 한다고 암시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움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었다.¹ 히틀러의 정책은 **나의 투쟁**에 들어 있었다. 그 정책의 실행은 1941 년 6 월에 시작되었다.

지금 나는 히틀러의 배신을 여호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상황적 원리는 우리가 열왕기상하에서 발견하는 것과 유사하다. 여호와께서는 호렘 산에서 엘리야에게 그분의 정책을 설명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언급하셨다(왕상 19:15-17).² 엘리사는 왕상 19:19-21 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하사엘은 열왕기하 8 장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 예후가 열왕기하 9 장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서 놀랄 이유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왕상 19:15-17 에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셨다. 나중에(열왕기하 8 장과 9 장에서) 우리는 그것의 집행을 본다. 실제로 우리는 열왕기하 9 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상 21:20-24 에 나오는 엘리야의 예언이 아합의 아들 시대까지 "지연 상태"에 놓였고(왕상 21:29), 요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의 둘째 아들(왕상 22:51; 왕하 1:17)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21 장 이후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 왔다. 열왕기하 2-8 장이 요람의 통치 기간 동안 주어진 많은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재앙이 곧 닥칠 것임을 알고 있다.

열왕기하 9 장은 매혹적인 이야기이다. 그것은 긴 내러티브이므로 그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¹ John Toland, *Adolf Hitler*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6), 221, 623.

² 왕상 19:15-17 에 나오는 여호와와 지시가 어떻게 문자 그대로 실행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엘리야 자신이 세 사람 모두에게 기름을 붓도록 의도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는 실제로 엘리야만을 불렀다(왕상 19:19-21). 그렇다면 엘리야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세 사람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지만, 오직 예후의 경우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와하 9:6). 어쨌든, 세 사람 모두 엘리야(왕상 19:19-21)나 엘리사(왕하 8:7-15)나 엘리사의 제자(왕하 9:6-10)에 의해 구별된다(set apart).

열왕기하 9장의 패턴

지시와 순종, 왕하 9:1-10

대관식과 음모, 왕하 9:11-16

승마와 보복, 왕하 9:17-37

부영계 이는 흙먼지, 왕하 9:17-20

일련의 죽음, 왕하 9:1-37

그러나 나는 이 강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이다.³

I. 여호와와 말씀의 광기 (왕하 9:1-16 The Madness of Yahweh's Word)

글쎄, 그것은 **정말로** 좀 미친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소위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간부라고 하는 자들이 길르앗 라못의 야외에 둘러앉아 있다. 거기서 그들은 아람인들과 맞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⁴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 총사령관과 따로 은밀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예후와 선지자는 2-3 분 정도 안으로 사라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고 젊은 선지자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진부한 말 한 마디 없이 도망친다(왕하 9:4-10). 누가 궁금하지 않겠는가?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왕하 9:11)?” 이 용어는 선지자들을 경멸하는 흑평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렘 29:26; 호 9:7).⁵ 그러나 그 선지자는 미친 짓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파수꾼이 상황을

³ 열왕기하 9 장에 대한 비평주의적(자료와 전승에 관한) 추측에 대해서는 Burke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114-16 을 보라. Long 자신은 내러티브가 “우리가 그저 어렵듯이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116 쪽)” 합쳐졌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눈썹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추측보다 훨씬 앞선 인정이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히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4:98-99, 그리고 Alfred J. Hoerth,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321-22 을 보라. 예후 이후의 발전에 대해서는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253-55 을 보라.

⁴ 여기서 나는 나의 책(*The Wisdom and the Folly (1 King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2], 319 [= **열왕기상**, 289-290(I. 여호와와 말씀의 솔직함)])을 인용하려고 한다. “길르앗 라못(아마 지금의 텔 라미스)은 북쪽의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남북 킹스 하이웨이(King's Highway)를 가로 질러 요단강 동쪽으로 25-30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길르앗 라못에서 벳산과 요단강 서쪽의 다른 지점까지 서쪽으로 가는 길도 있었다. 향과 향신료 대상들은 길르앗 라못을 통과해야 했다. 그것은 그 자리를 장악하는 자마다 “대상 운송 세입”을 챙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22 장과 열왕기하 9 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길르앗 라못에 관심을 쏟고 있다.

⁵ 호 9:7 의 본문에 대해서는 Duane A. Garrett, *Hosea, Joel*,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7), 196 쪽을 보라. 어근 [샤가] (“미치다”)에 대해서는 V. P. Hamilton, TWOT, 2:905 을 참조하라. 열왕기하 9 장에 대해 홉스(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파악할 수 있을 때, 무리를 이끄는 자가 님시의 아들 예후일지도 모른다고 외쳤다. 이는 예후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가 미친 듯이(왕하 9:20) 병거를 몰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병거를 모는 모습에 대한 묘사 전으로 돌아가 그 선지자가 예후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자.

(왕하 9:6b-10a) (6b)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8)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놓인 자나⁶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이 할지라 (10a) 이스르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언에는 두 번에 걸친 강조가 있다. 곧 아합의 집(7a)과 이세벨(7b)에 대한 것이 한 번 나온 다음, 또 다시 아합의 집(8-9)과 이세벨(10)에 대한 것이 나온다. 이 예언에 따르면, 예후가 선동자이지만(7a,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여호와 자신이 주된 행위자이다(7b, “내가 갚아 주리라”; 8b, “내가 멸절하리라”; 9a, “내가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리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엘리사의 대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은 왕하 9:1-3 에 나오는 엘리사의 지시에는 그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말할 한 줄짜리 말(3a)만 들어있지만, 그가 실제로 그의 임무를 수행할 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라고 했었던 것에 네 절 분량의 말(7-10 절)를 더 추가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그는 왕상 21:21-24 에 나오는 아합에

Word, 1985], 115)는 “여기서 이 용어는 이미 다소 미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지칭으로 사용되었다. 예후에 대한 논평은 그 사람이 장교들의 그룹에 의해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한다.

⁶ “갇히거나 놓이거나(shut up or at large)”라는 번역은 이 어구의 전통적인 이해(“매인자와 놓인자, both bond and free”)를 반영한다. 이 어구는 구약에서 다섯 번 나오지만 정확한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흠스는 “갇히고 버려진 자들”을 제안하며 다가오는 숙청에서 죄수들조차 안전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코건과 태드모어(Cogan and Tadmor, //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107)는 그것을 “속박받고 버림받은 자들까지도, even the restricted and abandoned”라고 번역하며, 신 32:36 에서 그것이 사용된 것을 근거로 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무능력하게 된(incapable or incapacitated)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어구는 “멸망의 최종성을 표현한 것이다. 오므리의 집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끊어질 것이며, 병들고 연약한 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제안은 매력적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대한 엘리야의 예언을 재확인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불순종”에 대해 의아해한다.⁷

그러나 그 청년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내러티브의 “희생자”일 뿐이다. 때때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어떤 내러티브는 누군가가 말하려는 내용의 일부만 예로서 제시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말 전체를 인용하곤 한다.⁸ 우리는 열왕기상 21 장에서도 같은 패턴을 볼 수 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전할 한 절로 된 말씀을 주신다(왕상 21:19). 그러나 엘리야가 실제로 전할 때 그 말씀은 네 절 이상으로 늘어난다(왕상 21:20b-24). 엘리야는 불순종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도한 반복으로 완벽하게 좋은 이야기를 망치고 싶지 않은 선 요약—후 확장(summary-then-expansion)이란 문학적 패턴을 따랐을 뿐이다.

물론 예후의 동료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궁금해한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왕하 9:11a)?” 예후는 그 문제를 일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후가 샴수와 삼푸를 빨리 사용하지 못하면, 그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의 모습과 향기는 숨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후가 깨끗해지자 자발적인 대관식이 벌어진다(왕하 9:12-13). 우리는 요람이 군대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아니었다고 추론한다. 그래서 음모가 시작되고(왕하 9:14a), 모든 휴가가 취소되고(왕하 9:15b), 왕을 축출하기 위한 광란의 질주가 시작된다(왕하 9:16).

이제 나는 특히 젊은 선지자의 전언(왕하 9:6-10)에서 몇 가지 추론을 이끌어내고 싶다. 군대 지휘부가 그를 미쳤다고 불렀다면, 그의 예언의 의미도 똑같이 미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지루한 평범한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⁷ 예를 들어, Ronald S. Wallace, *Readings in 2 Kings* (Eugene, OR: Wipf and Stock, 1997), 106 을 보라. 그리고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James K. Mead, “*Elisha Will Kill?*” *The Deuteronomistic Rhetoric of Life and Death in the Theology of the Elisha Narrativ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99), 123-27 을 보라.

⁸ 내가 “때때로”라고 말한 것에 유의하라. 왜냐하면 때때로 어떤 단락은 오히려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복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7 장에 나오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보라. 열두 번 언급된 예물은 정확히 동일하지만 각 예물의 전체 목록은 정확히 열두 번 반복된다. 그러나 여기 열왕기하 9 장에는 내러티브 “절약”의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예후가 거부하다가 동의하며 그의 군대 동료들에게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말했던 것을 말할 때, 그는 문자 그대로 “According to this and according to this he said to me, saying, ‘Here’s what Yahweh says...’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 (12b)”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리 이리”는 그 선지자의 말의 정확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문학적 속기이다(Cogan and Tadmor, *II Kings*, 108 쪽 참조).

i.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촉매제이다 (The word of God is the catalyst of history.)

나는 우리 나라가 “부진한” 경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02 년 성탄절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럴 때면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듣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때때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의 흐름을 시작하시거나 자극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본다. 그 젊은 선지자가 문을 열고 달아나자마자, 그리고 예후가 그의 말을 동료들에게 전달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난다. 무엇이 그것을 자극했는가? 그 촉매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마도 예후와 그 일행은 너무 기뻐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우리는 왕하 8:7-15 에서 같은 종류의 것을 보았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가할 모든 재앙을 항목화하며, 그가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전쟁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매어쳐 죽이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왕하 9:12). 엘리사는 울었고, 하사엘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가 어떻게 것처럼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여호와께서 그가 아람 왕이 될 것임을 알려주셨다고 말했다(왕하 9:13b). 그것이 하사엘에게 아이디어를 준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왕을 위한 종부성사를 하고 왕좌를 차지했다(왕하 9:14-15). 그렇게 한 것은 하사엘 자신의 결정이었지만, 엘리사의 말이 그 배후의 촉매제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⁹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선동했지만 그는 반역 대신 순종의 길을 택하셨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 26:53-54 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이유로 칼을 치우라고 요구하셨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방어 수단을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께 한 번 요청한다면 열두 군단의 천사들이 파견될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만일 그러한 선택을 했더라면,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성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마 26:54)?” 그분이 “이런 식으로”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그분이 의미한 것은 성경이 메시아의 사역이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비하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도록 감동시킨다!¹⁰

⁹ 우리는 이것의 또 다른 예를 왕상 11:40 에 나오는 여로보암 1 세의 부상에서 볼 수 있다.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예언(열왕기상 11:29-39)에 자극을 받아 반역의 기치를 들지 않았다면 왜 솔로몬이 그를 제거하려고 했겠는가? Bright, *A History of Israel*, 228 쪽을 보라.

¹⁰ D. A. Carson, “Matthew”,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4), 8:548: “마 26:54 의 이 신성한 ‘must, 반드시 ... 해야 한다’는 예수님께 순전히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지배한다(control)고 말하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의 본문은 더 많은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역사를 **몰고가는(drive)**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준다.

ii. 암울하고 지루한 영역인 정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다 (Politics, the realm of the bleak and the boring, stands under the judgment of God.)

여러분은 그 주장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관한 한 그것은 사실이다. 여호와께서는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하겠다(즉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왕하 9:9).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다.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었으나 바아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왕상 14:14; 15:25-31). 한 왕조가 두 번째 왕만에 멸당을 당했다. 바아사 이후에 그의 아들 엘라가 통치하였다. 그러나 엘라는 술에 너무 취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시므리에 의해 암살당했다(왕상 16:1-14). 그래서 여기에 역사의 쓰레기통에 쌓인 낙오자들이 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왕상 14:14; 16:1-4)에 의해 거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요람의 임박한 죽음과 함께 오므리/아합 왕조는 그 전임자들과 더불어 여호와께서 버리신 자들의 묘지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왕하 9:9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태생부터 다른 통치자나 지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왕하 9:9 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므로 그분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영역인 정치의 일반적이고 지루한 패턴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 따분한 지루함 속에서 계속된다.

나는 미국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글을 읽어 본 적이 없었지만, 최근에 **아름다운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The Beautiful and the Damned*)을 읽었다. 그 이야기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고 채권으로 살아가며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그의 복된 죽음을 기다리는 앤서니 패치(Anthony Patch)에 관한 것이다. 그는 마침내 그가 이상화하는 완벽한 미모를 지닌 글로리아와 결혼한다. 매력적인 플롯은 없고, 그들의 삶의 나선적 하강을 따라가고, 아름다움과 쓸모없는 것과 진탕 술을 마시는 것으로 가득 찬 지루한 대하 소설이다. 나는 문학 평론가가 아니다. 나는 독자로서 나의 인상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지루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왕하 9:9 이 정치 영역에 대해 주는 의미이다. 우리는 곧 역사의 극장에서 가장 암울한 재방송을 볼 운명에 처해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지칠 줄 모르는 결의가 결합된 것이다.”

둔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iii. 여호와와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하시려고 깨어 계신다 (왕하 9:7, 10 Yahweh is vigilant to avenge his suffering people.)

예후는 아합의 집을 칠 것이고(왕하 9:7a),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실(왕하 9:7b)” 것이다. 그녀를 반대하는 선지자들이든,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길을 가로막은 충성된 여호와와 종들이든(예: 나봇, 열왕기상 21 장), 이세벨은 그들을 잔인하게 숙청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죽어 말이 없는 모든 선지자와 죽임당한 모든 종의 집계를 갖고 계셨다. 그래서 개들은 천부적인 재주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세벨(그녀의 이름은 왕하 9:10 에서 강조된 위치에 있음)을 먹을 것이며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불경건한 암태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의 종들을 모조리 기억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의 백성을 옹호하는 것이 여호와의 최우선 과제이고 그들의 복지가 그의 마음의 끊임없는 염려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마 25:31-46, 특히 40 절; 눅 18:7-8; 계 6:9-11).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마 18:6 에서 그가 의미하신 것은 나귀가 끄는 거대한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미지는 고의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를 망치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끔찍한 죽음이 그가 실제로 받게 될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때때로 그들의 피로 물든 역사 전반에 걸쳐 여호와와 숭배자들이 망각 속으로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보는 눈이 있고 주목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말한다.

1938년 9월 말에 뮌헨에서 회담이 있었다. 그 회담에서 체임벌린(영국)과 달라디에(프랑스)는 히틀러를 진정시키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주데텐란트)를 독일에 할양되도록 결정한 것 같다. 당연히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런던의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 윈스턴 처칠은 “체코슬로바키아는 어떤가? 아무도 그들의 의견을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고 중얼거렸다.¹¹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나오는 목소리, 곧 하나 밖에 없는 항의하는 목소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힘 있는 목소리(시편 29 편)이며 “내가 나의 종들의 피를 갚아 주리라.”고 말한다.

우리의 선지자가 미쳤다고 간주될지라도(왕하 9:11), 그가 말하는 미친 말은 완전히 온당하다.

¹¹ Toland, *Adolf Hitler*, 488.

II. 여호와와 그의 공의의 길 (왕하 9:17-37 The Path of Yahweh's Justice)

아마도 그 파수꾼은 끝없이 동요했던 것 같다. 그는 민방위 훈련에서 항상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시민의 안전이 얼마나 그의 경계에 달려 있는지를 들어왔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무미건조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기 상황 없이 긴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가 뿌연 흙먼지와 병거를 타고 오는 무리를 보았을 때 그는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흥분과 더불어, 왕이 파견한 처음 두 마병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터리도 있었다(왕하 9:17-19).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노련함을 과시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병거를 미치게 몰며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왕하 9:20).

물론 요람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는 마병들을 보내 문자 그대로 “그것이 평화인가(Is it peace)?”라고 묻게 하였다(왕하 9:18, 19). 나는 이것이 NJB와 NJPS와 같은 일부 번역이 취하는 “Is all well?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¹² 요람은 길르앗 라못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몰랐다. 아마도 예후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재난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을 수도 있었다. 일부 주석가들은 두 마병이 돌아오지 않은 후에 왜 요람(과 아하시야)이 보호받음 없이(호위병 하나 없이)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갔는지(왕하 9:21) 궁금해한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에게는 호위병이 있었을 것이다.¹³ 그의 두 특사가 돌아오지 않자 요람은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었는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려면 무엇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후의 병거에 올라타면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공의의 길을 추적할 수 있다. 여호와와 그의 공의는 먼저

¹² TEV는 “왕은 당신이 친구로 왔는지 알고 싶어합니다.”라고 번역한다. 이것은 “그것이 평화인가? (즉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라고 번역하는 번역본들의 의미이다. 와이즈먼(D. J. Wiseman, “Is it peace?—Covenant and Diplomacy,” *Vetus Testamentum* 32 [1982], esp. 321)은 여기 나오는 [shalom]을 고대 근동 외교에서 그것이 사용된 용례를 통해 살피며 요람이 예후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예후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내가 따르는 K-B, 4:1506-10에 나오는 유용한 토론을 참조하라. 그리고 Saul Olyan, “[חַשְׁלֹם] *hăšālôm*: Some Literary Considerations of 2 Kings 9,”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6 (1984): 652-68도 참조하라.

¹³ 나는 Walter Brueggemann, *1 & 2 King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2000), 386쪽의 설명이 옳다고 생각한다. 요람은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군대는 길르앗 라못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요람을 친다(왕하 9:21-26). 요람은 예후가 “평안하냐?”라는 질문에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대답할 때(왕하 9:22) 그것이 반역임을 알았다. 요람은 몸을 돌려 거기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예후의 화살은 그의 어깨뼈 사이로 떨어져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왕하 9:24).

아이러니는 요람의 심판에 대한 상표이다. 저자는 요람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왕하 9:21)” 예후를 만났다고 전할 때 이를 암시한다. 이것은 예후의 기억을 되살렸고 그는 그의 측근에게 요람의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왕하 9:25a).”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을 수행했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하셨던 무거운 말씀을 회상하며(25b 절) 그것을 정확하게 인용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갇으리라 하셨다(왕하 9:26a).”¹⁴ 따라서 예후는 빗갈에게 예언이 성취되도록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한다(왕하 9:26b).¹⁵

우리가 예후를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왕하 9:26 을 통해 열왕기상 21 장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 즉 이세벨이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이것은 나봇의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러나 예후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의 표어를 사용한다.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 흘림을 분명히 보았다(왕하 9:26)”는 출 3:7 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시 10:11, 14 참조).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짓밟히는지를 항상 보시고 “갇으실” 준비를 하신다(살후 1:6-8 참조).

¹⁴ 본문에 대해서는 R. J. Williams, *Hebrew Syntax: An Outline*, 2nd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sect. 456 (p. 74)을 참고하라.

¹⁵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는 약간의 수수께끼이다.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게 왕상 21:19 에 대한 성취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왕상 22:38 은 왕상 21:19 의 성취인 것처럼 보인다(그것이 여기의 또 다른 성취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둘째, 왕상 21:19 은 “장소”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 같다. 이 후자의 요점에 대해서는, 이안 프로반(Iain Provan)의 왕상 21:19 번역, 곧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대신에,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것을 말입니다.”라는 번역을 참조하라. 그의 책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60 에 나오는 그의 주장과 그가 인용한 본문들을 보라. 그리고 또한 DCH(*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5:460-61, 특히 항목 16 도 참조하라. 여기 열왕기하 9 장에서 예후는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예언 및/또는 다른 사건(참조, Provan, 213)을 언급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진실성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어떤 기만적인 신명기 사가가 예후의 말을 왜곡했다면 그는 그 말을 이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요람이 나봇의 밭에 버려지는 아이러니는 피할 수 없다.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훗일지 모르지만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¹⁶

요람의 최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아이러니를 강조한다면, 이세벨의 최후는 그 심판의 공포를 보여준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들어간다.¹⁷ 그 사이에 이세벨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받았고(왕하 9:30a)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지하는 것 같다. 그녀는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 그녀는 화장품을 사용한다. 그녀는 마스크라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꾸미고 여왕처럼 보이며 창문을 통해 예후가 문에 들어오는 것을 들여다본다(왕하 9:30b). 그녀의 빈정거림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녀는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묻는다(왕하 9:31b)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세벨이 예후에게 협상을 제안하며(직역하면 “그것은 평안인가?”), 예후가 하렘을 장악하고 아합 왕조에 이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유인하거나 유혹하기 위해 자신을 치장한 것으로 생각한다.¹⁸ 그러나 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후의 반역과 시므리[열왕기상 16:8-20 참조]의 반역 사이의 유사점은 너무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고 ‘그의 주인을 죽인 자’라는 별명은 예후의 욕망을 부추기려는 의도에서 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¹⁹ 오히려 이세벨은 예후에 대한 반항의 행위로 자신의 완전한 예복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 그녀는 멋지게 나갈 것이다. 아니면 그녀는 멋지게 나가리라고 생각한다.

예후는 도움을 청한다. 누가 그의 편인가? 두어 내시가 머리를 내밀고 내려다본다(왕하 9:32). 그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내려던지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그녀를 들어 던지자 그녀는 아래로 떨어진다. 그녀의 피 중 일부는 벽과 말에 튄다. 그리고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짓밟는다(왕하 9:33). 예후는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조금 진정된 후 그는 이세벨을 장사하라고 명령한다(왕하 9:34). 어쨌든 그녀는 귀족 출신이 아니던가? 하지만 예후의 부하들이 그녀를 장사하려 했으나

¹⁶ 아하시야는 예후가 그를 처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만 짧게 언급된다(왕하 9:27-29). 요람의 동맹자가 된 것만으로도 그의 파멸을 예견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예언적 인용문을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보고는 자체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 (1) 왕하 9:27의 본문은 약간 손상되었다. (2) 왕하 9:27-28에 묘사된 지리는 역대기 저자가 대하 22:9에서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고 말한 것과 일치시키는 것이 어렵다. 이 두 진술(열왕기하 9장과 역대하 22장) 사이에 직접적인 모순은 없지만 나는 그것들을 만족스럽게 조화시킬 만큼 똑똑하지 않다. 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290 쪽을 보라.

¹⁷ 나는 예후가 그의 종들에게 이블르암에서 부상당한 아하시야를 계속 추격하도록 하고 그 자신은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¹⁸ 예를 들어,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and Mark W. Chavala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0), 397 을 보라. 그리고 B. O. Long 이 그의 책 *2 Kings*, 129-30 에서 파커의 견해를 묘사한 것을 참고하라.

¹⁹ Robert L. Cohn,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2000), 70.

장사할 것이 없는 문제가 생긴다. 예후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동안 청소견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 자신의 음식으로 바빴다. 몇 가지 신체 부위(그녀의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왕하 9:35).²⁰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알릴 때, 그는 준비라도 한 것처럼 또 다른 예언적 성취를 말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왕하 9:36-37)

예후의 인용은 왕상 21:23 에 나오는 엘리야의 예언을 따온 것이다.²¹ 예후가 왕상 21:23 이 엘리야가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기 엘리야와 여기 예후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우리는 예후가 주일 학교에서 성경 암송상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 예언을 "수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왕상 21:23 은 엘리야의 반이세벨 예언을 요약해서 전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엘리야가 더 많이 말했고 그것을 여기서 예후가 기억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일 조작자가 작업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엘리야의 예언과 예후의 기억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개들에 대해 예언했었고, 그것들은 예후의 점심 식사 시간에 왔다. 이 경우 심판의 가혹함은 그 범죄자의 사악함과 들어맞는다.

우리는 이세벨의 종말에 대한 이 기록에서 몇 가지 관찰을 할 수 있다. 첫째, **악한 사람들은 아주 세련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녀는 불경건했지만 배짱이 두둑했다. 얼굴에 맥스 팩터 마스크라를 하고 입술에 빈정거리는 표정을 하고서 그녀는 예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 시대의 몇몇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은 죽어도 돌진할 수 있다. 멋지게 나가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세벨에게 그런 누가 있었는지 모를 일이지만)에게 그들이 저승사자의 들판으로 걸어 들어갔던 무모한 방식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를 남기라. 그러나 죽음 앞에서의 담대함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면제하지는 못한다. 누군가 죽을 때 기억에 남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악인의 죽음은 의인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예를 들어 시편 83 편과 94 편에 묘사된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추고

²⁰ Brueggemann, *1 & 2 Kings*, 388: "이 내러티브는 자아도취적인 여왕에서 거리의 쓰레기 조각으로 순식간에 변한 이세벨의 굴욕을 보여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²¹ 그리고 왕하 9:10 에 나오는 젊은 선지자의 말에 주목하라.

빈혈 문화의 가슴에서 관용이란 싱거운 우유를 너무 오랫동안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 신학에는 성경적인 척추가 없다.

인정하건대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태도에 다소 충격을 받는다.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읽어 주곤 했던 때가 생각난다. 이야기가 끝난 후 우리는 기도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그 이야기는 엘리야와 이세벨에 관한 것이었고, 이세벨이 어떻게 창문 밖으로 던져져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작은 책을 옆으로 치우고 우리는 기도했다. 우리의 큰 아들은 대개 그의 기도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누가(Luke)는 “사랑하는 하나님, 이세벨을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나는 솔직한 감사에 다소 충격을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나중에 나는 누가가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압제자들이 심판을 받고 제거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이다. “교회에게 기쁨이다. 왕비가 죽었다! (Joy to the church—the queen is dead! Cf.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이것이 열왕기하 9 장의 말씀이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 1 이러한 “문학적 속기”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는 것인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 2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촉매제가 된 것을 볼 수 있는가?
- 3 여호와께서 이세벨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 4 이세벨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5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자들이 마침내 죽었을 때 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15. 머리가 날아가는 때 (왕하 10 장 When Heads Roll)

1937 년 12 월 어느 날, 조 스탈린과 몰로토프는 3,167 건의 사형 선고를 승인한 후 영화관에 갔다. 1937 년과 1938 년에만 스탈린은 약 40,000 명의 이름이 포함된 처형 목록을 승인했다. 스탈린의 소련에 온 것을 환영한다. 1936-38 년의 공포는 특히 심각했다. 백만여 건 이상의 처형이 이루어졌고, 수백만 명이 북극 수용소에서 죽도록 보내졌다. 공산당 자체는 당원의 절반이 체포되며 황폐화되었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했다. 중앙위원회의 70%가 사망했다.¹ 스탈린은 스올을 채우는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였다.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혁명과/이나 독재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예후의 반역을 예로 들어보자. 님시의 아들 예후가 학살자 조 스탈린에 비하면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0 장의 이야기에서 피가 똑똑 떨어진다. 그러나 예후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다.

열왕기하 10 장은 긴 장이므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의 개요를 도표로 작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머리 더미, 왕하 10:1-10
 - [요약, 왕하 10:11]
- 이중 회의, 왕하 10:2-16
 - [요약, 왕하 10:17]
- 항상 예복을 입으라, 왕하 10:18-27
 - [요약, 왕하 10:28]
- 예후에 대한 평가: 왕하 10:29-33
 - 단서 조항, 왕하 10:29, 31
 - 신선한 말씀, 왕하 10:30
 - 칙칙한 말씀, 왕하 10:32-33
- 예후의 퇴장, 왕하 10:34-36

저자는 주요 부분들의 끝에 요약 진술(왕하 10:11, 17, 28)을 포함시키고 왕하 10:29-33 을 통해 예후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제공한다.

¹ Robert Conquest, *Stalin: Breaker of Nations* (New York: Viking, 1991), 199-207.

I.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는 때때로 비위생적이다 (왕하 10:1-11, 12-17 Fulfillment of Yahweh's word is sometimes unsanitary)

이 두 부분(왕하 10:1-11, 12-17)에서 강조점은 10 절(예후의 신학)과 17 절(저자의 신학적 논평)에 있는데,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취로 달려가기 전에 사실을 파악해야 하며, 그 일이 왜 중요한지 묻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왕하 10:1-11 에서 1-6 절은 서곡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합의 아들 칠십 명, 왕하 10:1a

예후의 첫째 편지: 그들의 용기에 도전, 왕하 10:1b-3

두려움과 복종, 왕하 10:4-5

예후의 둘째 편지: 그들의 충성에 도전, 왕하 10:6a

아합의 아들 칠십 명, 왕하 10:6b

그 후 에피소드는 학살(왕하 10:7), 구경거리(왕하 10:8), 연설(왕하 10:9-10)로 끝난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² 그들은 정권을 위해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아합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왕좌에 앉히고 그들의 모든 군사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왕하 10:2b).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왕하 10:4) 예후에게 완전한 항복의 소식을 보냈다(왕하 10:5). 거기에는 대가, 곧 시험이 있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왕하 10:6a).” 그들은 나뭇 성읍의 장로들처럼 유순하고(왕상 21:9-14), 칠십 명을 학살하고(왕하 10:7) 그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보낸다.

사람들은 왕하 10:8 에 나오는 저자의 사실적인 문체에 경탄한다. 사람들은 옛날 영화에서 영국인 집사가 동요하지 않고 “주인님, 주문하신 머리들이 도착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후는 그것들을 문 어귀에 두어 밤새 전시하였다(왕하 10:8b)³

² 예후는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장로들과 아합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전했다(왕하 10:1).”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본문에 약간의 결함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서 사마리아로 도망쳤을 것이다. 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126 을 보라.

³ 앗수르인들은 머리를 쌓아두는 데 정말 소질이 있었다. D. D. Luckenbill, *Ancient Records of Assyria and Babylonia*, 2 vols. (Lon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1926/1989), 1:143, 147-48 에 나오는 Assur-

다음날 아침 연설(왕하 10:9-10)을 위한 시각적 보조 자료로 사용한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왕하 10:9)?” 예후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이해된다. “물론, 내가 요람을 죽였다. 그러나 이 머리들이 배달을 통해 도착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했다. 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있다. 이것들은 왕자의 머리들이다—나는 최고 수준의 사람들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요약 논평인 왕하 10:11 에서 저자는 예후가 이스라엘을 “확보했다”고 확증한다. 그는 그곳에 있는 아합의 모든 친척들, 그의 귀족들, 궁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 종교적 직분자(제사장)들을 “죽였다.” 아합에게 속한 생존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제 예후는 일어나 사마리아로 간다(왕하 10:12a). 사마리아는 왕의 다른 요새이며 수도였다. 그러나 왕하 10:12-17 의 대부분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있었던 두 번의 만남과 관련이 있다.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왕하 10:12a

예후가 유다 사람들을 만남, 왕하 10:12b-13

학살, 왕하 10:14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남, 왕하 10:15a

지지, 왕하 10:15b-16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하 10:17

예후가 아하시야의 친족들을 만난 것(왕하 10:12-14)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목자들의 벳에케드(왕하 10:12)가⁵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만일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면, 그들은 분명히 아합의 후손 칠십 명이 학살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스라엘로 계속 가고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사마리아를 통해 왔는지 잘 모른다. 사실, 왕하 10:13b 에 나오는 그들의

nasir-pal(앗수르-나씨르-팔)에 대한 것, 그리고 같은 책 1:213, 215, 219 에 나오는 Shalmaneser III(살만에셀 3 세)에 대한 것을 보라.

⁴ 홉스(T. R. Hobbs, *2 Kings*, 125)의 왕하 10:12-17 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나는 그 구조를 보게 되었다.

⁵ [역자 주] 왕하 10:12 בֵּית־הַקֶּדֶד הָרֹעִים[베트-아케드 하로임]에 대한 번역은 다양하다. 개역개정/쉬운성경: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새번역/공동번역/우리말성경: 벳에켓하로임; NIV/ESV/NASB: Beth-eked of the Shepherds; JPS: the shearing house of the shephards; YLT: the shephards' shearing-house

대답은 그들이 왕의 아들들에 대한 위협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가정한다.⁶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예후를 만났을 때 왜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래야만 하는가? 그들은 아마도 예후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서 뉴스 제작자의 얼굴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타블로이드나 신문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예후가 유다 왕의 친척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데 왜 그들을 멸절시켰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가는 통혼했기 때문에(왕하 8:18, 26) 예후는 아마도 절호의 기회를 잡으면 유다에 있는 친 아합 군대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후는 또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만난다. 여호나답은 예후를 만나러 가는 것 같다(왕하 10:15a). 여호나답은 예후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열렬한 지지를 표명한다(왕하 10:15c).⁷ 우리는 여호나답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른다. 예레미야 35 장에 그의 후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다른 철자)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항상 장막에서 살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렘 35:6-7). 이것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룹이 이상화된 유목 생활로의 회귀로 상징되는 여호와주의(Yahwism)의 옛 방식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냈다.”라고 쉽게 추론하기도 한다.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후가 여호나답의 군사적 지원에 눈독을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갑”은 병거를 뜻하는 [레헤브]와 같은 어근에서 유래했다. 어떤 사람들은 “레갑의 아들”이 병거를 생산하는 금속 노동자 그룹의 일원을 가리킬 수 있다고

⁶ Hobbs, *2 Kings*, 128 은 히브리어 전치사와 명사로 된 전명구 לְיָשׁוּרִים [리실롬](문자적으로 “평안을 위해”; 보통 “문안하다”의 뜻으로 쓰임)을 모음을 변경하여 “복수하다, 되갚다”라는 뜻의 부정사 לְרִשְׁלָם [르살렘]으로 바꾸길 원한다. 그러면 이들은 아합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북쪽으로 파견된 남쪽 부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들은 무장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가? 예후는 그들을 사로잡으라(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왕하 10:14a). 그들이 전투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왔다면 그 명령은 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리와 통신에 관해서, 닐슨(Richar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204)은 이 유대 사람들이 요단 계곡과 벤산을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뒷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그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라고 제안한다.

⁷ 여기서 나는 코건과 태드모어(Cogan and Tadmor, *//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115)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כִּי־יָשׁוּרִים [예시 바예시]를 강조적인 표현으로서 “정말 그렇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예,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지지합니다.”라는 뜻이다.

⁸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204; cf. Cogan and Tadmor, *// Kings*, 114.

생각한다.⁹ 우리가 “레갑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든, 여호나답은 분명히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예후는 자신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왕하 10:16)”을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예후는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절반의 구절(왕하 10:17a)을 통해 예후가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모든 아합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그것이 일어났던 일이다. 그리고 본문의 요점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다. 예후는 죽임당한 왕자들의 머리를 쌓은 두 무더기 사이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왕하 10:10).”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우리는 예후가 (우리를 위한) 상주하는 신학자나 (자신을 위한) 당대 역사의 해석자가 되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아무튼, 아합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예후에게 너무도 편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예후의 신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왕하 10:17 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저자는 예후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남아 있는 아합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죽여 진멸한 것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라고 시인한다.¹⁰

만일 우리가 예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질문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의 유혈을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은 더 깨끗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없었는가?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주 인간 도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과 의사와 달리 멸균된 도구들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가 결함이 있고 그것들 중 많은 것이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예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서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신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수반되는 상황이며, 심판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⁹ 이 견해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B. K. Waltke, “Reckab, Rechabites,”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5 vols., 5:42-44, 그리고 Frank S. Frick, “Rechab,” *ABD*, 5:630-32 을 참조하라.

¹⁰ 코건과 태드모어(Cogan and Tadmor, // *Kings*, 118)는 이것이 “이야기의 모든 관점을 하나로 묶는 기본 주제, 곧 아합 집에 대한 예후의 행위가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다. 실제로 예후 자신도 이 근거를 적어도 세 번(왕하 9:25-26, 36-37; 10:19[실수이므로 10:10 로 정정해야 함])이나 말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몇 주 전에 아내와 나는 따로 여행을 떠났다. 아내는 친구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테네시와 버지니아로 갔고, 나는 회의를 위해 콜로라도로 갔다. 나는 아내보다 며칠 먼저 집에 도착했고, 당연히 더러운 빨래 더미를 쌓아 두었다. 머지않아 물품이 바닥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빨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행히도 우리 세탁기에 “초대형 하중”에 대한 설정이 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선택하고 흰색, 중간색, 검은 색 옷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었다. (색이 빠져나올 새 옷들은 없었다.) 세탁기는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찼다. 나는 거의 모든 옷이 한 번에 쉽게 세탁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생이나 하는 방식이었다. 그걸 보고 바바라는 매우 놀랐다. 바르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세탁물은 색상에 따라 분류되고 때로는 직물에 따라 분류되며 섬유 유연제가 보충된다. 따라서 세탁은 세련되거나 야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세탁은 이루어진다. 나는 그것이 여호와가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시면 직접적이고 오염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수 있지만, 종종 오염된 도구들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신다. 어느 쪽이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는 때때로 비위생적이다.

II. 여호와의 대의에 대한 열심은 자주 부족하다 (왕하 10:16, 18-31 Zeal for Yahweh's cause is frequently deficient)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위한 열심(왕하 10:16)”을 약속했다. 그러나 예후가 자신의 종교 정책을 발표했을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왕하 10:18).” 그리고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에게 그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취임식 예배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참석하라고 소환하며 오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란 경고를 준다(왕하 10:19a). 그런 다음 저자는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기 위해 계책을 쓴 것이라는 작은 논평을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왕하 10:19b). 모든 바알 숭배자들은 통지를 받고 도착하여 바알의 집을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가득 채운다(왕하 10:21). 바알이 어떻게 실패할 리 있겠는가? 바알의 배후에 훨씬 더 큰 정부의 열정이 있는 상황이라서 바알의 시대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조차도 왕하 10:18-28 에서 바알을 17 번이나 언급하면서 바알의 “패권(霸權)”을 미묘하게 암시한다.

예후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예복을 입도록 하여(왕하 10:22), 그의 처형단이 그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또한 확실하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였다(왕하 10:23). 이것은 에큐메니칼 예배가 아니었다. 예후는 제사를 드리러 안으로 들어가지만 밖에서 80 명의 특공대가 그의 명령을 기다리도록 했다(왕하 10:24). 제사를 마치고 나오며 예후는 부하들에게 들어가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왕하 10:25).

그들은 바알 숭배자들을 소탕하고 바알 목상을 헐어버리고 바알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들었다(왕하 10:26-27). 왕하 10:28 은 이 일에 대한 짧은 요약을 제시하며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묘사한다.

왕하 10:28 과 같은 진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던 시절이었다. 아합 치하에서 내내 바알은 실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왕상 16:29-34).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좋은 뜻밖의 소식인가! 그러나 그것은 일부 사람들을 조금 초조해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결국 “아합의 집(왕하 9:7)”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지 않는 한 바알 숭배자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예후에게 주어진 예언적 명령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신명기 13 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후에 대해 정죄하기를 주저해야 한다.¹¹ 그렇기는 하지만, 예후가 바알 숭배를 없애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보다 자신을 위한 열심과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나는 본문에서 직접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적인 직감이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후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합의 왕조에 바알을 지지하는 집단들에 속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다면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숙청한 것은 그가 친여호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아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알을 제거하는 것은 아합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아합의 가문에 대한 지원을 해체하는 것이 되므로 예후의 권력을 견고하게 해 줄 것이었다.

그러나 왕하 10:28 은 이어지는 절들과 함께 보아야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왕하 10:28-31 은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이중 2 박자 패턴을 이루고 있다.

칭찬, 왕하 10:28

단서 조항, 왕하 10:29

칭찬, 30 절

단서 조항, 왕하 10:31

그래서 예후는 바알 숭배를 말살했지만(왕하 10:28), 그 자신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왕하 10:29). 여호와께서는 아합의 집을 없애버린 예후를 칭찬하고 보상하시지만(왕하 10:30), 저자는 반복해서 예후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왕하 10:31). 여로보암은 일종의 구약의 본디오 빌라도이다. 그의

¹¹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First King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2), 243-45[= **열왕기상 주해**, 219-221(V. 참 하나님의 엄중하심은 매우 정죄적이다)]에 나오는 왕상 18:40 에 대한 나의 논의를 참고하라.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 오명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의 운명을 봉인했기 때문이다.¹² 예후 혁명의 문제는 그것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레트하임이 올바르게 말했듯이, 혁명은 충분히 **깊숙이**, 곧 예후 자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왕하 10:31 참조).¹³

이와 같은 단락은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정치 신학을 공식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전에 이것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환멸의 영역이다. 예후는 배교는 타도하지만 왜곡은 유지하고 있었다(왕하 10:29, 31). 우리는 러시아의 복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한 개혁에 대해 들었을 때 왜 격려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특이한 지도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각 사람은 어떤 신앙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도 전파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 관리들 중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그의 신앙을 물어볼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이며 아무도 감히 이 분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¹⁴ 그것은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 예후가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정치권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예후가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훨씬 적게 구원할 때, 또는 예를 들어 다니엘 2 장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3 장의 느부갓네살로 변할 때 놀라지 않는다.

III. 여호와의 손에 있는 도구들은 항상 책임이 있다 (왕하 10:32-33 Instruments in Yahweh's hands are always responsible)

여호와는 예후에게 4 대를 지낼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을 멸절함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수행했기 때문이다(왕하 10:30). 예후의 미온적인 열심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 축복은 적절해 보인다. 이는 예후가 아합의 이교(바알 숭배)는 근절했지만 여로보암의 혼합주의는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사건들의 묘사는 왕하 10:32-33 의 첫 번째 재앙이 예후의

¹²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164-66[= **열왕기상 주해**, 144-146(15 장 III. 역사에 지속되는 말씀의 저주)]을 참고하라.

¹³ Terence E.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John Knox, 1999), 173.

¹⁴ James and Marti Hefley, *By Their Blood: Christian Martyrs of the Twentieth Century*,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6), 227 에서 재인용.

미지근함에 대한 여호와와의 심판임을 시사한다.¹⁵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셨다(왕하 10:32a).” 여기에 사용된 동사[카싸]는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씩 떼어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¹⁶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일부가 하나씩 차례로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 왕하 10:33 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길르앗과 바산, 곧 실제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시리아/아람 왕 하사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였다(왕하 10:32b).” 그렇다. 여호와께서는 잘라 내기 시작하셨고 하사엘은 공격하였다. 하사엘은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와의 도구이다. 그리고 여호와와의 말씀은 예후가 할 숙청을 예언했던 것처럼(왕하 9:7-10) 하사엘이 가져올 재앙을 예언했었다(왕상 19:15-17; 왕하 8:12-13).¹⁷

이것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요약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와의 심판의 한 도구(하사엘)가 여호와와의 심판의 이전 도구(예후)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이 이야기는 되풀이될 것이다. 비록 여호와께서 앗수르를 자기 백성에 대한 분노의 막대기로, 그리고 자신의 언약 국가를 짓밟는 도끼로 사용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도끼가 신성한 별목꾼의 손에 있는 도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도끼를 멀하실 것이다(사 10:1-19).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그의 “종”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렘 27:7)”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왕들과 다른 타락한 자들을 그분을

¹⁵ 어떤 사람들은 호 1:4 을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살육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후의 집을 심판하고 계셨다는 증거로 지적한다. 그러나 호 1:4 은 “내가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흘림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에게도 아합 왕조에 이르렀던 동일한 폭력적인 종말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뜻이다. Duane A. Garrett, *Hosea, Joel*,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7), 56-57 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하라.

¹⁶ K-B, 3:1120.

¹⁷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Cogan and Tadmor, *II Kings*, 120-21, 그리고 Hobbs, *2 Kings*, 131 을 참고하라. 앗수르 왕 살만에셀 3 세는 하사엘(주전 840-838 년경)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예후는 살만에셀에게 복종했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Alfred J. Hoerth,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321-22, for the Black Obelisk of Shalmaneser). 그러나 나중에 살만에셀의 관심은 북쪽과 동쪽의 전투로 옮겨졌고, 결국 활력을 되찾은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¹⁸ Ronald S. Wallace, *Readings in 2 Kings* [Eugene, OR: Wipf & Stock, 1997], 124: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악당들과 야수 같은 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의 능력과 성공을 놀랍게 제한하실 수 있다.”

섬기도록 밀어 넣으시지만, 그러한 종들이 자신의 종됨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이전 종들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내 버릴 또 다른 종을 일으키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지 거물들이나 자만하는 정치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후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고도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음을 증언한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후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마 7:21-23 보다 더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언젠가 어떤 식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매우 엄숙하다. 예후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로 두려움과 신실함을 갖게 하라.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들은 함께 가는가?
3.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은 아마도 심판받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4. 우리는 “주님을 위한 열심”의 동기가 언제나 정확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5.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자주 심판하시는가?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16. 성탄절을 구한 여인 (왕하 11 장 The Lady Who Saved Christmas)

여러분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 남부의 깊숙한 곳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성탄절 연휴가 가까워졌다고 가정해 보자. 성탄절 무렵에 계피 향이 나는 자두 주스를 먹는 남부 전통이 여전히 지속된다고 가정해 보자. 별미로 생각된다. 그것은 노바 스코샤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지상의 흰색 플라스틱 파이프 라인을 통해 미시시피까지 내려온다. 그런데 뉴저지에 사는 심술궂은 사람이 멋진 남부 사람들이 완벽하게 깔끔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파이프 라인에 구멍을 뚫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파이프 라인은 너무 노출되어 있고 매우 취약하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왕국의 도래, 따라서 성탄절의 도래를 자신이 한 약속에 달려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인류 역사의 모든 격동과 격변 속에 두셨다. 때때로 우리는 그 약속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시 89:36-37).” 따라서 다윗의 계보의 왕들, 곧 “다윗의 파이프 라인”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미래의 다윗, 곧 메시아 왕이 이 계보를 놀라운 절정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다윗의 계보는 유다라고 불리는 작은 왕국을 통치했다. 그런 가운데 주전 840 년경에 성탄절이 없어지고 역사에 메시아가 없을 것 같은 날이 오고 말았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1 장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가 일식을 겪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큰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대부분 대칭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우리가 본문의 가르침에 집중하기 전에 이 구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열왕기하 11 장의 구조

죽음과 보존, 왕하 11:1-3

비밀 계획, 왕하 11:4-12

왕의 아들을 드러냄, 4 절

제사장의 지시, 5-8 절

준수, 9-11 절

대관식, 12 절

공개 행사, 왕하 11:13-19

왕의 아들을 드러냄, 13-14 절

제사장의 지시, 15 절

준수, 16 절

언약 + 파괴, 17-18 절

등극, 19 절

죽음과 평화, 왕하 11:20

이제 이 이야기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I. 언약을 굽히는 것의 정말 어리석음 (The Utter Folly of Covenant Compromise)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하 11 장의 원인이 되는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당초 아달라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었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왕하 8:18; 왕상 22:44; 대하 18:1). 그녀는 북왕국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의 쿠데타의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다(왕하 11:1; 9:27-28).¹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²

여호사밧이 살아 있는 동안 유다의 분위기는 매우 비슷해 보였다. 국가 사이의 결혼 동맹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주전 848 년(여호사밧의 죽음)과 841 년(여호람의 죽음)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달라가 여호람을 부추겨 그의 형제들을 숙청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대하 21:1-7). 그리고 물론 아달라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학살을 감행했다(왕하 11:1). 여호사밧이 자신의 외교가 그러한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¹ 나는 지나친 반복을 피하려고 한다. 위의 왕하 8:16-29 을 다룬 13 장에 나오는 이전 논의를 참고하라. 그리고 왕상 22:41-44 을 다룬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337-38 [= **열왕기상 주해**, 305-309(29 장 I. 의인의 우매: 타협의 길을 걷는 것)]을 참고하라.

² 우리는 아달라가 (아합의 다른 아내의 딸이 아니라) 이세벨의 딸이었는지 잘 모른다. 아달라의 행동은 이세벨의 유전자를 암시한다. 프리케(K. D.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Calwer, 1972], 146)는 외국 왕실과의 결혼 동맹에서는 "정실 혈통"의 딸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브라이트(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242, n. 38)는 연대기적 고려가 이세벨과 아달라의 연관성을 배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코건과 태드모어(Cogan and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98)는 브라이트의 주장을 반박한다.

일 년 전에 나는 지역 신문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샌디에고에서 동쪽으로 약 70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2 층짜리 방갈로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그 집은 양돈장에 있었고 평범한 집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약 단속 요원들이 벽장에 진입하여 전등, 환기 배관 및 나무 벽이 있는 1,200 피트 길이의 터널 입구를 발견했다. 터널은 미국과 멕시코를 분리하는 금속 벽 바로 너머에 있는 한 집의 벽난로에서 끝났다. 사람들은 이 "통로"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마약을 밀수했다. 그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종류의 파멸을 숨기고 있었다. 여호사밧이 설계한 결혼 동맹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한동안 전혀 해롭지 않은 듯이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 언약 전체가 거의 물거품이 될 뻔했다.

앞서 말했듯이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경건했지만 언약적으로는 어리석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은 아달라의 손에서 똑똑 떨어지는 피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 중 누구도 왕이 아니며 우리 중 아무도 "거물"이 아니지만,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있는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거의 항상 우리 후손들 사이에 혼란과 파멸이 초래될 것이다.

i. 여호와의 적들의 미친 분노 (왕하 11:1 The Mad Fury of Yahweh's Enemies)

우리는 아달라가 난동을 부리기까지의 유다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왕하 11:1 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한다. 다윗의 자손들은 이미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먼저, 아달라의 남편 여호람은 그가 단독 권력을 얻었을 때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다(대하 21:1-4). 그 다음으로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은 유다를 침략하여 막내인 여호아하스/아하시야를 제외한 여호람의 아들들을 모두 사로잡아 데려가서 죽였다(대하 21:16-17; 22:1). 그 후 아하시야는 재위 1 년 만에 예후의 숙청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요람과 함께 붙잡혀 숙청되었고(왕하 9:27) 유다 왕족 42 명도 숙청되었다(왕하 10:12-14). 따라서 아달라의 살인 사역에 자신의 손자들을 제외하고 누가 남았을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그때는 아달라의 권력의 시간이었고 "그녀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왕하 11:1)."

이제 이것이 단순히 **전형적인 추세**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증오의 한 예이다. 그것은 끔찍하지만 전형적이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마 2:13-18 에 나오는 헤롯을 보라. 사악한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 야만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은 너무 성공적이어서 하나님의 대의와 백성은 멸종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일 3:13)." 우리는 다니엘 7 장, 데살로니가후서 2 장, 요한계시록 13 장의 상황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온갖 종류의 적그리스도들이 그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밥값을 하는 예측자라면 누구나 주전 840 년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철자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A-t-h-a-l-i-a-h(아달라)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달라의 칼이 아직도 피를 뚝뚝 떨어뜨리는가? 지난 20 년 동안 수단 남부에서 사망한 200 만 명에게 물어보라.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에게 1 만 명(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치는 너무 적은 수치)의 기독교인이 무슬림의 손에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딘지 물어보라. 이것은 보통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무실이나 상점이나 학교에서 이 분노의 기미를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

ii. 무명의 종들의 엄청난 중요성 (왕하 11:2 The Huge Significance of Unsung Servants)

(왕하 11:2)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는 항상 신실한 종들을 갖고 계신다. 여기서 그녀의 이름은 여호세바이다. 그녀는 아하시야의 누이요, 여호람의 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대하 22:11)이다.³ 아무튼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녀는 유아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함께 몰래 빼내어 “침대 용품”이라고 표시된 방에 그들을 있게 한 다음에 성전 단지 내 그녀의 아파트에서 6 년 동안 그를 키운 것 같다(왕하 11:3a).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한 아기만 남겨둔 셈이다. 얼마나 중대한 순간이었는가! 여호세바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인간 대리인이다. 여호세바가 아니었다면 성탄절도 없었을 것이다. 다윗의 계보가 끊어졌을 것이다. 여기 성탄절을 구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때때로 역사의 연속극처럼 보이는 데서 하나님의 롤레이즈⁴ 역할을 한다. 왕하 11:2 에서 보인 그녀의 주도권으로 인해 왕하 11:4-18 에 기록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여호세바의 행동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아는가? 여호와와의 약속은 주전 840 년에 경각에 달려 있었으나 그녀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

³ 로버트 콘(Robert Cohn,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2000], 77)은 아이러니를 이렇게 지적한다. “왕하 11:2 은 아하시야의 누이를 아하시야의 어머니에 대항하여 아하시야의 어린 아들을 구한 구원자로 묘사한다. ...”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바로의 딸이 바로의 칙령을 저지한다(출 2:1-10). 그리고 사울의 자녀인 요나단과 미갈은 아버지의 계략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한다(삼상 19 장).

⁴ 역자 주: Roloids (calcium carbonate / magnesium hydroxide 롤레이즈) is a combination medication containing calcium and magnesium. It **provides fast symptom relief for heartburn and indigestion.**

여호와와 그의 방식이 보이지 않는가? 눈에 확 띄는 개입이 없다. 그분은 아달라의 식도 열공 탈장으로 인해 그녀가 대학살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 아침 그레놀라에 질식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종 여호세바를 제자리에 두셨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잘못된 추론을 할 수도 있다. 여호와를 위한 여러분의 봉사가 여호세바의 봉사처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나는 그녀가 직면한 것과 같은 극적인 상황에 처한 적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정말인가? 여러분이 기독교인 부모라면 여러분은 집안의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거기서 여러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섬겨야 한다. 선지자로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힘써 중보 기도를 하고, 왕으로서 여러분은 적절한 징계와 보호로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것은 바로 나의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세바라는 이름이 정확히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흥미롭지 않은가? 왕의 딸이요 제사장의 아내인 그녀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에 대해 다시는 듣지 못한다. 여러분 자신은 우연히 이 장을 읽기 전까지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당대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카르카르 전투(주전 853)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살만예셀 3 세는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이었다. 존 브라이트는 그의 책 **이스라엘의 역사**(*History of Israel*)에서 여호세바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색인에 그녀를 나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분이 권력자나 유명 인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세바에 집착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여호세바 머그컵, 여호세바 스위트 셔츠, (찰스와 다이애나 장르를 따른) 여호야다-여호세바 커피 테이블 책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그녀를 기독교 TV 방송국에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때때로 성경은 여러분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왕하 11:2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낮잠을 자고 계시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분은 바로 그 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종을 적절한 장소에 두셨다.” 여러분의 유일한 반응은 일어서서 이렇게 송영을 부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분으로부터 용감한 여인들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iii. 여호와 왕국에 있는 체제 전복을 위한 존재 (왕하 11:3 The Subversive Presence of Yahweh's Kingdom)

“(왕하 11:3)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두 왕국에 주목하라. 여러분은 불법적인 왕국의 가시적 통치를 가지고 있으며(왕하 11:3b), 진정한 왕의 은밀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왕하 11:3a). 찬탈자가 통치하지만, 선택된 왕은 말하자면 비밀리에 아달라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통치한다. 진정한 왕은 무대 뒤에 있고 사칭(詐稱)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 사이에는 종종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비 케네디의 아내인 에델 케네디에 대해 한 이웃 사람이 말한 것이다. 그녀는 사진가들이 하이애니스 포트(Hyannis Port)의 집에서 올해의 어머니상을 받기 위해 에델의 사진을 찍고 있던 날, 에델의 세 아이가 지붕에서 굴뚝에 올라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이웃 사람은 그들이 왜 지붕 위의 실패에는 카메라를 돌리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⁵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래에서 올해의 어머니를 보고, 하늘 위쪽에서 아이들이 굴뚝을 가지고 카우보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열왕기하 11 장에 나오는 모습이다. 여기 유다를 다스리는 아달라가 있다. 그러나 그녀는 성전 방에 숨어 있는 남자 아이가 참을성 있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전복성은 성경에서 거의 부수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나는 항상 빌립보서 4 장 22 절에 흥미를 느껴왔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모든 성도,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인사를 전한다고 말한다. 여기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란 가이사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제국 봉사에 고용된 사람들, 즉 황실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황실내 우편물을 나르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 중 몇몇은 그리스도께 나왔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집안에 속해 있다. 어떤 의미에서 가이사가 그들의 주인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른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신민(일부)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직을 수행하시며 가이사의 코 아래 자신의 왕국을 세우셨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는 경건한 은밀함이 있다. 여러분은 복음이 어디에서 터질지, 누가 그 다음 “희생자”가 될지 결코 알 수 없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 가족 중 일부가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노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다. 당연히

⁵ Ronald Kessler, *The Sins of the Father* (New York: Warner Books, 1996), 330.

그들은 겁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은 요아스의 은밀한 통치가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닻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다스리는 요아스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곧 다윗의 후손이요 요아스의 후손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통치자들과 여러분 주위의 이교도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이 엡 1:20-22 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장에 철분을 놓으며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다른 힘에 저항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비밀리에 통치하는 합법적인 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칭하는 가짜 왕들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을 절망에서 지켜준다.

II. 언약 회복의 값비싼 대가 (왕하 11:17-20 The High Price of Covenant Restorat)

나는 곧 왕하 11:17-18 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아스가 일곱 살이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왕하 11:4a)"과 은밀한 모임을 가졌다.⁶ 그는 그들에게 충성과 비밀 유지를 맹세하게 하고 왕의 아들을 보여주었다(왕하 11:4b). 여호야다가 왕하 11:5-8 에서 말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번역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왕하 11:5-6 은 특히 어렵다. 나는 본문상의 어려움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논의하는 데 여러 페이지를 할애하는 것보다 이 구절들에 대한 가장 그럴 듯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NJPS 는 다음과 같이 납득할 만한 좋은 번역을 제공한다.

(NJPS 왕하 11:5-7) (5) 그가 그들에게 지시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한 주 동안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삼분의 일은 왕궁을 지키고, (6) 다른 삼분의 일은 수르 문에 (주둔해) 있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호위병 뒤에 있는 문에 있으라. 너희는 사방에서 집(왕궁)을 지키라.⁷ (7) 이번 주에 비번인 너희들의 두 부대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주님의 집(성전)을 지키라."

이에 비추어 코건과 태드모어는 명확한 재구성을 제공한다.

왕실 호위대는 3 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대는 1 주씩 근무한다. ... 여호야다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호위병을 소집했다. 근무 중인 호위병들은 ...

⁶ 소아시아 남서부 출신으로 추정되는 가리 사람들은 왕실 경호원으로 봉사하는 외국 용병이었다.

⁷ 왕하 11:6 의 마지막 단어 מִן־הַבַּיִת [마싸흐]의 의미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DCH(*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5:361-62 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세분화되어 세 곳에 배치되었다. 삼분의 일은 왕궁에, 삼분의 일은 수르 문에, 삼분의 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배치되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 즉 전체 호위병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모든 비번 호위병들은 왕을 지키기 위해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았다.⁸

모든 호위병이 성전에 모여 여호야다로부터 무기, 곧 창과 화살통(혹은 방패)을 받았고(왕하 11:10), 성전과 왕에 배치된 호위병들은 왕을 감싸며 호위했다(왕하 11:11). 우리가 곧 불 대관식의 준비가 다 된 것 같다(왕하 11:12).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그 위에 씌우고” 그에게 “언약[책]”도 준다(왕하 11:12). 여기서 “왕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제르]인데, 성별된 사람을 뜻하는 나실인(민수기 6 장 참조)이라는 용어와 같은 어근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성별의 개념은 아마도 여기 “왕관[네제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관련하여 사용된다(출 29:6; 39:30; 레 8:9). 사실, 그것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전면(이마에 착용된 부분)에 청색끈으로 달아놓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패로 대제사장을 성별된 사람으로 지정하는 표시였다. 여기에서처럼 [네제르]는 왕관에도 사용된다(예를 들어, 삼하 1:10; 시 89:39; 132:18 을 참조하라). 그렇다면 그 단어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의 징표라는 의미에서 ‘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⁹ 그것은 왕이 자신의 직분과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었다는 징표였다.

요아스는 또한 “언약[책]”도 받는다.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두트] (“증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 곧 언약을 가리킨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출 38:21)”이라 부르고 언약궤를 “증거의 궤(예: 출 25:22; 26:33)”라고 부른다. 이는 모세가 증거(판), 곧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기 때문이다(출 25:21).¹⁰ 그렇다면 여기서 “[에두트] 증거”는 하나님의

⁸ M. Cogan and H. Tadmor, //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127.

⁹ 이 문제에 대해서는 T. E. McComiskey, TWOT, 2:567-68 을 참고하라. 인용문은 568 쪽에 실려 있다.

¹⁰ [역자 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궤”라는 용어는 한글 성경(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우리말성경, 쉬운성경) 레위기 16 장 2 절에 단 한 번 나온다. 그러나 레 16:2 에 “법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아론](הַאֲרוֹן)은 직역하면 “그 궤”이지 “법궤”가 아니다. “법궤”라는 용어 사용은 십계명을 율법 혹은 법령으로만 보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다. 모세오경에 “법의 궤”로 명명된 적이 없고 “증거의 궤” 혹은 “언약의 궤”라는 의미의 “증거궤” 혹은 “언약궤”가 쓰인 것은 십계명이 법령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으로 본 것을 잘 보여준다. 삼상 4-6 장에도 “법궤”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며 “여호와의 언약궤(삼상 4:3, 4[2x], 5, 6)” 혹은 “하나님의 궤(삼상 4:11, 17, 18, 21; 5:1; 6:10[2x])” 혹은 “여호와의 궤(삼상 5:3, 4, 6:1, 2, 8, 11, 15, 18, 19, 21)”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삼상 5:7, 8[2x]; 6:3 cf. 개역개정: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이름이

언약 율법을 가리킨다. 대관식에서 요아스는 이 증거의 사본(곧 언약책, 율법책)을 받았다. 이 조치는 “신 17:18, 19, 20 에 근거한” 것이었고 “율법이 왕의 개인적인 삶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왕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¹¹ 여기 하나님께 성별되어 그분의 언약의 율법에 따라 살고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왕이 있다.

아달라는 환호성을 듣고 성전으로 돌진한다. 그 광경에는 온통 관상 동맥 혈전증이 적혀 있었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었다(왕하 11:14a).” 대관식을 본 아달라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외쳤다(왕하 11:14b). 우리는 찬탈자가 정색을 하고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성전 밖으로 끌려나와 왕궁으로 가는 길에서 죽임을 당한다(왕하 11:15-16).

이 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열왕기하 11 장의 구조에 대한 개요를 보면, 열왕기하 11 장의 두 주요 부분(4-12 절의 비밀 계획 부분과 13-19 절의 공개 행사 부분)이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의 “언약 + 파괴” 단락(17-18 절)은 독자적인 것으로 첫 번째 부분(4-12 절)에는 상응하는 요소가 없다. (독단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17-18 절의 특별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첫째로, 언약이 있다(왕하 11:17).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나온다. 레 16:2 의 הַבְּרִית[하아론]은 “그 궤”로 번역하여야 하고, 십계명을 넣어 둔 궤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법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증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אֲדָוָה[에두트]는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의 내용을 가리키는 아카드어 adē[아데](adū[아두]의 복수)와 관련이 있고 보통 “언약”으로 번역되는 בְּרִית [브리트]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언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Klin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18 n. 11). 이것은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을 지칭할 때 “בְּרִית[브리트] 언약”보다 “אֲדָוָה[에두트] 증거”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 데서 확인된다. “증거”만 나온 경우 개역개정에서 “증거판”(출 25:21)과 “증거궤”(출 30:6)처럼 폰트 크기를 달리하여 “증거판”과 “증거궤”로 문맥상 구별해 준 것은 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돌판과 궤 혹은 성막에 관련하여 언약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증거” 대신 “법” 혹은 “법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일일이 각주를 단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증거의 궤” 곧 “증거궤”라는 용어는 10 번(25:22; 26:33, 34; 27:21; 30:6, 26; 31:7; 39:35; 40:3, 5) 나온다. “증거”가 증거궤를 가리키는 경우는 2 번(30:6, 36)이고 “그 궤”가 증거궤를 가리키는 경우는 2 번(35:12; 40:21)이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증거”나 “그 궤”도 모두 “증거궤”라고 번역하고 있다.

¹¹ Carl Schultz, TWOT, 2:649-50 의 유용한 토론을 참고하라. 인용문은 650 쪽에 실려 있다. 그리고 R.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and 2 King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218 도 참고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 폴 하우스(Paul House)가 지적했듯이, 본문은 “언약”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전의 언약 모델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¹² 이것은 언약의 갱신이었고, 백성들은 출 19:1-8 과 24:1-8 의 약속을 다시 맹세했다.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나라에 대한 왕의 의무를 규정하고 현대 헌법의 기능을 수행했다(삼하 3:21; 5:3; 역대하 23:3).”¹³ 요아스 왕과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은 열왕기상 12 장에서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과 맺으려고 했던 언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의 오만한 어리석음으로 그런 언약을 맺지 못했었다.

둘째로, 파괴가 있다(왕하 11:18).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갔다.” 그렇게 유다에 바알을 위한 성전이 있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은 아달랴의 유산의 일부였다. “그들은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열왕기하 11 장에서 17 절과 18 절 사이의 순서는 중요하다. 언약은 파괴로 이끈다. 여호와에 대한 충성이 있다면(17 절) 그 충성을 약화시키고 미혹하는 모든 시도는 쳐부수어야 한다(18 절). 진리가 지배할 때 거짓은 제거되어야 한다.

1944 년 9 월 조지 필립 로버츠 소장의 영국 제 11 기갑 사단은 (다른 군대와 벨기에 지하 조직의 도움으로) 전광석화처럼 기습하여 독일군을 소탕하고 안트워프의 거대한 1,000 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항구 지역을 온전하게 점령했다. 창고, 다리, 부두, 장비는 파괴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 번의 눈부신 승리였다. 그러나 아무도 로버츠에게 한 번 더 출동해서 안트워프에서 북쪽으로 18 마일 떨어진 곳을 공격하여 네덜란드 사우스 베벨랜드 반도의 동쪽 끝에 있는 2 마일 너비의 목을 장악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오는 독일군은 더 멀리 동쪽에 있는 독일군과 합류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로버츠의 군대가 그곳에서 명령을 받았다면 그들은 거대한 코르크 역할을 하여 독일 제 15 군이 동쪽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고 연합군의 소탕 작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 15 군이 동쪽으로 합류하여 독일군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연합군의 마켓-가든 공세를 분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또한 “병과 걸레”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독일군이 여전히 안트워프 항구의 접근로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합군은 항구를 장악했지만 독일군이 접근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안트워프는 연합군의 보급 기지로서 전혀 쓸모가 없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¹² 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299.

¹³ Ze'ev W. Falk, *Hebrew Law in Biblical Times*, 2nd ed. (Provo, UT and Winona Lake, IN: Brigham Young and Eisenbrauns, 2001), 31-32 을 보라. 인용문은 32 쪽에 실려 있다.

이것을 “중대한 착오”이자 “큰 실수”라고 불렀다.¹⁴

그것이 18 절의 파괴 없이 17 절의 언약만 있다면 우리가 갖게 될 것이었다.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확고한 언약의 승리를 가질 수 없다.¹⁵ 어떤 사람들은 18 절이 너무 “불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쾌함”이었다(신명기 13 장 참조). 언약과 파괴는 언제나 성경적인 방식이다. 이스라엘 시대에 여호와께 대한 충성은 거룩한 파괴를 의미했다(신 7:1-6). 예수님께서서는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눅 14:25-33), 맹목적인 도덕주의자들(막 10:17-22), 그리고 해이한 교회들(계 2:14-16)에게도 같은 종류의 요구를 하신다.

III. 하나님의 능력의 조용한 방식 (The Silent Manner of God's Power)

열왕기하 11 장을 떠나기 전에 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내러티브의 **문체**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한다. 나는 이 에피소드가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아달랴의 난동으로 거의 죽어 문힐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호와의 왕국 계획 위에 “끝”이라고 쓰는 데 거의 성공할 뻔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왕과 그분의 왕국을 지키시느라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다! 내가 열왕기하 11 장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자 자신도 그렇다고 수긍할 것이다.¹⁶

그러나 저자는 어떻게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가? 그는 여호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이나 지시를 기록했는가? 전체 내러티브가 아주 서술적인 점에 주목하라.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거나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이 없다. 여호와가 언급된 것은 틀림없지만 모두 “3 인칭”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¹⁴ Cornelius Ryan, *A Bridge Too F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59-61.

¹⁵ 왕하 11:20 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것은 그들이 아달랴를 처형했기 때문에 온 성이 조용했다(“평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¹⁶ 참조, Terence E.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John Knox, 1999), 180: “신실하고 단호하며 지혜로운 두 명의 여호와주의자, 곧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이 시대를 구한다. 그들 때문에 다윗의 약속에는 미래가 있다. 그들은 요아스를 숨기고 그를 가르침으로써 이 문제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거나 그들을 통해 행하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왕하 25:27-30 과 다르지 않음).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의존하기로 선택하신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다윗 왕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약속의 미래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성전)"이라는 문구에서 9 번, 저자가 여호와를 언급하는 곳에서 2 번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간접적**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는 한 마디도 끼어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어떤 명시적인 활동에 대한 언급도 없다. 우리는 전에 이것을 본 적이 있다. 여기에 여호와의 숨겨진 우회적 사역의 또 다른 예가 있다.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시더 산 전투(1862 년 8 월) 동안 휴전이 성립되어 북군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처리할 수 있었다. 남군 포병대의 한 대원은 이 소강 상태에서 스톤월 잭슨 장군을 처음 보았다. 그는 일기에 잭슨 장군을 위대한 계곡의 영웅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으며 장군이 어깨가 둥글고 색이 바랜 제복을 입고 걸을 때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그를 지나칠 수 있었고 그에게 최소한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군의 자부심이자 북군의 공포였다.¹⁷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 이렇게 경건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은 여러분의 주의를 끌지 않고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은 기대되는 하나님의 계략들을 찾아보지만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열왕기하 11 장은 성경과 역사와 경험에서 우리 하나님의 상쾌한 미묘함과 강력한 침묵을 즐기라는 또 다른 성경적 초대이다.

물론 여러분은 열왕기하 11 장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고, 야기 요아스와 그를 구해준 용감한 이모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 2 장보다 훨씬 오래 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을 보려고 노력하라. 아달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더라면 천사나 목자나 강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구한 여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언약의 양보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이 결혼이 그토록 위험한 결혼인 이유는 무엇인가?
3. 오늘날 신자들은 박해가 올 때 놀라야 하는가?
4. 하나님께서 종종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¹⁷ See James I. Robertson, Jr., *Stonewall Jackson: The Man, the Soldier, the Legend* (New York: Macmillan, 1997), 538.

5. 언약의 충성이 자주 파괴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다른 “긴박한 상황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7. 수리와 보상 (왕하 12 장 Repairs and Payoffs)

이른 아침에 아주 잠깐이지만 종종 배은망덕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양치질하고, 면도를 하는 아침 일과 중에 말이다. 그 모든 것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날 아침에 했던 똑같은 일을 매일 아침 왜 해야 하는지 자문한다. 그것들은 끝없이 반복되지만 전 과정이 무의미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체는 양치질이나 샤워를 하지 못한다는 대안을 생각해 보라. 갑자기 지루하던 것이 약간의 빛을 발한다. 이렇게 열왕기하 12 장은 시작된다.

I. 왕국의 지속, 은혜로운 선물 (왕하 12:1-3 Kingdom continuity, a gracious gift)

열왕기하 12 장 1-3 절은 일반적인 왕의 등극 공식을 따르고 있다. “예후의 제칠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통치하니라(왕하 12:1).”¹ 그리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왕하 12:2).”라는 전반적인 평가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왕하 12:3).”라는 단서 조항이 나온다.² 그러나 일상적인 공식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¹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는 히브리어 본문 왕하 11:2; **12:19, 20**; 13:1, 10 에서 요아스(יֹאָשָׁאֵל Joash)로 표기되고 왕하 11:21; **12:1, 2, 4, 6, 7, 18** 에서 여호아스(יְהוֹאָשָׁאֵל Jehoash)로 표기되어 있다. 히브리어 본문의 열왕기하 12 장만 보면 대부분의 절(1, 2, 4, 6, 7, 18 절)에서 “여호아스”로 표기되고 두 절(19, 20 절)에서 “요아스”로 표기되어 있다. 데이비스는 12 장에서 일관성을 위해 “여호아스” 대신 “요아스”를 사용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표기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모두 “요아스”라고 번역하고 있다. NIV 도 구별 없이 모두 Joash 라고 번역하지만, NASB/ESV 는 히브리어 표기대로 Joash 와 Jehoash 라고 구별하여 번역하고 있다.

² 왕하 12:2 의 구문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다. 이것은 2 절 하반절의 관계사 [아세르]가 이끄는 절이 2 절 상반절의 무엇을 수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 절 하반절의 [아세르]가 이끄는 절이 2 절 상반절의 “모든 날”을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보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통치 모든 기간에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병행 본문 대하 24:2 의 의미이다. 왕하 12:2 에서 모든 것은 [아세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달려 있다. NRSV 와 같은 일부 성경들은 [아세르]를 “because, — 때문에”라고 번역한다. [아세르]가 종종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왕하 12:2 은 요아스의 통치의 의로운 어조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요약이 된다. 즉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그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세르]가 가장 가까운 선행사 “그의 모든 날”을 수식하므로 관계부사 “when” 혹은 전치사 + 관계대명사 “in which”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의미가 된다(NASB 를 보라). 이 번역은 본질적으로 대하 24:2 과 유사하다. 열왕기 저자는 분명히 요아스의 재임 기간 후반에 모든 것이 잘 되어 간 것이 아님(왕하 12:17-18, 20-21a)을 알고 있지만, 역대기처럼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열왕기하 11 장에 비추어 보면 왕국의 승리이다. 왜냐하면 다윗 계보의 왕권이 다시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하 12 장의 내용과 대조들을 살펴보기 위해 그것의 전체 구조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열왕기하 12 장의 구조

다윗 왕조의 안정, 왕하 12:1-3

성전 보수, 왕하 12:4-16

고갈되는 성전, 왕하 12:17-18

다윗 왕조에 대한 위협, 왕하 12:19-21

암살자들이 요아스를 죽일 때(왕하 12:20-21a) 다윗의 계보는 “아달라”의 강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공격을 받는다. 다윗 왕조의 현재의 왕은 암살되었지만 그 계보는 그대로 유지되며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를 한다. 그러나 왕조의 주된 분위기는 왕하 12:1-3 의 “지루한” 후렴구에 들어 있다. 홉스의 말이 맞다. “왕조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토대 위에 놓이게 된다.”³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어야 한다! 사실, 왕하 12:1-3 은 저자가 새로운 왕의 등극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관습적인 세부 사항을 전하는 문예적인 반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왕하 12:1-3 은 왕하 11:1 의 재앙과 재난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연속성을 지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꾸준한 신실하심이다. 아달라 이후의 시대에 “누구가 어느 해에 왕이 되어 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거의 환상적이다. 그 “따분한” 공식에 얼마나 큰 선물이 감추어져 있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국 대령 존 프로스트의 2 대대는 독일군의 포격을 받고 있었다. 프로스트 부대는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마켓 가든(Market Garden)” 공세 중 네덜란드의 아르헨(Arnhem) 다리를 방어하고 있었다. 탄약은 거의 바닥났고 사상자는 많았으며, 프로스트의 부하들은 쉬지 않고 50 시간 동안 싸웠다. 이 기간 동안 대대 군목 중 한 명인 이건(Egan) 신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프로스트 대령을 만났다. 수염으로 뒤덮인 대령의 지저분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신부님,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고, 벽에 구멍이 났으며, 지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슬(chain)이 있고 잘 작동합니다.”⁴ 파괴와 소란, 황폐와 죽음 속에서도, 변기는 여전히 작동한다는 한 가지

³ 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159.

⁴ Cornelius Ryan, *A Bridge Too F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435-36.

반가운 일관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이 왕하 12:1-3 의 간증이다. 아달랴의 손에서 다윗의 후손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녀의 왕좌에 폭정이 군림하던 정권의 정점(왕하 11 장)에서 벗어나 여전히 다윗 왕조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일곱 살 된 다윗의 후손이 있었다(왕하 11:21). 수치만 나열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 영광스럽고, 지루해 보이는 것이 신나게 한다. 마치 저자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성도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중 많은 것이 평범한 갈색 종이 포장지에 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위한 선물이다. 세속적인 자비일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자비이고, 평범한 공급일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공급이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딤후 2:2)” 수 있는 사회 질서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할지라도 다름 아닌 혜택이다. 실제로 사소한 섭리는 없다.

II. 왕국의 번영, 실망스러운 기록 (왕하 12:4-16, 17-18 Kingdom prosperity, a disappointing record)

앞에서 제시된 구조적 개요는 열왕기하 12 장의 대부분이 대조적이지만 길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두 부분, 곧 (1) 성전을 보수하는 것(4-16 절), (2) 성전을 고갈시키는 것(17-18 절)으로 나뉘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부분(왕하 12:4-16)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싶다.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모든 점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도 이 작업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왕하 12:4-16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추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에 대한 지도를 놓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다.

왕의 계획, 4-5 절

제사장들의 불이행, 6 절

왕의 수정된 계획, 7 절

제사장들의 묵인, 8 절

새 건축 기금, 9-16 절

수집, 9-10 절

분배, 11-12 절

설명, 13-16 절

우리는 요아스가 그의 통치 몇 년도에 성전 보수를 지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제사장들에게 내린 명령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와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와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받으라(왕하 12:4).

왕은 성전에 구별하여 드리는 은의 세 가지 범주, 곧 (1) 군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이 몸값으로 반 세겔씩 드리는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은(출 30:11-16), (2) 성전 봉사를 서원했지만 봉사의 가치를 현금으로 바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은(레 27:1-8 참조), (3) 자원하여 헌물로 드리는 은을 명시한다.⁵ 제사장들은 이 기금을 징수자나 보조자(일부 성경이 번역하는 바 "acquaintance, 아는 자"는 아닌 것 같음)로부터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수입으로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왕하 12:5).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요아스가 언제 처음으로 성전 수리를 명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통치 제 23 년(즉, 그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왕하 12:6). 왕은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왜 성전 수리에 능장을 부렸는지 물었다(왕하 12:7a). 왕은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적어도 요아스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사장들을 우회하는 플랜 B 를 명령한다(왕하 12:7b). 제사장들은 굴복한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은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고 성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한다(왕하 12:8). 왕과 제사장들이 주고받은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글로 된 저자의 요약은 이 회의의 따뜻한 분위기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제사장들을 부정직하다고 비난해야 하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그들이 부정직했다면 제사장들(9 절)과 대제사장(10 절)은 수리 기금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은이 제사장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단지 "그것(성전 수리)에까지 손이 결코 미치지 못했다" 가능성이 높다. 제사장들은 약삭빠르기보다는 느릿느릿했던 것 같다.⁶

⁵ 이 세 가지 분류는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366-67 을 따른 것이다. 레위기 27 장에 대해서는 Chris Wright, "Leviticus," *New Bible Commentary*, 4th ed. (Leicester: Inter-Varsity, 1994), 156-57 에 나오는 유익한 요약을 참고하라.

⁶ 논의를 위해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135-36 을 참고하라.

그들은 "성전 수리 프로젝트"라고 적힌 상자를 설치했다(왕하 12:9).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봉헌자가 성전을 위한 제물과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을 구분하게 하고, 그가 의도한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성전을 위한 제물이 즉시 그 상자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⁷ 상자가 가득 차기 시작할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이 기금 취급을 감독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자루에 넣어 혹은 그것을 녹여[어떤 동사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름]" 그것을 계산했다(왕하 12:10). 그 달아본 은은 건축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목수, 석공, 미장이에게 넘겨주었고, 이 기금으로 재료와 나무와 돌도 구입했다(왕하 12:11-12). 이 기금 중 어느 것도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았고, 모두 외부 수리에만 사용되었다(왕하 12:13-14). 그리고 감독관들이 완전히 정직했기 때문에 복잡한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았다(왕하 12:15). 그리고 누군가가 제사장들을 동정하며 가두 행진을 벌이려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저자는 그들이 관습적인 수입을 유지했다고 우리를 확신시킨다(왕하 12:16). 물론, 성전 복원은 왕의 경건함에 대한 찬사이다.

"그 때에"라는 단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왕하 12:17a).⁸ 성전의 수리를 묘사한 열세 구절 (왕하 12:4-16) 다음에, 두 구절(왕하 12:17-18)은 성전이 비워지는 것을 보고한다. 아람 왕 하사엘은 가드를 쳐서 점령한 후 예루살렘을 위협한다. 이에 요아스는 전쟁보다 뇌물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와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⁹

⁷ Bähr, 135.

⁸ 로버트 콘(Robert Cohn,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2000], 83)은 문학적 관점에서 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잘 포착한다. "가장 느슨한 전환 하나("그 때에")만 가지고, 저자는 여호아스의 주요 업적에서 아람 왕 하사엘이 다시 나타났을 때의 최악의 재앙으로 전환한다. 예후의 통치에 대한 기록의 맨 끝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되었던 하사엘은 이제 예루살렘을 위협한다. 북쪽에서 아합과 바알주의자들이 제거된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경이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다. 아달라가 전복되고 다윗 왕조가 재건된 후, 저자는 시야를 넓혀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것을 보고한다. 두 경우 모두 하사엘의 침입에 대한 정보는 평정이 회복될 때까지 유보된다. 그 효과는 새로 달성한 평온을 뒤엎고 유다의 미래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사엘의 피비린내 나는 미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왕하 8:12)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

⁹ 참고로 왕상 12:17-18 과 대하 24:23-25 은 동일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경우 모두 아람 사람들이 공격하지만, 역대하 24 장의 경우 전투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그들은 그를 버리고 간다. 이것은 곧 이어지는 요아스의 암살의 서곡이다. 열왕기하 12 장의 경우 하사엘이 아람 군대를 이끈다.

저자는 요아스의 현명한 조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실망스러운 의지를 한탄하고 있다. 르호보암(왕상 14:25-26)이나 아사(왕상 15:18-19)나 요아스(여기 왕하 12:18)나 아하스(왕하 16:8-9)나 히스기야(왕하 18:13-16)가 통치할 때 정치적 또는 군사적 안전을 위해 성전 보물을 넘긴 것은 결코 긍정적인 점수를 얻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할 일의 예고편에 불과하다(왕하 24:13; 25:13-17). 이러한 모든 성전 파괴에 비추어 버크 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아스가 성전 공간에서 모든 것을 가져갈 정도로 압박을 받은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엄격한 재정 회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금전적 가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보물의 여러 가지 출처가 언급된 각각의 설명은 그것이 거의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부는 왕이 경건해서 그의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전통적인 징표였다. 요아스가 성전을 정기적으로 수리하도록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에는 심각한 물음표가 걸려 있다.¹⁰

열왕기하와 역대하는 요아스 통치의 말년을 다루는 방식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역대하 24 장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의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다산을 위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친아들 스가랴가 감히 그의 새로운 접근에 반대하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할 정도로 배은망덕했다. 열왕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 열왕기의 저자가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는 요아스의 암살을 보고한다(왕하 12:20-21)—그는 요아스의 통치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요아스의 노골적인 변절과 사악한 불의를 묘사하지 않는다. 역대기는 요아스의 **사악함**을 강조한다. 열왕기는 요아스의 **기대에 어긋남(실망)**을 강조한다. 두 개의 절(왕하 12:17-18)은 모든 것을 뒤집는다.

토니 호르비츠는 앨버타 마틴을 보기 위해 플로리다 팬핸들 옆에 있는 엘라배마 지역으로 차를 몰고 내려갔다. 마틴 부인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부군 과부였다. 그녀가 (1990년대 후반에) 아직 살아 있는 이유는 그녀가 20대였을 때 85세의 남부군 참전용사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러나 역대하 24장에서 그는 언급되지 않는다.) 하사엘은 주전 801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요아스는 주전 796년경까지 살았다. 여기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하사엘의 위협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아람인들의 공격보다 몇 년은 앞선 것이 틀림없다.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364-65을 참고하라.

¹⁰ Burke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160.

죽은 후, 그녀는 그의 손자와 결혼했다!) 호르비츠가 마틴 부인을 방문한 지 몇 달 후 그는 *USA Today*에 실린 그녀의 사진과 기사를 발견했다. 그런 다음 남부군 참전 용사의 아들들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리치먼드로 데려갔다. 그녀는 “남부군의 살아있는 연결 고리”라고 불렸다. 남부군의 딸들은 잡지에 마틴 부인의 프로필을 실었고 남편 윌리엄 재스퍼 마틴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출처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리치먼드 근처에서 유혈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고 끝까지 싸웠고 애포메톡스(Appomattox)에서 리(Lee)와 함께 항복했다고 했다. 그러나 호르비츠는 국립 문서 보관소에 가서 윌리엄 마틴이 1864년 5월에 징집되어 리치먼드로 파견되었고 홍역에 걸려 2개월 휴가를 받았고 무단 이탈한 후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윌리엄의 이름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의 중대의 소집 명단에 “탈영병”이라는 단어 옆에 나타났다.¹¹ 아무튼 그것은 팡파르와 연설과 기사에서 모든 펀치를 제거한다. 살아 있는 최고령의 남부군의 과부—한 탈영병의 과부. 실망이 큼하고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실패로 인해 좌절된 것처럼 보인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1장 1-3절에 나오는 다윗 계통의 놀랍고 대담한 보존이라는 감동적인 메모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왕하 12:4-16). 그리고 그것은 실망스러운 사건(왕하 12:17-18)과 암살(왕하 12:20-21)로 끝난다. 요아스의 통치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노랑게 번쩍이는 경고의 불빛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정통 신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의 타락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실패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다윗의 자손(예수님)을 향해서만 눈을 들게 해야 한다. 모든 인간 리더십에는 내재된 결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노와 이를 가는 것에서 여러분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와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충만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더 갈망하고 즐기게 해야 한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의 삶에서 “평범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는가?
2.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종종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3.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요아스의 타협이 그렇게 심각한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
5. 요아스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가?

¹¹ Tony Horwitz, *Confederates in the Attic* (New York: Vintage Books, 1998), 336-51.

18. 은혜와 심각한 해설 (왕하 13 장 Grace and Grave Notes)

에릭 클라크는 광고 산업에 관한 그의 책에서, 라디오 시티 뮤직 홀에서 촬영된 다이어트 콜라 광고에 150 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말한다. 청량 음료 광고에 말이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그러한 광고를 볼 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우리가 때때로 열왕기를 읽는 방식이기도 하다. 열왕기하 13 장 1 절은 흥미진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이십삼 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칠 년간 다스렸다.” 그것은 또 하나의 무미건조한 공식처럼 보이며 다이어트 콜라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짜릿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한 문예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도입절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열왕기하 10 장 30 절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예후에게 아합 왕조에 대한 여호와의 멸절 프로그램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예후 자신이 4 대에 걸친 왕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기에 첫 번째 성취가 언급되어 있다. 곧 여호아하스가 예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무미건조한 공식이지만 견고한 신실함을 보여준다. 배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시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바느질이다.¹

열왕기하 13 장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아스의 통치,² 곧 대략 주전 814 년부터 781 년까지의³ 기간을 다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기의 앗수르와 시리아(아람)의 역사와 잘 들어맞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아람이 앗수르를 상대해야 할 일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 앗수르가 다른 곳에 몰두할 때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앗수르가 시리아(아람)를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은 안도감을 누렸다. 나의 초점은 열왕기하 13 장의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¹ 그러나 우리는 왕하 13:3b 도 역시 왕하 8:12 에 나오는 자신의 말씀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² 히브리어 본문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왕하 11:2; 12:19, 20; 13:1, 10; 14:1, 3)가 여호아스(왕하 11:21; 12:1, 2, 4, 6, 7, 18; 14:13)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왕하 13:9, 12, 13, 14, 25; 14:1, 17)도 여호아스(왕하 13:10, 25; 14:8, 9, 11, 13, 15, 16, 17)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는 이 북왕국의 왕을 언급할 때 항상 여호아스만 사용할 것이다.

³ 독자는 열왕기하 13 장의 1 절과 10 절을 비교할 때 연대기적 수수께끼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여호아스와 2 년을 공동 섭정했다고 가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책에서 나는 나 자신이나 당신을 연대기적 어려움에 파묻고 싶지 않다. 다시 한번 레슬리 맥폴의 중요한 논문, “Has the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s been finally settled?,” *Themelios* 17/1 (Oct/Nov 1991): 6-11 을 주의 깊게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것은 다른 책들을⁴ 참고하기 바란다.

강해에 앞서 우리는 열왕기하 13 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열왕기하 13장의 전개

여호아하스, 왕하 13:1-9

공식, 1-2절

신학, 3-7절

공식, 8-9절

여호아스, 왕하 13:10-25

역사적 요약, 10-13절

결정적인 순간, 14-19절

부활의 본보기, 20-21절

언약 신학, 22-23절

무오한 말씀, 24-25절

I.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연민 (왕하 13:1-9 The pity that should change us)

여호아하스의 등극 공식(왕하 13:1-2)과 사망 공식(왕하 13:8-9) 공식에서 우리는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의 신봉자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왕하 13:2).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의 신봉은 “그가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왕하 13:2b).”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확고한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왕하 13:3-7 절에 나온다. 이 부분은 등극 공식과 사망 공식 사이에 나오는 신학적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고 있다.⁵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⁴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253-57, 그리고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151-52 에서 간결하고 명쾌한 요약을 찾을 수 있다.

⁵ 왕하 13:3-7 절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와 아람의 채찍, 3절

탄원, 4절

구원/구출, 5절

배은망덕, 6절

아람의 채찍, 7절

진노하시어 계속해서 그들을 하사엘과 벤하닷의 손에 넘기신 것에 놀라지 않는다(왕하 13:3). 그러나 우리는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왕하 13:4a).”는 사실에 놀란다. 당연히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추종자에게 잠 28:9의 미사일을⁶ 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는 더 놀라게 하는 놀라움을 만난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4b 절).” 그분이 금송아지 숭배자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이스라엘이 받는 학대(명사 [라하츠])를 보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람 왕이 어떻게 그들을 학대하는지(동사 [라하츠])를 보셨다(왕하 13:4c).” 왕하 13:4에 나오는 같은 명사와 동사(어근 [라하츠])가 출애굽기 3:9의 “애굽인들이 그들을 계속 학대하는(동사 [로하침]) 학대(명사 [라하츠])를 내가 보았다.”는 말씀에도 나온다. 열왕기의 저자는 여호와가 여전히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인들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셨듯이 아람인들이 자기 백성, 곧 배교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짜내는 것을 보고 계셨다. 저자는 자기의 백성의 고통에 대한 여호와의 연민이 구원을 위해 그분을 찾는 백성의 사악함을 때때로 능가하기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아하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분은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왕하 13:5).” 이스라엘은 구원과 새로운 안전의 시간을 누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어떤 사람들(알프레드 호어스, 월터 카이저)은 아람을 무력화함으로써 “구원”할 사람이 앗수르의 아다드-니라리 3세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존 그레이, 폴 하우스, T. R. 홉스)은 엘리사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들(C. F. 카일, 아마도 코건과 태드모어)은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은 왕들인 여호아스와 여로보암 2세가 이 구원 사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⁷ 나는 세 번째 주장에 동의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구원하다”는 어근 [야샤]가 왕하 13:17에 여호아스와 관련하여 나오고(“구원”의 화살), 왕하 14:27에 여로보암 2세와 관련하여 나오기(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정체 확인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셨다는 사실이지, 구원자의 정확한 정체 확인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구원자를 얼마나 필요했는지! 하사엘과 벤하닷 3세가 이스라엘을 멸절한 후 여호아하스에게 조그만 군대(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⁶ [역자 주] 잠 28:9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⁷ Cogan and Tadmor, *II Kings*, 143은 다양한 견해를 간결하게 나열하고 있다. 아다드-니라리 3세가 구원자라는 자세한 논증을 보려면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4:133-37을 참고하라.

만 명)만 남겨두었다(왕하 13:7a). 그들은 이스라엘을 초토화해서 타작 마당의 띠끌 같이 되게 했다(왕하 13:7b).

그러나 우리는 왕하 13:6 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호와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왕하 13:4-5)에 이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왕하 13:6)을 만난다. 하나님의 동정심의 열기가 그들의 불신앙의 완악함을 누그러뜨리지 못하였다. 그들의 감사를 요구하여 얻어내는 “기억의 이월”은 없었다.

한때 인도양의 모리셔스(Mauritius) 섬에 가난한 흑인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오랫동안 저축하여 마침내 자신과 딸을 소유한 남자 주인로부터 자신과 같은 노예였던 딸의 자유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다. 그녀는 딸이 자유의 상징인 신발을 신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기쁨 때문에 자신이 노예로 남아 있는 것도 행복했다. 어떤 노예도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 거래가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딸이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어느 때처럼 다정하게 그녀는 딸 옆에 앉았다. 그러자 딸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앉을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자유인이고 당신은 노예라는 것을 모르세요? 당장 일어나서 방을 나가세요!”⁸

이스라엘도 그랬다. 자비가 그들을 녹이지 못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얼마나 현대적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다. 이스라엘은 변화가 아니라 치유를 갈망했다.

II. 우리를 감동시켜야 할 약속 (왕하 13:10-19 The promise that should stir us)

우리는 곧 왕하 13:10-13 로 돌아오겠지만 먼저 엘리사에 초점을 맞춘 왕하 13:14-19 부터 다룰 것이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왕하 13:14a).”⁹ 여호아스 왕은 병든 선지자를 찾아와 그가 곧 떠나갈 것에 대해 울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왕하 2:12)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왕하 13:14b).”라고 한탄한다. 여호아스가 진지했는지 아니면 짐짓 겸손한 체한 것이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그의 말은 엘리사의 죽음으로

⁸ John Whitecross, *The Shorter Catechism Illustrated from Christian Biography and History* (1828;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8), 102.

⁹ 엘리사가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긍정적 사고 방식을 주창하는 신학자들(name-it-and-claim-it theologians)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어쩌면 그들은 그의 자녀들 중 누구라도 병드는 것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죽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는 건강을 누리기 위해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기술을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될 것이며, 선지자의 임재와 말씀 사역이 국가의 방패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려면 왕하 6:8-23 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엘리사는 왕을 격려하려고 한다. 그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다(왕하 13:15). 이 에피소드 전반에 걸쳐 선지자가 어떻게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그는 명령을 내리고 왕은 순종한다. 이어지는 것은 실연(實演)되는 신탁이다. 엘리사는 여호아스에게 활을 잡으라고 지시하며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는다. 엘리사는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지시한다. 왕은 동쪽 창 밖으로 화살을 쏜다(왕하 13:16-17a). 엘리사는 그 행동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왕하 13:17b).” 그 화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아람에 대한 승리(직역하면 구원)를 의미했다.¹⁰ 이제 여호아스가 그 화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으므로, 엘리사는 그것이 왕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왕이 이 말에 신이 나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선지자는 그에게 화살을 가져다가 “땅을 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창문을 통해 땅을 향해 쏘라는 것이었을 것이다(왕하 13:18a). 여호아스는 세 번 치고 멈춘다(왕하 13:18b).¹¹ 엘리사는 그에게 화를 냈다. 그는 대여섯 번은 쏘았어야 했다. 그는 아람을 제거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왕하 13:19)? 엘리사는 여호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백지 수표를 주었으나, 왕은 “고맙습니다만 그것의 절반만 현금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엘리사는 왕의 미지근한 반응 때문에 약속을 수정했던 것 같다. 왕하 13:17 에서 그는 여호아스에게 그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왕하 13:19 에 의하면 왕이 “믿음 충만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먼저 살펴본 왕하 13:14-19 에서] 이제 다시 왕하 13:10-13 로 돌아와 이 본문의 문학적 구성을 살펴보자. 왕하 13:10-13 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개역개정: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전체 요약은 보여주는 등극 공식(10-11 절)과 사망 공식(12-13 절)으로 이루어져 있다.

¹⁰ 특히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실연되는 신탁(acted oracle)”에 대해서는 Alec Motyer, *Look to the Rock* (Leicester: Inter-Varsity, 1996), 104-105 에 나오는 유용한 설명을 참조하라.

¹¹ James Kirk Mead, *“Elisha Will Kill?”: The Deuteronomistic Rhetoric of Life and Death in the Theology of the Elisha Narrativ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99], 86: “내레이터는 단순한 횡수를 전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세 번 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멈췄다.’라는 절을 덧붙임으로써 내레이터는 치는 일의 횡수만큼이나 치는 일의 중단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상대국 왕의 연대와 더불어 수도 이름과 통치 기간(10 절)과 신학적인 치세 평가(11 절) 그리고 문서 출처(12 절)와 사망과 장례와 승계(13 절)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살았던 왕하 13:14-19 앞에 나온 것은 좀 이상해 보인다. 왕하 13:10-13 에서 여호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피소드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는 그가 장사된 것(13 절)을 읽은 다음에 엘리사와 여호아스 사이의 화살 에피소드(14-19 절)를 읽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케이크를 먹던 방식과 아주 비슷하다. 당연히 당의(糖衣)를 입힌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 그 확실한 사실 때문에 나는 정기적으로 케이크 상단의 당의를 조심스럽게 잘라 따로 두었다. 그런 다음 나는 케이크 부분을 먼저 먹고 그 후에 마지막까지 아껴 두었던 당의를 게걸스럽게 먹곤 했다. 그것이 저자가 여호아스를 대하는 방식이다. 그의 통치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공식들로만 이루어진 네 개의 절로 간단히 처리되었다. 그의 16 년의 통치가 네 절 안에 들어있다.¹² 그러나 저자는 “가장 좋은” 부분, 곧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남겨둔다. 저자는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 중 한 에피소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한다. 그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왕하 13:14-19 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13 장에서 10-13 절과 14-19 절이 어떻게 서로 아귀가 맞는지(앞뒤가 꼭 들어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0-13 절은 여호아스의 전체 통치를 요약하지만, 14-19 절은 그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곧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있던 순간을 포착한다. 따라서 이 순간에 대한 에피소드는 10-13 절에 있는 왕의 전체 “약력”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본문은 가치 판단을 내린다. 그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일생의 모든 업적과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엘리사의 관점(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일한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여호아스의 반응은 분명히 부적절했다. 그는 여호와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17 절)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야 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세 번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했다. 아람을 멸망시키지 말고 봉쇄만 하자.¹³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¹² 미국 역사상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12 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이 12 년은 방대한 책들의 초점이 되는 기간이다. 그것은 결코 4 개의 절로 처리될 수 없다. 아마도 이 비유는 열왕기에서 여호아스의 16 년 통치를 단지 4 개의 절로 처리한 것에 대해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¹³ 우리는 왜 여호아스가 여기서 열렬한 환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모른다. 아마도 여호아스가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그와 앗수르의 위협 사이에 완충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54 을 참고하라.

그를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복음과 복음의 은택이 누군가에게 강요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존 화이트 박사는 경찰이 음란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한 동인도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다. 전화 통화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남자는 “영들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했다. 무슨 영들인가? 그에게 세 영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떤 성인을 만나러 데려간 이후로 줄곧 그에게 있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말을 걸었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들은 여자가 없는 밤에 그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화이트 박사는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이 흐려졌고, 그는 테이블에서 물러났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화이트는 영들이 결국 그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마침내 그 남자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영들을 빼앗아 가시면 안 됩니다.” 환자가 떠날 때 화이트는 곧 그를 따라가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이트는 그가 자기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라고 말했다.¹⁴ 그는 자유와 위로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를 충분히 감동시키지는 못했다. 그것이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었지만 동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우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4).”는 말씀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정권 교체를 가져왔고 이제 우리는 (권세로서의) 죄로부터 실질적인 자유를 줄 은혜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나 우리 중 일부는 어느 정도의 올바른 신학을 사용하여 여호아스의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전적 부패”에 대해 확신하며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며, 우리가 어떤 습관, 무능력, 행동 및 반응에 아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변화나 변화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은혜는 그저 말에 불과하고, 성령은 이론에 불과하고, 복음은 우리가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그렇다.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아스가 죽은 후에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사후 세계를 즐긴다고 말할 수 있다.

¹⁴ John White, *The Masks of Melanchol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82), 38-39.

III. 우리를 따라다닐 공급들 (왕하 13:20-25 The provisions that will haunt us)

열왕기하 13 장의 나머지 부분(20-25 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공급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각 공급을 차례로 다룰 것이다.

i. 소망 (왕하 13:20-21 Hope)

[왕하 13:20-21] (20)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¹⁵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너무 기괴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레이몬드 칼킨스는 이렇게 불평한다.

[열왕기하 13 장] 21 절에 기록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도 죽은 자의 뼈에 마법의 힘이 들어있다는 암시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엘리사에 관한 전승에 어떻게든 스며든 미신적 믿음의 유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영원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표시이다. 성인이 죽었을지라도 그의 살아있는 영혼과 접촉함으로써 살아나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 그 시체가 성인의 뼈에 닿았을 때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배운 것에 비추어볼 때 다른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¹⁶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마법과 유물의 냄새가 난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또는 꽤 관찮은 똑똑한 편집자)가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배치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프레트하임은 왕하 13:23 에서 적절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장 사건에서 동료들은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다(왕하 13:21, [야실리후 <살라흐, ‘to throw’ = 데이비스 ‘to chuck’].” 이제 동일한 동사가 왕하 13:23 에도 나온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스라엘]을 그의 면전에서 내쫓지/던지지([하실리함 <살라흐]) 아니하셨다(또한 왕하 17:20 과 24:20 도 참조할 것). “이스라엘을 그의 면전에서 던져버리는 것”이

¹⁵ 본문에 몇 가지 불분명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사의 무덤은 땅 속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돌로 덮인 동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¹⁶ Raymond Calkins, “II Kings: Exposition,” *The Interpreter’s Bible*, 12 vols. (New York: Abingdon, 1954), 3:258. 하몬드(Joseph Hammond, *II Kings*, *The Pulpit Commentary* [London: Funk & Wagnalls, n.d.], 268-69)는 칼킨스보다 먼저 오래 전에 소위 유물(relic) 문제를 다루었다.

국외 추방을 가리킨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유추가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을 때 새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외로 던지실 때마다 여전히 소망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덤가 사건은 “이스라엘의 미래 삶에 대한 소망의 증언을 제공하는 상징적 내러티브”와 같다.¹⁷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21 절과 23 절에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것에 근거한 논증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3 절에 나오는 동사는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3 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국외 추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시체와 이스라엘의 유사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살라흐, '던지다']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이 이 유사성을 지지할 근거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금 뒤로 돌아가 왕하 13:20-21 을 다시 보자. 언뜻 보면 이 구절들이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엘리야가 현장에서 하늘로 취해졌을 때 그는 꽤 큰 소동을 일으키며 갔는데(왕하 2:11-12),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비슷한 상황을 기대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겠는가? 따라서 경이로운 것이 매우 적절한 것 같다. 분명히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 단순히 조용히 썩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왕하 13:20-21 을 왕하 13:14-19 절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부분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유산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말씀의 종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왕하 13:14-19)과 생명(왕하 13:20-21), 즉 승리와 활력을 모두 받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죽었을 때에도 이 선물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카일이 왕하 13:20-21 에 대해 바르게 풀이했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의 회복은 단지 “죽은 선지자의 뼈와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안에 작용해 온 신적 에너지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이 아님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¹⁸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나는 로저 엘스워스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¹⁷ Terence E.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John Knox, 1999), 184. 프레트하임은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음을 암시한다. 프로반(Iain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230)도 비슷한 견해를 취하지만 왕하 13:20-21 의 역사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¹⁸ 이것은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144 에 인용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재인용한 것이다. 배르의 인용은 카일의 주석 1845 년 판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요점은 재인쇄된 1876 년 판에는 없다.

우리는 이 기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엘리사가 그토록 충실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고 강력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포로기 백성에게 줄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그들은 종종 자신의 나라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그들의 나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¹⁹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또는 열왕기하 24-25 장 이후 유다에 남은 자들을 위한 소망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개인적인 소망도 염두에 둘 수 있었을까? 제임스 미드(James Mead)는 이 본문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문학적 관찰을 한다.

모압의 습격과 죽음의 슬픔을 감안할 때, 엘리사의 시체는 생명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하찮은 개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밖의 누군가를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독자는 엘리사의 마지막 사건이 익명의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축복을 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익명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나아만은 유일한 예외이며, 그는 아람인이다!).²⁰

그렇다면 아마도 이 중단된 장례식은 엘리사의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유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반면, 왕하 13:14-19 은 국가적 유익을 부각시킨다. 레이 딜러드는 이런 견해를 취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저자가 의도한 바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의아해하지 않는다!] 엘리사의 무덤에 시신이 던져진 사람은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술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였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본질을 명심하라. 기적은 구원적이며, 모든 것의 회복을 가리킨다. 이 작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구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 즉 죽음에 대한 승리와 생명으로의 회복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죽음 자체가 멸망될 날의 작은 삽화이며,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이 없을(계 21:4)” 성[=새 예루살렘]의 옛보기이다.

엘리사와 관련된 마지막 두 이야기가 적들을 멸망시키는 그의 역할을 전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 적들은 그 시대의 가장 큰 국가적인 적, 곧 아람(왕하 13:10-19)과 가장 큰

¹⁹ Roger Ellsworth, *Apostasy, Destruction and Hope*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2), 158.

²⁰ James Kirk Mead, “*Elisha Will Kill?*,” 93.

개인적인 적, 곧 죽음(왕하 13:20-21)이다. 그 큰 국가적인 적의 패배는 여로보암 2 세(왕하 14:25)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국가 부흥의 전조였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승리는 무덤에 대한 더 큰 승리의 전조였다.²¹

이렇게 우리는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끝에서 서로 비슷한 증언을 듣는다. 열왕기하 2 장에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왕하 2:11).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암시를 준다. 그것은 죽음이 지배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증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경우에 예외를 두셨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의 끝에서 우리는 동일한 한 증언을 듣는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와 능력이 오직 존경받는 선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익명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죽음을 꾸짖는다(왕하 13:20-21). 이것은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말을 주며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²²

살펴볼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여러분은 기괴한 에피소드들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약은 마 27:51b-53 에서 왕하 13:20-21 과 “유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마 27:51b)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 데이비스: “열렸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한(마 27:50) 바로 뒤에 이 부분(마 27:51-53)을 배치한다. 웬함(J. W. Wenham)을 따르며 우리는 [개역개정처럼 “열며”가 아니라] “열렸다.”라고 마침표를 둔다.²³ 많은 죽은 신자들의 몸이 살아났다(마 17:52b 절). 마 27:53 은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났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열렸다. 당연히 이것은 답변할 수 없는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나는 언젠가 한 신약 학자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할지라도 마태가 의도한 바는

²¹ Raymond B.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1999), 152.

²² 그렇다면 나는 왕하 13:20-21 이 집단적인 희망과 개인적인 희망을 모두 격려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²³ Cf. D. A. Carson, “Matthew,”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4), 8:581-82.

분명하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들이 열렸다.

생명을 준 엘리사의 뼈(왕하 13 장)와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마 27 장)는 이상한 사건이다. 그러나 기괴한 것과 진실한 것은 종종 쉽게 어울린다. 예를 들어, 나는 뱀을 산 채로 잡으려고 총의 개머리판을 뱀의 머리 뒤로 눌렀다고 하는 이란 사냥꾼 알리가 생각한다. 뱀은 알리의 총 개머리판을 휘감고 방아쇠를 당겨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²⁴ 뱀은 보통 사람을 쓰지 않는다. 기괴하지만 입증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가(행 26:8)?”

ii. 언약 (왕하 13:22-23 Covenant)

왕하 13:22-25 은 우리를 여호아하스 시대로 되돌리며 왕하 13:3-7 과 병행되는 사건을 묘사한다. 이 구절들은 여호아하스 치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사엘의 압제를 상기시킨(왕하 13:22)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는지 알려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왕하 13:23)

왕하 13:23 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때까지”는 까다롭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고리로 보며 여호와께서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쫓아내신 것으로 생각한다.²⁵ 그러나 이 견해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 이 어구가 사용되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계산한 바로는 “이 때까지”([아드 아타], ‘until now’)란 어구는 구약에서 아홉 번 나온다.²⁶ 이 어구는 왕하 13:23 을 제외하고 여덟 번 모두 항상 “이 시점까지(to this point)” 혹은 “그 시점까지(up to the point)”를 의미할 뿐이고, “그러나 나중에...”라는 암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어구는 항상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와 거기서 그것을 끊는다.

다른 사람들은 왕하 13:22-23 이 내레이터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 때까지/지금까지”라는 어구가 저자 자신의 시대 곧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고, 저자가 여호와께서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²⁴ Wendy Northcutt, *The Darwin Awards* (New York: Plume, 2000), 36.

²⁵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217.

²⁶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Mandelkern's *Concordantiae*, 937-39 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어구가 나오는 (영어 성경의) 본문은 창 32:4; 46:34; 출 9:18; 신 12:9; 삼하 19:7; 왕하 8:6; 13:23; 겔 4:14; 룻 2:7 이다.

주장한다.²⁷ 그러나 나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까지/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경우는 인접 문맥에 묘사된 순간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실 문맥은 이 “지금”을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왕하 13:22)와 하사엘의 죽음 이후(왕하 13:24)로 고정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이 시점까지(up to this point) 그들을 그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번역할 것이다. 내 번역의 “이 시점”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아스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NJPS의 “그가 여전히(still) 그들을 그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라는 번역은 이러한 이해를 반영한다.

하지만 왜 쫓아내지 않으셨는가? 왜 이 은총, 이 긍휼이 북왕국의 이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임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땅(home)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마무리하셨다(창 15:18). 그는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창 26:3-4; 28:13). 그러나 이 북왕국은 첫날부터 배교하기 시작했고(열왕기상 12 장), 선택의 배교가 여로보암의 정중한 형태이든 아합의 역겨운 형태이든, 레위기 26:25 이 “언약 위반에 대한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기한이 오래 지났다. 이때쯤이면 이스라엘은 이미 그 땅에서 추방된 지 오래되었어야 한다(레 26:33; 신 28:36-37, 64-68). 그러나 그들은 추방되지 않았다. “언약 때문”이었다. 잘 알다시피, 언약은 약속의 견고함과 은혜의 따뜻함을 포함하고 있다. 확실히,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보복이 있다. 그러나 언약의 배후에 언약을 주신 분이 계시며 “그는 인애를 기뻐하시는(NJPS: He loves graciousness)” 분이시다(미 7:18). 따라서 소망이 사라져야 하는 때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바바라 터크만은 로마의 교황 레오 10세의 치하(1513-21)의 사치스러운 부유함을 묘사했다. 부호 아고스티노 치기(Agostino Chigi)가 제공한 잇을 수 없는 연회는 당시의 전형인 것이었다. 금 접시는 비잔티움에서 가져온 앵무새의 혀와 생선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금 접시들은 사용된 후 창문 밖으로 티베르 강으로 던져졌다! 일회용 금 접시들? 좀 안 맞는다. 수면 아래에는 떠돌아다니는 식기를 회수하기 위한 그물이 있었다.²⁸ 이제 저자는 우리에게 언약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한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그물은 제자리에 있다.

²⁷ Provan, *1 and 2 Kings*, 229-30;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184.

²⁸ Barbara W. Tuchman, *The March of Folly* (New York: Alfred A. Knopf, 1984), 106.

그러나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감사를 요구하고, 주제넘음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다.²⁹

iii. 진실 (왕하 13:24-25 Truth)

하사엘은 의무를 다하고 죽는다.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아람의 왕좌에 오른다(왕하 13:24).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왕하 13:25).” 그러므로 왕하 13:17-18 절의 실연된 신탁(예언)은 성취된다. 엘리사는 여호아스에게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화살(왕하 13:17)”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시켰으나, 여호아스는 세 번 쏘고 멈췄다(왕하 13:18). 그러자 분노한 선지자는 왕이 아람에 대해 세 번만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었다(왕하 13:19). 그런데 여기에 세 번의 승리가 묘사되어 있다(왕하 13:25). 여호와께서는 수없이 많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다. 여호아스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복제품이고(왕하 13:11) 여호와의 약속에 열광하지 않은(왕하 13:18)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이러한 수령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약속된 물품을 인도하실 것이다(왕하 13:25). 이스라엘이 파멸로 치닫는 중에도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신다.

만일 여호아스가 여호와의 진리에 대해 미지근했다면, 우리 현대의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닌지 묻고 싶다. 어쩌면 우리는 진리에 너무 익숙해져서—우리가 진리가 없이 지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일 년쯤 전에 나는 바지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 내가 선택한 것들은 저렴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매일 착용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 라벨에 나의 허리와 다리에 맞는 크기가 적혀 있는 회색 바지를 발견했다. 그 바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바지를 들고 탈의실로 가서 입어 보았다. 괜찮았다. 그래서 나는 선반으로 돌아가서 라벨에 허리-다리 크기가 같은 카키색과 네이비색 바지를 선택했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서 이 두 바지를 입어보려고 하니 탈의실에 입어본 회색 파일럿 바지보다 허리가 1 인치 이상 작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서재에 서서 배를 조르고 바지의 단추를 채우고 지퍼를 잠그려고 애썼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시어즈-로백 회사를 나쁘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입어본 바지만의 세계에서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세 바지 모두의 라벨은 동일했지만 그 중 두 개는 라벨이 잘못 붙어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두 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진실을 갖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진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약 135 년 동안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었던

²⁹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날” 때에도, 언약의 “그물”은 여전히 존재하고(레 26:44-45) 회개는 여전히 요구된다(레 26:40-42).

왕국이 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진실하심을 통해 그들을 다루고 계신다.

그런즉 소망, 언약, 진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을 늘 따라다닐 공급이다. 이스라엘이 파멸을 향해 돌진할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박탈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앙 한가운데 소망, 언약, 진실을 두신다. 그래서 그들은—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같다면—자비로 누그러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다. 그런 사악한 일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가?
2.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한 “내키지 않는 마음”의 예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4.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선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가?
5.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대해 그토록 열심인 것 같은가?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여러분을 확신시키고 지탱해 주는가?

19. 짧디짧은 시월의 이야기 (왕하 14 장 A Little Bit of October)

현재 나는 미국의 “깊은 남쪽(deep south)”이라고 부르는 곳에 살고 있다. 겨울에는 매우 온화한 기후를 보이지만,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은 혹독한 기후를 보인다. 에어컨이 출현하기 전에 나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녹아내렸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10 월은 다르고 정말 사랑스럽다. 일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더 이상 열대 기후가 아니다. 내 고향 펜실베이니아의 10 월을 떠올리게 하는 쌀쌀함도 없다. 미시시피에서는 10 월은 완벽하다. 물론,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10 월의 아쉬운 점은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건 갈색과 회색의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10 월이란 기간 동안은 즐겁다. 지금 왕국들과 국가들은 이런 “10 월”의 단계를 거치며 활기찬 경제, 국가의 안정, 군사적 성공, 증가하는 이익 등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국가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에게) 삶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이다. 열왕기하 14 장에서 특히 이스라엘은 이런 10 월에 살고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열왕기하 14 장은 유다의 아마샤(1-22 절)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 세(23-29 절)의 통치를 다룬다. 그들은 연구할 만한 대조를 이룬다. 아마샤의 붕괴(상당히 좋은 시작에 이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오만함, 굴욕적인 패배,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뒤 따름)는 이스라엘에게 “10 월”을 주는 여로보암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아마샤의 경우 1-7 절과 18-22 절만 엄격하게 자신에게 해당된다. 8-14 절에서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그늘에 서 있으며, 여호아스의 사망 기사는 15-16/17 절에 두 번째로 나타난다(참고, 왕하 13:12-13). 여로보암 부분(왕하 14:23-29)이 추가될 때, 저자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북쪽 왕국인 것처럼 보인다.¹ 이제 열왕기하 14 장의 신학적 관심사로 넘어가자.

I. 자기 종들에 대한 여호와와 그의 평가는 쉽게 무시될 수 있다 (왕하 14:1-5 Yahweh's assessment of his servants can easily be disregarded)

여기서 우리는 특히 왕하 14:3-4 에 중점을 둘 것이다.

3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²

¹ 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177 을 보라.

² 산당에 대해서는 ABD, 3:196-200 에 실린 Boyd Barrick 의 유용한 글을 참고하라.

독자로서 우리가 아마샤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를 읽어오며 다윗이 왕의 표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왕상 3:3, 14; 9:4; 11:4, 6, 33, 38; 14:8; 15:11; cf. 왕하 16:2; 18:3; 22:2). 그리고 아마샤는 다윗의 표준이 아니라 요아스의 표준에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하품하는 경향이 있는 지점은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다음 지점일 것이다. 전에도 우리는 이것을 들었다(왕상 15:14; 22:43; 왕하 12:3).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는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안 했다.”³ 우리는 이 예외를 반복해서 읽고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누가 성경을 읽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기 아마샤의 경우처럼,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신에 대한 온전한 헌신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태만을 반드시 지적하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너 번 접한 후에 우리는 “유다 왕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태도가 아니다. 그분은 전적인 헌신을 찾으신다. 그분은 또 다른 다윗을 찾고 계신다. 그는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제정신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훌륭한 부양자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동반자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녀가 그런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거나, 한편으로 그가 제공한 풍요로움이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든 고통을 덮어주었다고 그녀가 느낀 것을 암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될 것이다. 아마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가 그토록 억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건이 그토록 길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은 미지근한 정통이 언약적 순종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가?

1880 년대에 전직 연방 군인이 기차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골즈버러로 향했다. 그는 주변에 전직 남군 병사가 있는지 물었다. 한 노인이 나서서 그를 1862 년 12 월 전투 현장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의했다. 옛날의 적들은 그날 오후 전장을 누비며 새로운 친구가 되었다. 마침내 그 남군은 20 년 넘게 그를 괴롭혀 온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군이 철도 다리에 불을 지른 후 포스터 장군이 그들을 돌려 전장에서 멀어지게 한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 북군은 설명했다. “우리는 탄약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한 발도 남은 것이 없어서, 우리 모두는 포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남군이 추격을 하고 북군의 측면을 괴롭혔다면, 남군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10,000 명의 포로를 잡았을 것이다.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남군은 잘

³ 여호와에 대한 경배는 “산당”에서 행해질 수 있었지만(삼상 9:11-13; 왕상 3:2-4), 분열 왕국 시대에는 그것이 규칙이 아니었던 것 같다(유다의 경우, 왕상 14:22-24 참조).

⁴ Clint Johnson, *Civil War Blunders* (Winston-Salem: John F. Blair, 1997), 122-23.

싸웠고 북군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아마도 아마샤처럼 말이다. 요아스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했다. 왜 산당을 제거해야 하는가? 왜 의로움이 피를 끓어오르게 해야 하는가?

우리 중 일부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에 대한 열심이 거의 없고, 가족을 가르치고 교리 교육을 하려는 노력도 거의 없으며,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증언할 열정도 별로 없고, 우리 교회 교단에 있는 불신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려는 열정도 별로 없다. 우리는 복음주의적이지만 그것에 대해 열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은 아마샤 콤플렉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왜 의가 엄격해야 하는지, 왜 경건이 공격적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II. 여호와의 심판들은 그 그림자를 미리 드리울 수 있다 (왕하 14:5-14 Yahweh's judgments may cast their shadows beforehand)

아마샤의 인상적인 기록은 계속된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암살자를 제거했지만 신명기의 율법 (신 24:16)이 요구하는 제한 사항을 지키며 그렇게 했다(왕하 14:5-6). 그는 에돔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략적 요충지를 정복하는 대승을 거두었다(왕하 14:7).⁵ 그런 다음 “그때[아즈]...”가 나온다. “[아즈, ‘그때’가 개역개정에 빠져있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왕하 14:8).” 현대 심리학자들은 아마샤의 이 말을 “대립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마샤는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⁶ 이것은 왕하 14:11 에 이 표현이 다시 나오는 것(“그들이 서로 대면하였다.”)과 왕하 14:9-10 에서 여호아스가 아마샤를 이해한 방식에서 분명해진다.

여호아스는 아마샤에게 그의 칼부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 주려고 그림 이미지를 통해

⁵ “소금 골짜기”는 아마도 아라바 북부에 있는 사해의 남쪽 지역일 것이다. 셀라는 보스라에서 북서쪽으로 2.5 마일 떨어진 킹스 하이웨이(King's Highway 근처)에 있는 에스-셀라일 가능성이 높다(A. F. Rainey, IDBS, 800, 그리고 D. J. Wiseman, *1 & 2 King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3], 244-45 참조). “욕드엘”은 “신이 멸망시킨다.”라는 뜻일 수 있다. 독자들은 “역대기 저자”가 아마샤의 에돔 원정(대하 25:5-16)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여기에는 정복당한 에돔의 신들에 대한 숭배도 포함되어 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주요 관심이 여전히 북왕국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추측일 뿐이다.

⁶ 대하 25:6-10, 13 의 기록은 아마샤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품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에돔에 대한 그의 승리는 그가 실제로 여호아스와 전쟁을 벌일 만큼 대담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열왕기에는 후자의 고려 사항만 언급되어 있다.

말했다. 여호아스의 작은 우화에는 가시 나무와 백향목과 들짐승이 등장하는데(왕하 14:9), 그것들은 각각 “레바논에” 있다. 가시 나무는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 나무를 짓밟아버린다. 그것은 마치 여호아스가 “아마샤, 그 들짐승이 그 보잘것없는 가시 나무 위로 걸을 때 ‘찌그러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아마샤, 그것이 당신이야. 이 멍청한 전쟁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당신 자신이 ‘찌그러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여호아스는 가시 나무가 그 자신이 가시 나무임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가시 나무인 것에 만족해야 하며, 자신의 부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호아스의 우화는 정말 갈아뭇개는 말이었다. 왕하 14:10 에 나오는 그의 추가 언급은 아마샤의 교만을 주범으로 지목한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여호아스는 아마샤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졌으며, 만일 그가 고집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유다는 그와 함께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왕하 14:10).⁷

그러나 아마샤는 뚝고집을 피웠고(왕하 14:11a), 벵세메스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며(왕하 14:11b), 유다는 채찍질을 당했다(왕하 14:12). 여호아스는 소수의 우승자들이 누리는 상을 챙긴다. 즉 그는 상대국 왕을 사로잡는다. 왕하 14:13 은 직접 목적어, 곧 조상들과 직책과 더불어 나오는 아마샤를 문두에 놓음으로써, 이 사실을 상당히 강조한다.⁸ 불명예는 계속된다. 여호아스와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북쪽 성벽의 600 피트를 허물고, 성전과 궁전의 재물을 약탈하고 인질과 함께 사마리아로 돌아간다(왕하 14:13b-14).⁹ 열왕기상하에서 적어도 일곱 번이나 성전과 궁전의 보물을 강제로 빼앗기거나 뇌물이나 공물로 바쳐진다.

보물을 빼앗기거나 바쳐짐

- | | |
|----------------|----------------|
| 1. 왕상 14:26 | 르호보암이 시삭에게 |
| 2. 왕상 15:18 | 아사가 벤하닷에게 |
| 3. 왕하 12:17-18 | 요아스(유다)가 하사엘에게 |

⁷ 아마도 아마샤는 바바라 터크먼(Barbara Tuchman, *The March of Folly* [New York: Knopf, 1984], 32)의 말, 곧 “어리석음은 권력의 자식이고 명령하는 힘은 자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⁸ 왕하 14:13 의 직역: “아마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하시야의 손자를[목적어]-사로잡았다[동사]-여호아스가[주어].” 왕하 14:13 에 나오는 동사([타파스], “사로잡다”)는 왕하 14:7 에서 아마샤가 셀라를 사로잡을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⁹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호아스가 아마샤에게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체면을 잃은 채 그를 왕좌에 남아있게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브라이트),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사마리아로 끌려가 여호아스가 죽을 때까지 풀려나지 않았다고 믿는다(메릴).

4. 왕하 14:13-14 아마샤가 여호아스(이스라엘)에게
5. 왕하 16:7-8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6. 왕하 18:14-16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7. 왕하 24:13-14 ... 느부갓네살에게 (왕하 25:9-10 참조)

이 중 세 번(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은 정복자들이 보물을 직접 약탈한다.

이안 프로반은 내가 지적한 위의 네 번째와 일곱 번째 사례, 즉 예루살렘에 대한 처리에서 여호아스와 느부갓네살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한다. “열왕기에서 외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에 대한 첫 번째 기록(왕하 14:13-14)은 왕(여호야긴)이 인질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것과 성전과 궁전이 약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기록(왕하 24:8 이하)을 아주 잘 연상시킨다.” 프로반은 우리에게 열왕기하 14 장에서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함락되었고 유다가 “이제 처음으로 “유배”를 경험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왕하 14:13-20 은 열왕기하를 마감하는 장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¹⁰

연합군 장군 암브로스 번사이드는 1862 년 11 월에 “전조”를 보았어야만 했던 것 같다. 링컨 대통령은 버지니아 주 프레데릭스버그 근처의 라파해녹 강을 건너 연방군을 이동시키려는 번사이드의 계획을 승인했다. 모든 것은 속도에 달려 있었고 이번에는 연합군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남군이 그곳에서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전에 프레데릭스버그에 도착했다. 그러나 번사이드의 계획은 부교(浮橋)를 그곳에 대기시켜서 그의 군대가 라파해녹 남쪽과 그 너머로 이동하여 리 장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번사이드의 군대가 11 월 17 일에 도착했을 때 부교가 없었다. 따라서 다리가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11 월 6 일 워싱턴에 있는 누군가가 부교를 워싱턴으로 가져와서 필요할 때 버지니아로 급히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관료가 군대에 전신선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우편으로 명령을 보냈고 6 일 후 엔지니어들은 주문을 받았다. 부교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누가 어찌된 일인지 알겠는가마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명령이 변경되었다. 그들은 즉시 출발할 준비가 된 마차 행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와 마차를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 했다. 마차 행렬이 준비되었을 때 엔지니어들은 200 마리의 말이 필요했는데, 이는 200 세트의 마구를 의미했다. 그런데 마구는 원래 상자에 담겨 배달되었으며 물론 이전에 한 번도 마구를 착용한 적이 없는 일부 말에도 포장을 풀고 함께 장착해야 했다. 11 월 19 일이 되자 이 마차들은 도중에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겨우 6 마일을 이동한 후 폭우 속에 밤을 보내기 위해

¹⁰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236-37.

멈춰 섰다. 비는 계속되었고, 도로는 밀도 끝도 없는 진흙탕이 되었고, 속도는 하루에 5 마일밖에 낼 수 없었다. 마침내 장교 한 명이 워싱턴으로 다시 파견되어 증기선을 요청하며 대부분 물길로 부교를 운반해야 한다고 전했다. 11 월 25 일이 되어서야 부교가 도착했다. 엔지니어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연방 정부의 코미디같은 실책이 일어날 때 아무도 시간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¹¹

그것은 모두 무능으로 가득 찬 큰 혼란이었다.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재앙이었다. 그러나 이제 리, 잭슨, 롱스트리트의 군대가 프레데릭스버그 뒤의 고지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융통성 없기로 유명한 번사이드는 여전히 강을 건너가서 메리스 하이츠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결과 12,600 명의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등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비와 진흙탕, 특히 무능이 겹친 상황은 마치 확실한 재앙의 전조였던 것처럼 보인다. 번사이드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 보장되는 일이었다. 열왕기의 본문에서도 그렇다. 아마샤 왕의 사로잡힘, 성의 황폐해진 벽, 약탈당한 보물, 무력한 포로들(왕하 14:13-14)—이 모든 것은 더 큰 재앙의 서곡이다.

아모스 4 장 6-12 절에서 이러한 전조의 패턴에 대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거기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에게 내리신 언약의 저주를 언급한다. 그러나 매번 저주를 내리신 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후렴)은 동일하게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암 4:6, 8, 9, 10, 11)."이다. 여호와께서 기근이든(6 절), 가뭄이든(7-8 절), 흉작이든(9 절), 군사적 패배(10 절)이든, 재난이든(11 절), 어느 것을 내리셨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¹² 이스라엘은 우둔했고,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전조를 무시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었다(12 절).

"전조들"을 무시하는 것은 유다의 왕들, 남북 전쟁의 장군들,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확실히,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책망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이나 근로자가 각자의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 동료들 총으로 쏘 죽이는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중 한 건은 2 주 전에 우리 집에서 60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추문들을 듣는다. 우리는 국내에서 극적으로, 해외에서 더 일상적으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법정과

¹¹ Bruce Catton, *Glory Road* (New York: Doubleday, 1952), 21-28, 64-65.

¹² 이 본문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위해 Gary V. Smith, *Amos*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8), 195-201 을 보라.

법률을 통해 30 년 동안 죽음의 문화를 보장해 오고, 만연한 부도덕을 즐기고, 성적 타락을 찬양하는 자들을 꺼안고 보살피는 나라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조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III. 여호와와의 약속은 역사의 혼란에 안정을 준다 (왕하 14:15-22 Yahweh's promises give stability to the turmoil of history)

왕하 14:15-22 에는 두 가지 사망 기사(여호아스와 아마샤)가 있다. 여호아스의 경우 이 사망 기사(왕하 14:15-16)는 실제로 (왕하 13:12-13 에 이어 나오는) 두 번째 것이므로 그의 대한 저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 여호아스의 사망 기사에는 아마샤의 수명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어 있다(왕하 14:17).

아마샤의 사망 기사(왕하 14:18-22)는 조금 더 난처한 느낌이 든다. 어떤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라기스(예루살렘에서 서쪽/남서쪽으로 29 마일)로 도망친 그를 따라가 제거한 후(왕하 14:19) 예루살렘으로 시신을 가져와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했다(왕하 14:20). 유다 백성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또는 웃시야)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다[혹은 그 이전에 세웠었다](왕하 14:21).¹³

나는 이 왕들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있다.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음모와 암살이 자주 일어났던 이스라엘에서 왕위가 여호아스에서 여로보암 2 세로 순조롭게 옮겨갔다(왕하 14:16b). 유다에서는 아마샤에 대한 음모로 인한 격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을 세우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아사랴는 미움을 받는 아마샤의 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왕으로 확정되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안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예후에게 4 대에 걸쳐 계속될 왕조를 약속하셨다(왕하 10:30). 여로보암 2 세는

¹³ 아사랴/웃시야의 통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샤가 여호아스와 전쟁을 벌였을 때나 그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왕하 14:13) (아마샤가 한동안 포로로 남아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아사랴/웃시야가 공동 섭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왕하 14:21 이 반드시 아마샤가 죽은 직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흠스를 반대하는 와이즈먼처럼) 과거완료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유다 온 백성은 아사랴를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었다(had taken Azariah ... and had made him king)." 바브 계속법 미완료가 과거 완료의 의미로 사용된 것에 대한 예들을 위해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552-53 을 보라.

예후의 계보에서 네 번째 연결 고리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삼하 7:12-16), 유대인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아사라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현재의 증거이다. 사망 기사가 지루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호와와 약속이 역사를 이끈다는 것, 그리고 주전 8 세기 초 이스라엘과 유다에 질서와 안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와 약속이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제 예후가 받은 약속은 열왕기하 15 장이 보여주듯이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받은 약속은 변함없고 여전히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 다윗 계보의 왕이 포로기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열왕기하 24-25 장), 다윗 계보는 계속되어 마태복음 1 장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마 1:16)을 통해 다시 나타난다. 그는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주의 최고 권위와 권세의 자리에 즉위하셨다(엡 1:20-22).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숨겨진 통치가 눈에 띄게 부여되고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질 것이다(계 11:15 참조).

물론 다윗이 받은 약속이 역사에 질서와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역사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 교실이 생각난다. 우리 건물에는 6 세에서 14 세 사이의 아이들이 있었고 각 교실에는 2 개의 학년이 있었다. 아이들이 5-6 학년 또는 7-8 학년이 되었을 때 상황은 혼돈에서 겨우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 한 발짝은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과 상의하기 위해 그 교실에서 나와야만 하는 때였다. 그러면 거의 즉시—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대혼란이 시작되었다. 종이를 씹어 뭉친 것(spitball)이 날아다니곤 했다. 누군가 칠판 지우개를 사람을 향해 던지곤 했다. 또 다른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아이를 공격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누군가 칠판에 몰래 다가가 불쾌한 것을 낙서하고 익명으로 유지되기를 바랐다. 우리 모두는 교사가 없을 때 그러한 허세를 부릴 수 있었다. 물론 망보는 애가 “그녀가 온다!” 하고 외치면 즉시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곤 했다. 선생님이 거기에 있어도 쪽지가 전달되었다. 순진한 동료 학생들의 빈 자리에 압정을 놓았는데, 이는 감지되지 않은 채 즉각적인 자극을 유발했다. 학생들은 서로 귓속말을 했다. 때때로 내가 했던 것과 같은 직접적인 반항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교육적으로 머리카락을 뽑는 에피소드를 불러일으켜 나는 4 학년 때부터 대머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때때로 내 형들은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주고 냄비 난로에 던지라고 하곤 했다. 어쩌다가 쓰레기 속에 22 구경 포탄이 들어가 있다가 난로에서 폭발한 적도 있었다. 교사와 함께 있어도 때때로 질서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거기에 있을 때 상황이 정말 광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우리가 시도할지라도 그녀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다윗의 약속에 비추어 역사를 보아야 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한다. 그러한 왕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때때로 심연의 가장자리를 뛰어 넘어 부패로 인해 질식하여 죽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과 그가 통치하시고 통치하실 것임을 안다. 그리고 그는 이기실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헤쳐 나가며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 장이라는 것이 이상하다.

IV. 역사를 운영하는 여호와와 방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왕하 14:24-27 Yahweh's manner of ordering history may mystify us)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어린 소년일 때 천식이 그를 거의 먹여 치울 뻔했다. 발작 시간은 다양했지만 때로는 한 번에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네 시간 동안 발작을 일으켰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다.¹⁴ 담배는 제안된 해독제 중 하나였다. 우리는 천식과 담배의 조합에 대해 의아해한다. 우리가 왕하 14 장에서 24 절과 25 절의 조합을 의아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로보암 2 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지만 이 왕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회복했다.¹⁵ 악과 성공은 천식과 담배만큼이나 이상한 조합이다. 왜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허락하고 계시는가? 왜 여호와께서는 재앙의 대격변을 통해 여로보암의 통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는가? 왜 이스라엘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시대가 결코 나아지지 않았는가? 산당들에는 사악함이 있으나 그것과 함께 군사적 팽창과 경제 호황이 있다.¹⁶

¹⁴ H. W. Brands, *T. R.: The Last Romantic* (New York: Basic Books, 1997), 10, 23.

¹⁵ 르보 하맛(NIV/ESV: Lebo-Hamath; NASB/한글 성경: the entrance of Hamath 하맛 어귀)은 가나안과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표시하는 곳이고(민 34:7-9; 수 13:5),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약 45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여로보암 2 세가 다시 회복한 곳(왕하 14:28)이다. 분명히 요단강 동편의 땅(트랜스조던)도 이스라엘의 통제로 돌아왔다(암 6:14). 남쪽에서 여로보암의 영향력은 사해까지 혹은 사해의 남쪽까지 이르렀다. *The Macmillan Bible Atla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93), 108 을 보라. 아사랴/웃시야의 남왕국과 여로보암의 북왕국을 합치면 영토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과 거의 맞먹는다. 이집트는 8 세기 내내 약했고, 앗수르는 처음 50 년 동안 다른 곳에 몰두했으며, 다메섹은 앗수르에 의해 약화되었고 하맛의 자키르에게 참패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에게 그의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었다. Merrill F. Unger, *Israel and the Aramaeans of Damascus* (Grand Rapids: Baker, 1980), 89-95, 그리고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4:140-44, 그리고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367-75 등을 참고하라.

¹⁶ 참고,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258: "주전 8 세기 중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토의 범위는 합치면 솔로몬 제국의 영토에 버금갈 정도였다. 나라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와 말씀 때문이다(왕하 14:25b).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적 회복을 예언하셨다. 그러나 여호와와 이 신비한 말씀의 배후에 여호와와 따뜻한 긍휼이 있으며, 이 긍휼이 그분의 말씀을 “이끌어냈다.”

(왕하 14:26-27) 26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던라

여호와와 여전히 자기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시는 동일한 출애굽의 하나님이다(출 3:7).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멸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감지한다.

이제 우리는 **번영이 여호와와 칭찬의 표징이 아니라 여호와와 동정심의 표징일 수도** 있다는 요지의 추론을 할 수 있다. 표징을 잘못 읽기 쉽다. 히틀러 정권 기간 동안 나치는 베를린에서 세계에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햇불 퍼레이드나 대규모 전시를 개최할 때마다 뮌헨에서 수천 명의 돌격대를 보내 군중을 불어나게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베를린 시민들 자신이 히틀러에 대한 열정이 유난히 부족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¹⁷ 따라서 전 세계가 베를린에서 히틀러가 열광적으로 지지받는 뉴스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그런 표징이 아니었다. 따라서 여로보암 2세의 성공은 여호와와 호의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단지 그의 동정심의 지표였다. 이것은 다소 불안한 일이다. 왜냐하면 본문은 우리에게 국가나 개인을 막론하고 여호와와 인내를 여호와와 기쁨으로 착각하지 말라(롬 2:4)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0 월”이 끝나게 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왕하 14:29)에 이르면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V. 여호와와 말씀은 인간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경멸한다 (왕하 14:23-29 Yahweh's word disdains the claims of human importance)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를 묘사하는 전체 부분(왕하 14:23-29)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목하라.

처한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솔로몬 이래로 누린 적이 없던 번영이 이어졌다. 두 왕국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트랜스조던(요단강 동편 땅)을 오르내리고, 해안 평야를 따라 아라비아 북부로 들어가며, 페니키아 항구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주요 무역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를 통과하고, 대상들의 통행료와 상품의 자유로운 교환은 두 왕국에 부를 쏟아부어 주었다.”

¹⁷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52.

등극 공식, 왕하 14:23-24

역사, 왕하 14:25a

신학, 왕하 14:25b-27

사망 공식, 왕하 14:28-29¹⁸

관례적인 공식들이 여로보암 2 세의 기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라. 여로보암의 업적과 관련된 유일한 부분은 25 절 상반절이고, 25 절 하반절에서 27 절까지는 여로보암이 그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와의 말씀과 여호와와의 자비 덕분이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세속주의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은 앗수르가 바로 그 당시에 쇠퇴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집트가 국제적 패권 국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쉽다(위의 각주 15 참고). 역사주의[=문화적·사회적 사건과 상황은 역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는 그것에 만족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것들이 여로보암이 번영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지만, 그의 번영의 원인은 오히려 그 시대의 앗수르와 이집트의 운명을 주관하신 자비롭고 주권적인 여호와이었다.

여로보암 2 세가 당시 고대 근동의 무대에서 중요하고 강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에 다시 올려놓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열왕기하 13-14 장의 다음과 같은 문학적 구조는 여로보암의 성공을 부각시킨다.

열왕기하 13-14 장의 구조

이스라엘의 심각한 축소, 왕하 13:1-7 (여호아하스)

이중 사망 기사, 왕하 13:8-13 [여호아하스와 여호아스]

엘리사—죽고 살림, 왕하 13:14-21

여호아스의 성공, 왕하 13:22-14:14

이중 사망 기사, 왕하 14:15-22 [여호아스와 아마샤]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회복, 왕하 14:23-29 (여로보암 2 세)

¹⁸ 왕하 14:28 에 나오는 “여로보암 2 세가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다메섹과 하맛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회복시켰다.”라는 진술은 난제로 남아 있다(“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부분이 난제이다). 나는 대여섯 개의 참고 문헌의 설명을 나열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확성이나 확실성을 더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홉스, 코건과 태드모어, 프리케(Hobbs, Cogan and Tadmor, and Fricke)의 주석에서 논의된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조의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유의하라. 이 두 부분의 대조는 의도적이다. 여호아하스의 치하에서 아슬아슬한 고비 속에 축소된 이스라엘(왕하 13:1-7)과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영광을 되찾은 이스라엘(왕하 14:23-29)이 대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 줄의 문(왕하 14:27b)은 여로보암의 콧대를 꺾어버린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왕하 14:23-29[여로보암 2세에 대한 전체 기사]도 그 자체로 같은 점을 지적한다. 여기에 거물급 왕이 있고 그의 통치에 총 7개의 절이 할애된다. 이 중 4개의 절은 표준 공식, 곧 등극 공식(23-24 절)과 사망 공식(28-29 절)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3개의 절은 그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을 묘사하는데, 오직 반절(25a)만이 그의 역사적 업적을 전하고 남은 두절 반(25b-27)은 그 업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신학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의 위대함을 전하는 방식은 그 위대함을 깎아내린다.

돈 맥클루어(Don McClure)는 수단의 술라족 사이에서 있었던 교회 예배에 대해 묘사한 적이 있다. 예배당에는 약 250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흠바닥에 앉았다. 많은 아이들이 생일 정장만 입고 있었다. 그러나 맥클루어는 이 예배 동안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한 여성 선교사가 낡은 코르셋을 버렸고, 한 술라족 남성이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꺼내 “매우 위엄있게” 그 코르셋을 머리에 쓰고 교회에 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 남성이 입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¹⁹ 어쩌면 쓰레기와 보물은 백지장 차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화려함과 위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낡은 거들(둘러싸는 것)에 불과했다. 성경은 여호와께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인간의 업적과 위대함을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 물론 이 점은 일탈한 왕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기록”이나 “경력”에 너무 쉽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유산은 이제 곧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10 월은 정말 짧은 시간이다.

V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언약의 충성과 의로움은 왜 함께 가야 하는가?
2. 오늘날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하나님의 전조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오늘날 신자들(또는 교회)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휼을 그분의 칭찬으로 착각할 수 있는가?
4.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¹⁹ Charles Partee, *Adventure in Africa* (Grand Rapids: Zondervan, 1990), 100-01.

20. 망각에로의 빠른 진전 (왕하 15 장 Fast Forward to Oblivion)

그것은 참을성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다. 오디오 카세트를 듣든지, 비디오 카세트를 보든지(둘 다 곧 기술적인 공룡의 땅이 될 운명일지 모름), 우리는 듣거나 보고 싶은 정확한 지점에 다소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게티즈버그”를 보기 위해 자리를 잡고 모든 예고편을 기다리며 저작권 등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읽고 싶지 않다면, 나는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고 초고속으로 영화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한다. 이제 열왕기하 15 장의 저자는 이 장 전체에 걸쳐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것 같다. 주전 753 년 여로보암 2 세의 장례식에서 모든 엄숙한 연설이 있자마자 우리는 문학적 롤러코스터를 타고 북왕국의 마지막 30 년을 빠른 감기의 속도로 질주하게 된다. 30 년 만에 모든 것이 끝났고, 이스라엘은 당시 앗수르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던 역사의 하수구 아래로 거의 흘러내렸다.

열왕기하 15 장은 유다의 두 왕인 아사랴/웃시아(1-7 절)와 요담(32-38 절)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 사이에 저자는 이스라엘의 다섯 왕을 전격적으로 소개한다(8-31 절). 저자는 여러분이 이 기간을 아주 빨리 지나가길 원하므로, 만일 내가 여러분을 천천히 끌고 가면 그가 주고자 했던 인상을 망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열왕기하 15 장의 모든 문제들에 매달리 수가 없다. 나는 그것들을 각주에서 처리하고¹ 바로 강해로 넘어가려고 한다.

¹ 몇 가지 난제들이 있다. (1) 왕하 15:5 은 아사랴(웃시아)가 나병에 걸린 후에 “בֵּית הַחֵפְזִית [베트 하호프시트] 직역: 자유의 집, the house of freedom; 한글 성경: “별궁, 격리된 궁, 별채; 영어 성경: a separate house”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것은 공무에서 “자유로운” 곳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회와 분리된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2) 왕하 15:10 은 살룸이 אֶלְכָלָם [카발암] 스가랴를 쳤다고 말한다. 여기 [카발암]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즉 “publicly, 공개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참고, 개역개정/새번역/우리말성경, NIV). 다른 사람들은 칠십인역(루시안 개정역)에 따라 “in Ibleam, 이블르암(므깃도에서 남동쪽으로 12 마일, 사마리아에서 북쪽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로 정정해서 읽는다(참고, 공동번역/현대어성경/새번역의 각주, ESV). 흠스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의 이름인 “in Kabal-am 카발암에서”로 읽는다.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하여 아무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3) 왕하 15:16 에 나오는 답사(히브리어 본문 תִּפְסָה, ESV/NRSV/NIV Tiphseh)는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350 마일 정도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의 큰 굴곡 서쪽에 있는 여울목이었다(참조, 왕상 4:24). 많은 사람들은 므나헴이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칠십인역(루시안 개정역)을 따라 에브라임과 므나헴의 경계에 있는 도시인 “답부아 Tappuah”로 정정해서 읽는 것을 선호한다(예: REB 나 NJB). [어느 쪽도 완전한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답사로 읽는 것을 가볍게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하는 흠스의 논평을 참조하라. (4) 왕하 16:25 은 베가가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브가히야를 아르굽과 아리에와 함께 쳐 죽였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전형적인 “세 가지 견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일 아르굽과 아리에가 고유명사로 간주되면,

I.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 (왕하 15:1-12 The Certainty of the Prophetic Word)

저자는 아사랴(웃시아)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는 단지 7 개의 절(왕하 15:1-7)을 할애 받았을 뿐이고 1 개의 절(왕하 15:5)을 제외한 모든 절이 일반 공식(등극 공식과 사망 공식)이다. 아사랴는 그의 종교 정책에 있어서 대체로 정통적이었지만 저자는 그를 여로보암 2 세(왕하 14:23-29)처럼 다루고 있다. 역대기는 그에게 한 장 전체(대하 26:1-23)을 할애하고 그의 큰 성공과 그의 통탄할 교만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다. 열왕기의 저자는 아사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했던 일을 알고 있으며(대하 26:16 이하) 그의 독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여호와의 심판이 아사랴왕에게 임한 것을 언급한다(왕하 15:5). 저자는 지금 유다보다 이스라엘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사랴의 통치가 안정의 보루임을 암시한다. 이는 다섯 명의 이스라엘 왕이 대체로 아사랴의 통치 기간[Thiele: 주전 792-740]을 거치기 때문이다(왕하 15:8[스가랴, 주전 753], 13[살룸, 주전 752], 17[므나헴, 주전 752-742], 23[브가히야, 주전 742-740], 27[베가, 주전 752-732]). 유다의 한 오랜 통치와 이스라엘의 혼돈과 쿠데타들 사이의 대조가 뚜렷하다.

스가랴(왕하 15:8)는 아버지 여로보암 2 세가 죽은 후 왕위에 올라 6 개월 동안 다스렸다. 살룸(왕하 15:10)은 역모를 꾸미고 스가랴를 암살했다. 이로 인해 예후 왕조가 4 대만에 끝난다. 이에 대한 설명이 왕하 15:12 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들은 베가와 그를 따르는 길르앗 사람 오십 명이 브가히야를 쳤을 때 브가히야와 함께 죽임을 당한 관리들일 가능성이 높다. [역자 주: (새번역) “그의 부관인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아르곰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쉰 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 (공동번역)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그의 부관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길르앗 사람 오십 명을 거느리고 사마리아 왕궁 성루에 쳐들어가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 // (우리말성경/쉬운성경/현대어성경) “브가히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 명과 함께 브가히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브가히야를 죽이고 아르곰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브가히야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5) 왕하 15:27 에 나오는 베가의 통치 기간으로 언급된 “20 년”은 엄청 어려운 연대기적 문제를 야기한다. 유다왕 아사랴(웃시아) 제 52 년, 즉 주전 740 년경에 베가가 통치를 시작했다면, 그의 20 년간의 통치는 주전 722 년 이스라엘의 멸망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베가가 실제로 므나헴과 같은 시기, 즉 주전 752 년에 길르앗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한다. 물론 이 후자는 가설이지만, 그것을 무시하기 전에 오스왈트의 논의(John Oswalt, “Chronology of the OT,” ISBE, 1:683-8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사 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왕하 15:12)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그의 왕조가 4 대를 지내리라고 약속하신 왕하 10:30 을 가리킨다. 마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듯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얼마든지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있었다. 만일 예후의 아들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의 율법대로 행하기 시작했더라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 재임 기간을 연장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왕상 21:27-29 [아합] 참조).²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살룸은 예후 왕조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살룸의 행위를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다만 여호와께서는 살룸의 악행을 이용하여 그분의 확실한 말씀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폭력배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왕하 15:12 의 마지막 절은 매우 매력적이다. “과연 그렇게 되니라/그대로 되니라”는 “[바(여)히-헨]이란 어구의 번역으로 창세기 1 장에서 여섯 번(7 절, 9 절, 11 절, 15 절, 24 절, 31 절) 사용되고,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나온다. 그러므로 이 어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³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4 대의 왕조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과연 그렇게 된 것/그대로 된 것”은 다르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만큼 확실하다.

1546 년 3 월 2 일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는 세인트 앤드류스 성 밖에서 화형을 당하고 있었다. 화약 주머니가 그의 몸에 묶여 있었는데, 이것이 폭발했지만 위샤트는 불이 타오르는 동안 아직 살아 있었다. 성의 앞쪽 탑의 홍벽과 창문은 태피스트리로 장식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쿠션이 놓여 있어서 데이빗 비튼(David Beaton) 추기경과 고위 성직자들이 위샤트의 화형 장면을 즐길 수 있는 링 옆 좌석을 가질 수 있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위샤트는 추기경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선언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나의 고통을 눈요기하는 자는 며칠 안에 같은 창가에 매달려 지금 교만하게 거기에 기대어 있는 것만큼이나 불명예스럽게 보일 것이다.” 토마스

²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2), 313-15[= **열왕기상 주해**, 285-287(27 장 IV.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시행하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하라.

³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From Adam to Noah* (Jerusalem: Magnes, 1961), 33-34 을 참조하라.

맥크리(Thomas McCrie)가 말했듯이, 그 당시에는 이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예측이 없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 16명의 남자가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 잠입하여 비튼 추기경을 깨우고 그를 쫓아냈다. 추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공모자들은 “추기경이 얼마 전에 거만한 상태로 기대어 위샤트의 순교를 바라보고 있던 같은 창문이나 흉벽의 같은 부분에 그의 시체를 노출시켰다.”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이 얼마나 대담한 예언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인가!”라고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위샤트의 예언의 말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그 불경건한 성직자에게 달려들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위샤트가 말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의 말이 사실로 증명된 것에 매우 감동하고 매우 경이로워하고 매우 몰입한다. 성경에 산재해 있는 **여호와의** 예언적인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경우들에 대해 우리가 매우 큰 충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중 왕하 10:30 과 왕하 15:12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위샤트의 정확성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여호와의 정확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주님의 위협이 그토록 정확하다면 그분의 약속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요 14:3(“우리의 거할 처소 마련”)과 벧후 3:1-13(“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II. 다가오는 심판의 징조들 (왕하 15:8-38 The Signals of the Coming Judgment)

열왕기하 15 장에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내적, 외적 징조가 모두 나와 있다. 우리는 내적 징조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소 지루할 정도로 세부적이긴 하지만 열왕기하 15 장의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는 것이다.⁵

열왕기하 15 장의 패턴/내용

유다: 아사랴/웃시아, 왕하 15:1-7

스가랴, 왕하 15:8-12

시기, 8 절

평가, 9 절

반역, 10 절

결론, 11 절

⁴ W. M. Hetherington, *History of the Church of Scotland* (Edinburgh: John Johnstone, 1841), 48-50.

⁵ B.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170-72 도 참조하라.

예언/성취, 12 절

살룸, 왕하 15:13-16

시기, 13 절

반역, 14 절

결론, 15 절

추가, 16 절

므나헬, 왕하 15:17-22

시기, 17 절

평가, 18 절

개입, 19-20 절

결론, 21-22 절

브가히아, 왕하 15:23-26

시기, 23 절

평가, 24 절

반역, 25 절

결론, 26 절

베가, 왕하 15:27-31

시기, 27 절

평가, 28 절

침략/망명, 29 절

반역, 30 절

결론, 31 절

유다: 요담, 왕하 15:32-38

앞서 언급했듯이, 열왕기하 15 장의 주된 관심은 유다의 두 왕의 통치(1-7 절, 32-38 절)에 의해 둘러싸인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다섯 왕(므나헬만이 "왕조"를 가짐)의 통치(8-31 절)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북왕국의 묘사에는 스가랴(10 절), 살룸(14 절), 브가히야(25 절), 베가(30 절)에 대한 반역이 눈에 띈다. 여기 북왕국의 세 왕은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다. 스가랴는 6 개월(8 절), 살룸은 1 개월(13 절), 브가히야는 2 년(23 절)이었다. 연대를 고려하면 우리가 다를 20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주전 753-732)에 다섯 명의 왕이 있었고 네 차례의 반역이 있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러한 몇 번이나 급격히 변동하는 정치적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호 7:5-7;

13:10-11 참조).⁶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질주하며 파멸로 치닫고 있었다. 시민의 안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딤후 2:1-2 참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자체적 혼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징조이다.

앗수르의 형태로 다가오는 여호와의 재앙에 대한 외적인 징조도 있다. 나는 므나헴 통치 기간(왕하 15:19-20) 동안 디글랏빌레셀 3 세의 출현이 침략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므나헴은 자기 왕좌 배후에 있는 앗수르의 힘을 빌리는 대가로 그에게 상당한 조공을 바쳤다.⁷ 그러나 은은 베가의 시대에 마법을 잃었다(왕하 15:29). 베가는 아람의 르신과 결탁하여 반앗수르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이며(참조, 왕하 16:5-9), 주전 733 년경 디글랏빌레셀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며 침공하여 북쪽 다섯 성읍을 점령했다(왕하 15:29a).⁸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길르앗과 갈릴리, 곧 납달리의 온 땅을 점령한(왕하 15:29b)” 것이었다. 그래서 앗수르는 요단강 동쪽과 갈릴리 바다 서쪽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배했고, 새로운 왕 호세아(왕하 15:30)는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영역에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디글랏빌레셀이 갈릴리와 길르앗의 주민들을 앗수르로 추방한 것이었다(왕하 15:29). “추방하다”라는 단순한 동사 뒤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다.⁹

⁶ 이 문제에 대해서는 Duane Garrett, *Hosea, Joel*,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7), 167-69, 260-61 을 참고하라.

⁷ 이에 대해서는 홉스(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198-200)의 논의를 참조하라. 홉스는 므나헴이 지불한 돈이 조공이 아니라 앗수르 용병을 고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이 공물이라고 생각한다. “갈림의 계산에 따르면 ... 한 달란트의 가치는 3,000 세겔이다. 1 인당 50 세겔의 비율로 계산하면, 은 1,000 달란트의 국가 세입을 올리는 데 60,000 명이 세금을 내야 한다(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526).”

⁸ 이온은 단에서 북-북서쪽으로 약 9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아벨벳 마아가는 단에서 서쪽으로 4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갈릴리 상부에 있는) 게데스는 갈릴리 바다에서 거의 북쪽으로 17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솔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10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야노아의 위치는 불확실하다. Carl G. Rasmussen, *Zondervan NIV Atlas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9), 99, 126, 132 을 참고하라. 이 성읍들은 주요 무역로 위에 또는 그 근처에 있었다.

⁹ 디글랏빌레셀 3 세의 추방 계획에는 새로운 반전이 있었다. “추방은 양방향 교환이 되었다. 그는 서부의 새로 조직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앗수르 본토로 인구를 이주시키고, 그 서부 지방에는 동쪽과 남쪽에서 데려온 사람들로 재정착하게 했다. 이 급진적인 인구 교환 절차는 뿌리 뽑힌 사람들을 중앙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강제로 합병하여 ‘그들이 앗수르인이 되도록’ 했다(Cogan and Tadmor, *II Kings*, 177).”

므나헴 시대에 앓수르의 존재와 압력(왕하 15:19)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베가 치하에서 일어난 침략과 추방(왕하 15:29)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재앙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었음을 보여준다. 호 13:10-11 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듀안 가렛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너의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전에 너는 "나에게 왕과 방백들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 너에게 왕을 줄 것이다.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 (왕을) 취할 것이다.

가렛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호와의 대답의 의미는 ... 아이러니하다. "내가 분노 가운데 너에게 왕을 줄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왕을 보내시겠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그들의 정복자로 올 앓수르의 통치자이다. "내가 진노 가운데 (왕을) 취할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임 군주를 그의 왕좌에서 제거하실 것이라는 뜻이다.¹⁰

그것은 열왕기하 15 장을 요약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디글랏빌레셀을 이스라엘의 "종주 왕"으로 주셨고, 베가를 쳐서 죽인 호세아의 손에는 베가의 피가 똑똑 떨어진다(왕하 15:30). 실제로 열왕기하 15 장에 나오는 모든 반역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에는 왕보다 암살자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어쨌든,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많은 내적 및 외적 징조들이 있다. 사실, 이러한 "징조들"은 그 심판의 일부인 것 같다.¹¹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가올 파멸의 이러한 예비적인 징조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버지니아주 찬슬러스빌, 1863 년 5 월 2 일. 북군의 일부가 남군 포로 몇 명을 사로잡았다. 그 중 한 명은 "잭슨이 오른쪽 [측면]을 돌 때까지 기다리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기로 일축되었다. 북군 초계병은 앞으로 나아갔고 많은 반군이 북군 우측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부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순회 정찰"이라고 부르며 무시했다.

¹⁰ Garrett, *Hosea, Joel*, 260-61.

¹¹ 유다에 대한 심판의 징조들도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라. 왕하 15:37 은 르신과 베가가 남쪽 왕국에 대항하는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시사한다.

북군 오른쪽에 엄청난 규모의 남군 보병이 있다는 다른 정찰 보고들이 들어왔지만, 고위 장교들은 이러한 보고들을 오만과 경멸로 일축했다. 그런 다음 일부 북군 병사들은 서쪽의 숲에서 사슴 때가 나와 동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마지막 징조였다. 스톤월 잭슨의 부대는 28,000 명의 병력을 가지고 너비가 1 마일이나 되고 깊이가 4 개 사단이 넘는 전열을 갖추어 공격하며 뚫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관목과 가시덤불을 뚫고 북군 우익을 강타했다. 반군의 무시무시한 함성과 더불어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잭슨의 병사들은 조 후커의 군대 오른쪽 측면을 초토화시켰다.¹²

그것은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고가 한결같이 무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온갖 종류의 재앙 “징조”가 있었지만, 중요한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사슴의 미친 돌진에 합류했다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분명한 징조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을 볼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었다. 나는 다시 독자들에게 암 4:6-12 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여기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깨우치사 그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예비적”이고 제한된 심판을 보내셨다. 그러나 “징조들”은 무시되었고 결국 재앙이 닥쳤다. 우리는 전에 국가와 관련하여 이것을 말한 적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만일 어떤 교단이 성경적 도덕 기준(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정죄)을 시인하기를 거부하며 모호하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기 백성을 교단의 권위를 따르도록 “넘겨주고 계시는” 징조가 아닌가? 교회가 사도신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목회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를 거부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방치하며 그들로 사역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공동체 위에 “이가뿔(삼상 4:21-22)”을 기록하셨다는 징조가 아닌가?

III. 원죄의 비극 (왕하 15:9, 18, 24, 28 The Tragedy of the Original Sin)

우리는 단 한 장[열왕기하 15 장] 안에서 다섯 명의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데 계속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신학적 평가 공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식은 네 번, 즉 스가랴(9 절), 므나헴(18 절), 브가히야(24 절), 베가(28 절)의 평가에 나온다. 이 공식은 살룸의 한 달 통치와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는다(참조, 13-15 절). 네 명의 왕들은 각각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이 공식에 언급된 여로보암은 우리가 바로 앞 장에서 다루었던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 세(왕하 14:23)가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 세(왕상 12:25-33)이다. 우리는 열왕기상하의 전반에 걸쳐 그의 이름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을 읽으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지배적이었는지 듣게 된다. 여로보암이 사악한

¹² Bruce Catton, *Glory Road* (Garden City, NY: Doubleday, 1952), 180-85.

금송아지 송배를 선동한 지 200 년(주전 931-732)이 지났지만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 독은 여전히 치명적이다. 이것은 북왕국의 “원죄”이자 고질적인 죄이다. 단 한 장에서 네 번이나 마주치는 것은 그러한 우상 송배가 가져오는 비극과 파멸에 대한 감각을 증가시킬 뿐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인들은 독일 전쟁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랑스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방해 공작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군은 생산을 분산시켰다. 한 공장에서는 트럭의 새시를 만들고 다른 공장에서는 엔진을 만드는 식이었다. 이제 프랑스 지하의 연구소는 연마제를 개발하여, 물론 이 트럭 공장들 중 한 곳의 지하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작업자는 베어링이나 다른 중요한 부분에 연마제를 칠할 수 있었다. 그러면 트럭은 조립 라인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것은 신비하게도 고장 나기 전에 60 마일을 잘 굴러 갈 수 있었다. 10 개월 동안 한 조립 공장에서 생산된 트럭의 90%가 이 이상한 문제를 일으켰다.¹³ 트럭의 60 마일과 이스라엘의 200 년 사이에는 분명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유사성이 있다. 트럭의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긴 마모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장이 설치한” 연마제에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의 파멸은 초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언약적 충성을 갇아먹는 왜곡된 금송아지 송배를 선동한 바로 그 처음부터 “설치되었다.”¹⁴ 여기 열왕기하 15 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 와 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교리에서든, 예배에서든, 생활에서든, 불충성이 얼마나 끈질긴 사후 생명력을 가지는가! 318 년에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된 존재이고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다고 크게 선전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도 같은 주장, 곧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할 수 없는 구세주를 전파한다.¹⁵ 그렇다면 기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자 개개인에게도 “네 자신(네 삶)과 네 가르침을 면밀히 살피는(딤후 4:16a; NIV: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훗날의 운명은 그것에 달려 있다.

¹³ *Secrets and Spies* (Pleasantville, NY: Reader's Digest, 1964), 131-32.

¹⁴ 이 점에 관해서는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First King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2), 164-66[= **열왕기상 주해**, 144-147(15 장 III. 역사에 지속되는 말씀의 저주)]에서 왕상 14:12-18 을 다룬 것을 참고하라.

¹⁵ See Roger E. Olson, *The Story of Christian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9), 137-72.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주 놀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3. 교회의 최근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징조들을 무시해버리는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 4 교회 역사에서 “나쁜 시작”이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는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21. 유다의 잔디는 더 푸른가? (왕하 16 장 Is the Grass Greener...?)

열왕기하 15 장은 북왕국이 정치적인 음부로 곤두박질치는 것을 묘사했지만, 이스라엘의 비극에 대한 그 설명은 안정감을 풍기는 유다의 두 왕(아사랴/웃시야와 요담)의 기사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로 이주한다면 어떠할까? 그곳의 잔디가 더 푸르른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보는 그런 급격한 파멸로 치닫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대답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아하스가 왕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지금까지 남왕국의 한 왕에게 한 장 전체가 할애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그 소식은 좋지 않다. 나는 이 장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련의 관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 여호와와 왕국에 점점 짙어지는 어두움 (왕하 16:1-4 The gathering darkness in Yahweh's kingdom)

여기서 연대 문제는 매우 까다로워진다. 맥폴은 아하스를 주전 735 년에서 715 년 사이로 두고 왕하 16:1-2a 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제 17 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공동 섭정이 되었다. 아하스는 20 세에 공동 섭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 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¹

그러나 연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유다의 등불이 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아하스에 대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왕하 16:2b).”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아하스는 이런 특이한 평가를 받는 유다의 유일한 왕이다. (유다 왕들의 경우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예: 왕하 15:3, 34]” 다윗과 같지 않거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단서 조항이 달린 식의 평가에 더 익숙하다.)² 더욱이 그는 그의 조상 여호람과 아하시야(왕하 8:18, 27)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왕하 16:3a).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하 15 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하며 “심지어[역자 주: 히브리어 브감; 개역개정 “또”는 추가의 의미이지만 영어 성경의 “even, 심지어”은 강조의 의미이므로 후자가 더 바른 번역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왕하 15:3b).”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성에 차지 않았고 이교도의 끔찍한 행위 곧 몰렉이나 어떤 종류의 바알에게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¹ Leslie McFall, “Has the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s finally been settled?,” *Themelios* 17/1 (Oct-Nov 1991): 9-10 을 보라. 그리고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276 도 참조하라.

² 여호람(8:18), 아하시야(8:27), 므낫세(21:2)와 같은 유다의 다른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표준 평가이다.

제사조차도 감행했다.³ 더 나아가 그는 “산당들과 작은 산들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왕하 16:4)” 드리는 성전 밖 예배에 참여했는데, 아마도 왕상 14:23 에 언급된 다산 의식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왕하 16:4 에 나오는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자바흐+카타르].”라는 동사는 “정직히 행한 왕들”의 치하에서(왕하 12:3[요아스]; 14:4[아마샤]; 15:4[아사랴]; 15:35[요담]) 보통 백성이 행한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왕하 16:4 에 사용된 동사는 단수형[바여자베아흐 바여카테르]으로 백성이 아니라 아하스 자신이 산당들과 작은 산들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왕하 16:3 은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한 후,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한 것이라고 덧붙인다.⁴ 여러분은 이 후반절이 주는 어두운 암시를 기억하는가? 이것은 약간의 풍자이다. 유다가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일에 동참한다면, 유다 역시 그들의 운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위협이 언약 국가인 유다에 적용된다고 해서 비언약 국가들(그들은 스스로를 “세속 국가”라고 부르기를 선호함)이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아모스 1-2 장 참조). 물론, 우리가 가증히 여겨야 할 것들은 종종 세속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산 의식이 아세라 예배당보다 대학 기숙사에서 더 자주 거행되고, 몰렉은 종교적 사당이 아니라 불임 진료소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우리 정부는 “부분 출산” 낙태의 공포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모여드는 어두움”은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국가 조찬 기도회를 조직하거나 의회에서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³ 참조, 렘 7:31; 19:5; 16:21.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해 John E. Hartley,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1992), 334-37, 그리고 R.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and 2 King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245-46, 그리고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277 을 보라.

⁴ [역자 주] 왕하 16:3 에 대하여 개역개정보다 새번역과 쉬운성경이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개역개정: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새번역: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1)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1) 또는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였다’

쉬운성경: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 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위한 로비 활동을 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II. 여호와와 봉신의 수치스러운 의존 (왕하 16:5-9 The shameful recourse of Yahweh's vassal)

때는 주전 734 년이었고 아하스 왕이 외교 정책 고문들과 의논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회의실 밖은 태양이 비치지 않았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아하스를 “능히 이길 수” 없었다(왕하 16:5). 그러나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더 나빴다. 우리가 역대하 28 장의 자료를 참조하면, 유다는 그저 붕괴되고 있었다. 남동쪽으로는 **에돔** 족속이 침략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평지와 성읍들을 점령했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혔고 이제 예루살렘 자체를 에워싸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 회의실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 누를 단추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공황 단추는 여전히 존재했고 아하스의 손가락은 그 위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람과 이스라엘(“아람-에브라임 동맹”)이 아하스와 유다가 반 앓수르 연맹에 합류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하스가 거절하므로 그들은 아하스를 타도하고 그의 자리에 그들 자신의 허수아비를 세우려고 공격에 나섰다(사 7:5-6).

그리고 나쁜 경제 소식도 있었다. 아람왕 르신이 (왕하 14:22 에 의하면 아사랴에 의해 유다로 회복되었던) 엘랏 항구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그곳의 유다 사람들을 몰아낸 후 에돔 사람들이⁵ 다시 정착하도록 그것을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왕하 16:6). (홍해의 아카바 만에 있는) 엘랏은 두 개의 중요한 육로(그 중 하나는 요단강 동편[트랜스조든]을 거쳐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킹스 하이웨이[King's Highway])의 종점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아라비아, 아프리카, 심지어 인도까지 연결되는 항구였다.⁶

아하스는 큰 곤경에 빠져 앓수르에 도움을 청한다(왕하 16:7-8). 그는 언약의 신자가 아니라 영리한 정치인으로 행동한다. 아하스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며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왕하 16:7a).”라고 말한다. 나의 오래된 연구 성경(Study Bible)에는 사무엘하 7:14 에 대해 다윗 계보의 왕이 여호와와 “아들”이 될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⁵ 왕하 16:6 은 까다롭다. 이 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아람 사람(크티브 וְאַרְמִים)”에 대하여 나는 맛소라 본문의 여백에 나오는 주의 독법을 따라 “에돔 사람들(크레 וְאֶדְוִים)”로 읽는다. [역자 주: 개역개정/새번역/쉬운성경/NASB 는 “아람 사람들”로 읽지만, 공동번역/우리말성경/NIV/ESV 는 “에돔 사람들”로 읽는다.]

⁶ 참조, 왕상 9:26-27, 그리고 Jeffrey R. Zorn, “Elath,” ABD, 2:429.

아하스는 다윗 언약을 부인하면서 디글랏빌레셀의 호의를 구한다.⁷ 그는 앓수르 사람들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청하건대 올라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왕하 16:7b).” 그리고 정치에서 늘 그렇듯이 후한 뇌물(8 절)은 구원을 산다(왕하 16:9).⁸ 그것은 노골적인 불신앙이었지만 그것은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그는 다윗 언약을 부인해버렸지만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아하스는 자신의 태도를 (Gordon/Caritas 의 “My Jesus, I Love Thee”라는 곡조에 맞춘) 가사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⁹

나의 디글랏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는 여호와의 약속을 모래에 불과한 것으로 여깁니다.
 강력한 압제자시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친애하는 디글랏이시여,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유다 왕의 “믿음”이다.

아하스는 인간의 독창성의 길을 걷는다. 그것은 **왕족의** 독창성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간의** 독창성이다. 이 생각은 스스로에게 “나의 문제들은 너무 복잡해서 여호와의 보장에 의지할 수

⁷ Walter Brueggemann, *1 & 2 King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2000), 468 을 참조하라.

⁸ 정복자에 의한 것이든 재임 군주에 의한 것이든, 성전 보물의 약탈에 관해서는 위의 19 장에 나오는 왕하 14:13-14 에 대한 나의 논의를 보라. [쇼하드]를 “뇌물”로 번역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First King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2), 175-77[=**열왕기상 주해**, 155-156(III. 나타날 수 있는 소망)]을 보라. 넬슨(Richar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225)은 [쇼하드]가 “예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뇌물”이란 번역은 변호할 수 없는 지나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쇼하드]의 일관된 용법을 확인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ohlenberger and Swanson, *The Hebrew English Concordance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1556 을 참조하라.

⁹ 역자 주: 이 찬송은 통일 찬송가 315 장(**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이다. 1 절 영어 가사와 데이비스의 가사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라.

William R. Featherston	Dale Ralph Davis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loved thee, my Jesus, 'tis now.	My Tig, I bribe thee, you know I'm your man; for thee Yahweh's promises I view as mere sand. You mighty oppresso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needed you, dear Tiglath, 'tis now.

없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하고 매우 분명한 방법을 본다.”라고 말한다. 여호와와는 너무나 멀고 비효율적인 도움인 것 같다. 나는 아하스가 H. G. 웰스가 레베카 웨스트를 썼을 때와 같은 심정을 가졌을 것으로 가정한다.

어쨌든, 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종교에 의지할 수 없다. 신은 허벅지도 없고 생명도 없다. 밤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몸을 돌려 “무슨 일이야?”라고 묻지 않는다.¹⁰

아하스와 웰스는 각각 하늘의 도움보다 더 “가시적인” 도움을 갈망했다.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선택은 실용주의와 약속 사이에 놓여 있다.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다[사 7:3-9].) 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릴 것인가? 나는 즉각적인 해결책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복종할 것인가? 여기 갈등을 겪으며 결혼 생활에 실망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 그는 아내에게 솔직하고 은혜롭게 자신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려고 애쓰며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필요하면 목회자 및/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축된 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난 여성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는 구실로 그녀와 혼외 정사를 하며 위안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아하스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마 7:11 참조).”가 아니라 “내 지혜가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쉽다.

III. 여호와 숭배의 의심스러운 혁신 (왕하 16:10-18 The dubious innovation in Yahweh's worship)

왕하 16:10-18 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는(벧후 3:16) 바울의 편지처럼 어렵다. 아마도 그것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을 추적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일 것이다.

새로운 제단: 10-11 절

새로운 배치: 12-14 절

새로운 규정: 15-16 절

새로운 근거: 17-18 절

서준량(蕭俊良, Choon-Leong Seow)은 “아하스가 성전에 새로 도입한 것은 어떤 신학적 평가도

¹⁰ Michael Coren, *The Invisible Man: The Life and Liberties of H. G. Wells* (New York: Atheneum, 1993), 116.

없이 넘어간다.”라고 주장한다.¹¹ 글썄, 명백한 진술만을 찾는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신학적인 평가를 듣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

우리는 이 새로운 제단(왕하 16:10-11)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때 그것은 앗수르의 제단일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아하스가 앗수르에 대한 복종의 대가로 앗수르와 그 신들에 대한 경의를 반영하는 변화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되었다.¹² 그러나 좀더 최근의 견해는 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우선, 앗수르는 속주들에서 했던 것처럼 (유다와 같은) 준독립 속국에 종교적 강요를 부과하지 않았다. 더욱이 앗수르의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니라 (“신들의 식사”를 위해 음식이 차려진) 식탁 제단이었던 것 같다.¹³ 분명히, 아하스의 새 제단은 제사를 위한 제단이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아하스가 다메섹 제단에 매혹되었음을 나타낸다.

성경 본문은 이 후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왕하 16:10 은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에게 절하러 갔을 때, “그가 다메섹에 있던 제단을 보았다.”라고 말한다. 앗수르가 압력을 가했다는 징후는 없다. 아하스는 혼자서 이 다메섹 제단을 좋아했던 것 같다. 확실히 우리는 지금까지 아하스에 대해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그가 비정상적인 종교적 관습을 “실행”하는 데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왕하 16:1-4). 더욱이 대하 28:22-23 은 아하스가 이전에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음을 보여준다(참조, 대하 25:14-16 의 아마샤가 가져와 섬긴 세일 자손의 신들). 그래서 아하스에게 앗수르는 그의 구원이 되었지만 아람은 그의 예배자가 되었다.¹⁴

왕하 16:12-14 에도 아하스에 대한 빈정거림이 있다. 이 부분은 아하스를 유다의 여로보암으로

¹¹ Choon-Leong Seow,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Kings,” *The New Interpreter's Bible*, 12 vols. (Nashville: Abingdon, 1999), 3:251.

¹² *The New Bible Commentary*의 제 2 판(1954 년)과 제 3 판(1970 년)을 보라. 제 2 판 326 쪽에는 지지의 근거로 A. T. 올름스테드(A. T. Olmstead)의 “새로 조직화된 속주들에서처럼 다메섹에도 앗수르와 그 왕의 숭배가 세워졌다. 속국의 통치자들은 이 모범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¹³ 이 논쟁에 관해서는 M. Cogan, *Imperialism and Religion: Assyria, Judah and Israel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ies B.C.E.* (Missoula, MT: Scholars, 1974), 42-96, 그리고 John McKay, *Religion in Judah under the Assyrians* (London: SCM, 1973), 5-12 을 보라.

¹⁴ 아하스는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 북쪽으로 옮기게 했다(왕하 16:14). 왕하 16:15 의 마지막 부분 לְבַקֵּר לַיהוָה בְּהַזְבֵּחַ הַבְּרֹזֶטֶת[우미즈바흐 하느호세트 이흐에-리 르바케르]는 아하스가 이 오래 된 놋제단을 여호와와의 인도를 구하는 데 사용할 것(예: NIV: But I will use the bronze altar for seeking guidance.)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하스가 이 제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NJPS: And I will decide what is to be done with this altar)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빛대고 있다. 왕하 16:12 은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왔고 왕이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갔고 왕이 그 제단에 올라갔다.”라는 번역에서 보는 것처럼 세 번이나 명시적으로 “왕”을 언급한다.¹⁵ 룡은 아하스가 “다윗과 솔로몬처럼(삼하 6:17-18; 왕상 8:63 참조), 혹은 [신명기 사가의 부정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여로보암처럼(왕상 12:32-33), 왕 같은 제사장, 곧 국교의 수장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나는 저자가 아하스를 단지 여로보암의 형상을 따라서 묘사했다고 생각한다.¹⁷ 아하스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제단에 올라갔다(왕하 16:12).” 여기 “그 제단에 올라갔다[브야알 알-하미즈베아흐].”라는 표현은 여로보암이 한 행동을 묘사하는 왕상 12:32-33 에서 세 번이나 동일하게 사용되었다.¹⁸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숭배의 선구자인 “여로보암”이 지금 유다에 있다. 이것은 저자가 아하스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이며(왕하 17:21-23), 여로보암의 복사품인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때 파멸보다 더 좋은 것이 유다에게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왕하 16:13 은 아마도 새 제단을 봉헌할 때 아하스 자신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의도되었을 것이다. 여로보암과의 연관성을 보면, 여러분은 저자가 아하스의 혁신을 객관적이고 초연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¹⁵ [역자 주]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왕”을 세 번 명시적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은 없다. ESV 와 NASB 는 세 번 “the king”을 사용하고 있다. Cf. ESV: “And when **the king** came from Damascus, **the king** viewed the altar. Then **the king** drew near to the altar and went up on it.”

¹⁶ Burke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177.

¹⁷ 다윗과 솔로몬이 준제사장적(quasi-priestly)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본문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제사를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솔로몬이 열왕기상 8:63 에 언급된 수많은 희생 제물을 손수 바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

¹⁸ [역자 주] NASB 는 [브야알 알-하미즈베아흐]에 대하여 일관되게 “He went up to the altar.”이라고 번역한다. “Jeroboam also instituted a feast in the eighth month on the fifteenth day of the month, like the feast that is in Judah, and **he went up to the altar**. So he did in Bethel, sacrificing to the calves which he had made. And he stationed in Bethel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which he had made. Then **he went up to the altar** which he had made in Bethel on the fifteenth day in the eighth month, the month that he had devised in his own heart; and he instituted a feast for the sons of Israel and **went up to the altar** to burn incense.”

왕하 16:17-18 은 아하스의 혁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주지만, 본문상의 어려움과 어떻게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표준역(ESV)의 번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어표준역은 특히 왕하 16:18 에서 주어진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다.

(ESV, 왕하 16:17-18) 17 아하스 왕은 물두멍을 그 받침대와 분리하여 물두멍을 떼어 냈고
놋황소들이 받치고 있던 놋바다를 떼어 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다. 18 그는 앗수르 왕
때문에 전 안에 만들어 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만든 왕의 전용
출입구를 없애 버렸다.

왕하 16:17 은 왕상 7:27 이하에 나오는 열 개의 물두멍 받침대를 가리키는 것 같다.¹⁹ 아하스는 받침대를 자르고 물두멍을 떼어 낸 것 같다. 그는 또한 그때까지 놋황소 열두 마리가 받치고 있던 거대한 놋바다(왕상 7:23-26)를 놋황소들로부터 떼어 낸 것 같다. 그런데 NJPS 는 “앗수르 왕 때문에”라는 왕하 16:18 의 마지막 어구를 왕하 16:17 바로 뒤에 놓으며 그것이 18 절이 아니라 17 절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NJPS 는 왕하 16:17 에서 아하스가 놋 물두멍들과 놋 바다를 떼어 낸 것은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칠(왕하 16:8 참조) 놋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왕하 16:7-8 의 뇌물에는 놋이 없고 은과 금만 있다.²⁰ 이것이 조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중에 바친 조공을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리 없는 것은 훨씬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약탈할 때 놋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열두 놋 황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렘 52:20 참조).²¹

사실 “앗수르 왕 때문에”라는 말은 왕하 16:18 의 끝에 나온다. 그렇다면 이 어구가 18 절에 언급된 항목들만 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²² 왕하 16:18 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수수께끼이다. “안식일 전용도로(안식일을 위한 가려진 길)”는 무엇이었는가? “전 안에 만들어 둔”에서 “전”은 성전인가 아니면 궁전인가? 결론은

¹⁹ 이것에 대해서는 나의 책 *Wisdom and Folly*, 76[= **열왕기상 주해**, 62-63(7 장 III. 세부사항의 즐거움)]을 보라.

²⁰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246.

²¹ 홀러데이(Holladay)처럼 렘 53:20 에서 황소가 언급된 절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

²² 사실, 히브리어 구문은 왕하 16:18 에서 바뀌며 직접 목적어들이 문의 첫 번째 자리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18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는 “그러나”를 뜻하는 역접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은 오히려 18 절을 그 자체로 시작하게 하고 “앗수르 왕 때문에”라는 어구는 18 절에 나오는 항목에만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아하스가 앓수르의 봉신이 되어 건설 인부들에게 왕의 특권을 상실한 것을 반영하는 건축 변경 작업을 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²³

이 모든 것은 왕하 16:17의 변화가 자국의 필요성이나 앓수르의 요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하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의미한다.

여행이 아하스의 마음을 넓혀주었을 뿐이다. 그는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 아하스는 그의 종교 정책에서 외국의 영향력에 개방적인 왕으로 제시된다(왕하 16:2-4에서와 같이). 그는 외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다. 이전에 어떤 유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솔로몬 성전을 그런 식으로 재설계하기로 결정한 적은 결코 없었다.²⁴

우리는 아하스의 “새로운 조치”에 대한 이 기록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이끌어 내야 하는가? 첫째, **왕의 혁신은 정통 예배의 결핍을 암시한다.** 아하스는 성전 숭배가 개선될 수 있고, 뭔가 부족하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다메섹의 참신함은 예루살렘 숭배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아하스 자신이 제사장 자격으로 그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보충하거나 “풍요롭게”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내가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대할 때, 나는 여성들(미혼, 기혼 및/또는 어머니)이 종종 그들이 무엇을 가져오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을 보았다. 대답은 다양하다. “아니, 그냥 오세요.”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경우에는 아내 바바라가 제안을 수락하고 누군가에게 야채나 샐러드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어떤 여성이 자신에게 할당된 야채 요리와 함께 돼지고기 등심을 한 가득 들고 와서 “당신이 치킨 엔칠라다를 제공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돼지고기 등심을 가져왔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그녀는 내 아내의 계획과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둘째, 그녀는 결코 다시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현재 교회가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속죄(희생)에 기초한 기도와 찬양이란 구약의 유다의 예배와 동일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양성을 가질 수 없거나 필연적으로 지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²⁵ 그러나 우리는

²³ 왕하 16:18에 일어난 변화조차도 앓수르에 의해 강요되었던 것이 아닐 수 있다. 아하스는 앓수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도 모를 어떤 것이라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프로반).

²⁴ Provan, *1 and 2 Kings*, 246.

²⁵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는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결코 똑같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어 있다.

왜 인터뷰나 재미있는 공연으로 예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예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광고(또는 최고의 완곡어법으로 "사역의 기회")라고 불리는 수많은 상업적인 것으로 예배를 어지럽히는가? 교회가 십자가와 성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아하스만이 아니다.

둘째, **악은 사악함만큼이나 나약함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왕하 16:10-11, 15-16).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저자가 묘사하는 제사장 우리야(Uriah or Urijah)에 대한 특별한 관점에 달려 있다. "제사장 우리야"는 다섯 번 언급된다(왕하 16:10, 11[2 번], 15, 16). 그는 아하스 왕이 하라고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한다(왕하 16:11, 16). 그는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우리야는 아하스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야에 대한 부정적인 기색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 8:1-2 을 인용하며 그가 "이사야의 지지자"였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야 8 장은 우리야가 이사야의 지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야가 큰 서판에 쓴 이사야의 예언을 입증하기 위해 "믿을 만한 증인"으로 사용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문서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천적인 예스맨이 될 수 있다.²⁶ 분명히 우리야가 아하스의 전례상의 부패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그는 잃을 것이 많았다. 우리 중 일부는 그것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우리 중 일부는 성경이나 정통 교리에 얽매이기를 거부하는 교단과 계속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이나 의료 보험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보안이 그 명치에 펀치를 맞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야식 화평의 길은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악에 동조할 뿐이다. 종종 우리의 부름은 협력보다는 갈등에 대한 것이다.

벤자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는 프린스턴 거리에서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의 부인인 스티븐슨 여사를 우연히 만났다. 스티븐슨 여사는 다가오는 장로교 총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격한 설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워필드 박사님, 총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화평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간청했다. 이에 워필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전투가 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²⁷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다툼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짓대

²⁶ 참조, Geoffrey Grogan, "Isaiah,"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6), 6:67: "제사장 우리야는 아마도 왕의 동맹자이자 왕하 16:11 에 언급된 배교의 도구일 것이다. '믿을 만한 증인들'은 그들의 성격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저명 인사들로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설명만 필요할 뿐이다."

²⁷ Stanley W. Bamberg, "Our Image of Warfield Must Go,"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4 (1991): 235-36.

없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IV. 여호와와 종들을 위한 작은 소망 (왕하 16:19-20 The slight hope for Yahweh's servants)

안타깝게도 아하스에 관한 가장 좋은 소식은 왕하 16:20a 에 나오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분명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열왕기하 16 장의 마지막 줄, 곧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진술에 소망의 빛이 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 장에 가서야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시대가 종교 개혁과 국가적 구원의 시기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절정이 아니지만, 아하스 치하의 강력한 악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며 어느 정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기로 판명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곧 자기 백성에게 “숨을 고르게”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보통 우리에게 아하스 위에 아하스를 주지 않으시는 것은 얼마나 자비로운 일인가!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에 얼마나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러한 히스기야 시대는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은혜로운 공급이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윌리엄 카우퍼(William Cowper)는 (부분적으로 합 3:16-19 에 근거한) 그의 찬송가에서 이 진리를 훌륭하게 포착하고 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노래하는 동안 빛이 그를 놀라게 한다.

그의 날개에 치유를 달고 일어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위로가 줄어들 때, 그분은 비가 내린 후 응원하기 위해

그의 영혼에 맑은 빛의 계절을 다시 허락하신다.

누가 이보다 더 잘 말할 수 있겠는가?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몰아치는 불순종의 폭풍은 대개 어디에서 끝나는가?
2.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혜와 해결책에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예배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신자들이 순종하기보다는 불만을 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더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마지막 시기의 하나님 (왕하 17:1-23 God of the Last Days)

우리가 메릴랜드에 살 때 나는 종종 볼티모어-워싱턴 지역의 혼잡한 순환도로에서 운전해야 했다. 워싱턴 D.C. 주변의 순환도로를 달리다 보면 사람들은 올라오거나 커브를 돌면서 앞쪽으로 거대한 몰몬 신전이 보이는 한 지점에 도달한다. 그것은 스카이라인을 지배했고 고속도로가 구부러지고 교통량이 그것에서 방향을 바꿀 때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위치에 있었다. 그 기념비 곳곳에 전략적 가시성이 흩어져 있었다. 그 신전은 모든 운전자를 조롱하며 “당신은 나를 피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시각적 지배의 한 부분이었다.

왕하 17:1-6 이 약간 그런 식이다. 그것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것들이 저자가 우리에게 느끼기를 바라는 지배적인 존재감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저자는 이 단락에서 “앗수르 왕”을 여섯 번이나 언급한다. 그는 풍경과 지평선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앗수르 왕이 그 장면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그늘에서 얼마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 앗수르의 바이스(짐틀)에 잡힐 것이다. 앗수르 왕에 대한 저자의 집착은 열왕기상 17 장의 분위기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의 방법이다.

살펴볼 문제들이 있다. 왕하 17:1 에 의하면 호세아의 통치는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 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하스가 주전 743 년에 그의 아버지 요담을 대신하여 섭정했는데, 왕하 17:1 이 아하스의 섭정의 시작으로부터 계산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¹ 어쨌든, 주전 732/1-722 년이 호세아의 통치 기간으로 확실해 보인다. 이 통치 기간 동안 살만에셀 5 세(주전 727-722)가 호세아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는 앗수르 왕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왕하 17:3). 무슨 정신 나간 이유에서든지 호세아가 애굽과 공모하며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왕하 17:4).

호세아는 애굽의 왕 소(So)와 공모에 들어갔다(왕하 17:4a). 그런데 소는 어떤가? 우리는 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별로 많지 않음을 고백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예: 코건과 태드모어)은 소가 장소 이름인 사이스(Sais)이고, 그곳의 통치자 테프나흐트(Tefnakht)가 호세아가 의지했던 왕이라고 제안한다. 다른 사람들(예: 키친)은 소를 오소르콘(Osorkon) 4 세의 약자로 간주한다.

¹ J. N. Oswalt, “Chronology of the OT,” ISBE, 1:683-84 에 나오는 논의를 보라. 왕하 17:1 에 대한 최근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Rodger C. Young, “When Was Samaria Captured? The Need for Precision in Biblical Chronologie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7/4 (2004): 589-92 을 보라.

아니면 소는 누비아의 피안히(Piankhy)인가?² 현재 우리는 소의 정체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다. 이것은 호세아에게도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앗수르의 학살자에 의해 옥에 감금되었고(왕하 17:4b),³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3년 후에 점령당했고, 그곳 백성이 추방당했기 때문이다.⁴

역사적인 난제가 하나 더 있다. 왕하 17:5-6에 나오는 앗수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살만에셀 5세는 사마리아를 포위했지만(왕하 17:5), 그는 사마리아가 마침내 함락된 주전 722년경에 죽었다. 사르곤 2세가 그의 비문들에서 자신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2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추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⁵ 어떤 사람들은 살만에셀이 죽은 후 사르곤이 사마리아 정복을 완수했음이 틀림없으며, 왕하 17:6은 사르곤이 했던 일을 묘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살만에셀 5세가 실제로 사마리아를 점령했고(왕하 17:5-6a) 사르곤 2세가 주전 720년에 사마리아를 다시 점령한 것처럼 보인다. 아마 사르곤이 이스라엘을 추방시킨 왕이었을 것이다(왕하 17:6b). 사르곤이 주전 716년경까지 “메대의 마을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추방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어났음에 틀림없다.⁶

열왕기하 17장은 길고 복잡한 장이기 때문에, 강해로 나아가기 전에 독자들에게 그 개요를

² 명확한 요약은 위해 J. K. Hoffmeier, “So,” ISBE, 4:558을 보라. 그리고 E. S. Meltzer, ABD, 6:76도 참고하라. 소(So) = 피안히(Piankhy)에 대해서는 A. R. W. Green, “The Identity of King So of Egypt—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2/2 (1993): 99-108에 나오는 명쾌한 주장을 보라.

³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하 17장의 4b절과 5-6절을 연대순으로 읽으며 호세아가 잡혀서 투옥된 후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병행으로 읽으며 4절은 호세아의 운명을 전하고 5-6절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전하는 것으로 본다. 후자의 입장을 위해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411-12을 보라.

⁴ 그들은 북동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추방되었다. 할라는 니느웨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었다. 고산강은 유브라데강의 지류인 하볼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역들은 앗수르 본토 안에 있는 반면, 메대의 마을들은 동쪽으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국경/변경 마을”이었다. *The Macmillan Bible Atla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93), 115을 보라.

⁵ (D. J. Wiseman에 의해 번역된) D. Winton Thomas, ed., *Documents from Old Testament Times*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58), 58-63을 보라.

⁶ K. Lawson Younger, Jr., “Recent Study on Sargon II, King of Assyria: Implications for Biblical Studies,” in *Mesopotamia and the Bible*, ed. Mark W. Chavalas and K. Lawson Younger, Jr. (Grand Rapids: Baker, 2002), 288-301에 나오는 논의를 보라. 그리고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197도 보라.

제공하려고 한다.⁷

열왕기하 17장의 흐름

- (1) 사건: 심판의 도래, 왕하 17:1-6
- (2) 반성: 구속사의 중단, 왕하 17:7-17
- (3) 비극: 전염성이 강한 배교, 왕하 17:18-23
- (4) 아이러니: 새로운 혼합주의, 왕하 17:24-41

그러나 이번 강해에서 우리는 왕하 17:1-23 만을 다룰 것이다.

나는 최근에 월터 카이저의 논의를 읽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구절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⁸ 나는 우리가 왕하 17:7-23 에 이렇게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다[카아스]”라는 언급이 한 부분의 끝 가까이(왕하 17:11b)와 다른 한 부분의 끝(왕하 17:17b)에 나오는 것에 유의하여 7-12 절, 13-17 절, 18-23 절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분은 각각 뚜렷한 신학적 확언으로 시작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왕하 17:7), 여호와께서는 자기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고(왕하 17:13),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앞에서 제거하실 만큼 심히 노하셨다(왕하 17:18). 이제 강해로 나아가자.

I. 구원하시는 하나님 (왕하 17:7-12 The God who redeems)

왕하 17:7 은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추방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배은망덕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왕하 17:7a).”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해방시키신 주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듯이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왕하 17:7b).” 그래서 놀라운 은혜는 엄청난 배신에 직면한다.

왕하 17:7-12 은 사사기와 지금까지의 열왕기의 요약처럼 보인다. 두 가지 주안점,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들이 따르는 표준이 두드러진다. 그들은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운다. 망대는 광야의 양떼를 보호하거나(대하 26:10) 침략을 감지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⁹ 이스라엘은 배역한 후 매우 열정적으로 가장

⁷ 열왕기하 17 장의 문학적 구조에 대하여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229 도 참고하라.

⁸ Walter C. Kaiser, Jr., *Preaching and Teaching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3), 57.

⁹ Cogan and Tadmor, *II Kings*, 217 을 참조하라.

외지고 밀도가 희박한 곳에서부터 주요 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산당으로 채운다.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왕하 17:10).” “그들은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였다(왕하 17:11).” 왕하 17:10-11 의 이러한 묘사에 “모든[콜]”이 세 번이나 나온다. 여기 가짜 숭배를 위해 열광하는 한 백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요약은 또한 그들이 따랐던 표준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였다(왕하 17:8a).”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였다(왕하 17:11a).” 확실히,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교류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 7:1-5 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예배에 대한 호기심을 품어서는 안 되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밝히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그들은 구별되고, 다르고, 독특하고, 특이하고, 평범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명을 따라 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들은 열방에 순응하고, 열방을 모방하고, 열방과 혼합하는 데 분주했다.

디에트 에만은 독일 점령 이전의 네덜란드 생활에 대해 말한다. 그녀의 가족은 교회에서 다른 가족과 꽤 가까웠다. 그 가족의 두 소녀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였다. 디에트의 가족은 전쟁 전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 네덜란드 군인들을 자주 초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기고 옆에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의 가족은 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런 다음 나치의 점령이 시작되었다. 어느 일요일 디에트는 그녀 친구들의 집에 들어가 피아노 위에 걸려있는 히틀러의 초상화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다. 게다가 그날 밤 독일 병사들은 그곳에서 즐겁게 놀았다.¹⁰ (네덜란드 저항 세력을 위해 일하곤 했던) 디에트 에만은 이 가족이 점령 세력을 받아들이고 연합하기를 그토록 열망했다면 그들이 그들의 “네덜란드인임”을 잊어버렸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열방의 “틀 속으로 자신을 압착하는(참조, 필립스의 롬 12:2 의 번역, to squeeze oneself into the mold)” 것이 이스라엘의 표준이고 열정이었다(왕하 17:8, 11).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열방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이 그 뿌리에 있어서 은혜의 거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왕하 17:7 은 이 부분에서 일종의 본문 장악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은혜(“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¹⁰ Diet Eman with J. Schaap, *Things We Couldn't Say* (Grand Rapids: Eerdmans, 1994), 41-42.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배교(“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자손”)를 나란히 두며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놀라운 은혜는 지속적인 감사와 만났어야 했다.

지그문트 웰틀링거는 감사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베를린 판코우 지역에 있는 뢰링 가족에 의해 받아들여져 두 개의 방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웰틀링거 부부는 나치 마을에 숨어있는 유대인이었다. 1945년 봄 러시아군은 판코우에 입성했다. 이 아파트에 들어간 러시아 장교 한 명은 웰틀링거 부부에게 러시아인들이 잘해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파트 전체가 수색되었을 때 6개의 권총과 함께 버려진 몇몇 유니폼이 발견되었다. 주택 단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모이라는 명령을 받고 벽에 기대어 서서 정렬했다. 사태가 처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그문트 웰틀링거가 뢰링 가족과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주민들 중 많은 사람이 그를 나치로 돌려보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와 러시아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 집에서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들을 해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무기들은 주민 폭동의 과정에서 버려진 것입니다.” 그의 진술은 모든 주민들의 생명을 구했다. 웰틀링거는 그 사람들이 그후 그와 그의 아내에게 매우 친절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빈 아파트와 음식과 옷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거리를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러시아인들은 나치 친위대의 공격으로 그 지역에서 쫓겨났고, 웰틀링거가 전날 구해 주었던 주민들은 갑자기 다시 적대감을 드러냈다! 웰틀링거는 그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¹¹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로질러 써야 할 단어이다. 감사는 사라진다. 구원은 반역만 만난다. 이것이 교회가 성찬식을 (바라는 만큼) 매우 자주 거행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친애하는 친구여, 이것, 곧 당신이 죽으며 겪은 슬픔과
당신님의 끝없는 동정에 대하여
당신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는 무슨 말을 빌려야 하는가?

은혜가 우리를 감사의 끈으로 묶을 때 “열방”은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

¹¹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462-63.

II. 경고하시는 하나님 (왕하 17:13-17 The God who warns)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진상을 알게 하신다. 이와 달리 생각하며 우리는 왕하 17:7b-12 이후에 유황불의 냄새를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¹²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다(왕하 17:13a).” 그분은 자기 백성이 그분의 율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여기에 여호와의 인내, 여호와의 자제가 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경고는 “광야” [시대와 같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였다(왕하 17:14).” “곧은 목”은 아마도 몸을 굽혀 멩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외양간 동물을 다루는 농부의 어려움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았다(출 32:9; 33:3, 5; 34:9; 신 9:6, 13; 10:16). 그리고 이런 저항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왕하 17:14b). 내가 이것을 “광야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은 왕하 17:14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민 14:11; 참조, 신 1:32; 9:23; 시 78:32; 106:24)?” 믿음이 없는 곳에는 순종과 복종을 통한 믿음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불신이 있는 곳에서 듣지 않는 귀, 곧은 목, 반역적 마음의 무더기 외에 무엇을 보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왕하 17:15-17 을 보고 놀랄 리 없다. 그것들은 슬프지만 놀라게 하지는 않는다. 찬찬히 왕하 17:15-17 을 죽 읽어보라. 각 주요 절이 이 대량의 배교에 더하는 가중치를 느껴보라. 이 세 구절에 나오는 열 개의 주요 절은 200 년 이상의 불신앙을 요약하며 독자를 그 부하에 놀리게 한다.

“그들은 여호와와 율레와 여호와와 언약과 여호와와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그들은 헛된 것(우상)을 따랐고 ...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버렸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들은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겼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¹² 여기에 “유다”가 포함된 것에 유의하라. 초점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유다도 배교에 낚선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그들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러한 묘사에서 한 두 항목을 설명하려고 한다. 왕하 17:15b 에 나오는 “그들이 허무한 것을 뒤따르다가 허망하게 되었다.”라는 진술에 유의하라. 어근 [하발]에 대한 언어 유희가 있다. 이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 [헤벨]은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헛된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헤벨]은 거짓 신들의 본질, 즉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제로[무, 영]이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신들의 “무가치함”은 단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슬픈 변화가 있다. “그들은 헛된 것[헤벨]을 따르다가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바예흐발루].”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과 같아진다. 몇 년 전 크레덴다 아젠다 잡지에 네 살 난 북 웨일즈 소녀의 얼굴이 주황색으로 변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가 매일 1.5 리터의 썬니 딜라이트를 섭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사람들을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양을 먹어 치울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 어린 소녀는 여기 헤벨과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즉 그녀는 그녀가 마신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예배가 이발하는 것이나 녹색 양말을 신는 것과 다른 이유이다. 예배는 **여러분**을 정말로 변화시킨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혹은 숭배하는 분—과 같이 될 것이다.

왕하 17:17 에 나오는 “그들이 자신을 팔아(개역개정: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다.”라는 마지막 절에도 유의하라. 우리는 때때로 특정 이익을 위해 원칙을 “팔아 넘기는/버리는” 정치인에 대해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표현은 왕상 21:20, 25 에서 이미 아합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왕상 21:25 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 왕하 17:17 에서 이 표현은 백성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온 이스라엘이 “아합이 되어가며” 자신을 악의 세력과 통제에 팔아 넘김으로써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여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묘사하는 본문은 배교에 대한 장황한 설명(왕하 17:15-17)이 하나님의 계시(왕하 17:13)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여기에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자기 백성이 그들의 가짜 신들에 대한 애정 행각에서 떠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¹³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여호와의 경고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¹³ 나의 책 *Judges: Such a Great Salvation*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91-93[= **사사기 주해**, 68-69(8 장 1.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에 나오는 샷 6:7-10 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라.

옛날의 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히 12:25)?”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복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히브리서의 문맥에서 “그를 배반하는 것”은 자신의 피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는 것이다.

III. 심판하시는 하나님 (왕하 17:18-23 The God who judges)

이 부분은 여호와의 분노로 시작하여(왕하 17:18)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추방된 곳인 앗수르 땅으로 끝난다(왕하 17:23). 이 부분의 주요 논지를 강조하기 전에 암시적인 두 가지 항목을 언급하려고 한다.

저자는 여호와의 심판의 **범위**를 암시한다. 그는 왕하 17:18 의 끝에서 이스라엘이 제거되고 유다 지파만 남았다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한 후 저자는 왕하 17:19 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라는 짧고 슬픈 삽입절을 추가한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보고하면서도 이 “비통한” 삽입절을 통해 똑같은 일이 유다에게도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¹⁴

왕하 17:21-22 은 여호와의 심판의 **원인**을 지적한다. 여호와께서 통일 왕국을 찢어 나누시자(열왕기상 11 장),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왕하 17:21a). 왕하 17:21b 에 나오는 동사 [바야다흐]는¹⁵ 여로보암의 통치의 영향을 요약한다. 그는 이스라엘을 “**꺾어/몰아**” 여호와를 떠나게 했다. 왕하 17:22 의 첫 동사 [바엘후]는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 **계속 행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 동사는 여로보암이 창안한 것들의 옥죄기와 비극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끈질기게 충실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들의 역사적인 무덤으로

¹⁴ Pauline A. Viviano, “2 Kings 17: A Rhetorical and Form-Critical Analysi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9 (1987): 558-59 을 참조하라. 왕하 17:20 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유다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다. 나는 왕하 17:19 을 (유다에 대한) 삽입절로 간주하고 왕하 17:20 을 다시 북왕국의 언급을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역자 주: 다른 한글 성경들과 달리 개역과 개역개정판이 왕하 17:19 의 마지막 부분을 “... 행하였으므로”라고 번역함으로써 (남 유다에 대한 이 삽입적인 언급이) 바로 (북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왕하 17:20 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¹⁵ [역자 주] 왕하 17:21b 의 동사 בָּאֵחָזֵק [바야다흐]는 크레로서 어근 בָּחַזַק [나다흐, to drive away, entice]의 히프일 어간이다. 크티브 בָּחַזַק 는 בָּחַזַק (cf. KB, 671 בָּחַזַק)로 읽으면 어근 בָּחַז [나다, to separate, perpetrate disloyalty]의 파알/칼 어간이고, בָּחַזַק 로 읽으면 어근 בָּחַזַק [나다]의 히프일 어간이다.

들어갔다.

나는 최근에 짐 존스의 지도 아래 1978 년에 일어났던 가이아나 자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우리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매혹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놀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가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있던 영향력은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들의 맨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관에 첫 번째 못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¹⁶

그러나 이 부분의 지배적인 논지는 심판의 **비극**이다. 우리는 그것을 세 번이나 듣는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앞에서 제거하셨다(왕하 17:18a).”

“마침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앞에서 쫓아내셨다(왕하 17:20b).”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앞에서 제거하셨다(왕하 17:23a).”¹⁷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제거되거나” “쫓겨나는” 것은 무엇을 포함했는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땅에서 추방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왕하 17:23 의 순서에서 분명해진다. “여호와께서 ...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거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존 빔슨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분 앞에서 제거하셨다고 묘사될 때,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을 가리킨다. 이는 저자가 여호와를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땅을 자기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목적이 실현되는 주된 무대로 여겼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이 요약이 그것의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서 제거되거나 쫓겨나는 것이 지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¹⁶ 이와 비슷한 강조점을 보려면 열왕기하 15 장에서 다룬 “원죄의 비극”에 관한 나의 논의를 참고하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¹⁷ [역자 주] 왕하 17:18 의 [바여씨렘 메알 파나브]와 왕하 17:23 의 [헤씨르 메알 파나브]는 어근 [썩르]의 히프일 어간 동사와 전명구가 같다. 따라서 왕하 17:18-23 은 이 어구에 의해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왕하 17:20 의 [히실리함 미파나브]는 동사의 어근[살라흐]과 전명구([미파나브])가 이 둘과 다르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18 절의 경우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라고 번역하고, 23 절의 경우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고 번역함으로써 18 절이 아니라 20 절(“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과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다.

¹⁸ John J. Bimson, “1 and 2 Kings,” *New Bible Commentary*, 4th ed. (Leicester: Inter-Varsity, 1994), 377.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거절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¹⁹

1680년 9월 스털링셔의 토우드에서의 도널드 카길의 행위는 당시에 논란이 많았다. 그는 겔 21:25-27에 근거하여 설교한 후, 영국 왕 찰스 스튜어트와 요크 공작들인 몬머스, 로더데일, 로데스, 그리고 달지엘 장군과 조지 매켄지 경에게 그들의 죄와 주님의 백성에 대한 잔인함 때문에 파문을 선포했다. 다음 해에 로데스 공작은 위태로운 병에 걸렸다. 모순적이게도, 그는 그의 아내의 박해를 받은 장로교 목사들 중 몇 명이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에게 상담과 기도를 해 주길 원했다. 로데스는 토우드에서의 카길의 행동을 언급하며 그 목사들 중 한 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우리를 파문하며 행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그 선언이 지금 나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영원히 구속력을 가질까 봐 두렵다.” 이 말에 알렉산더 스멜리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렇게 로데스 경은 밖으로 나가 밤속으로 들어갔다.”²⁰

어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본문에서 공동체(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개인화하는 것에 대해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를 이용하여 우리가 느껴야 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서 제거되는 것이 결국 앗수르로 끝나는 것 이상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감사가 부족한 것 같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왜 은혜가 우리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해야 하는가?
3. 무엇이 아합의 죄를 그토록 크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가?
4.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¹⁹ 우리는 동일한 표현이 왕하 23:27; 24:3에서 유다에 대하여 사용된 것을 발견한다.

²⁰ Alexander Smellie, *Men of the Covenant* (New York: Fleming H. Revell, n.d.), 284-85, 그리고 W. M. Hetherington, *History of the Church of Scotland* (Edinburgh: John Johnstone, 1841), 471-72을 참고하라.

23. 종교 박람회? (왕하 17:24-41 A Religion Fair?)

우리는 때때로 쇼핑몰이나 대학 시설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에 대해 듣게 된다. 그것은 대학이나 전문 학교의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여러 회사의 대표자들이 각자의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선택은 많지만 지원자의 관심과 적성, 그리고 열려 있는 직책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의 사마리아 상황과 비슷하다. 앗수르의 이주 프로그램에 따라 유입된 이주민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적 전통과 선호하는 것을 새 터전으로 가져왔다. 그것은 종교 박람회, 즉 가능한 종교 선택을 위한 장이었다. 사람들은 굿 사람들과 함께 네르갈을 숭배하거나(왕하 17:30), 스발와임 사람들처럼 아드람멜렉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거나(왕하 17:31), 다른 이주민들처럼 자기 신들을 만들 수 있었다. 사마리아는 다양한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다. 나는 지금 사마리아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이비 종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종교의 특정한 유형들을 식별할 수 있어서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I. 대처용 종교 (왕하 17:24-28 Coping Religion)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사마리아로 온다(왕하 17:24). 구다는 바벨론에서 북동쪽으로 20 마일 떨어진 텔 이브라힘일 것이다. 아와의 위치는 불확실하다. 하맛이 오론테스의 하맛이라면 다메섹에서 북/북동쪽으로 약 120 마일 떨어져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발와임이 다메섹 근처의 시브라임일 것이고 제안한다.¹ 이 새로운 이주민들은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왕하 17:24 에 나열된 이주는 한 명 이상의 군주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앗수르 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² 왕하 17:24 은 여러 차례에 걸친 앗수르에 의한 이주를 요약한다. 이제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교도들로 가득 차 있다.³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¹ 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237, 그리고 D. J. Wiseman, *1 & 2 King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3), 268-69 을 참고하라.

² M. Cogan, *Imperialism and Religion: Assyria, Judah and Israel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ies B.C.E.* (Missoula, MT: Scholars, 1974), 101 (fn 23).

³ 참조, Cogan, *Imperialism and Religion*, 101: “(이스라엘인은 떠나고 이교도들은 들어오는) 이러한 끊임없는 이주의 결과는 북 이스라엘의 민족 구성이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이었다. 우리의 자료는 앗수르에 의한 에브라임 산지의 체계적인 인구 감소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그 땅에 남게 된 토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트(Noth)가 주장한 것처럼 “외국 상류층” 정착민보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지”

처음에 이 이주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왕하 17:25a), 여호와께서는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그들 중 몇 사람을 죽이셨다(왕하 17:25b 절).”⁴ 앗수르로 급파된 공식 사절은 사자들에 의한 재앙을 보고하며 그 이유를 이주민들이 “그 땅의 신의 법[미시파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26 절). [미시파트]는 “요구 사항” 또는 “규정”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를 바르게 예배하는 “의식” 곧 제의 관행을 가리킬 수 있다.⁵ 앗수르 왕은 그들에게 명령하며 거기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 의식을 가르치게 하라고 지시한다(왕하 17:27).

물론 사자의 공격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느낀다. 우선, “새로 정착한 민족들이 그 땅의 이전 민족들보다 더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적어도 이 이교도들은 여호와를 달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왕하 17:7-17 참조). 그 다음으로 이 이교도들을 깨우치기 위해 온 제사장도 역시 원래 금송아지 숭배의 한 장소인 벰엘(왕상 12:25-33)에 정착한다. 그것은 그가 여로보암 신학을 선호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전 북왕국 출신의 이 제사장은 정통 신앙보다 혼합주의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사자 재앙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전도자가 북왕국 제사장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어쨌든 사자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여호와를 인정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인생의 어려움과 긴장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종교는 주로 실용적이고, 따라서 자칫 교묘하게 조작될 수 있다.

1936년 올림픽을 둘러싸고 상당한 소동이 벌어졌다. 올림픽은 나치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 정권의 반유대주의 정책 때문에 영국, 프랑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대회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독일 선수들 중에는 여러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 유대인인 볼프강 뤼르스트너(Wolfgang Fürstner) 대위는 올림픽 선수촌의 건립과 관리를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사르곤이 2만 7290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에서 국외로 추방한 것은 그 반역적인 도시를 정복하기 위한 4년간의 쓰라린 투쟁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하였다.”

⁴ 사자 재앙에 관해서는 D. D. Luckenbill, *Ancient Records of Assyria and Babylonia*, 2 vols. (Lon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1989 [reprint]), 2:363 (sect. 935)에 나오는 아슈르바니팔(주전 669-633) 연대기를 참고하라.

⁵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210.

⁶ Hobbs, *2 Kings*, 237.

담당했다.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반유대주의 포스터는 모두 철거되었다. 아무도 유대인의 휴양지 출입을 금지하는 통지를 못했다. 베를린의 신문 가판대에서 반유대주의 신문이 사라졌다. 방문객들은 베를린으로 몰려들었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제국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호의적인 인상을 가지고 떠났다.⁷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울에 불과했다. 아돌프는 그저 세계의 호의적인 여론을 얻기 위해 자기 계획대로 실행했을 뿐이었다.

어떤 종교는 그렇게 실용적일 수 있다. 사자들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처리해주는 “보호적인/방역적인” 믿음을 갈망한다.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진리입니까?”가 아니고 “그것이 불편을 피하는 데 효과적입니까? 그것이 재앙을 막아줍니까?”이다. 911 과 같은 재앙의 여파로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이면에 잘못된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질문의 이면에 신은 항상 생명을 안전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가정, 신은 나의 실존적 위안자이고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잘못된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종교는 여러분을 위해 사자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II. 만들어진 종교 (왕하 17:29-33 Creative Religion)

새로운 이주민들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그들의 신들과 예배당들을 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왕하 17:29-31).⁸

(왕하 17:29-31) 29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 바벨론 사람들은 속곳브נות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왕하 17:29-31 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는 저주스러운 동사 [아싸](“만들다”)이다. 저자는 신들을 “만드는” 것을 묘사하는 데 이 절들에서 6 번이나 이 동사를 사용한다. [아싸]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2600 번 이상 사용된 매우 흔한 동사이다. 우리는 저자가 여기에서처럼 거듭거듭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비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만들었다 ... 그들은 만들었다 ... 그들은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⁷ John Toland, *Adolf Hitler* (New York: Ballantine, 1976), 392-93.

⁸ 구다에서 온 굿 사람들이 숭배하는 네르갈은 역병과 지하 세계의 신이었지만 다른 신들의 정확한 정체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교도 종교, 손수 만드는 헌신이다. 이것은 저자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의 시작을 묘사하는 왕상 12:31-33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성경적 비꼼이다. 거기서 저자는 세 절(왕상 12:31-33) 안에서 [아싸]를 8 번이나 사용하며 그러한 “영성”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⁹

“사마리아인들(왕하 17:29)”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산당을 만들었다. 새로운 이주민들이 사용하는 산당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새 이주민의 종교 행위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종교가 있다. 종교는 여러분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만들고[아싸]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세계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도 경배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신들도 섬길 수 있다(왕하 17:33).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찰스 콜슨은 이웃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자기 교회에 대해 매우 열광했다. 콜슨은 그 집단이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이단이라고 정중하게 지적하려고 노력했다. 그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오, 하지만 예배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곳에 갔다 오면 저는 항상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다.¹⁰ 참된 것이 내가 즐기는 것 다음으로 밀리고 만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지배한다.

그러나 이교의 “창의성”은 교회에도 스며든다. 짐 넬슨 블랙은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⁹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First King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2), 143-45[= **열왕기상 주해**, 124-126(13 장 III. 조작: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을 보라.

[역자 주] 개역개정 왕상 12:31-33 에 [아싸]가 나오는 부분을 볼드체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왕상 12:31-33)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벰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벰엘에서 세웠더라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고안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벰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Cf. YLT: **31** And he **maketh** the house of high places, and **maketh** priests of the extremities of the people, who were not of the sons of Levi; **32** and Jeroboam **maketh** a festival in the eighth month, in the fifteenth day of the month, like the festival that [is] in Judah, and he offereth on the altar — so **did** he in Beth-El — to sacrifice to the calves which he **made**, and he hath appointed in Beth-El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that he **made**. **33** And he offereth up on the altar that he **made** in Beth-El, on the fifteenth day of the eighth month, in the month that he devised of his own heart, and he **maketh** a festival to the sons of Israel, and offereth on the altar — to *make perfume*(→ to *burn incense* לִהְקִיטֵר [르학티르]).

¹⁰ Charles Colson, *Against the Night* (Ann Arbor: Servant, 1989), 98.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총회에서 열린 첫 공식 행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교도의 정화 의식이었는데, 참석자들은 확성기에서 벌레 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나뭇잎이 타는 연기 속을 걸었다. 살아만 걸친 원주민들이 무리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다. 한국의 정현경 목사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렀다. 그녀는 참석자들이 “새, 물, 공기, 나무”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산처럼”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 후 인도 태생의 한 성공회 사제는 “나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¹¹

이렇게 이교도 종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창조한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계시된 것을 받아들인다. 이교도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것에 근거하여 예배한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에 근거하여 예배해야 한다. 성경적 예배자는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교도 숭배자는 날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교도 예배가 참 예배와 섞일 때(왕하 17:33) 더 많은 캔버라가 생겨날 것이다.

III. 언약 종교 (왕하 17:34-40 Covenant Religion)

열왕기하 17 장의 33 절과 34 절은 표면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왕하 17:33 은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왕하 17:34 은 이것을 부인하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¹² 프로반(Iain Provan)이 주장하는 것처럼 왕하 17:25-33 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석의 단서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전,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나는 어쩌다 (그가 나에게 주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아들의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얻었다. 이 짙은 메시지에서 그는 내가 가르쳤던 신학교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얼마나 총장을 욕했는지, 얼마나 여러 증거의 “전시물”에 들어갔는지(아마도 얼마나 그가 우리 교회 등을 혐오했는지)를 말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신학교의 우리 부서 비서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었는가?

¹¹ Jim Nelson Black, *When Nations Die* (Wheaton: Tyndale House, 1994), 202.

¹² 왕하 17:34 의 히브리어 본문의 직역은 “그들의 율례”와 “그들의 법도”이지만 “율례”와 “법도”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임이 분명하다.

[역자 주] NASB: ... nor do they follow **their statutes** or **their ordinances** or the law, or the commandments which the LORD commanded the sons of Jacob, whom He named Israel; NIV: ... nor adhere to **the decrees and ordinances**, the laws and commands that the LORD gave the descendants of Jacob, whom he named Israel.

나는 그에게 그렇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치료에 대한 환상이 내 머리 속에서 춤을 추었다. 내가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을 때, 셋(Seth)은 단지 "오, 목요일[또는 다른 요일일 수도 있음]은 '반대의 날'이에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아이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정반대의 글을 썼다는 것을 의미했다. 요컨대, 그의 메모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했던 것이다.

성경 저자들이 노골적으로 모순되게 기록하지는 안 했을 것이다. (성경 저자들이 그런 멍청이들이었다고 가정하는 많은 성경 비평가들이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이러니를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하 17:25-33 에 있는 아이러니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단락이 아니라는 말이다. 저자는 단순히 토론 경쟁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특정 관점을 설정하고 있다. 사실 이 단락의 어조는 독자가 28 절과 32-33 절의 번역에 나오는 "경외한다"와 "경외했다"[직역하면 "두려워한다", "두려워했다"]라는 단어에 마음 속으로 따옴표를 붙일 때 가장 잘 포착된다. 왜냐하면 이 단락에 묘사된 "경외"는 (왕하 17:34-39 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참여배로 간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¹³

심지어 왕하 17:33 에서도 우리는 저자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리고(데이비스의 강조)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할 때 놀림조로 말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 다음 왕하 17:34 은 담담한 산문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왕하 17:34 의 끝에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왕하 17:35-39 에서 그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며 여호와와의 언약의 조건을 2 인칭 대명사들을 사용하여 재연한다. 왕하 17:35 의 첫 번째 동사 [비이흐로트]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었고(had cut a covenant) 그들에게 명령하셨었다."처럼 과거 완료로 간주해야 한다.¹⁴ 저자는 우리를 출애굽 당시로 데려가고 있다.

¹³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250-51.

¹⁴ 우리는 내러티브에서 바브 계속법 미완료가 과거 완료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몇 가지 예들과 설명을 위해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552-53 을 보라. 왕하 17:34 의 첫 동사에 대해 영어 역본들 중 NRSV, JB, NJB, NLT, 그리고 TEV 는 과거 완료로 번역한다. NIV 와 REB 는 약간 다르게 번역하지만 어쨌든 회상을 인식하고 있다.

언약이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하는지 주목하라. 우리는 왕하 17:35 에서 네 개의 미완료형 동사 앞에 각각 부정어가 나오는 것을 본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것들에게 제사드려서도 **안** 된다.” 왕하 17:36-37a 은 정상적인 어순 대신 강조를 위해 직접 목적어 또는 간접 목적어를 절들의 선두에 배치하는 도치 어순을 갖고 있다.

(왕하 17:36-37) 37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그분을[재개대명사] 너희가 경외하고, **그분에게** 너희가 절하며, **그분에게** 너희가
제사드리고, 37 그분이 너희에게 써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항상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정상 어순].)

저자는 왕하 17:38(“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너희가 잊지 말라.”)과 왕하 17:39(“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너희가 경외하라.”)에서도 똑같이 직접 목적어를 절의 선두에 두어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가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그는 우리에게 세 번이나 거듭해서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왕하 17:35, 37, 38)”고 주시시킨다. 언약의 종교는 배타적인 종교이며,
양자택일(兩者擇一 either-or)로 우리의 양자겸유(兩者兼有 both-and)를 산산조각 내는
믿음이다.

왕하 17:40 은 왕하 17:35-39 의 (계속되는) 언약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¹⁵

¹⁵ 어떤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왕하 17:40-41 을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의 응답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왕하 17:40b 에 나오는 “그들의 이전 풍속대로 행한 것”이 왕하 17:34a 에 나오는 “(그들의) 이전 풍속대로 행한 것[이것은 분명 이주민들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음]”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1) 왕하 17:35-39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왕하 17:40a)”라는 말은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행위를 가리킨다. (2) 아이러니가 이 단락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하 17:40b 에서 그것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이주민들이 이전 풍속대로 계속 행한 것(왕하 17:34)과 같이 이교도에게 뒤질 세라 이스라엘도 이전 풍속대로 똑같이 했다. (3)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옛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겔 20:7-8; 수 24:14). 리처드 넬슨(Richar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232)은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잘 포착한다. “이 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패러디한다. 혼합주의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지만(왕하 17:32, 33, 41), 그들은 신명기의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왕하 17:34). 내레이터는 포로기에 있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떠했었는지 알고 싶다면 이스라엘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왕하 17:40) 이 동시대의 외국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전 풍속대로(왕하 17:34)’ 행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제안한다.”

이스라엘은 언약 종교를 받아들일 배짱이 없었다.

언약의 종교는 “여호와에 더하는” 정서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대상도 경외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식사 때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주곤 하셨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4-5 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배급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계셨다. 그래서 그는 내 빵 조각을 준비하기 전에 “버터(사실은 버터가 아니라 마가린이었음)나 젤리를 발라 줄까?”라고 묻곤 하셨다. 항상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왜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버터에 다른 것을 더하는 선택을 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우주는 배타적인 우주였다. 그것은 항상 양자택일이었다. 언약의 종교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중심에는 여호와 아니면 다른 신들이라는 근본적인 편협함이 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모든 경쟁자는 배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교도 종교는 이와 같지 않았다. 제 몫을 하는 이교도 신은 자기 신자 중 한 명이 다른 신이나 여신을 숭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제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오직 성경적 언약 종교만이 잠재적인 모든 경쟁자에 대해 이런 지독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 독특한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IV. 파멸시키는 종교 (왕하 17:41 Condemning Religion)

왕하 17:41 은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된 “새로운” 민족들에게 돌아온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우리는 전에 이것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후손들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상을 섬기는 지루한 속박의 고리를 말이다. 한 세대가 거짓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후손을 사실상 파멸로 이끌게 된다. 이 저주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지 않으시는 한 말이다.

조셉 P. 케네디는 한 미국 대통령, 한 법무장관, 한 상원의원의 아버지였다. 이 중 마지막 에드워드 (테드)는 여전히 생존해 있다. 조셉의 딸 중 한 명은 음주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도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 대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한 손주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네 명의 손주는 마약을 남용했으며 그 결과 한 명이 사망했다. 두 명의 손주는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선언했고, 다른 손주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했다. 한 손자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버지니아의 한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폭행과 구타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¹⁶ 우리는 개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 중 많은 부분이 완고하고 사람을 혹사하며 부도덕한 조 케네디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¹⁶ Ronald Kessler, *The Sins of the Father* (New York: Warner, 1996), 402-403.

않을 수 없다. 유산은 무서운 것이다.

왕하 17:41 은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의 잘못된 종교 풍속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파멸시키는 종교 같은 것이 있다. 망하게 하는 종교 같은 것이 있다.

“암울한”이란 단어는 열왕기하 17 장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 있다. 당연히 그것은 왕하 17:39b 에 나오는 “**그분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는 언약의 약속에 있다.¹⁷ 그러나 그 소망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다(왕하 17:39a).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이 새로운 “정착민들”은 이스라엘이 했던 것보다 어떻게 여호와께 더 많은 영예를 나타냈는가?
2. 오늘날 어떤 영역에서 이교도 숭배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는가?
3. 현대적 또는 전통적 예배 스타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고 “나에게 기분 좋은”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는가?
- 4 “그리스도교는 편협한 종교다!”라는 고함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¹⁷ 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345 을 참고하라.

제 2 부

마지막 시대

열왕기하 18-25 장

24. 신선한 공기, 어두운 날 (왕하 18 장 Fresh Air, Dark Day)

열왕기하 18 장은 1863 년 5 월 2 일과 약간 비슷하다. 그 당시 버지니아 주 찬슬러스빌 근처에서 로버트 E. 리 장군 휘하의 45,000 명의 남군이 그 두 배나 되는 북군과 맞섰다. 리와 그의 중장인 "스톤월" 잭슨은 회의를 열었다. 그 후 잭슨 장군은 25,000 명의 남군을 이끌고 북군 전선을 따라 행군하여 오후 늦게 북군의 서쪽 진지에 도착했다. 잭슨의 군대는 북쪽 전선의 노출된 오른쪽 측면을 돌진하면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북군의 한 군단이 패주했고, 전선의 오른쪽 절반 전체가 무너졌다.¹ 어둠과 뒤엉킨 숲으로 인해 남군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습 작전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잘 진행된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잭슨 장군은 아군의 총에 맞아 전사했다. 그와 소수의 기병들은 전선을 정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군 전선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남군은 그런 일행이 정찰을 나갔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어둠 속에서 잭슨 장군 일행은 북군으로 오해되어 총격을 받았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잭슨은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찬슬러스빌에서 남군에게 오후에는 눈부신 승리가 있었지만, 밤에는 비극적인 패배가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열왕기하 18 장만을 그 자체로 읽을 때 생기는 느낌이다.² 처음(왕하 18:1-8)에는 마치 다윗이 다시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신선한 공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끝에는 아주 어두운 날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포위되어 (산헤립에 따르면)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갇힌 신세가 되므로 미디어가 볼 수 있는 한 전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밝았다가 암울해졌다.

열왕기하 18 장의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의 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시하려고 한다. 때로는 긴 본문의 "뼈대"를 보는 것이 유용하다.

열왕기하 18장

신선한 공기의 숨결 (히스기야), 왕하 18:1-8

탁한 공기의 분출 (앗수르), 왕하 18:9-16

살만에셀이 "올라왔다[알라]," 9-12절

산헤립이 "올라왔다[알라]," 13-16절

¹ 참고, Bruce Catton, *This Hallowed Ground* (Garden City, NY: Doubleday, 1956), 238-44.

² 여러분이 열왕기하 18-19 장을 다루는 50 쪽 분량의 한 장(chapter)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열왕기하 18 장에 한정해서 읽어야 할 것 같다. 열왕기하 18 장이 전체 이야기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 자체만 읽는 것이 적절하다.

첫 번째 연설: 신뢰[바타흐], 왕하 18:17-25

폭로(이집트), 21절, 24b절

정치, 22절

조롱, 23-24a절

“계시”, 25절

두 번째 연설: 구원[나찰], 왕하 18:26-35

협박의 힘 26-27절

분열의 시도, 28-32절

역사의 논리 33-35절

어두운 날의 끝, 왕하 18:36-37

이 요약을 기준으로 삼고 강해로 나아가자.

I. 구원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왕하 18:1-8 Relief may surprise us)

주전 715 년경 유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³ 새로운 다윗이 나타났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왕하 18:3).” 아무런 단서 조항이 없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왕하 14:3).”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왕상 15:11), ...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왕상 15:14a).” 그러나 이 새로운 다윗(히스기야)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남신들의 상징물인 주상(기둥)을 깨뜨리며, 여신의 상징물인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때까지 사람들이 숭배해 오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민 21:4-9)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다(왕하 18:4).

그러나 저자는 히스기야의 최고의 덕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신뢰한**(왕하 18:5a)” 것이라고 말한다.⁴ 그는 계속해서 이 신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화하며 “곧 그가

³ 히스기야의 연대 문제는 어렵다. 레슬리 맥폴(Leslie McFall)은 공동 섭정을 가정하여 왕하 18:1-2 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 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공동 섭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 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29 년 동안 통치했다**.” *Themelios* 17/1 (Oct-Nov 1991): 9 에 나오는 맥폴의 글을 다시 보라. 이 경우 히스기야는 주전 729 년경에 공동 섭정이 되고 주전 715 년에 단독 통치자가 되어 주전 686 년까지 통치한다. 우리는 산헤립이 침공한 히스기야의 제 14 년(왕하 18:13)이 주전 701 년인 것을 알고 있다.

⁴ 히브리어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이 강조를 위해 “그가 신뢰하였다”보다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강조가 신뢰의 주체 히스기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 여호와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여호와께 연합하며[다바크, 참조: 창 2:24 “그가 아내와 연합할 것이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의 계명을 지켰다(왕하 18:6).”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왕하 18:7a). 그는 아주 형통해서 앓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었고(왕하 18:7b) 블레셋을 쳐서고 블레셋 사람들의 최남단 주요 도시인 가사까지 이르렀다(왕하 18:8).⁵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며 프로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신앙적 신실함의 결과로 히스기야의 군사적 업적은 다윗의 나머지 후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업적과 유사하게 되었다. 다윗 왕조의 왕들 중 다윗과 히스기야에 대해서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므로**(왕하 18:7 절; 참조: 삼상 16:18; 18:12, 14; 삼하 5:10)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싸할] 왕하 18:7; 참조, 삼상 18:5, 14, 15)고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다윗과 히스기야만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한다([나하] 왕하 18:8; 참조, 삼상 18:27; 19:8 등).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슷했기 때문에 아하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왜냐하면 그가 앓수르 왕을 계속 **섬기지 않고**([아바드] 왕하 18:7; 참고, 왕하 16:7 에서 아하스가 자신을 앓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종”이라고 묘사한 것과 대조됨) 그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⁶

그래서 다윗이 다시 통치한다! 기대하기에는 너무 과분할 정도였다.

유다의 지난 150 년에 비추어 히스기야의 통치를 생각해 보라. 경건한 여호사밧이 정말 어리석게도 아합의 가문과 맺은 결혼 동맹으로 인해 유다에 사악한 왕들(여호람, 아하시야)이 다스리는 일이 일어났으며, 하마터면 (사악한 아달라에 의해) 다윗 왕조가 전멸될 뻔하였다. 이

히스기야는 이 점에 있어서 유다의 왕들 중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면에서 유다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왕하 18:5).”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왕하 23:25(요시아에 대한 평가)과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래 전에 테니우스는 왕하 18:5 이 “왕하 23:25 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무후무’에 대한 어구의 적용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단일 특성으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왕하 18:5)는 이 특별한 점(즉, 여호와에 대한 신뢰)에서 있어서 전무후무했다는 찬사를 받은 반면, 요시아(왕하 23:25)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에 있어서 전무후무했다는 찬사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테니우스의 설명은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04 에 인용되어 있다.

⁵ 역대하 29-31 장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대하 32 장만 앓수르의 침공을 다루고 있다.

⁶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253.

전멸의 위기가 극복되며 다스리게 된 왕들(요아스, 아마샤, 웃시아,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 제거와 같은 철저하고 온전한 종교적 헌신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하스(왕하 16 장)가 등장하면서 유다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하스 이후에 **다시 태어난** 다윗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과 백성을 대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가?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위험이든 교회는 때때로 자신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때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 막간”과 같은 “회복” 시간을 보내신다. 예를 들어, 이디 아민(Idi Amin)은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고, 오늘날 우간다의 교회는 그 도살자가 없는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단들이 보통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포기할 때 중요한 복음주의 신앙에서 단조로운 종교적 다원주의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이 믿음의 활력에서 증언의 무기력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교리적 표류에서 성경적 권위로 되돌아간 한 두 개의 교단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신다고 상상하는 믿음 없는 비관주의를 버려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의 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친절한 막간을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지만 므낫세(열왕기하 21 장)가 다가오고 있으며 어둠은 더 짙어질 것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감사해야 한다.

II. 믿음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왕하 18:9-16 Faith still has its problems)

우리는 왜 왕하 18:9-12 에서 북왕국의 멸망을 다시 언급하는지 궁금하다(왕하 17:1-6 참조). 왜 우리는 주전 724-722 년 살만에셀 5 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함락시킨 것(왕하 18:9-10), 국외로 추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왕하 18:11),⁷ 그리고 전체 재앙의 이유(왕하 18:12)에 대해 다시 들어야 하는가? (41 절이나 되는) 긴 장(열왕기하 17 장)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가? 그러나 저자는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앗수르에 반기를 든 대담한 정책(왕하 18:7-8)을 추구했던 시대 상황”⁸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오래된 복음 성가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는 비밀이 아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셨던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에 대한 정확한 가정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앗수르

⁷ 이 지명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위의 22 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나의 논의를 참고하라.

⁸ Provan, *1 and 2 Kings*, 253.

왕에 대한 훌륭한 유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의 반역의 배짱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왕하 18:9-12 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이다.

앗수르가 늘 그렇게 하였듯이 예상한 대로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왕하 18:13).” 그래서 주전 701 년 유다의 상황은 몹시 어둡게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히스기야가 왕하 18:1-8 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왕이라면,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헌신은 앗수르의 침공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유다의 주요 성읍들은 앗수르의 손에 넘어갔고 예루살렘은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아주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로웠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극심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단 말인가?”⁹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전에 이런 일을 만난 적이 있다. 본문은 단순히 믿음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예방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은 주님을 붙좃고 있지만 앗수르가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에 주어진 축복과 도움의 전반적인 약속(예: 신 28:1-14; 시 37:3-9)을 뒤집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축복이 종종 고난과 슬픔으로 희석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실망한”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방적 믿음을 따라 걸어왔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만 그의 아내가 여전히 암으로 죽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부지런히 어린이 사역을 하던 한 여성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교회를 떠난다.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한 여성은 목사에게 자기가 매일 밤 기도를 하지만 그런 관습이 마치 종교적 행운의 부적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열왕기하 18 장은 도움이 되는 교정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국가의 예배를 개혁하는 왕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적이 와서 여러분의 땅을 짓밟고 그 백성을 추방하고 성벽 밖의 기둥에 왕의 시체를 못박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것을 아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된다.

왕하 18:14-16 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 곧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앗수르의 맹공격에 직면하여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⁹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236. 이 상황(의로운 왕에게 닥친 고난)은 구약 비평주의의 대표 주자들, 곧 신명기적 역사 편집자들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 이야기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조작할 수 없었다.

당하리이다.'라고 말하였다(왕하 18:14a).” 산헤립은 전형적으로 어이없는 요구, 곧 은 300 달란트, 금 30 달란트를 히스기야에게 내도록 했다(왕하 18:14b).¹⁰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다(왕하 18:15-16).” 열왕기상하는 국고를 고갈시키는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본다. 르호보암의 통치 때 시삭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 왕은 직접 국고를 약탈할 수 있었다(왕상 14:25-26). 아니면 국고는 아사와 아하스(왕상 15:18-19; 왕하 16:8-9)의 통치 때처럼 외국 왕(아람 왕 벤하닷;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뇌물을 주어 유다를 위해 개입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혹은 국고는 침략자를 매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는데 매수에 성공한 때도 있지만(왕하 12:17-18, 요아스-아람왕 하사엘), 실패한 때도 있었다(왕하 18:14-16 히스기야-산헤립). 그러나 저자는 항상 그것을 좋지 않게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 히스기야는 믿음과 지혜에 있어서 실패하는데, 이는 산헤립이 부하들을 보내 여전히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¹¹ 앗수르는 항상 형편없는 투자이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왕하 18:1-8 과 모순된다. 나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했다. 왕하 18:5-6 이 보여주듯이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붙좃고 계명을 지키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의지가 약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배르는 오래 전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우리는 왕하 16:1-4 이 아하스의 통치 전체를 요약한 것처럼 왕하 18:1-8 이 히스기야의 통치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¹² 그러므로 왕하 18:1-8 에서 말하는 신뢰와 순종은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모든 위협의 결과로 갖게 된 것이다. 사실, 왕하 18:1-8 은 히스기야의 초기 개혁 중 일부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히스기야의 통치 전체에 대한 평가이지 특정 실패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때때로 믿음에는 “흔들림”이 있으며 그 흔들림은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믿음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모순이 없다.

¹⁰ 산헤립의 연대기는 은 300 달란트가 아니라 800 달란트라고 주장한다. D. D. Luckenbill, *Ancient Records of Assyria and Babylonia*, 2 vols. (reprint ed., Lon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1989), 2:120-21, 143 을 참조하라. 이 은의 불일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다. 그것은 산헤립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고, 과장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참조,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565).

¹¹ 참조, K. D.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Calwer, 1972), 259.

¹²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202.

페이스 쿡(Faith Cook)은 중국인 목사 왕밍다오(Wang Ming-Dao)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북경에 있는 한 교회(the Christians' Tabernacle)의 존경받는 목사였다. 1949년 집권 직후 공산당은 왕 목사와 그의 아내 정운을 감옥으로 끌고 갔고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회중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무엇이든 다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변함없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왕 목사는 55세였으며 그의 투옥은 잔인했다. 그를 납치한 자들은 왕 목사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대박”을 떠뜨릴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뇌물과 위협과 회유로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왕 목사 자신의 연약한 마음도 가담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도록 밀어 부쳤다. 마침내 그는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청받은 모든 것을 썼고 심지어 정부가 주도하는 삼자애국운동에 가담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1956년에 그는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전에 결코 충절이 부족한 적이 없었던 그가 결국 항복하고 말았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는 집 근처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나는 베드로다.”라고 중얼거리거나 “나는 유다다.”라고 중얼거렸다. 왕 목사는 자신이 완전히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다시 체포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왕 목사와 그의 아내는 당국에 자수하며, 그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즉시 다시 감옥에 갇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왕 목사가 다시 감방에 있을 때 주님은 미 7:9을¹³ 사용하여 왕 목사를 회복시켜 주셨다.¹⁴ 우리 중 누구도 왕 목사가 견뎌낸 것에 비추어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 그러나 큰 용기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해독제는 믿음의 붕괴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III. 어리석음은 탄로날 수 있다 (왕하 18:17-25 Folly can be exposed)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왕하 18:17a).”¹⁵ 그러면 이 앗수르 사람들은

¹³ [역자 주] 미 7:9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고

¹⁴ Faith Cook, *Singing in the Fir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5), 21-32.

¹⁵ 이 앗수르 관리들의 정확한 직임을 명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르단은 왕 다음으로 계급이 높은 야전 사령관이었고, 왕 자신이 가지 않을 경우 군사 작전을 지휘했다. 랍사리스는 “왕실 시종들의 우두머리”로 왕과 매우 가까운 고위 행정 관리였다. 랍사게는 직역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뜻으로 그 직무가 궁정과

히스기야의 수도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방금 산헤립의 터무니없는 조공에 동의하지 않았던가? 산헤립이 공격을 그치고 돌아가는 것이 조공을 바치는 근거가 아니었는가(왕하 18:14a)? 산헤립은 왜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하는가?

그러므로 산헤립은 악당 같고 확실히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다. 사실, 이 전체 에피소드의 아주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구약 역사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나는 20 쪽에 달하는 이 문제에 대한 여섯 가지 견해를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도 마저 읽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한 내 자신의 재구성을 제공할 뿐이다.

세 번째 원정(주전 701 년)에 대한 산헤립의 연대기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난다. 시돈의 왕 룰레는 앗수르인들이 쳐들어오자 겁에 질려 도망친다. 이에 산헤립은 옛바알을 왕좌에 앉히고 그에게 조공을 부과한다. 산헤립은 반역한 아스글론의 왕 시드카를 앗수르로 끌고 가고 그 대신 이전 왕 샤루루다리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조공을 부과한다. 그리고 산헤립은 에그론의 반역적인 총독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의 시신을 도시 주변의 기둥에 못박은 다음 이전 왕인 파디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조공을 부과했다.¹⁶ 산헤립은 또한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주장하지만, 히스기야를 왕좌에서 몰아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처음 세 가지 경우에 그는 자신이 왕으로 다시 세운 자에게 조공을 부과한다. 이것이 적어도 히스기야의 경우에 그가 주고자 했던 첫인상이 아니었을까? 조공은 산헤립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왕에게 부과된다. 그가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산헤립이 히스기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종을 받아들이고 그가 왕으로 계속 통치하도록 허락했음을 나타낸다. 산헤립은 그 당시 애굽인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왕하 19:9) 히스기야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매년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받았던

왕에게만 국한된 고위 관리였다. D. J. Wiseman, “Rabsaris,” “Rabshakeh,” ISBE, 4:30-31, 그리고 M. Cogan and H. Tadmor, *//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229-30 을 보라. 왕하 18:17b 에 나오는 “윗못 수도”의 위치는 불확실하다. 어떤 사람들은 중앙 계곡 상단에 있는 성벽 바깥 북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Cogan and Tadmor, *// Kings*, 230, and V. Fritz, *1 & 2 King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2003], 370 을 보라.

¹⁶ Luckenbill, 2:119-21, 142-43.

것 같다.¹⁷ 그러나 히스기야는 반역하여 그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별을 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¹⁸ 그래서 그는 조공에 동의하고 히스기야에게서 철수한 것 같았지만, 그 후 그는 약속을 어기고 그의 관리들과 군대를 보내며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했다(왕하 18:17 이하). 내가 산헤립이 자신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앗수르인을 마지막으로 신뢰한 게 언제인가? 그럴 줄 알았다.¹⁹

이제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재구성에도 몇 가지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 직감은 산헤립이 마음 속으로는 히스기야의 시체가 예루살렘 성벽 밖의 기둥에 못박히는 것을 보는 것을 정말로 더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는 랍사게가 여기 있다(왕하 18:18a). 그러나 왕의 위엄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기 위해 왕궁의 책임자 세 명이 대신 그에게 나간다(왕하 18:18b).²⁰ 그러자 랍사게는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에게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열왕기하 18 장의 구조를 제시한 것처럼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폭로(이집트, 21 절, 24b 절), 정치(22 절), 조롱(23-24a 절), 계시(25 절)이다. 폭로라는 대목이 구조상 처음에 나오지만 나는 그것을 마지막에 다루겠다.

랍사게가 “신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의 연설문을 구성한 것을 보면, 그는 연설 수업을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뜻의 어근 [바타흐]는 왕하 18:19-24 에서 일곱

¹⁷ H. Tadmor, “Treaty and Oath in the Ancient Near East: A Historian’s Approach,” in *Humanizing America’s Iconic Book* (Chico, CA: Scholars, 1982), 127-52 에 나오는 연구를 참고하라.

¹⁸ 반역하는 지역들을 처리하는 앗수르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Robert D. Bates, “Assyria and Rebellion in the Annals of Sennacherib: An Analysis of Sennacherib’s Treatment of Hezekiah,” *Near Eastern Archaeological Society Bulletin* ns 44 (1999): 39-61 에 나오는 유용한 연구를 보라. 그리고 A. Kirk Grayson, ‘Assyrian Rule of Conquered Territory in Ancient Western Asia,’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4 vo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5), 2:959-68 도 보라.

¹⁹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혹은 증인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 33:8 의 말씀은 산헤립의 배신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부분 영어 번역[예: NIV, ESV, HCSB, GNT]은 이 절의 동사들을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지만 동사들은 분명히 적절하게 능동태이다[예: NASB, NKJV, ISV]. New Berkeley Version 은 그것을 올바르게 번역한다. 이사야 33 장의 산헤립 배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Joh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6), 590 을 보라.

²⁰ 드보(R. de Vaux, *Ancient Israel*,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5], 1:129-32)는 이 세 관리의 직책을 고관, 비서, 전령(vizier, secretary, herald)으로 구별한다.

번이나 나온다. 그의 주장의 일부는 정치적 책략으로 구성되어 있다(왕하 18:22).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왕하 18:22)

이것은 앗수르가 훌륭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그 앗수르인이 이교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개혁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여기서 서투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점을 벗어난 것이다. 그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있다. 랍사게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왕의 개혁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수사법이 산당을 좋아하는 일부 불평분자들을 선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앗수르의 입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²¹ 그는 왕의 개혁에 대한 유다인들의 원한과 적개심의 불씨를 지피고 싶어한다.

랍사게는 또한 완전히 조롱을 일삼는다. 그는 예루살렘에 내기를 제안하며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왕하 18:23).”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겠느냐(왕하 18:24a)?”라고 조롱한다. 내 형제 중 한 명은 다른 농구 선수에 대한 경멸을 드러낼 때 “그는 너무 약해 시합이 되지 않는다(he can't fight one's way out of a paper bag.)”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랍사게의 어조이다. 그것은 온통 냉소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종교적인 태도를 취하며 특별 계시를 주장한다. 유다가 신뢰하는 바로 그 분이 사실상 그들을 대적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는 선언하여 이르되 산헤립에게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자신이라고 한다(왕하 18:25). 앗수르는 유다의 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라고 한다. 찬송가 제목을 왜곡하여 말하면 앗수르인들이 “오직 통로”라고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²

²¹ 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359 을 보라. 랍사게의 “오해”는 창 3:1 에 나오는 뱀처럼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다.

²² [역자 주] Mary E. Maxwell 의 “Channels Only”는 새찬송가 320 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이다. 새찬송가 320 장의 번역은 원래 가사에 대한 상당한 의역으로 보인다. 1 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That Thy love laid hold of me; Thou hast saved and cleansed and filled me That I might Thy channel be.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	---

랍사게의 주장에서 가장 슬픈 대목은 이집트에 대한 유다의 신뢰에 대한 그의 폭로에서 나온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찢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왕하 18:21)²³

애굽의 전쟁 무기는 유다의 소망이었다(왕하 18:24b).

애굽에 대한 한 번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적어도 그들은 나타났다. 이집트와 동맹국들은 엘테케(읍바에서 남쪽/남서쪽으로 11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산헤립을 만났다. 그것은 앗수르의 승리였고 애굽과 동맹국들은 남쪽 가사로 철수했다. 그러나 산헤립이 그의 군대를 립나와 예루살렘으로 나눈 사이에 애굽 군대는 새로운 이디오피아 바로 세빋쿠의 형제인 디르하가[왕하 19:9 참조]의 지휘 아래 조용히 돌아왔다. 산헤립은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 알고 그의 군대를 모아 반격에 나섰으며 애굽인들은 집과 같은 곳이 없다고 결정했다.²⁴

히스기야 자신이 애굽과의 동맹을 열렬히 지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궁정에는 강력한 친애굽 당파가 있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정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애굽과의 동맹을 쓸모없고 어리석고 우상 숭배라고 비난했다(이사야 30, 31 장 참조).²⁵

랍사게 또한 그것이 쓸모없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앗수르인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앗수르인이 여러분이 여호와보다 이집트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p><i>Refrain:</i> Channels only, blessed Master, But with all Thy wondrous pow'r Flowing through us, Thou canst use us Every day and every hour.</p>	<p>후렴: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p>
---	--

²³ 애굽의 믿을 수 없음은 유명했다. 사 30:7 과 겔 29:6b-7 을 보라.

²⁴ K. A.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3), 16, 40-41, 611 을 보라. 그리고 그의 기사 "Egypt," NBD, 298 도 보라. 디르하가가 주전 701 년에 군대를 이끌기에는 너무 어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A. R. Millard, "Sennacherib's Attack on Hezekiah," *Tyndale Bulletin* 36 (1985): 63-64, 그리고 그의 각주에 인용된 Kitchen 의 연구들을 보라.

²⁵ Derek Thomas, *God Delivers: Isaiah Simply Explained*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1991), 198-99, 그리고 Robert B. Chisholm, Jr., *Handbook on the Prophets* (Grand Rapids: Baker, 2002), 75-78 을 참조하라.

슬픈 일이다. 앓수르인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폭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자가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하므로 그들은 그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들은 남편이요 아버지인 그가 그들을 찾을 수 없기를 원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911 테러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는 아내가 세계 무역 센터의 어느 층에선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정부로부터 백만 달러를 받았다. 그는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 일하고 있었던" 이전 보험 대리인의 이름을 언급한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어머니는 보험 대리인에게 전화를 건다. 보험 대리인의 아내는 남편의 고객의 아내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도나(Donna)가 살아있다! 플로리다의 채널 9에서는 그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자택에서 그 남편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자 인터뷰 진행자는 그에게 자신이 조금 전에 도나와 인터뷰했었노라고 말했다. 정말 그 도나 리(Donna Lee)였는가? 그렇다. 그래서 그는 카메라를 통해 폭로되었다.

앓수르인들조차도 우리가 여호와보다 애굽인들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애굽만이 아니었다. 이사야는 유다가 모든 군사적 준비를 신뢰한 것에 대해 유다를 비난했다(사 22:8-11). 그러한 준비가 믿음 대신이 아니라 믿음 아래 행해진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사야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사 22:11b)."고 비난한다. "여러분에게 성벽과 물과 무기가 있는데 굳이 믿음에 대해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²⁶ 동맹을 맺고 성벽을 쌓는 것, 즉 우리의 활동은 너무나 자주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대용품이 된다. 교회는 이런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아마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회의가 있고, 소프트웨어와 팩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럴 때 한 앓수르인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

IV. 논리가 어리석음으로 변한다 (왕하 18:26-35 Logic turns into stupidity)

랍사게의 연설이 잠시 중단된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전문가답게 의전에 따라 현 외교적 공용어인 아람어로 말해 달라(왕하 18:26a)고 간청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왕하 18:26b)."라고

²⁶ J. A.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3), 185.

부탁하기까지 했다. 이 호소는 랍사게가 유다 말을 계속 사용하도록 부추겼을 뿐이다. 그가 이 일을 위해 선택된 것은 그가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그들의 요청을 무시했다. 랍사게는 그의 주요 청중이 바로 “성 위에 앉아 있는 자들로서 너희와 함께 자신의 대변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마셔야 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왕하 18:27b; “너희와 함께”라는 어구가 말해 주듯 “상층부”조차도 포위 공격의 참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앗수르의 협박은 여기까지이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더 훌륭한 살 길을 이렇게 제시한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왕하 18:31).” 훨씬 더 건강한 식단임에 틀림없다! 그는 암시한다. “확실히 너희들에게 소변보다 물이, 대변보다 포도와 무화과가 더 좋지 않느냐?” 그는 설득한다. “너희가 나와서 항복하면 앗수르의 부드러운 자비를 누릴 수 있는데 왜 너희 자신을 고기 분쇄기에 던지려고 하느냐? 물론, 우리는 너희를 ‘재배치’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왕하 18:32).”

그러나 랍사게는 협박할 뿐만 아니라 분열시키기를 원한다. 그가 예루살렘을 항복시킬 수 있다면 앗수르의 많은 땀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백성과 히스기야 사이에 썩음을 박고자 한다.²⁷ 그는 네 번이나 히스기야의 지도력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약화시키려고 애썼다.²⁸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왕하 18:29).”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그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왕하 18:30).”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왕하 18:31).”

“히스기야가 너희를 그릇 인도하고 있으니 그의 말을 듣지 말라(왕하 18:32).”

그가 왕실의 정책에 반대하는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성읍과 승진을 모두 얻을 것이다.

이 두 번째 연설에서 랍사게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분열을 조장하려고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주장의 핵심, 곧 논리로 넘어간다. 이 연설의 핵심 동사는 “구원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찰]이다.

²⁷ 열왕기하 18 장 전체를 통틀어 랍사게는 유다의 왕을 “히스기야”라고 부를 뿐, 결코 그를 “히스기야 왕”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대조적으로, 그는 앗수르 왕의 경우 칭호를 마구 지껄여댄다(19 절과 28 절 [하멜레흐 하가돌 멜레흐 아슈르] “대왕, 앗수르 왕”). 이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의도적인 “내려놓기”이다.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261 을 보라.

²⁸ Roger Ellsworth, *Apostasy, Destruction and Hope: 2 Kings Simply Explained*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2), 209, 그리고 Fricke, 265 을 보라.

이 동사는 여러 형태로 히브리어 열왕기하 18 장 본문에 아홉 번 나오며(29, 30, 32, 33, 34, 35 절), 랍사게의 논리적인 결말(왕하 18:33-35)의 핵심 단어이다.

(왕하 18:33-35) 33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4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²⁹

이것은 역사를 그것의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즉석에서 랍사게는 대여섯 가지 절망적인 사례를 열거한다. 앗수르의 강압 수단은 지나가는 모든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 어떤 신도 앗수르 신의 천하무적 군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없었다(왕하 18:35 참조). 그리고 나서 랍사게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왕하 18:35b). 믿음의 비약과 논리의 결함으로 그는 여호와가 세계적 수준의 제국에 필적할 수 없는 조그마한 왕국의 또 다른 평범한 신에 불과하다고 가정한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디선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선을 넘었다. 그는 너무 멀리 갔다. 종말의 시작이었다.

말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샌드필즈에서 열린 어느 토요일 저녁 토론회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불평했다. 사회자이자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사람에게 대해 평가하고 반박하며 “당신은 한 번 이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주십시오.”라고 말했다.³⁰ 말은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집회에서 쫓겨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랍사게의 말 또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여호와를 무명의 마을(Nowheresville)에서 온 셀 가치도 없는 신(no-count deity)으로 조롱했기 때문이다(참조, 왕하 19:22).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는 여호와(사 42:8; 48:11)께서 앗수르인들이 랍사게의 논리적 오류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이다.

²⁹ 왕하 18:34 에 나오는 일부 장소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왕하 17:24 의 설명을 참고하라. 하맛이 다메섹에서 북/북동쪽으로 120 마일 떨어진 곳이라면, 아르밧은 하맛에서 다시 북쪽으로 그 정도 멀리[120 마일] 떨어진 곳이며, 알렘포에서 북쪽으로 25 마일 떨어진 텔 에르파드와 동일시된다. 헤나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왕하 18:34 에 대한 나의 번역(Where are the gods of Hamath and Arpad? Where are the gods of Sepharvaim, Hena, and Ivah? Sure—they delivered Samaria from my hand!)의 마지막 부분은 롱(B.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216)을 따른 것인데, 그것은 일종의 빈정거림이다.

³⁰ Iain H. Murray, *Davi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2), 233.

랍사게의 엄포가 그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왕의 명령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랍사게는 기대에 부풀어 거기에 서 있었지만,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뜬다. 그들은 괴로워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모든 말을 전한다. 유다의 운명은 곧 바뀔 것이지만 18 장에서 황급히 쇠도하지는 않는다. 왕하 18:36-37 의 장면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게 하라. 그것은 아주 사실적이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겪는 일들이 종종 그렇게 암울해 보이지 않는가?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교회 역사가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자신의 선함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신자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견고하게 남아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인가?
4. 불신자가 여러분의 죄를 폭로할 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5.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25. 밤의 공포 (왕하 19 장 The Terror of the Night)

열왕기하 18 장과 19 장 사이의 장 구분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열왕기하 18 장은 한 장면의 끝에서 끝나고, 더욱이 열왕기하 19 장은 대칭적인 패턴으로 전개된다. 열왕기하 19 장은 긴 장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우리 앞에 두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열왕기하 19 장의 전개

왕의 간청, 왕하 19:1-4

선지자의 확언, 왕하 19:5-7

앗수르의 선전, 왕하 19:8-13

왕의 기도, 왕하 19:14-19

선지자의 확언, 왕하 19:20-34

앗수르의 멸망, 왕하 19:35-37

나는 이 문학적 분석을 따르며 강해를 진행할 것이지만 처음 세 부분을 하나의 제목 아래 다룰 것이다.

I. 동이 트기 전: 달라진 게 있었는가? (왕하 19:1-13 Before Dawn: Has Anything Changed?)

예루살렘에는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하다. 그래서 아마도 회개도 있었을 것이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왕하 19:1-2)은 고뇌와 슬픔을 나타낸다. 때때로 굵은 베옷은 회개의 표시였다(욘 3:5, 8; 단 9:3; 느 9:1 참조).¹ 어쨌든 히스기야의 말은 그의 옷차림보다 더 회개를 표현한다. 그는 엘리아김 일행을 이사야에게 보내며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경멸의 날(왕하 18:3)”이라고 한탄한다. “징벌[토해하]”은 “질책, 책망”을 의미할 수 있지만 “징계” 혹은 “처벌”을 나타내기도 한다(시 149:7; 호 5:9).² 그리고 “경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충실한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경멸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비슷한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³ 히스기야는 “위기가 너무 심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맞설 힘도 없고 자원도 없다.”라고 말한다.⁴

¹ L. G. Herr, ISBE, 4:256 을 보라.

² NIDOTTE, 2:444, 그리고 주석가들 중 Bähr 와 Patterson & Austel 의 설명을 참고하라.

³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3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69), 2:473 을 참조하라.

⁴ 이것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왕하 19:3b).”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앗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한[하라프]” 사실에 주목했다(왕하 19:4a). 그 때문에 산헤립은 골리앗의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짐승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고([하라프] 삼상 17:10, 25, 26, 36, 45) 결국 그의 머리에 돌을 맞고 죽었기 때문이다.⁵ 히스기야는 산헤립에 대해 그런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아마도[올라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동원한다. “당신[=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시[올라이]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브호히아흐 <야하] 듯합니다(왕하 19:4a).”

그러나 이사야는 “아마도[올라이]”에 관심이 없다. 그는 매우 간결하고 단호하다.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나아레 멜레흐-아슈르]에게⁶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하라프]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왕하 19:6b-7)

“이사야는 자신이 참 예언자인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지를 증명해줄 매우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한다.”⁷ 그러나 늘 그렇듯이 앗수르인들은 대중 매체의 과대 선전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산헤립”의 메시지는 그 길이에 있어서 이사야의 것과 히스기야의 것을 능가한다.

왕하 19:8-9 은 우리에게 지리적인 최신 정보를 알려준다. 산헤립은 라기스를 정복하고 이제

⁵ 어근 [하라프](피엘 어간, “모욕하다, 조롱하다, 비웃다”)는 사무엘상 17 장에 여섯 번(동사로 다섯 번[10, 25, 26b, 36, 45 절], 명사로 한 번[26a]) 나오며 다윗-골리앗 이야기의 해석적 열쇠이다. 나의 책 *1 Samuel: Looking on the Heart*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144-54[= **사무엘상 주해**, 166, 176-178(16 장 V. 믿음의 비전)]을 참고하라. 여기 열왕기하 19 장에서 동사로 네 번 나온다(4, 16, 22, 23 절). [역자 주: 개역개정본 사무엘상 17 장에서는 “모욕하다”로 번역하고 열왕기하 19 장에서는 “비방하다”로 번역했다.]

⁶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가 산헤립의 신복들(Davis의 번역: “servants”)을 “lads 젊은이들[나아레(복수 의존형) <나아르>”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275 을 참고하라.

⁷ 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366. 모티어(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3], 279)는 이사야가 여기서(사 37:6-7[왕하 19:6-7]) 여호와와 천사에 의한 앗수르 군대의 멸망(참조, 사 37:36[왕하 19:35])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사 14:24-27 에서 그것을 예언했었다고 지적한다. 모티어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덧붙인다.

아마도 라기스의 북쪽/북동쪽에 있었을 립나와 싸우는 중이었다(왕하 19:8).⁸ 산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의 공격 소식을 듣고(왕하 19:9) 별로 놀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무기가 아닌 심리전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노력을 새롭게 했을 뿐이며, 후자(=무기)는 저주받은 불편에 불과했다.⁹ 산헤립은 그의 메시지에서 히스기야에게 종교적 순진함에 대해 훈계하며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왕하 19:10).”고 말한다. 왕하 18:29 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히스기야가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제 여호와와는 속이는 신이 되어버렸다! 산헤립은 그의 “역사적 논증”의 모든 힘을 히스기야에게 쏟아붓는다. 그는 “보라, 너는[강조] ...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왕하 19:11).”라고 시작하며 마치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다. “히스기야, 네가 국가의 종교적 신앙을 옹호하는 것도 다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너는 더 잘 알고 있다. 곧 너는 역사의 사실들을 알고 있다. 너는 분명히 앗수르의 정복에 대한 자랑스러운 보고를 읽었을 것이다(왕하 19:11a). 그런데 히스기야, 너는 왜 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왕하 19:11b)?” 산헤립의 전임자들이 여러 민족을 멸망시킬 때 그들의 신들 중 누구라도 그들을 구출한 적이 있었던가(왕하 19:12)?¹⁰ “히스기야, 너는 그런 신 하나라도 댈 수 있느냐?” 즉석에서 산헤립은 현재 멸망당한 대여섯 명의 왕을 추가할 수 있었다(왕하 19:13).¹¹

⁸ 립나의 위치는 불확실하다. 어떤 사람들은 가드(만일 가드[Gath]가 텔 에스-싸피[Tell es-Safi]라면)에서 남쪽으로 5 마일 떨어진 텔 보르낫(Tell Bornat)을 선호한다. 칼 라스무센(Carl Rasmussen)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0 마일, 라기스에서 북동쪽으로 8 마일 떨어진 키르벳 텔 엘-베이다(Khirbet Tell el-Beida)를 선호한다(*Zondervan NIV Atlas of the Bible*, 243). 토론을 위해 John L. Peterson, “Libnah,” ABD, 4:322-23 을 참고하라.

⁹ 이전 장에서 키친의 재구성에 근거한 애굽-이디오피아의 위협에 대한 나의 논의를 참조하고 거기 각주 24 도 보라.

¹⁰ 왕하 19:12 에 언급된 장소들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산(Gozan)은 지중해의 북동쪽 모퉁이에서 동쪽으로 (직선으로) 약 220 마일 떨어진 유브라데강의 지류인 하볼강 상류에 있다. 하란은 고산의 서쪽 발릭강에 있다. 레셉(Rezeph)은 유브라데에서 하맛으로 가는 길에 있는 중요한 대상 중심지였으며, 하맛에서 동/북동 쪽으로 125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Wiseman, “Rezeph,” NBD, 1019). “에덴 족속”은 비트 아디니(Bit Adini, 발릭과 유브라데 사이의 시리아 북부 지역)의 사람들로 텔라살(Telassar, 위치 불명)에 재배치되었다.

¹¹ 왕하 19:13 에 나오는 지명에 관해서는 앞 장의 각주 29 을 참조하라. 일부 번역들은 “스발와임 성의 왕”을 언급한다. 그러나 “성의(of the city)”에 대한 히브리어 [라이르]는 Lair(라이르)라는 지명일 수 있으며, 코건과 태드모어(Cogan and Tadmor, //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235)는 바벨론 북동부에 있는 도시 Lahiru(라히루)와 동일시한다.

[역자 주]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보라.

이제 열왕기하 19 장의 첫 번째 부분(1-13 절)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사야는 산헤립이 급히 떠날 것이라는 여호와의 확약을 선포했다(5-7 절).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 같다. 예루살렘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열왕기하 18 장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앓수르의 주장도 동일하고, 앓수르의 오만함도 동일하다. 유다는 구원을 약속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밤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1865 년 6 월 28 일, 남군의 급습자 셰난도아호(Shenandoah)는 베링해에서 11 척의 북군 포경선을 탈취하여 파괴했다. 리 장군은 4 월 9 일에 그의 군대와 함께 항복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군대들도 항복했었다. 그러나 셰난도아호의 선장은 8 월 2 일까지 남북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6 월 28 일에도 선원들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었다.¹²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호와의 백성이 반복해서 직면하는 상황이 아닌가? 어떤 어려움이 그들을 에워싸고, 어떤 고난이 그들을 끌어내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경적 확신을 알고 있음(그들은 그것들을 인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곤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라는 기도를 사용한다(시 13:1-2).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면서도 “현재의 고난”을 헤쳐 나가고 있다(롬 8:18). 그리고 시편 88 편이 신자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조금 두렵게 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산헤립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실재를 우리에게 일깨워줄 수 있다면, 그의 삶은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II. 기도: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 (왕하 19:14-19 Prayer: Getting Our Bearings)

히스기야는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듯이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왕하 19:14; 참조, 왕하 19:1) 기도한다. 홉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부름(15 절), 불평(16-18 절), 간구(19 절)로 나눈다.¹³ 나는 그의 개요를 따를 것이지만 14 절을 먼저 다룰 것이다.

ESV: Where is the king of Hamath, the king of Arpad, **the king of the city of Sepharvaim**, the king of Hena, or the king of Ivvah?

개역개정: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공동번역: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

Cf. NIV: Where is the king of Hamath or the king of Arpad? Where are the kings of **Lair, Sepharvaim, Hena and Ivvah?**

¹² 이 기사는 *Civil War Times Illustrated* 의 한 오래된 호에 실렸던 것이다.

¹³ 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270.

i. 공개 (왕하 19:14 Disclosure)

산헤립의 최신 메시지는 말(왕하 19:9b-13 절 참조)과 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읽고, 여호와와 성전으로 가서, 산헤립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는다(왕하 19:14). “히스기야는 신성 모독 문서인 그 편지를 여호와께 엄숙히 넘긴다.”¹⁴ 이러한 이유로 절망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조롱할 때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이것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빌 4:6).”는 구약의 사례이고,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시 55:22)이다. 어쩌면 그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속수무책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기도가 항상 시작되는 지점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 솔직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순간 속수무책은 기도가 된다.”¹⁵

ii. 부름 (왕하 19:15 Invocation)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 히스기야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법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들 위에¹⁶ 계시는 분,
당신님은, 당신님만이 홀로,
지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룹들 위에 계시는”) 강렬한 임재의 하나님, (“지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통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막강한 권세의 하나님께 나온다. 여호와는 (“그룹들 위에 계시며”) 그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임재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열방과

¹⁴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10. 월리스(R. S. Wallace, *Readings in 2 Kings* [Eugene, OR: Wipf and Stock, 1997], 168)는 아이러니를 멋지게 포착하며 “산헤립은 그의 편지를 구술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라고 말한다.

¹⁵ O. Hallesby, *Prayer* (London: Inter-Varsity, 1948), 23.

¹⁶ [요세브 크루빔]이란 어구는 [크루빔] 앞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만일 그룹들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출 25:10-22 [하크루빔 아세르 알-아론 하에두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위에(over, above)” 또는 “사이에(between)”가 될 수 있고, 성전에 새겨진 그룹들(왕상 6:29 참조)을 가리킨다면 “사이에, 가운데(among)”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무단이탈(AWOL)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다.¹⁷ 히스기야는 한 개의 문을 통해 그가 가까이 계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왔다고 고백한다. 접근 가능하시고, 주권적이며, 유능하신 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행들에 세 가지 요점의 설교를 담았다! 그리고 반전은 바로 그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현재의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닌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위엄을 읊조리는 것보다 히스기야를 격려하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곧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방식에 관하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가 아닌가?

iii. 불평 (왕하 19:16-18 Complaint)

이제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감각에 호소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왕하 19:16).” 그리고 히스기야는 두 가지 진실을 고백한다. 그는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왕하 19:17-18a).”라고 첫 번째 진실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왕하 19:18b).”라고 두 번째 진실을 고백한다.¹⁸ 첫 번째 진실은 두 번째 진실에 의해 무력화된다. 앗수르는 모든 정복에서 진짜 신과 맞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와께 드리는 탄원에서 히스기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실(“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을 고백한다.

연합군이 1944년에 도착하여 파리를 해방시켰을 때, 독일 점령 기간 동안 조용했던 교회

¹⁷ John Bimson, “1 and 2 Kings,” *New Bible Commentary*, 4th ed. (Leicester: Inter-Varsity, 1994), 380을 참조하라. 그리고 칼빈(*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n vol. 8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99], 118-26)이 이사야의 병행 본문(사 37:14-20)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깊게 강제한 것도 잘 살펴보라.

¹⁸ 일반적으로 앗수르인들은 노획한 신상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던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앗수르에 잠시 보관했다가 신상들을 빼앗겼던 신봉자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236을 참고하라. 그리고 *Imperialism and Religion: Assyria, Judah and Israel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ies B. C. E.* (Missoula, MT: Scholars, 1974), 22-41에 실린 “Assyrian Spoliation of Divine Images”란 제목의 코건의 논의도 참고하라. 그러나 앗수르인들은 신상을 파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건의 논의(*Imperialism*, 24쪽)와 “D. D. Luckenbill, *Ancient Records of Assyria and Babylonia*, 2 vols. [Lon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1989 reprint], 2:308, 310[아슈르바니팔에 관한 것]”도 참고하라.

종소리가 이제 기쁨의 불협화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생 필립 뒤 룰(Saint-Philippe du Roule)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분명히 많은 교구민들이 그 목요일 저녁에 캐논 장 뮐러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의 종이 합창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다음 일요일에 뮐러는 교회의 종을 울려 달라고 요청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 흥분한 나머지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생 필립 성당의 종탑에는 종이 없습니다.”¹⁹ 내가 보기에 그것은 중요한 정보였던 것 같다. 생 필립 성당의 종탑에는 종이 없었기 때문에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방의 신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앗수르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앗수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대단한 신” 곧 여호와께 싸움을 건다면 앗수르는 어떻게 될까? 히스기야는 기도 중에 진리를 고백했고(왕하 19:18b) 그래서 소망에 가까워졌다. 기도는 종종 그런 일을 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분수를 더 잘 알게 된다.

iv. 간구 (왕하 19:19 Supplication)

히스기야의 간구는 두 갈래, 긴급 청원과 그로 인한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왕하 19:19a).” 세계의 공포가 여러분의 벽 밖에 있을 때 요청은 매우 간단하고 직접적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면 일어날 결과를 실제로 암시하는) 추가 청원이 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왕하 19:19b).”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명성을 전 세계에 드높일 것이다. 수십 개의 신들이 강력한 산헤립과 산헤립의 영주 앗수르 앞에서는 무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앗수르가 여호와를 만나 패하게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가서 다른 패자 신들과 합류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간청은 그의 고난과 여호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간청이 상달될 가능성이 높다.²⁰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1540 년에 그의 친구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는 몹시 아팠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루터에게 작별 편지를 썼다. 편지를 받자마자 루터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살라고 명하네. 이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네. ... 주님께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자네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하지 않으시고, 자네가

¹⁹ Larry Collins and Dominique Lapierre, *Is Paris Burn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5), 258.

²⁰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필요를 일깨우기 위해 수치와 명백한 패배를 겪게 하실 수도 있다. 사무엘상 4 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허락하실 것이네. 이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네. 이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네. 이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네.” 미코니우스는 루터의 편지가 왔을 때 이미 언어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루터보다 두 달 더 오래 살았다!²¹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네. 이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네.”라는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는 열정이 여호와와의 영광일 때, 이상한 확신이 우리의 기도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기도는 재앙과 구원 사이에 우리가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도 우리는 자주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III. 예언: 예정과의 연애 (왕하 19:20-34 Prophecy: A Love Affair with Predestination)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시킨다(왕하 19:20). 그리고 산헤립의 위협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열왕기하 19 장을 지배한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위한 좋은 징조이다. 이사야의 예언(왕하 19:20-34)은 교만(20-28 절), 낙심(29-31 절), 두려움(32-34 절)을 다루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만함은 앗수르의 것이요, 낙심과 두려움은 예루살렘의 것이다. 나는 “낙심”과 “두려움” 부분을 먼저 다루고 마지막으로 앗수르의 갈아뭇개는 말을 다룰 것이다.

왕하 19:29-32 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를 선포한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징조이고, 지금 당장의 징조가 아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확언은 앗수르의 침략자 때문에 그 땅이 황폐화되어 그대로 버려진 상태에 있을 것을 가정한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식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징조”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왕하 19:29)”는 것이다. (델리치의 주석에 근거한) 오스왈트가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 실제 달력의 연도는 3 년이라고 하지만 약 14 개월에서 15 개월만 적용이 된다. 이 견해는 예언이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는 “금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가을에 주어졌다고 하는 제안을 포함한다. ... 구원은 이듬해 가을 파종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²¹ Hallesby, *Prayer*, 103 에서 재인용.

이것은 이듬해에는 이전 식물의 뿌리에서 나온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 해 가을, 즉 삼년째 되는 해가 시작될 무렵에는 앗수르인들이 사라질 것이 때문에 심고 거두는 정상적인 생활이 재개될 수 있었다.²²

“제삼년”이 되어 유다 농부들이 농작물을 심고 있을 무렵, 그들은 여호와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심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기본적인 공급과 단순한 생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일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번성할 수 있다는 것(뿌리와 열매 비유, 왕하 19:30)은 헛된 꿈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앗수르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진영에서 프리스비나 포커를 하면서 산헤립의 군대가 서쪽에 올라와 예루살렘을 마무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왕하 19:31a).”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이 겉모습에 의해 감동되는 자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왕하 19:31b).”고 덧붙이셨다. 마치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열심을 갖고 계시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한다(문맥상 이사야 9:7 참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고, 공급을 받을 것이며, 다시 번영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격려하신다.

그런 다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또 다른 확언(왕하 19:32-34)을 추가한다. 여호와와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신다(왕하 19:28b 참조). 그는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읍에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든 보병을 동원하지 못하고, 공성전을 위해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왕하 19:32).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왕하 19:34) 산헤립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왕하 19:33) 것이라고 말한다. 산헤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 자신과 다윗을 위함이었다(왕하 19:34). “나 자신(=여호와)을 위하여”라 함은 앗수르의 신성모독에 직면하여 자신의 우월하심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 함은 “새로운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다윗의 왕통을 유지하겠다는 그의 언약 때문에”라는 의미이다.

²²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Grand Rapids: Eerdmans, 1986), 665.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앗수르의 교만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왕하 19:20-28) 백성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신중을 기하신다(왕하 19:29-31, 32-34). 후자는 전자만큼 필수적이며 여호와와 그렇게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나는 때때로 확고한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곤 한다. 분명히 예배를 위한 모든 의식은 잃어버린 자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 드러진다. 대부분의 모든 설교는 (적어도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결코 놓치지 않는 “초청”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사역이 전체 “청중”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것의 장점이나 다른 것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지만 양을 먹이지 못한다. 그런 사역은 죄인들에게 죄의 자각을 주기를 원하지만 결코 신자들에게 격려를 주지 못한다. 그런 사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흔들려 놓으려고 노력하지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호와와 그와 같지 않으시다. 그는 산헤립을 상대하시지만 자기 백성의 두려움과 떨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는 패역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지만 항상 그분의 교회를 위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제 이사야가 여호와와 말씀의 충구를 산헤립에게 겨누는 왕하 19:20-28 로 돌아가 보자. 선지자는 앗수르를 경멸하는 시온/예루살렘의 놀라운 그림으로 시작한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바자] 너를 비웃었으며[라아그]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왕하 19:21b)

시온/예루살렘은 앗수르의 섬멸당한 군대가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는 것을 경멸할 뿐이다.²³ 이것이 도입부의 그림이다.

여호와와 말씀은 산헤립에 대해 선포된 것이다(왕하 19:21a). 그분은 **그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신다**(왕하 19:22)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하라프, 개역개정: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가다프]?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뿔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왕하 19:22)

²³ 코건과 태드모어(Cogan and Tadmor, *II Kings*, 237)는 머리를 흔드는 것이 조롱에 그치지 않고 마치 예루살렘이 (당연히, 장난으로/농담조로) “오 가엾은 앗수르여, 네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슬픔과 동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동사[누아 > 히프일 여간 헤니아]와 “머리”의 결합은 조롱과 적대감을 내포하고 있다(애 2:15; 시 22:7; 109:25; Iain Provan, *Lamentation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London: Marshall Pickering, 1991], 74 참조).

조롱은 왕하 18:30, 32b-35 및 왕하 19:10-13 에 나오는 조롱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구원할 수도 없으시다고 말하는 조롱이고, 어떤 것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앗수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조롱이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산헤립의 말을 분명하게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왕하 19:23 에서 “네가[=산헤립] ...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시며 그의 자랑을 “인용”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산헤립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앗수르에게 공로를 돌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는 자기우월성을 과시하고 자신의 신 콤플렉스(deity complex)에 탐닉하는 것을 좋아했다.

(왕하 19:23-24) 23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내가[강조]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내가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24 **내가[강조]**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내가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²⁴

산헤립은 단지 앗수르의 좋은 전통을 따르고 있었을 뿐이다. 앗수르-나시르-팔(Assur-nasir-pal, 주전 884-858 년)은 자신이 아마누스 산(지중해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산맥)에 올라가 백향목, 잣나무, 향나무, 소나무의 들보를 베어냈다고 주장했다.²⁵ 앗수르 왕들은 산헤립 자신이 증언한 바와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종종 자랑하였다.

나는 니푸르 산 기슭에 진을 치고 엄선한 경호원과 끈질긴 전사들과 함께 거친 들소처럼 그들보다 앞서 갔다(길을 인도했다). 나는 가마를 타고 협곡, 산의 급류와 폭포, 위험한 절벽을 넘었다. 가마를 타기에는 너무 가파른 곳에서는 걸어서 전진했다. 어린 가젤처럼 나는 그들을 쫓기 위해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다. 무릎에서 힘이 빠질 때마다 나는 (어떤 산 바위[원문대로]에 앉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 가죽 부대에서 차가운 물을 마셨다. 나는 산꼭대기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전복시켰다. 내가 그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갔다. 나는 파괴하고, 황폐화시키고, 불로 태웠다.²⁶

²⁴ 번역문에 첫 번째와 네 번째 “내가” 다음에 [강조]라고 표시한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내가”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산헤립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빠지고 있다.

²⁵ Luckenbill, *Ancient Records of Assyrian and Babylonia*, 1:167; so Shalmaneser III as well, 1:205, 216.

²⁶ Luckenbill, 2:122. 또한 1:142, 149-50, 152-53, 155(앗수르-나시르-팔); 1:213, 218f.(살만에셀 3 세); 1:256(삼시-아다드 5 세)도 참조하라.

한두 가지 사소한 해석상의 문제들은 이 본문에서 산헤립이 의미하는 바를 흐리게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막을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어떤 것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²⁷

그것은 항상 어리석은 말이다. 사람들은 영국 여객선 **타이타닉호**(현재까지 가장 큰 이동식 인공 물체)가 너무 잘 건조되어 “하나님도 직접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⁸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그것도 (1912년 4월 14일) 처녀 항해에서 1,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산헤립의 무지를 폭로함으로써** 그의 오만에 응답하신다(왕하 19:25-26).

25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26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글썄,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산헤립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멍청했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나중에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들을 짓밟는 바사왕 고레스의 휩쓸어 버리는 승리에 대해 동일한 예정론적 주장을 펼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사 41:4).” 이상하게도, 세계 정복자들은 지독하게 무지한 종(種 species)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승리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산헤립의 분노와 오만함에 질리셨고(왕하 19:27-28a), 그래서 그분은 그를 유다에서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왕하 19:28b).”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왜냐하면 앗수르인들은 코에 갈고리를 꿰는 것과 이와 유사한 “처리들”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글랏빌레셀 1세(주전 1115-1076년)는 “내가 그들의 코에 밧줄을 달아 나의 도시로

²⁷ Oswalt, *Isaiah*, 661.

²⁸ John Blanchard, *Is God Past His Sell-by Date?*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2), 160-61.

데려갔다.”라고 자랑했다.²⁹ 아슈르바니팔(주전 669-633 년)은 엘람 포로들의 “입술을 꿰뚫어” 잇수르로 끌고 갔다. 그는 어떤 우아이트인(Uaite')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예리한 단검으로 그의 턱을 찔렀다. 그의 턱에 ... 내가 밧줄을 꿰뚫고 그에게 개 사슬을 씌우고 니스웨의 안쪽 성벽의 동문에 있는 개집을 차지하게 하였다.³⁰

그러나 왕하 19:28b 의 이미지는 또한 산헤립이 씌어진 굴레와 재갈에 의해 자기 주인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받는 “덩치 큰 짐승”임을 암시할 수도 있다. “자수성가한 세상의 통치자에서 고집 불통의 노새로 전락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다.”³¹ 아마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는 여호와와의 나귀로 전락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왕하 19:20-34)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산헤립의 오만함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25-26 절이다. 산헤립의 자랑(23-24 절)을 몇 줄로 인용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반박하신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이다(왕하 19:25).” 다른 말로 하면, 산헤립이 역사의 한 순간에 등장하기 오래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승리와 정복을 예정해 놓으셨다. 진실을 알게 되면 교만은 사라진다.

1973-74 년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대한 미국 상원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위원장 샘 J. 어빈 주니어는 신시내티 대학교의 졸업식 연설을 하기 위해 신시내티로 가야 했다. 연설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어빈은 두 명의 신시내티 경찰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서장은 누군가 어빈을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었음을 시사했고, 그로 인해 이 두 경찰관은 어빈이 신시내티에 머무는 동안 그의 방에서 밤을 보내며 그를 돌보아야 했다. 그런 다음 “분위기를 망치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 한 경찰관이 “나는 경찰서장이 당신의 암살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신시내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라고 중얼거렸다.³² 특별 경호가 어빈에게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망상을 갖게 했다면, 그 우스개소리는 그를 그러한 망상에서 깨어나게 했어야 했다.

산헤립도 마찬가지이다. 그 잇수르인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왕하 19:23-24), 사실 그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에 결정하신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약간의 예정은 오만함을 줄여준다. 물론, 예정(predestination)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들은

²⁹ B.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231 에 나오는 A. K. Grayson 의 말의 재인용.

³⁰ Luckenbill, 2:306, 319.

³¹ Oswalt, *Isaiah*, 663.

³² Paul F. Boller, Jr., *Congressional Anecdotes* (New York: Oxford, 1991), 175.

“P로 시작하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예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해서 편안하게 살고, 분노하고, 진정제를 삼키고, 저녁 뉴스를 보면서 배짱을 부리며 살면 된다. 그러나 우리 중 일부는 예정의 베개(pillow of predestination), 즉 이 시대의 산헤립이 떠들어대도 결코 놀라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선호한다.

IV. 어두워진 후: 여호와의 공포 (왕하 19:35-37 After Dark: The Terror of the Lord)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185,000 명을 쳐 죽였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보니 그들은 모두 시체였다(왕하 19:35)!”³³ (여호와께서는 앗수르인들을 “밤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시 91:5 참조].) 산헤립은 공격을 그만두고 니느웨로 돌아갔다(왕하 19:36 절; 참조, 왕하 19:33). 약 20 년 후 산헤립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이 그를 암살했다(왕하 19:37).³⁴

왕하 19:35-37 은 열왕기하 18-19 장의 학문적 연구에서 문학적 의붓자식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말하는 왕하 19:35 때문이다. 하나님의 개입이란 개념은 심지어 성경 학자들에게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들에게는 신학적인 것은 무엇이든 즉시 의심스러워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란³⁵ 주장을 듣게 되며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와 작은 충돌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조금 더 자세히 평가해 보자.

첫째로, 문학적 고려 사항이 있다. 열왕기하 19 장에서 35-37 절은 이야기의 절정이고, 특히 이사야의 예언의 세 부분이 그 절정을 다소 지연시킨 후에 나오는 절정이다. 그리고 36 절은

³³ 나는 직역을 했다. 저자는 우스꽝스럽지 않다. 저자가 “그들이 일어났을 때”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전멸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십중팔구 살아남은 앗수르인들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NASB 는 남성 일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남자들/사람들이 일찍 일어났을 때(when men rose early)”라고 번역한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전체 앗수르 군대가 현재 예루살렘 밖에 있다고 가정하며 “그들”을 예루살렘 주민들로 간주한다(예: 로버트 콘). 여호와의 사자에 관해서는 Alec Motyer, *Isaiah*,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9), 231 을 참고하라.

³⁴ 니스록(Nisroch)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도 누스쿠(Nusku) 또는 아수르(Assur)였을 가능성이 있지만(Wiseman)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바벨론 연대기와 앗수르 자료는 산헤립이 그의 아들 혹은 아들들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Kenneth A.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3), 42 을 참조하라.

³⁵ 예를 들어,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569, 582 을 보라.

28 절과 33 절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37 절은 각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7 절(“그가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37 절은 산헤립을 쳐죽인 도구가 참으로 칼이었다고 단언한다. 37 절에 나오는 그의 죽음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지 20 년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성경의 알 바가 아니다. 성경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의 확실성(37 절이 7 절의 성취임)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므로 산헤립의 마지막 20 년에 대한 요약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7 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여호와의 심판은 앗수르의 군대에게 내려질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자를 청산할 때까지 그를 따라간다. 왕하 19:35-37 은 열왕기하 18-19 장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절정적 요약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둘째로, 왕하 19:35 의 의심스러운 “신학적 해석”은 어떤가?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후대의 전설로 간주해야 하는 구절인가? 그렇지 않다. 밀라드와 키친은 다른 고대 근동의 기록들이 신의 개입과 역사적 사건을 함께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교도들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역사적 데이터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같은 자료에 결합했다. 때때로 그러한 “신학적-역사적” 기록들은 그들이 묘사한 사건 직후에 기록되었음이 밝혀질 수 있다. 다음 2 세기 동안 잡다한 신학적/전설적 설명으로 그 기록들을 조작하는 편집자는 없었다. 심지어 산헤립 자신의 연대기에도 언급된 사건들이 일어난지 1 년도 채 안 되어 쓰인 기록에 군사적 승리에 대한 보고와 “신의 개입”이 결합되어 있다. 키친이 말한 것처럼, “앗수르의 신학적 해석이 그들의 **원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어 본문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³⁶

셋째로, 설명이 필요한 역사적 데이터가 있다. 산헤립은 앗수르로 돌아갔다(왕하 19:36). 그 이유는 왕하 19:35 이 제공하고 있다. 앗수르 왕들은 그들의 실패와 재난을 연대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극복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다시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나 산헤립은 그의 군대가 죽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채찍에 맞은 강아지처럼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산헤립의 침묵은 오히려 웅변적이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면, 그는 그것을 자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니느웨에서 발굴된 일련의 훌륭한 부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산헤립이 라기스를 정복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궁전의 부조는 길이 38 피트, 너비 18 피트의 방의 벽을 차지하고

³⁶ K. A. Kitchen, *Reliability*, 47-51(여기 인용된 문은 50 쪽에 나오며 강조는 키친의 것임), 그리고 A. R. Millard, “Sennacherib’s Attack on Hezekiah,” *Tyndale Bulletin* 36 (1985): 72-77 을 보라. 죽임당한 앗수르 군사 “십팔만 오천”명이란 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Oswalt, *Isaiah*, 669-70 을 보라.

있다. 왜 모든 것이 라기스에 대한 묘사로만 되어 있는가? 산헤립에게 라기스 방이 있었다면 왜 예루살렘 방은 없었는가? 라기스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면피용이 아니었는가? 어쨌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왕하 19:35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시 48:12).” 그렇다. 사람들은 앗수르가 사라졌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시온의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것들이 모두 거기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한심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공격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여러분은 밤의 공포를 조심하라.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히스기야가 처음에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2.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부족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3.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범은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가?
4.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는 것 같은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 중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5. 산헤립의 교만과 오만함은 어떻게 유다와 여호와의 역사에 대해 눈멀게 했는가? (애굽을 생각해 보라!)

26.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 과연 그런가? (왕하 20 장 Yahweh Is All You Need! Or Is He?)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제블론 밴스 상원 의원에게 누군가가 금주법의 주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물었다. 밴스는 대답했다. "나는 신사의 질문에 내 머리가 금주라는 위대한 정책에 강하게 기울어져 있지만 내 위는 그와 반대로 갈망한다고 말함으로써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나의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고 솔직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¹ 그래서 밴스는 금주법에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다. 여기에 음주를 하지 않는 밴스가 있고 음주를 하는 밴스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열왕기하 20 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약간 비슷하다. 이 장은 히스기야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고(1-11 절), 다른 하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모습이다(12-19 절).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나는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열왕기하 20 장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전개를 따르므로 강해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전체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열왕기하 20장의 전개

시기와 상황, 1a절

선지자의 출현, 1b절

전언(사망), 1c절

히스기야의 반응, 2-3절 (기도)

전언(구원), 4-6절

(성취, 7절)

히스기야의 반응, 8-11절 (징조)

시기와 상황, 12-13절

선지자의 출현, 14절

+ 질문과 답변, 14b-15절

전언(유배), 16-18절

히스기야의 반응, 19 절

¹ Paul F. Boller, Jr., *Congressional Anecdotes* (New York: Oxford, 1991), 115.

그리고 사건들의 연대 순서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열왕기하 20 장은 18:13-19:36 **이후에** 이야기되고 있지만 연대적으로 보면 18:13-19:36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왕하 20:6 은 예루살렘이 앗수르로부터 아직 구원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왕하 20:13 에 묘사된 대로 히스기야의 금고가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기(왕하 18:13-16) 이전이어야 이치에 맞는다. 이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연대기는 성경 저자들을 인질로 잡지 않는다. 사사기 19-21 장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끝 부분에 실려 있지만 묘사된 사건은 실제로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났다.² 아니면 이사야는 왜 이사야 6 장에 나오는 선지자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다섯 장에 걸친 그의 설교를 먼저 우리에게 주었는가?³

므로닥발라단(왕하 20:12)은⁴ 앗수르에게 거의 영구적인 골칫거리였다. 그는 사르곤 2 세가 사망한(주전 705 년) 후 국제 정세를 뒤흔들었다. 산헤립은 그의 첫 번째 원정(주전 702 년)에서 그를 물리쳤다고 주장한다. 므로닥발라단의 사절단이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히스기야를 방문한 것은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병/회복이 주전 702/701 년에 일어났다면, 그는 15 년을 더 살다가 주전 686 년에 죽었을 것이다.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로운 회복을 허락하시고, 바벨론의 책략가들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² 나의 책 *Judges: Such a Great Salvation*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7), 207, n. 1 [= **사사기 주해**, 173(21 장 새로운 소돔, 각주 1)] 그리고 나의 책 *1 Samuel: Looking on the Heart*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7), 293-96 [= **사무엘상 주해**, 279-282(26 장 II. 더 가벼운 짐)]에 나오는 (연대순을 따르지 않으나 의미 있게 그렇게 한) 삼상 28:3-25 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라.

³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331, 그리고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6), 173-75 을 참조하라. 역대하 32 장과 이사야 36-39 장은 예루살렘 구원 이후에 히스기야의 병과 바벨론인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도 38-39 장에 묘사된 사건(히스기야의 병과 바벨론인들의 방문)이 36-37 장에 묘사된 사건(산헤립의 침입과 패배)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사야와 열왕기 중 어느 것이 원본인가? 나는 모른다. 이에 대해 나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이사야 안에서 38-39 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Oswalt, 672-73 을 참고하라.

⁴ [역자 주] 왕하 20:12 에 나오는 מְרֹדַךְ בַּלְאֲדַן[므로다흐 발아단]은 사 39:1 에서 מְרֹדַךְ בַּלְאֲדַן[므로다흐 발아단]으로 나온다. 개역개정(NASB/NKJV)은 각각 므로닥발라단, 므로닥발라단으로 번역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NIV/ESV)은 모두 므로닥발라단으로 번역했다. 데이비스는 Merodach-baladin 으로 표기하고 있다.

⁵ W. S. LaSor, "Merodach-baladin," ISBE, 3:325-26, 그리고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417-18 을 보라.

도착하지만, 앓수르인들은 므로닥발라단을 역사의 무대에서 밀어내고, 유다를 도우러 오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왕하 18:21; 19:9 참조), 유다를 쳐서 거의 멸망하도록 유린한다. 이제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이집트의 목발을 모두 잃고 구원을 위해 여호와께 몸을 던진다(왕하 19 장). 그러나 저자는 사건들을 연대 순서를 따라 배열하고 묘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는 먼저 여호와와 예루살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왕하 18-19 장)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왕하 20 장) 그 드라마의 한가운데로 되돌아간다. 거기서 저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I. 하나님의 종은 믿음으로 행하며 그의 긍휼의 말씀을 즐긴다 (왕하 20:1-11 God's servant walks in faith and enjoys his compassionate word)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것처럼 보인다(왕하 20:1a). 저승사자가 산헤립보다 먼저 그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왕하 20:1b).”는 첫 번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셨다. 그것은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친절하기까지 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뚜렷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부 가족과 의료진이 그렇게 솔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사야의 전언은 히스기야를 자극해 기도하도록 이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탄식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왕하 20:3a).”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한다(왕하 20:3b). 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이기적이거나 제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정직히 행한” 것에 대하여 읽었다(왕하 18:1-8).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이유로 기도자의 신실함에 호소하는 시편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시 7:3-5; 17:1-5; 18:20-26; 26:1-7; 44:17-22 참조). 여기에는 죄 없는 완전함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오직 언약적 순종에 대한 생각만 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그분의 분명하신 말씀을 반복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처럼 보일 수 있다. 나는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전적으로 본능에 따라 행동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성애 따라 행동했는지 알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그러나 여호와의 단호한 말씀이 그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부르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출 32:7-14; 삼하 12:13-22). 때로는 최종 작정처럼 들리는 것이 미묘한 초대일 수 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왕에게 돌려보내시며 다음과 같은 수정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셨습니다(왕하 20:5b-6)

죽음 대신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장례식 대신 예배가 있을 것이고, 패배 대신 구원이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에 대해 참으로 큰 응답을 받았다! 여호와는 들으시고, 고치시고, 더하시고, 방어하신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친절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분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왕하 20:5).”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앗수르의 혼란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그에게 확인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의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야는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종기(또는 발진[NJPS], 또는 피부 질환)에 놓으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었다(왕하 20:7).⁶

여호와의 약속은 다소 파격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완전하게 고치실 것이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3 일 만에” 예배하러 성전에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왕하 20:5).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확신시켜 줄 즉각적인 징표를 요청했다.⁷ 우리는 그 징표가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사야는 “그림자가 열 계단을 나아갈 것이니이까? 아니면 열 계단을 물러갈 것이니이까(왕하 20:9b)?”라고 말했다. 그 계단들은 분명히 아하스 왕이 지은 것이었다(왕하 20:11). 어떤 사람들은 본문이 어떤 종류의 해시계를 가리킨다고

⁶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and Mark Chavala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0), 407 을 보라.

⁷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가 왕하 20:7 에서 이미 회복되었다고 했는데 왜 왕하 20:8 에서 그가 징표를 구했는지 의아해한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가 회복되기 전에 징표를 요청한 것이 자명하다. 왕하 20:8a 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식은 첫 동사를 과거완료로 보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요청하였었다(NIV, NBV, NLT 처럼 “had asked”)”라고 번역함으로써 그의 요청을 왕하 20:4-6 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바브 계속법 미완료 동사는 때때로 과거완료로 번역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Waltke & O'Connor(*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552-53)를 인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A. B. Davidson, *Hebrew Syntax*, 3rd ed. (Edinburgh: T. & T. Clark, 1896), 72-73 도 참고하라. Davidson 은 그가 인용한 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애를 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열왕기하 20 장에서 7 절을 괄호로 묶고 8 절을 6 절에 바로 연결할 수도 있다.

추측하지만,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계단일 수 있다.⁸ 아무튼,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더 “어려운” 쪽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 그 일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부르짖었다(왕하 20:11). 여호와께서 태양 광선을 굴절시키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우주적 결함이 개입될 필요가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계단에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에게 15 년을 더 주시기 위해 시간을 “백업”하고 계셨음을 암시했을 것이다.

우리가 왕하 20:1-11 에서 취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인 왕을 죽음과 고난에서 구해내신 동정심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누군가는 여호와께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동정심을 보이시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왜 그분은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며 고통스럽게 하시다가 그 선고를 “번복”하고 15 년을 더 주셨는가? 이에 대한 답을 나는 모른다. 설사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분의 “수정된” 말씀 배후에 적어도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왕하 20:5).”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고뇌를 덜어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잘 잊어버린다. 우리는 무릎을 꿇자마자 이교도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꺼려하시며 마지못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 안에 올바른 태도를 시동 걸기 위해 존 뉴턴의 도움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가!

내 영혼아, 네 옷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분이 친히 그대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는 왕께 나아온다.

그대와 함께 큰 청원을 가져온다.

그의 은혜와 능력이 크시므로,

아무도 지나치게 요청했다고 할 수 없다.

⁸ *Bible Background Commentary*, 407, 그리고 Richard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2 King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274(E. J. Young의 설명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라.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여호와의 긍휼이 어려운 섭리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왕하 20:5-6의 기쁜 말씀이 왕하 20:1의 슬픈 포장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오직 여호와의 친절이란 화학 작용만이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한 사람이 큰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는 재정적 재앙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연이은 실패에서 회복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자신을 몰아붙였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1741년에는 빚더미에 올라 채무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더블린 자선 단체로부터 자선 공연을 위한 작품을 작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작업에 착수했고, 3주 동안 거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음식을 먹기 위해 잠시 멈추지도 않았으며,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3부작 오라토리오(260페이지 분량의 원고)가 24일 만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조지 프리데릭 헨델은 **메시아**를 만들었다. 초연에서 **메시아**는 400 파운드를 모금하여 채무자 감옥에서 142명을 석방했다. 그의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은 "**메시아**"는 어느 나라의 어떤 단일 음악 작품보다 더 많이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아를 양육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헨델의 상황은 호전되었다.⁹ 그러나 1741년 4월 그가 "고별" 연주회를 열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을 성공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고난의 다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 주지는 못하지만 절망에서 구해 줄 수는 있다. 어쩌면 우리는 뉴턴의 친구인 윌리엄 카우퍼(William Cowper)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너희 두려운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가져라.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구름이

자비로 커지고,

너희 머리에 복이 내리리라.

나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를 신뢰하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섭리 뒤에

그분은 웃는 얼굴을 숨기신다.¹⁰

⁹ Patrick Kavanaugh, *The Spiritual Lives of the Great Composers* (Nashville: Sparrow, 1992), 5-6.

¹⁰ 그의 찬송가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움직이신다)."에서 발췌한 것이다.

II. 하나님의 종이 어리석게 행하여 그분의 엄중한 말씀을 받다 (왕하 20:12-19 God's servant walks in folly and receives his severe word)

방문자들이 있었다! 그것도 바벨론에서 온 방문자들이었다! 므로닥발라단은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의 사절을 보냈다(왕하 20:12).¹¹ 히스기야가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뿌듯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¹²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왕하 20:13).” 이 모든 것은 위문과 축하를 넘어섰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온 “편지(왕하 20:12)”는 병문안을 위한 카드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마도 “숨겨진 의제”를 설명했을 것이다(모티어). 따라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그들을 데리고 관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 즉 반앗수르 동맹을 맺을 때 도움이 될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¹³

이사야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색을 알아차렸음에 틀림없다. 선지자는 과묵함으로 고통받지 않고 왕에게 가서 “한 수 위로” 나온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왕하 20:14)?” 왕이 대답하자 선지자는 왕에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왕하 20:15a)?”라고 다그친다. 히스기야의 대답은 꽤 개방적이고 강조적이다.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왕하 20:15b).”¹⁴ 그것은 마치 이사야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왕하 20:16).”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순간을 초래한다.

¹¹ 성경에 나오는 므로닥발라단(Merodach-baladin)은 앗수르와 바벨론의 문헌에 나오는 마르둑-아플라-이디나(Marduk-apla-idinna, [역자 주: “Marduk has given an heir.”]) 2 세이다.

¹² BDB, 1034 는 여기서 동사(직역, 듣다, to hear)를 “귀를 기울이다, 양보하다, to listen to, yield to”로 풀이한다.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은 사 39:2 에 나오는 병행구 “기뻐하다”와 같은 독법[역자 주: נִשְׂמָח]을 갖고 있다.

¹³ 알렉 모티어(Alec Motyer, *Isaiah*,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9], 240)는 히스기야가 느꼈을 감격을 멋지게 포착했다. “그들이 나를 보러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을 상상해 보라! 므로닥발라단이 나를 동맹으로 삼기 원하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¹⁴ 볼드체로 된 목적어를 동사 앞에 둔 것은 히브리어 본문의 강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왕하 20:13-15 에서 동사 [라아] (“보다/보여주다”)가 다섯 번 나온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왕하 20:17-18).”¹⁵

따라서 아침은 성취감을 줄 수 있고 음모는 짜릿함을 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이다. 이사야는 여호와와 팔(사 33:2 참조)을 의지하는 동시에 바벨론의 팔(여기)이나 애굽의 팔(사 30:1-5; 31:1-3)에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비축품과 그의 자손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소유물과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향할 것이다.

그래서 왕하 20:16-18 은 열왕기하의 나머지 부분을 통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열왕기하 21 장에서 우리는 느닷세가 유다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열왕기하 20 장은 바벨론으로 가는 여정이 경건한 왕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왕하 20:19 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해 반응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왕하 20:19a).” 이어서 그는 말했다[= 생각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왕하 20:19b)?” 도대체 이것은 어떤 종류의 반응인가? 복종하는 반응인 것은 확실하다(왕하 20:19a). 그러나 우리는 왕하 20:19b 에 표현된 그의 이유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아마도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그것이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성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적어도 이 재앙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¹⁶ 그렇다면 왕하 20:19 은 복종하면서도 이기적인 태도로 귀결되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왕하 20:19 의 하반절을 읽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 하반절이 상반절의 대조가 아니라 동의적 병행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왕하 20:19b 는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에 담긴 자비와 자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여호와와의 말씀이 왜 “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닥쳐왔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즉시 임해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앗수르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수도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심판이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하다,” 곧 친절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왕하

¹⁵ 왕하 20:18 의 [싸리쌈]이 문맥상 “환관, 내시”인지 “관리”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Gordon H. Johnston, NIDOTTE, 3:288-95 을 참조하라.

¹⁶ 예를 들어, Provan 의 주석과 Cogan & Tadmor 의 주석을 참고하라.

20:19b 는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의 감사를 반영하는 것이다.¹⁷ 나는 이 문제로 인해 죽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일 투표를 강요받는다면 나는 이 두 번째 견해를 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왕하 20:12-19 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한결같이 신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을 본다. 우리는 건강할 때(12-19 절)보다 병들었을 때(1-11 절) 더 잘한 것 같고, 어쩌면 축복보다는 재앙에 더 잘 대처한 것 같은 왕을 본다. 이것이 왕하 18:1-8 에서 만났던 왕이 보여준 현재 모습이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면에서 전무후무했던 모습을 보였지만(왕하 18:5), 지금 그는 여호와께서도 바벨론의 도움을 조금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신실함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일관성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가!

야구 전설은 1904 년 뉴욕 하이랜더스(나중에 양키스)에서 투수로 뛰었던 "해피 잭" 체스브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늘날 20 승을 거둔 투수는 멋진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체스브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오래 전에 그것을 넘어섰다. 시즌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뉴욕에 41 승을 안겨주었다. 그런 다음 시즌 마지막 날, 리그 우승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해피 잭은 42 승째를 노리며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경기 마지막 이닝의 마지막 플레이에서 체스브로는 주자에게 득점을 허용하는 폭투를 함으로써 그 경기와 리그 우승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그는 패배했다. 그가 거둔 41 승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아마도 뉴욕이 리그 우승을 놓고 경쟁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폭투가 있었다.¹⁸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히스기야 통치의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것은 왕들에게만 국한된

¹⁷ 이러한 견해는 카일(C. F. Keil), 룸비(J. R. Lumby in the old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엘리슨(H. L. Ellison in 2nd ed. of *New Bible Commentary*), 그리고 칼빈(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n vol. 8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99], 192-93)에게서 찾을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한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경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치 그가 '주님께서 갑자기 원수들을 일으켜 나를 내 왕국에서 쫓아내셨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정당하게 가해질 수 있는 형벌을 지연시킴으로써 완화시켜 주셨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칼빈은 계속해서 설명한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어 살아야 할 사람들의 행복을 바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복수를 늦추심으로써 주신 관용의 표시를 무시하는 것은 불성실한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관용)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정도 후손에게까지도 확장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¹⁸ *Bill Stern's Favorite Baseball Stories* (Garden City, NY: Blue Ribbon, 1949), 126-27.

실패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의 결심을 어기고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안다면, 아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계심을 일으키시어 우리로 하나님께 지켜 주시기를 부르짖게 하실 것이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수가에 마련해 놓으신 조반을 먹는 자리에서 세 번째로 사랑 여부를 밝히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그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요 21:17).”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최상급은 없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베드로만은 홀로 진실한 자로 남을 것(막 14:29)이라는 다짐도 없었다. 그런 것은 그에게서 사라진 것 같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조심스러워졌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가장 안전한 때는 바로 성경이 우리를 떨게 할 때이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통치는 끝이 난다. 앞으로 15 년이 더 주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습적인 사망 공식조차도 양념으로 맛을 내듯이 히스기야에게는 그의 유명한 물 공급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왕하 20:20).¹⁹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지만(왕하 18:3), 아쉽게도 장차 올 “다윗”이 아님이 드러났다(왕하 20:12-19).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짙그린 섭리”에서 “웃는 얼굴”로 바꾸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2. 신자들이 “좋을” 때보다 “힘든” 때에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히스기야는 신자들이 왜 한결같고 “잘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본보기가 되는가?
4. 신자들은 인생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밖의 다른 것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¹⁹ Alfred J. Hoerth,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344-46 에 나오는 훌륭한 요약을 보라.

27.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왕하 21 장 The Point of No Return)

몇 주 전 맛있는 스파게티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내 친구 앤드류가 허리케인이 올 때가 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시시피만 연안에서 약 70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그러한 폭풍이 그 지역의 일광을 강타할 수 있다. 연안 주민들은 이러한 폭풍의 상륙에 서둘러 대비한다. 폭풍우 셔터를 닫거나 창문 위에 합판을 못으로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당국은 지정된 경로를 따라 대피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남아서 폭풍우에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유다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대피 옵션이 없었다. 므낫세는 “역대 최악의 왕”이었다.¹ 남은 신자들은 단순히 해치를 내리고 폭풍우를 이겨내기를 바라야 했다. 그런데 그것은 긴 폭풍이었다. 악이 지배했다. 므낫세는 아달랴와 아하스를 유치원 꼬마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열왕기하 21 장의 구조 분석은 간단하다.

- 어두운 정권, 1-9 절
- 어려운 말씀, 10-15 절
- 피비린내 나는 시간, 16 절
- 부끄러운 기록, 17-18 절
- 두려운 보류, 19-26 절

이제 이 장의 증언으로 넘어가자. 나는 본문이 시사하는 어떤 “쌍들”의 소재목 아래 그 증언을 제시하려고 한다.

I. 연대와 신비 (왕하 21:1 Chronology and Mystery)

므낫세의 55 년은 연대기 학자들에게 문제가 된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통치 말기(주전 687/686 년)부터 계산하면 주전 640 년경에 시작된 요시야의 통치까지 이어진다(왕하 22:1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므낫세가 10 년 이상(주전 697-686 년) 동안 히스기야와 공동 섭정을 한 후 642 년경까지 단독으로 통치했다고 가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왕하 21:1 은 므낫세가 공동

¹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247. 로저 엘스워스(Roger Ellsworth, *Apostasy, Destruction and Hope*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2], 233-34)는 교수에게 자신의 논문이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불평한 학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수는 “알아요. 하지만 이 학교에는 당신의 논문보다 더 낮은 학점을 받은 것이 없어요!”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우리는 므낫세에게 충분한 낮은 점수를 찾을 수 없다. “므낫세는 전례가 없고 특히 통탄할 방식으로 악의 깊이를 파헤쳤고,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다.”

섭정이 될 때에 열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공동 섭정을 포함하여 왕으로 55 년 동안 다스렸음을 의미한다.²

그러나 므낫세의 55 년은 연대기적 문제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문제에 가깝다. 므낫세의 55 년은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긴 통치 기간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일소하고, 사악함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하나님의 인내심을 고갈시켰다(왕하 23:26-27 참조).³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진다(잠 10:27).”라고 했는데, 므낫세는 왜 그렇지 않았는가? 므낫세는 왜 예외인가? 콘의 지적은 옳다. 그의 극도의 불경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열왕기하 21 장에서는 “므낫세가 개인으로서 또는 왕으로서 역경에 직면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내레이터는 그의 오랜 통치와 궁궐 동산(곧 웃사의 동산)에 평화롭게 장사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다. 왜 하나님은 이 불경건한 괴짜가 55 년 동안 파멸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셨는가?⁵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신비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조셉 스미스 주니어의 일부다처제는 이후의 “신의 계시”에 의해 편리하게 승인되었다. 뉴욕 팔미라의 60 명 이상의 주민들은 스미스와 그의 아버지가 “도덕적 인격이 결여된 자”로 인증했다. 어떤 증거도 **물문경**에 묘사된 문명, 동식물, 지형 및 지리의 존재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 자신의 구체적인 예언들은 거짓임이 증명되었다.⁶ 그러나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일 성도들이다. 인체에는 약 100 조개의 복잡한 세포가 있다. 인간의 손에는 652,000 개 이상의 신경

² T. R. Hobbs, *2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304, 그리고 Leslie McFall, “Has the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s been finally settled?”, *Themelios* 17/1 (Oct-Nov 1991): 9-10 에 나오는 논의를 참조하라. 성경 이외의 문헌에 나오는 므낫세에 대한 언급은 Iain Provan, V. Philips Long, and Tremper Longman III,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2003), 274-75 에 있는 요약을 참고하라.

³ K. D.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Calwer, 1972), 299.

⁴ Robert L. Cohn,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2000), 149.

⁵ 나는 아는 척할 수 없다. 한 가지 가능성은 므낫세의 통치 자체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 3 장은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첫 번째 대답은 그 지도자들의 사악한 성품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사 3:1-15). 두 번째 대답은 여자들이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사 3:16-4:1). 때때로(‘때때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일반 원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임) 무능하고 사악한 통치자들은 심판이 올 이유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심판의 일부이다.

⁶ Walter Martin, *The Kingdom of the Cults*, rev. ed. (Minneapolis: Bethany House, 2003), 203-23.

말단이 있다. 인간 눈의 망막에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약 1 억 2,400 만 개의 막대 모양의 세포와 수백만 가지의 색상 변화에 반응하는 약 600 만 개의 원뿔 모양의 세포가 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 만 번 뛰며 8 만 마일의 혈관을 통해 혈액을 뿜어낸다. 그러나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는 “인간은 ... 수천 개의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일종의 영광스러운 우주적 사고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한다.⁷ 그러한 “믿음”은 신비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1661 년 6 월 제임스 거스리는 목숨을 내놓으며 믿음을 봉인했다. 그 후 그의 머리는 잘려져 에든버러의 네더보우 항구 위 높은 곳에 전시되어 27 년 동안 표백된 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린 윌리 거스리는 자갈길을 반복적으로 가로 질러 그 소름 끼치는 표식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가곤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발견되면 “나는 아버지의 머리를 보았다! 나는 내 아버지의 머리를 보았다!”라고 외치곤 했다.⁸ 정부의 학살로 충분하지 않았는가? 어린 윌리는 왜 그들의 무시무시한 전시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는가?

많은 신비들이 있다. 조셉 스미스와 같은 인물이 왜 그토록 “성공적인” 운동을 일으키는가? 굴드는 왜 증거를 평가할 능력이 없었는가? 꼬마 윌리 거스리는 왜 망연자실해야 했는가? 그리고 사악한 므낫세가 최악의 놀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왜 55 년이나 계속되었는가? 그러한 신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 높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성경이 일관된 교리와 명확한 도덕을 가르친다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신자들에게 특히 이 조언이 필요할 수 있다. 때때로 이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성경적, 교리적 지식으로 삶의 거친 모서리도 꽤 잘 봉합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명료성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자문하곤 한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통치 아래 평생을 살았던 유다의 일부 신자들이 던진 질문이었을 것이다.

⁷ John Blanchard, *Is God Past His Sell-by Date?*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2), 116-18.

⁸ Jock Purves, *Fair Sunshine*, rev.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3), 7-10.

II. 왜곡과 특권 (왕하 21:2-9 Perversion and Privilege)

왕하 21:2-9 은 므낫세 치하의 유다의 새로운 이교(3-6 절), 멸시받는 특권(7-8 절), 어떤 파멸(2 절, 9 절)을 보고하는 요약 부분이다.⁹ 독자들은 므낫세의 왜곡 목록을 보여주는 왕하 21:2-7 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자가 히스기야 통치의 개혁을 표로 만든 왕하 18:3-8 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하 21:2-7 은 왕하 18:3-8 을 모두 뒤집는다.

저자는 므낫세의 배교를 항목별로 나열하여 우리 독자들이 그 누적된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므낫세는 **다산** 숭배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왕하 21:3b).” 이것은 북왕국의 악명 높은 “적그리스도”인 아합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다(“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왕하 21:3c). 므낫세는 심지어 성전 안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 했다(왕하 21:7a). 므낫세는 **일월성신** 숭배에 자신을 바쳤다. “그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왕하 21:3d).” 다시 말하면, 그는 “또 여호와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왕하 21:5).”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은 성전 양쪽 뜰에 불법 거주자의 권리를 얻은 셈이었다.¹⁰ 므낫세는 아하스의 스크랩북(16:3)에서 한 페이지를 빌려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녀 희생**의 공포에 몸을 굽히고(왕하 21:6a) 온갖 종류의 **점술**, 즉 우리의 말로 하면 어둠의 세력에 몸을 내맡겼다. “그는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왕하 21:6b).” 므낫세는 “악을 많이 행하였고(왕하 21:6c)” 왜곡된 술책으로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해지도록 했다.

이제 이런 이교적 행위들에서 잠시 물러나 이 모든 것을 감염시키는 공통적인 바이러스에 주목하라. 그것은 모두 **통제**에 관한 것이다.¹¹ 다산 숭배에서 나는 나의 성관계를 이용하여 하늘의 힘이 같은 방식으로 행하고 다산을 부여하도록 조종하거나 장려한다. 일월 성신 숭배에서 나는

⁹ 왕하 21:2-9 의 시작과 끝에 있는 “민족들[하고임]”에 주목하라(2 절과 9 절).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셨고(2 절)” “멸망시키셨다(9 절)”는 것은 므낫세가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2 절) 유다가 그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9 절) 그러한 어두운 종말이 유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자 주: 열왕기하 21 장 2 절과 9 절에 나오는 [하고임]은 공동번역(“민족들”)과 우리말성경(“나라들”)과 쉬운성경(“다른 나라들”)은 통일해서 번역했으나 개역개정은 “이방 사람”과 “여러 민족”으로, 새번역은 “이방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로 다르게 번역했다.]

¹⁰ 성전의 두 마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Hobbs, *2 Kings*, 305-06 을 보라.

¹¹ Walter Brueggemann, *2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89: 므낫세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영역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려는 종교적 조작들을 신뢰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기술이며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현실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

미래 사건의 지표가 되는 징조를 찾는다. 마찬가지로 영매술에 있어서도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추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우쳐 줄 비밀 지식을 원한다. 내 아이를 희생시킴으로써 나는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기꺼이 극단적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로 인해 내가 원하는 호의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교는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힘”에 맞서 내 삶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교는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어두운 골짜기에서 줄곧 나의 마지막 거쳐까지 내 앞과 옆에서 걸어가시는 것을 믿는 성경적 종교와는 몇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므낫세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버린 것에 있다. 이에 대한 힌트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와의 성전(왕하 21:4)”에 대한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왕하 21:7-8은 므낫세가 성전에 세웠던 아세라 목상에 대해 말하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왕하 21:7-8) [7]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8a]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8b]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말이다.”

여기에 주어진 현실이 있었다(왕하 21:7).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두신” 것이다. 여호와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과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¹² 여기에 보장된 안전이 있었다(왕하 21:8a).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과 안정이었다. 여기에 요구된 충성이 있었다(왕하 21:8b). 그것은 여호와와의 임재와 보호라는 선물에 대한 순종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왕하 21:9a). 므낫세는 어쨌든 그들을 꺾어 그의 극단적 이교에 빠뜨렸다(왕하 21:9b). 므낫세가 멸시했던 보배를 생각해 보라.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두신 여호와와는 속죄를 베푸시고(희생 제단; 레 16:1-16 참조), 백성을 지탱하시고(진설병, 출 25:23-30 참조), 기도를 들으시는 분(향단, 출 30:1-10; 계 8:3 참조)이시다. 므낫세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는 **우리 춤을 출까요**(1937 *Shall*

¹² J. A. Motyer, “Name,” NBD, 3rd ed., 801-02, 그리고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106-07, 120-21 을 보라. 어떤 장소에 이름을 “둔다”는 것은 소유권과 정복의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G. J. Wenham, “Deuteronomy and the Central Sanctuary,” *Tyndale Bulletin* 22 (1971): 112-14 을 참조하라.

We Dance)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이 악보를 썼다. 안무가 헤르메스 판(Hermes Pan)이 리허설을 막 시작하려고 했다. 그는 세트장의 지정된 무대로 걸어가서 이미 그곳에 있던 피아니스트에게 악보의 일부를 연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은 그에게 다음날 리허설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악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피아니스트는 타이틀 곡을 연주했다. 판은 그에게 조금 더 빨리 연주할 수 없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게 연주했다. 판은 템포가 너무 이상하고 거의 행진곡 같다고 불평했다. 피아니스트는 그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주했지만 안무가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판은 선언했다. “거슈윈이든 아니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의 춤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판은 음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스테어, 프로듀서 및 다른 사람과 회의에 참석했다. 몇 분 후 그 “피아니스트”가 회의에 들어갔다. 그는 위대한 거슈윈 자신이었다. 판은 갑자기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다. 그는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외쳤다.¹³

어쩌면 그것이 므낫세의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몰랐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을지도 모른다. 그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상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임재(왕하 21:7)와 약속(왕하 21:8)은 그의 백성의 무한한 보배이자 최고의 특권이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것들을 멸시하였다.

III. 타락과 재앙 (왕하 21:10-16 Depravity and Disaster)

이제 우리는 통상적인 “... 때문에 [야안 아세르, 왕하 21:11a]” 그리고 “그러므로 [라헨, 왕하 21:12]”의 형식을 통해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듣는다. 열왕기하 21 장에서 10-11 절은 2-7 절의 범주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12-15 절에 나오는 심판의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는 므낫세의 악이 지금까지 유다의 어떤 왕의 악을 능가했다고 말하지 않고, 므낫세의 사악함이 이교도이자 이스라엘 이전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들의 사악함을 능가했다고 말한다(왕하 21:11)! 저자는 왕하 21:12-15 에서 실제로 심판을 선포한 후, 왕하 21:16 에서 “그리고-이것도 역시 [브감]”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므낫세가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왕하 21:16a). 그가 유다에게 범되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말이다(왕하 21:16b).”¹⁴ 므낫세는 자기 마음대로 부수고 짓밟았으며, 항의하는 자에게 화가 미쳤다.

¹³ Paul F. Boller, Jr., and Ronald L. Davis, *Hollywood Anecdotes* (New York: William Morrow, 1987), 272.

¹⁴ 왕하 21:16b 이 어떻게 므낫세를 남왕국의 “여로보암”으로 묘사하는지 유의하라. 여기 “**그가 유다에게 범되하게 한 그의 죄**[하타토 아세르 헤헤티 에트-여후다]”라는 표현은 북왕국 왕들의 평가에 나오는 후렴구(누구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되하게 한 그의 죄**[하타토 아세르 헤헤티

그런 다음 묘사되는 심판은 놀랄 것이 못되지만 매우 생생하다. 여호와께서는 네 개의 이미지를 통해 다가오는 재앙을 묘사하신다.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듣는 사람의 두 귀가 “떨릴[찰랄]” 것이다(왕하 21:12 [개역개정 “울리다”]; 참조, 삼상 3:11[“울리다”]; 렘 19:3[“떨리다”]). 이것은 들리는 메시지의 공포가 불리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박국은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다가오는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술이 어떻게 “떨리는지[찰랄]”를 묘사한다(합 3:16). 그래서 귀가 “떨린다”는 것은 심판의 **공포**를 말한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하시지만, 건축보다는 해체의 이미지를 사용하신다. “내가 사마리아를 쟈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왕하 21:13a)” 여호와께서는 이미 사마리아(왕하 17:6 참조)와 아합 왕조(왕하 10:17 참조)를 제거하는 역사를 쓰셨고, 그분의 제거 계획에서 예루살렘은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왕하 21:13a 은 심판의 **불가피성**을 암시한다. 셋째, 여호와께서는 주방 용어를 사용하신다. “또 내가 사람이 그릇을 씻어 옫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왕하 21:13b).” 접시나 그릇을 깨끗이 닦은 다음 뒤집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한 물방울이나 소량의 어떤 것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총체성**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넷째,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며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에게 “전리품과 약탈물”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신다(왕하 21:14). 그 백성은 침략자들에게 “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며, 그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리품과 약탈품의 이미지는 심판에 대한 그들의 **속수무책**을 가리킨다.

저자와 그가 인용한 선지자는 “므낫세 한 사람만에 의한 정죄(왕하 21:11 참조)”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이래로 계속되는 악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다(왕하 21:15).¹⁵ 그들의 “민족” 역사 전체는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오랜 관행이었다. 므낫세의 타락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도가 지나치게” 만들었다. 므낫세의 엄청난 사악함이 국가의 누적된 배교에 더해졌기 때문에 유다는 회복될 가망이 없어졌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것이 왕하 23:26 이 말하는 저자의 요점이다.

이것, 곧 죄악이 국가나 개인을 회복의 가망을 넘어서게 하고 심판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엄숙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 지점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냉정하게

에트-이스라엘] 중에 행하였다(예: 왕상 15:26, 34)”를 흉내 낸 것이다. 위의 왕하 17:21-23 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라.

¹⁵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2001), 462.

만들어야 한다. 몇 년 전에 우리 지역 신문은 생일 축하 행사를 보도했다. 김병수 씨는 미시건대 공대생이었다. 그의 친구 11 명은 어느 금요일 저녁 김씨의 스물한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 아파트에 모였다. 김 씨는 자신이 어떻게 축하하고 싶은지 결정했다. 그는 매년의 생일에 대해 스카치 한 잔씩 들이켜는 것이었다. 그는 10 분 동안 20 잔을 들이켰고 절정의 마지막 잔을 들이켜기 전에 기절했다. 다음날 일찍 그는 파랗게 질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그는 입원했던 병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9%로 사망했다.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그것을 넘어섰고, 그것은 그를 파괴했다. 이상승배와 타락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겁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대안을 고려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시 51:17)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IV. 기억과 유산 (왕하 21:17-22 Memory and Legacy)

연합 통신에서 온 “미국에서 가장 부패한 주”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이 기사는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고 있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미시시피 주가 가장 부패한 주 1 위로 선정되었다. 루이지애나는 분명히 미시시피에 명성을 잃고 있었다. 이제 기사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분명히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 순위는 어느 주가 적발된 부패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지를 나타낼 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어리석은 부패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장 부패한 주는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미세한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가 독특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독특함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므낏세는 독특했다. 저자는 므낏세의 경우에 표준 요약 공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강박감까지 느꼈다. 그 요약 공식은 항상 “누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브에테르 디브레 xxx 브홀-아셰르 아샤] ...”로 시작된다. 이 요약 공식은 유다 왕들의 경우에 열왕기상하에서 15 번 나온다.¹⁶ 일반적으로 그것은 표준 각주 형식을 갖는다. 그것은 독자가 언급된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해 준다. 때때로 저자는 왕의 권세(왕상 15:23 아사; 22:45 여호사밧), 건설된 성읍들(왕상 15:23 아사), 전쟁 기록(왕상 22:45 여호사밧), 또는 그의 수도 체계(왕하 20:20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을 덧붙인다. 오직 므낏세만이 그의 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얻는다. “므낏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왕하 21:17)?” 이것은 유다의 나머지

¹⁶ 더 정확히 말하면, 왕상 14:29; 15:7, 23; 22:45; 왕하 8:23; 12:19; 14:18; 15:6, 36; 16:19; 20:20; 21:17, 25; 23:28; 24:5 에서 볼 수 있다.

왕들이 의로움을 충실히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므낫세가 너무나도 악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악함의 세부 사항에 빠져들지 않고는 그의 이야기를 말할 수 없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가 범한 죄”는 “기록되었고” 모든 수치와 추문 속에서 분명하고 유창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이 얼마나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인가! 므낫세는 요약 공식에서 그의 죄가 특별히 주목받은 유일한 왕이었다.

그러나 왕하 21:19-22 은 므낫세가 기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었음을 시사한다. 저자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을 므낫세의 복제품으로 묘사한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왕하 21:20-21)

아몬은 단지 므낫세의 기준에 따라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하지만 잠깐 더 살펴볼 것이 있다. 대하 33:1-20 은 앗수르인들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으며 왕좌에 복귀한 후 이전의 부패를 근절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진실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우리가 역대하 33 장을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가? 절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역대하 33 장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¹⁷ 그러나 아마도 열왕기하 21 장이 역대하 33 장에 기록된 문제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것들이 열왕기 저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 므낫세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낫다. 므낫세가 자신이 입힌 피해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 므낫세의 놀라운 회심에 대해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여호와와의 새로운 개인적 관계는 모든 것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앙이 닥쳤었고, 독이 투여되었었다. 므낫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아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왕하 21:20-21). 므낫세는 거기에 이미 그의 인상을 남겼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경고가 있을 수 있다. 건전한 영적 유산은 갑작스러운 늦은 회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매력적인 경건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¹⁷ *Windows into Old Testament Histo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131-46 에 실린 “Manasseh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2 Kings 21:1-18; 2 Chron 33:1-20)”라는 제목의 Brian Kelly 의 연구를 참고하라.

V. 살인과 약속 (왕하 21:23-26 Murder and Promise)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암-하아레츠]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왕하 21:23-24)

우리는 아몬의 신복들이 왜 그를 암살했는지 모른다. 정치적인 이유였는가? 아몬은 여전히 열렬히 친앗수르 정책을 폈지만 궁정 파벌은 애굽과의 동맹을 선호했는가?¹⁸ 이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때때로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왕하 21:24 에 나오는 “그 국민[암-하아레츠]”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일반적인 유다 백성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 백성인가, 아니면 다윗 왕조에 특별한 충성을 가졌을 수도 있는 일종의 엘리트 집단인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일곱 가지 견해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¹⁹ 우리는 아몬이 암살되었고, 그의 암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그 국민”이 아몬의 아들 외에 그를 계승할 다른 어떤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알고 있다. 그래서 어린 요시야가 통치하게 된다.

나는 “그 국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의 경건이 얼마나 진지한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므낫세의 55 년과 므낫세 아들 아몬의 2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다윗 왕조의 세습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 매립지어나 어울리는 낡은 전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환멸을 느낀 끝에, 사람들이 다윗의 왕가가 그들에게 도적과 부랑자만 주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끝났다고 말을 한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다윗 언약”을 통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그들의 의식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약속에 따르면,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안전(삼하 7:10-11a)과 인류의 궁극적인 유익(삼하 7:19)을 위한 “영원한” 왕국(삼하 7:12-16)이 될 것이었다. 다윗 왕국은 그 궁극적인 도래가 완전히 확실하고(삼하 23:1-3a, 5), 그 최종적인

¹⁸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442 을 참조하라.

¹⁹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기 바란다. 다양한 견해에 대한 명쾌한 개관을 제시하는 존스의 설명(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483-84)을 읽어보라. 추가로 Cogan and Tadmor, *11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129-30 및 Hobbs, *2 Kings*, 310-11 도 읽어보라. (역자 주: [암-하아레츠]에 대한 한글 성경의 번역은 다양하다. 개역개정: “그 국민”; 새번역/우리말성경: “그 땅의 백성/백성들”; 공동번역: “지방민”; 쉬운성경: “유다 백성”)

대표가 참신할 정도로 매력적인(삼하 23:3b-4) 왕국이 될 것이었다.²⁰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다윗 왕가의 “매력”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여덟 살 된 후손을 왕으로 세운다. 그런데 그들이 그가 므낫세 3 세로 판명되지 않을 것임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므낫세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했는데 그가 어떤 궁극적인 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어찌 확신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맹렬한 폭풍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닳을 내리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엄습한 실망과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왕국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네덜란드에서 “마켓 가든(Market Garden)” 공세가 벌어졌을 때 영국군 부상자들은 독일 경비병의 감시 아래 우스터베크의 스키투노르트 호텔에 누워 있었다. 네덜란드 자원 봉사자들과 영국 의료진은 전투의 격렬한 전투 중에 최선을 다해 이 사상자들을 돌보았다. 호텔 주인의 딸인 헨드리카 반 데르 블리스트(Hendrika van der Vlist)는 부상자들을 간호하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일기의 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9 월 24 일 일요일.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물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수술하거나 깁스를 고정할 수 없다. 아무도 감히 물을 구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상자들을 씻을 수 없다. ...²¹

어쩌면 반 데르 블리스트 양은 1944 년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강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쓴 문(文)들의 병치가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전쟁이 격렬해지고, ... 건물이 흔들리고 있고, ... 우리는 부상자들을 씻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광포한 파괴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곧 오늘이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이 남아 있다. 이것은 마치 그분이 주변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 가운데도 온전한 정신의 보루가 있고 이런 혼란을 어떻게든 통제하는 주권이 **있다**.

나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이 우리 역사의 격변과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작동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땅의 백성은 그들 국가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단계, 즉 다윗의 또 다른 후손을 왕좌에 앉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²⁰ 이 요점들은 나의 책 *2 Samuel: Out of Every Adversity*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9), 72-85, 245-47[= 사무엘하 주해, 257-259(26 장 I. 왕국은 확실하다, II. 왕국은 매력적이다)]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²¹ Cornelius Ryan, *A Bridge Too F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547-48.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성취가 올 때까지 닳아 된다.

V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왜”라고 몇 번이나 여쭙어 보았는가?
2. 므낫세의 이교주의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3.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모른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여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을 밀어붙여 결국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하는가?
4.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당신을 지탱해 주는가?

28. 종교 개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왕하 22:1-23:30 Can a Reformation Save Us?)

나에게는 라일의 **18 세기 기독교 지도자들**(J. C. Ryle, *Christian Leaders of the 18th Century*)의 처음 두 장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사실, 나에게는 라일이 쓴 거의 모든 것이 매우 감동적이었다.)¹ 이 장들에서 그는 1700 년대 중반 영국의 국가와 교회의 참담한 상황을 추적한다. 그는 영국 교회가 혼자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도 존엄을 잃고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는 존엄조차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받들어 높이며 십자가를 선포하는 복음주의 부흥의 설교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사역과 메시지는 교회와 국가에 구원의 효과를 가져왔다. 죽은 교회만이 복음 부활의 “영향을 받은 대상”이 아니었다. 더러운 감옥과 노예 인신매매도 그 영향을 받았다.²

우리 시대의 필요와 이전 시대의 그러한 기억은 종종 부흥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거나 개혁에 대한 요청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우리는 (적어도 서구에 있는) 교회의 결함을 알고 있다. 교회는 교리적 순수성, 생명력 있는 예배, 담대한 증언, 개인적 경건,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회의 문제들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부재,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사역의 부재, 8-10 세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새로운 최첨단 음향 시스템의 미설치(未設置)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다. 이러한 끔찍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브로셔와 카탈로그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런 단점 보완이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필수적인 영역에서 개혁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아마도 18 세기 영국의 상황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개혁이 있다면 적어도 어떤 종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요시야 왕 치하에서 유다에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다. 거의 반세기 동안 므낫세-아몬 스타일의 이교주의 이후에 개혁에 대한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된 개혁은 헛된 노력이 되고 말았다. 종교 개혁은 나라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¹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가장 친절하신 일은 라일의 책(*Expository Thoughts on the Gospels*)을 칭찬하시고 결국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라일의 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는 “라일이 쓴 책은 무엇이든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² 간략한 참조를 위해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rev.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9), 469-72, 그리고 Earle E. Cairns, *An Endless Line of Splendor* (Wheaton, IL: Tyndale House, 1986), chap. 10 을 보라.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존스는 여기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는 주요 부분이 “왕이 보냈다” 혹은 “왕이 명령했다”로³ 시작한다는 로핑크의 관찰을 바탕으로 구조를 제시한다. 우리가 이 구조에 왕하 23:4-20 도 포함시키면 주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왕이 보냈다:	왕하 22:3-11
왕이 명령하였다:	왕하 22:12-20
왕이 보냈다:	왕하 23:1-3
왕이 명령하였다:	왕하 23:4-20
왕이 명령하였다:	왕하 23:21-23

이 구조에는 요시야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요약하는 왕하 23:24-30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시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주의 깊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강해는 이러한 문학적 구분을 무작정 따르지 않고 주제별 강조점들을 다룰 것이다.⁴

I. 여호와와의 융통성 있는 관용 (왕하 22:1-20 The Flexible Forbearance of Yahweh)

여덟 살 된 요시야가 즉위하면서 유다에 신선한 공기가 불어오기 시작한다(왕하 22:1).⁵ 그는 저자로부터 찬사를 받는다(왕하 22:2). 요시야는 여호와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유다의 다른 일곱 왕과⁶ 합류하지만, 유다의 다른 두 왕과⁷ 더불어 다윗과 호의적인 비교를 받는다. 요시야의 한결같음(“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왕하 22:2b)은 그를 히스기야(왕하 18:6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 므낫세-아몬의 참담한 상황 후에 요시야를 보내시다니, 여호와와는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³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608, 그리고 B. O. Long, *2 King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1), 256 도 보라.

⁴ 열왕기하 22-23 장은 열띤 비평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다룰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마음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⁵ 요시야는 주전 640-609 년경에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Jedidah)는 유다의 저지대 산간 지역에 있는 성읍 보스갓(Bozkath) 출신이었다(수 15:39). 그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⁶ 아사(왕상 15:11), 여호사밧(왕상 22:43); 요아스(왕하 12:2), 아마샤(왕하 14:3), 아사랴(웃시야, 왕하 15:3), 요담(왕하 15:34), 히스기야(왕하 18:3).

⁷ 아사(왕상 15:11), 히스기야(왕하 18:3). 열왕기상하에서 요시야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Gerald Eddie Gerbrandt, *Kingship according to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BL Dissertation Series (Atlanta: Scholars, 1986), 48-50 을 보라.

저자는 요시야의 열여덟째 해(주전 622 년경, 요시야가 26 세였을 때, 왕하 22:3)와 그 해를 그토록 주목할 만하게 만든 최고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제사장의 발견, 왕하 22:3-10

왕의 고민, 왕하 22:11-14

예언의 명료성, 왕하 22:15-20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어 현재 진행 중인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 작업자들에게 품삯을 주고 또 자재 구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왕하 22:4-7 은 전적으로 요시야의 지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의 명령이 수행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에 유의하라. 오히려 우리가 듣는 다음 것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하였다(왕하 22:8).”라고⁸ 말한 것이다. 힐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읽었다(왕하 22:8b, 책의 전부를 읽었는지 아니면 일부를 읽었는지 알 수 없음). 사반은 요시야에게 왕의 명령이 실행되었다고 보고한(왕하 22:9) 다음 “한 책을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주었습니다(왕하 22:10a).”라고 말한다. 이것은 초점이 여전히 “책”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자(왕하 22:10b), 그것을 들은 요시야는 괴로워하며 옷을 찢고(왕하 22:11), 다섯 사람에게 위임하며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예언적 지시와 빛을 얻으라고 명령한다(왕하 22:12-13). 홀다의 문(왕하 22:14)은 응급실 입구와 같았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말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왕하 22:13)” 요시야의 왕국에 대한 여호와의 격렬한 진노가 발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 또는 신명기의 상당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율법책”이란 용어를 위해 신 28:61; 29:21; 30:10; 31:26 을 참조하라). 나는 “신명기”가 모세의 시대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의 입으로부터 나온 문서로 이해되는 한 이 동일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⁸ “**율법책**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하였다. The book of the law I have found in the temple of Yahweh.”라는 직역은 히브리어 문이 “율법책”을 강조하는 위치에 둔 것을 반영한다. 그것은 낯선, 알려지지 않은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동안 가려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기야가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는 문서였다. Iain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271 을 보라. Provan 은 “그렇다면, 이 책의 분실이나 은폐가 배교한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최근의 사건이 아닌 다른 어떤 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할지 모르겠다. 눈을 가늘게 뜨고 계속되는 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보라. 19세기 구약성경 비평은 신명기(대부분)가 요시야 왕 시대에 개혁 성향의 그룹에 의해 제작되어 성전에 숨겨져 있다가 (이 계략에 가담했을 수도 있는) 힐기야에 의해 “발견”되었고, 요시야가 이를 받아들여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명기는 모세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주전 7세기의 저자들이 요시야 시대에 더 큰 “권위”를 갖도록 모세의 연설 형식으로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일군의 개혁 선동가들보다 “모세”의 말을 더 잘 들었을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책은 가짜요 엉터리요 사기였다. 그것은 목표가 개혁이고 특히 예루살렘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위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기였다.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원래의 비평적 입장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생기고, 수정되고, 조정되고, 논쟁의 여지가 많아져서 더 이상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이 (가끔 150년 전의 견해를 되풀이하는 학부 종교 과목의 교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그 후 학자들은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연대와 기원을 제안했다.⁹ 하지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후에 다락방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허리띠처럼, 19세기 비평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명기가 요시야 시대에 처음 출판되었다고 주장한다(비록 오래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¹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그토록 많다는 것은 주장들이 많은 추측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나는 신명기의 주장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세의 작품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물려서지 않을 것이다.¹¹

그러나 요시야는 율법책에 있는 위협에 대해 반성하였다. 그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구한다(왕하 22:13). 그것은 아마도 심판이 얼마나 빨리 닥칠 것인지, 그리고 심판을 피할 희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홀다의 예언(왕하 22:15-20)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 첫째,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 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의 분노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왕하

⁹ 간략한 검토를 위해 Christopher Wright, *Deuteronomy*,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6), 6-8, 그리고 W. S. LaSor, D. A. Hubbard, and F. W. Bush, *Old Testament Surve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6), 114-17 을 참조하라.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J. G. McConville, *Deuteronomy*,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Leicester: Apollos, 2002), 21-33 을 참고하라.

¹⁰ (신명기 저작 연대를 주전 7세기로 보는 것은) M. Weinfeld, ABD, 2:174 을 참고하고, (보다 대중적인 형태는) B.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376-79 을 참고하라.

¹¹ 해리슨의 논의(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637-53)는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다.

22:16-17). 둘째, 자비가 있다는 것이다. 요시야 왕이 율법의 위협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요시야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유다를 휩쓸고 갈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왕하 22:18-20). 그러므로 심판은 확실하지만 심판은 지연되고, 재앙이 다가오고 있지만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은 한 사람의 회개 덕분이었다.

본문은 요시야의 떨고 있는 반응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고뇌하는 모습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인상적으로 보이는데도 모른다. 나는 남북 전쟁 기간 동안 논쟁에서 보인 아브라함 링컨의 태도에 항상 놀랐다. (일부 독자는 이것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내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오웬 러브조이가 이끄는 위원회는 링컨에게 동부와 서부의 군대를 통합하는 계획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고 링컨은 이에 동의하여 전쟁 장관 에드윈 스탠튼에게 같은 제안을 하는 메모를 썼다. 러브조이는 스탠튼에게 쪽지를 가져갔고, 스탠튼은 링컨이 명령을 내렸는지 물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스탠튼은 “그렇다면 그는 빌어먹을 바보다!”라고 소리쳤다. 러브조이는 스탠튼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백악관으로 다시 가져왔다. 링컨은 “스탠튼이 내가 빌어먹을 바보라고 말했는가?”라고 물었다. 러브조이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다음 이렇게 말했다. “스탠튼이 내가 빌어먹을 바보라고 말했다면 나는 빌어먹을 바보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항상 옳고, 일반적으로 그가 의미하는 바를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잠깐 들러 그를 만나볼 것이다.”¹² 나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라면 퇴직금도 주지 않고 스탠튼을 해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온유함으로 비판적인 말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요시야에게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요시야는 그런 불온한 책을 건네준 힐기야를 감옥에 던지거나, 그런 끔찍한 위협을 읽은 사반을 호통치지 않는다. 아니,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왕하 22:19a).” 그는 옷을 찢고 통곡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들으신다(왕하 22:19b).” 이는 여기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사 66:2). 여호와의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관용은 그분의 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것은 모두 그분의 “표준적인” 성품의 일부이다.) 그분은 심판의 사실을 바꾸지 않으시고 심판의 시간을 미루실 것이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그의 호기심 어린 “—라면 어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끼어들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시야 이후의 사악하고 약한 왕들 대신에 요시야의

¹² Carl Sandberg, *Abraham Lincoln*, One Volume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4), 354.

뒤를 잇는 일련의 “요시야 같은 왕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며 심판을 미루셨을까?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대답은 이렇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즐거운 딜레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자비를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그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는가?

II.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진노 (왕하 23:1-27 The Unquenchable Wrath of Yahweh)

여기에 또 다른 긴 본문(왕하 23:1-27)이 있다. 따라서 본문의 일반적인 개요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언약의 갱신, 왕하 23:1-3

집중적인 개혁, 왕하 23:4-20

성경적 유월절, 왕하 23:21-23

유일하신 왕, 왕하 23:24-25

변하지 않는 운명, 왕하 23:26-27

그것은 우리에게 본문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온 유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왕하 23:3).”라고 서약한다. 이것은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 프로그램(왕하 23:4-20)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왕하 23:4-20 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열왕기의 저자는 요시야 왕 제 18 년에 초점을 맞춘다(왕하 22:3, 23:23). 그는 요시야의 통치 기간 중 한 해를 강조하며 통치 전체의 조망을 주려고 한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서 요시야의 개혁(왕하 23:4-20)은 율법책의 발견과 언약 갱신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열왕기하의 대략적인 순서와 역대하의 대략적인 순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에 유의하라.

열왕기하	역대하
율법책 발견, 22:3-20	예배 개혁, 34:3-7
언약의 갱신, 23:1-3	율법책 발견, 34:8-28
예배 개혁, 23:4-20	언약의 갱신, 34:29-33
유월절 기념, 23:21-23	유월절 기념, 35:1-19

각 저자들의 관심사에 대한 단서들은 다음과 같다.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유월절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열왕기는 역대기가 간략하게 요약한 예배의 정화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러나 역대기는 연대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열왕기보다 예배 개혁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연대적 설명을 제시한다(대하 34:3-7). (1) 요시야 왕은 제 8 년(주전 632 년, 그의 나이

16 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대하 34:3a).” (2) 요시야 왕은 제 12 년(주전 628 년, 그의 나이 20 세)에 유다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한 다음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과 제단을 파괴하는 개혁을 이전 북왕국까지 확장했다(대하 34:3b-7). (3) 요시야 왕 제 18 년(주전 622 년, 그의 나이 26 세)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언약이 갱신되었다(대하 34:8 이하).

역대기는 분명하게 요시야의 개혁이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완료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열왕기는 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개혁을 언급하면서 율법책이 그러한 개혁을 주도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열왕기는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요시야의 개혁이 진행 중이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 유의하라(왕하 22:3-7).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적어도 성전을 정화하는 것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언약의 갱신(왕하 23:1-3)과 유월절 기념(왕하 23:21-23)은 왕하 23:24 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발견된 율법책(23:2, 3, 21)과 특별히 결부되어 있지만, 왕하 23:4-20 의 개혁은 그 율법책과 관련이 없다. 셋째로, 성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왕하 23:4-20 의 모든 개혁(그리고 필요한 여행)이 1 년(요시야 통치 18 년) 안에 다 수행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열왕기의 저자가 왕하 23:4-20 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 두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자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하여 엄격한 연대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주제별로** 배열하고 있다(그런데 이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관행이다).¹³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그는 왜 요시야의 개혁과 언약 갱신 및 유월절 기념을 항목별로 설명하는 17 개의 구절(왕하 23:4-20)을 삽입했을까? 그는 그러한 삽입을 통해 보강 확충함으로써 그의 장의 절정(왕하 23:26-27)에 이르게 하고 있었다. 그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기록을 강화하고(그것도 진정으로), 그 개혁이 얼마나 강렬하고 방대하고 상세했는지를 묘사함으로써 왕하 23:26-27 이 독자의 뺨을 가장 세게 때리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를 동요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동요시키는 방식은 요시야의 모든 개혁으로 장을 가득 채움으로써 왕하 23:26-27 이 우리에게 최대한의 충격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곧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우선 왕하 23:4-20 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¹³ 이 논의의 모든 내용은 세 문헌에서 비롯된 것이다. D. W. B. Robinson, *Josiah's Reform and the Book of the Law* (Tyndale Press, 1951), 3-25, 그리고 David L. Washburn, "Perspective and Purpose: Understanding the Josiah Story," *Trinity Journal* 12NS/1 (Spring 1991): 59-78, 그리고 Richard L. Pratt, Jr., *1 and 2 Chronicles*, Mentor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8), 472-76 을 보라.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느껴보자. 우리는 이것이 요시야의 12 단계 “탈므낫세화”라고 제안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세부 사항 하나 하나까지 전부 다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1. 성전에서 이방신들을 위한 그릇들을 치우다 (왕하 23:4)
2. 이방신들을 섬기는 성직자들을 퇴출하다 (왕하 23:5)
3. 아세라 상을 부수다 (왕하 23:6)
4.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다 (왕하 23:7)
5. 유다의 산당들을 더럽히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파직하다 (왕하 23:8-9)
6. 자녀 희생 제사의 장소인 도벳을 더럽히다 (왕하 23:10)
7. 태양 숭배 도구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다 (왕하 23:11)¹⁴
8. 왕들이 세운 우상 숭배 제단들을 부수다 (왕하 23:12)
9. 솔로몬이 어리석게 세운 산당들을 더럽히다 (왕하 23:13)
10. 다산 숭배를 위한 소품을 파괴하다 (왕하 23:14)
11. 여로보암이 벳엘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더럽히다 (왕하 23:15-16)
12. 이전 북왕국의 각 성읍에 세운 산당들을 제거하다 (왕하 23:19-20)

이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매우 철저해 보인다. 여기서 “더럽히는[타마],” 일의 실행(4 번 반복, 왕하 23:8, 10, 13, 16)은 요시야의 행위의 철저함을 강조한다. 엘리슨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더럽히다”라는 동사(왕하 23:8, 10, 13, 16)와 특정 행위에 의한 더럽힘(왕하 23:4, 6, 14, 16, 20)에 대한 빈번한 언급은 성소나 산당이 숭배 대상과 건물이 파괴되어도 신성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그 장소를 “불경스러운” 혹은 평범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성소들은 다음 재발시 복원될 것이다.¹⁵

솔제니친은 이런 종류의 “정치적” 예를 설명한다. 조야 레슈체바의 온 가족은 신앙 때문에 소련 교도소 “하수도”에 갇혔다. 조야 자신은 열 살 때 체포되어 나중에 (종교적 고집 때문에) 지체 아동을 위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도둑질과 대부분의 아이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한편 그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관점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그녀는 반스탈린주의자이었다. 고아원 안뜰에는 대량 생산된 스탈린의 석고 조각상 중 하나가 있었다. 조롱하는 낙서가 그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행정부는 스탈린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동상을

¹⁴ 왕하 23:11 에 관하여는 Washburn, “Perspective and Purpose,” 71-73 을 보라.

¹⁵ H. L. Ellison, “I and II Kings,” *The New Bible Commentar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54), 331.

계속 다시 칠했다. 당국의 세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서가 계속 나타났고 아이들은 계속 웃었다. 어느 날 아침, “다곤”이 쓰러졌다. 그들은 조각상의 머리가 쓰러지고 이상하게도 텅 빈 머리에 배설물이 가득 차 있는 채로 뒤집힌 것을 발견했다. 물론, 그것은 테러 행위로 선언되었다. 아무도 자백하지 않으면 150 명의 아이들 모두가 처형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조야는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제가 했습니다. 저 아빠의 머리가 그것 말고 또 다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라고 말했다.¹⁶ 어떤 사람은 그 조각상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그것이 바로 “더럽히는 것”이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엘리슨이 설명하는 바 요시아가 실행한 일이다.

이제 열왕기하 23 장 전체가 26-27 절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호와와의 언약의 율법에 대한 왕과 백성의 재헌신(1-3 절), 광범위하고 철저한 왕의 개혁(4-20 절), 수세기 동안 다른 모든 유월절 준수를 무색하게 하는 유월절 준수(21-23 절), 왕의 훨씬 더 많은 반이교주의(24 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25 절).”는 묘사가 보여주는 최상급의 왕에 대하여 읽는다. 그런데 그 중 어느 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그에게 가한 모든 도발 때문에 유다를 향해 타오르는 그의 큰 분노의 열기를 버리지 않으셨다(왕하 23:26).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고 선포하셨다(왕하 23:27).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므낫세(열왕기하 21 장)는 유다를 희망의 선 너머로 몰아넣었다. 아무리 회개나 개혁을 해도 꺾거나 가라앉힐 수 없는 여호와의 분노의 뜨거운 열기와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유다의 가장 훌륭한 시간을 묘사하는 25 개의 절 다음에 언급될 때 그 요점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게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다.¹⁷ 진노는 엄청나게 강렬하고 다가오고 있고 확실하다.

¹⁶ Aleksandr I. Solzhenitsyn, *The Gulag Archipelago: 1918-1956*, abridged by Edward E. Ericson, Jr. (New York: Harper & Row, 1985), 276-77.

¹⁷ 왕하 23:27 은 왕하 19:32-34 의 약속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거기 왕하 19:32-34 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직면한 모든 위협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다. 여기 왕하 23:27 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결코 무엄하지 않도록 종교적 순응에도 불구하고(렘 3:6-10 참조) 자신이 선택하신 대상을 거부하신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훌다의 예언(왕하 22:16-17, 20)은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었다. 그러나 그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헌신(왕하 23:1-3), 절기 준수(왕하 23:21-23), 예배의 정화(왕하 23:24)로 계속 전진했다. 하지만 왜 그랬는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지속될 것인가? 그것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식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 그러나 요시야의 신실함은 순종과 실용주의를 혼동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신실함이다. 인센티브가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일 가능성이 높다. 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시야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유다의 개혁을 추진하기를 원했다. 이 점에서 그는 그 전후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지런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어차피 유다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주님의 명예와 의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기를 원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섬김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¹⁸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은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소위 말하는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칭찬하시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막 14:8).”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요시야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무런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신실하게 남아 있는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니 캄플로는 장례식장에 가서 지인의 가족에게 조의를 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정말 실수로 엉뚱한 응접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응접실에는 한 노인의 시신이 있었고 그 옆에서 그의 과부가 유일하게 애도하고 있었다. 이 여인이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캄플로는 그 장례식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와 함께 묘지로 차를 몰고 갔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 과부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면서, 캄플로는 자신이 그녀의 남편을 알지 못한다고 그녀에게 시인했다. 그녀는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아플 정도로 그의 팔을 꼭 쥐고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절대, 절대로 알지 못할 거예요.”라고 고백했다.¹⁹

그것은 요시야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어리석은 실수였다. 그러나 그의 딜레마를 감안할 때 그는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기회가 제공하는 대로

¹⁸ S. G. De 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ON: Paideia, 1978), 2:390.

¹⁹ Philip Yancey, *Where Is God When It Hurts?* (Grand Rapids: Zondervan, 1990), 177.

행동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의 순종의 패턴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의 영적 후손들의 길이다. 그들은 왕과 달리 나라를 다스릴 잠재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비록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정서적 고통을 덜어주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III. 틀림없는 여호와와의 말씀 (왕하 23:15-20 The Unerring Word of Yahweh)

강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서 요시야가 옛 북왕국, 특히 벰엘에 있는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른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곳에는 여로보암 1 세가 세운 산당이 있었다(왕상 12:25-33 참조). 요시야는 그것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왕하 23:15),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을 더럽힌다(왕하 23:16a). 벰엘에서 요시야가 행한 일을 이렇게 묘사한 후에 저자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왕하 23:16b).”는 논평을 덧붙인다. 그는 열왕기상 13 장에 나오는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봉헌식을 방해하며 그 제단을 향해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왕상 13:2)

여기 왕하 23:16 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요시야가 300 년 전의 ‘벰엘 제단에 관한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켰습니다.”²⁰ 여호와와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호와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²⁰ 사소한 것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열왕기상 13 장 2 절은 요시야가 그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열왕기하 23 장 16 절은 무덤에서 가져온 해골을 그 위에서 불사른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열왕기하 23 장을 계속해서 더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열왕기하 23 장에서 19 절은 요시야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다른 산당들에 대하여 “벰엘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20 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20 절의 첫 번째 동사 앞에 “so that, 그러므로, 그래서”를 붙여 번역해야 한다. 그러면 20 절이 19 절 후반절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잘 반영된다. “그러므로 그가 거기 있는 **산당들의 모든 제사장들을** 제단들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참조, ESV: 19b He **did** to them **according to all that he had done at Bethel**. 20 And he **sacrificed** (cf. NASB/NIV: slaughter; NKJV: executed) all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who were there, on the altars, **and burned** human bones on them.] 이것이 요시야가 벰엘에서 행한 것이고, 그것은 열왕기상 13 장 2 절을 정확히 성취하는 것이다.

이 예언적 성취에는 확고한 확신이 담겨 있다. 현재의 맥락에서 그것은 홀다의 예언(왕하 22:15-20)을 뒷받침한다. 주전 930 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622 년 홀다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수 세기에 걸친 여호와의 옛 예언들이 그토록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심할 여지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요시야의 정화 작업에 대한 예언은 훨씬 더 많은 약속을 담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열왕기상 13 장 2 절에서 그는 “다윗의 집에 태어날 아들”이라고 불린다. 드 그라프는 그 단서를 포착한다.

다윗의 집의 아들은 침해당한 주님의 권리에 대한 보복자로 왔었다. 언젠가 다윗의 위대한 아들도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언약에 대한 요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²¹ 우리가 요시야에게서 보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다가올 것이라는 신호이다.

1864 년 9 월 그랜트 장군은 그의 부하인 필 세리던과 의논하기 위해 세년도어 계곡으로 향했다. 그는 세리던 장군이 주발 얼리의 남군을 상대로 다시 공세를 펼치길 원했다. 그랜트와 세리던은 세리던의 사령부 근처의 들판을 오가며 이 문제, 곧 병참과 시기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 하사관이 감시 거리 내에 있는 철조망에 기대어 느긋하게 서 있었다. 한 친구가 가까이 오자 그 하사관은 두 사람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저 사람이 그랜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다소 생각에 잠긴 듯이 그는 덧붙였다. “나는 저 늙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 싫다. 저

그것은 어떤 일을 포함하고 있는가? 나는 당시 그곳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을 처형하고(벧엘 산당은 요시야 시대에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왕하 17:28 참조), 그들의 죽은 시체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추정한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실한 것이다. 신명기 13 장을 읽어보라. 요시야는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이 요구하는 공의를 집행하는 자이다. 물론 많은 성경 학자들은 왕상 13:2 이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그들에게 요시야의 이름은 “사건 이후의 예언” 또는 훨씬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왕상 13:2 이 실제로 왕하 23:15-18 사건에서 파생되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곤 한다(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이 아니라 가짜 예언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존 그레이와 같은) 사람들은 왕상 13:2 에 원래의 예언적 비난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곤 한다. 교회는 이런 심각한 혼란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진정한 예언이 있는지 여부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이다. 많은 학자들은 초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편견을 갖고 그로부터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런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²¹ S. G. De 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2:391.

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²²

그랜트는 항상 더 많은 것, 정확히 말하면 전쟁의 징조였다. 요시야도 마찬가지다. 그는 또 다른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라는 신호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요시야처럼 일하시며, 정련하고, 정결케 하고, 복수하고(말 3:1-6), 분열시키실 것이다(마 3:12). 요한계시록 2-3 장을 한 번 보면 분명해지듯이 지금도 이 제 2 의 요시야가 활동하시며 그분의 교회를 정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시야의 통치를 마무리하는 구절들(왕하 23:28-30)은 반(反)절정적 슬픈 내용, 특히 요시야가 애굽인들과의 불필요한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전한다. 그러나 이 슬픈 구절들은 단지 다가올 일의 전조일 뿐이다. 요시야의 종말은 유다의 종말을 예표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심판이 선언되었다.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다. 유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이상하게도, 유다는 또 다른 의로운 왕, 즉 제 2 의 다윗(히스기야)에 필적하는 제 2 의 모세를 만나게 된다. 요시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다(왕상 13:2). 그는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너무 늦게 온 왕이다.²³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책이나 부분”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회개하게 한 적이 있는가?
2. 왜 21 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3. 요시야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4.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알면서도 요시야가 개혁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즉시 말씀을 이루시고, 어떤 때는 시간을 두고 이루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²² Bruce Catton, *Grant Takes Command* (Boston: Little, Brown & Co., 1969), 362-63.

²³ Provan, *1 and 2 Kings*, 270.

29. 파멸을 향한 돌진 (왕하 23:31-25:26 Rush to Ruin)

그것을 할 좋은 방법이 없다. 알다시피, 그대는 남자이고 다리에 피부가 벗겨지거나 상처를 입어서 그 부위에 반창고를 붙여야 했다. 그러나 반창고를 제거할 때가 와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많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그대도 다리에 털이 많을지도 모른다.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그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창고를 벗겨 내며 반창고에 붙어있는 모든 털을 잡아당길 때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길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대는 반창고의 가장자리를 매우 단단히 잡고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통증을 동반하지만 순식간에 반창고를 제거하고 끝낼 수 있다. 열왕기의 저자가 반창고를 알고 있었다면, 나는 그가 후자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적어도 저자는 여기 두 개의 장이 넘는 이 부분(왕하 23:31-25:26)에서 후자의 길을 택했다. 그는 주전 609년 요시야가 죽은 후 유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뚜렷한 인상을 받는다. 그는 22년에 걸친 네 왕의 통치를 아주 빠른 필치로 다루고 있다. 이 22년은 이중 패턴, 즉 3개월과 11년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왕하 23:31[여호아하스, 3개월], 왕하 23:36[여호야김, 11년]; 왕하 24:8[여호야긴, 3개월], 왕하 24:18[시드기야, 11년]). 그것은 그가 왕하 15:8-31에서 북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다룰 때 했던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요시야가 죽은 후의 유다 이야기를 질질 끌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22년 만에 예루살렘은 끝장났다!"

대체로 저자는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가지만 그런 중에도 왕들과 연대들과 포위 공격들을 포함해야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연대표가 필요하다.

연대표

여호아하스(왕하 23:31), 주전 609년

여호야김(왕하 23:36), 주전 609-598년

갈그미스 전투(왕하 24:7 참조), 주전 605년

1차 추방(단 1:1-4 참조)

여호야김의 반역(왕하 24:1), 주전 601년(?)

여호야긴(왕하 24:8), 주전 597년

2차 추방(왕하 24:10-16; 겔 1:1-3 참조)

시드기야(왕하 24:18), 주전 597-587년

시드기야의 반역(왕하 24:20), 주전 593년 이후(렘 51:59 참조)
바벨론의 포위 공격(왕하 25:1-2), 주전 589년
예루살렘 함락(왕하 25:3-10), 주전 587년
3차 추방(왕하 25:11-12)¹

이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유다는 역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강해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류의 역사를 발견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I. 지루한 역사 (A Boring History)

그렇다. 유다는 지난 일이다. 그것은 오래전 일어난 점들과 같다. 여기에 네 번이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온다(왕하 23:32, 37; 24:9, 19). 여기에 보강해 주거나 상쾌하게 해 주는 것은 없고 그저 똑같은 오래된 것들만 있다. 히스기야의 전율하는 믿음이나 요시야의 열정적인 순종처럼 왕국의 삶에 흥취와 품미와 드라마를 선사하는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 석 달 동안 통치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주범임을 인정하자.

나는 그들의 전기를 쓰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여호야김(왕하 23:34-24:5)은 자신의 “새로운 세금” 제도(왕하 23:35)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건축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렘 22:13-19), 뻔뻔스럽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적은 두루마리를 서너 쪽을 낭독할 때마다 칼로 베어 화로 불에 던져 불태웠고(렘 36:1-26), 자신을 반대하는 신실한 선지자들을 추적하고 청산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¹ 몇 가지 설명할 것들이 있다. 첫째,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예레미야 46장 참조)에서 왕세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느고와 이집트 군대를 기습하여 하맛(남서쪽으로 약 140마일)까지 몰아냈고, 거기서 바벨론은 이집트에 훨씬 더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 결과 실제로 애굽은 자기 나라에 갇힌 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왕하 24:7). 둘째, 주전 601년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었고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이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유혹했을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시드기야가 언제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전 593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해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가서 그의 충성을 재확인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넷째,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 7월에 함락되었는지, 주전 586년 7월에 함락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주전 587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Rodger C. Young, “When Did Jerusalem Destroyed?,”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7/1 (2004): 21-38을 보라. 주전 605-587년에 대한 간략한 탐구를 위해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326-31을 보라.

않았다(렘 26:20-23). 그는 뺏속까지 반여호와주의자였다. 반면에 시드기야(왕하 24:18-25:7)는 그렇게 될 만큼의 근성이 없었다. 여호야김이 경직되었다면 그는 헐렷했다. 시드기야는 조간 신문을 읽고 최신 여론 조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정치인과 비슷했다. 예레미야 37-38 장을 빠르게 죽 읽어보라. 그러면 우유부단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몇 년 전의 만화를 생각나게 한다. 게리 라슨의 한 작품이었던 것 같다. 입구가 있는 울타리가 있었고 입구 위에는 뼈 없는 치킨 랜치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리고 사방에 닭들이 땅바닥에 둥글고 있었고, 뼈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 중 (분명히) 서 있는 닭은 한 마리도 없었다. 그것이 시드기야였다. 그는 닭일 뿐만 아니라 뼈도 없었다. 그러므로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악랄한 사악함(여호야김)이든 좃대 없는 사악함(시드기야)이든 누가 왕좌에 앉았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는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품을 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가 열왕기의 이 부분처럼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저자의 잘못이 아니다! 거룩함에는 항상 흥취가 있고 정직함에는 항상 묘미가 있지만, 악은 순전히 지루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깨닫게 될까? 그것은 여러분의 팀이 52-0 으로 지는 (직사각형 공을 가지고 하는 미식) 축구를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매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고통을 피하는 것과 같다. 이 본문을 보고 “내가 이런 대목을 어떻게 설교하지?” 하고 외치는 목사들을 과연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직감이 옳다. 필요하기에 것처럼 지루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어찌 흥미진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오직 거룩함만이 감동을 주고 오직 경건함만이 매력을 준다.

II. 운명이 정해진 역사 (왕하 24:1-4, 13, 20 A Doomed History)

유다는 이제 희망이 없었다. 저자가 이미 이 점을 반복해서 언급했으므로 나는 여기서 그 문제로 고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우리는 유다의 운명에 대한 그의 묘사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는 그것이 **신실한** 운명이라고 말한다. 풀어서 말하면, 유다의 종말은 여호와와 말씀의 성취였고, 유다에 종말을 가져오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에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셨다. 부정적인 신실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실함이다. 여호와께는 멸망시키실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왕하 24:2 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도록 하셨다. 여기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말할 필요도 없이 왕하 21:10-15 및 23:26-

27 을 가리킨다. 그렇다. 역사가들이 옳을지도 모른다. 여기 왕하 24:2 에 나오는 이 약탈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사주를 받았었을 것이다. 주전 601 년 애굽 국경에서 바벨론이 큰 패배를 당한 후 여호야김을 짓밟는 것이 그에게 불편했을 것이다. 그 약탈자들은 여호야김의 어리석은 반란에 대한 그의 임시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자인 저자는 느부갓네살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특종을 갖고 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 약탈자들을 보내셨다! 우리는 왕하 24:13 에서 동일한 강조점을 만난다.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 왕이 만든 금 그릇을 다 파괴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왕하 20:17 을 가리키고 있다.

저자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이미 이 점을 집요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무서운 반전을 가미하며 그렇게 한다.

(왕하 24:3-4) 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왕하 24:4 의 마지막 문은 여호와께서 용서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으시다는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역본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용서할 의사가 없고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Yahweh did not want to forgive(여호와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가 느껴야 할 뚜렷한 놀라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출 34:6-7 과 시 103:10 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진술이다. 용서가 선택 사항이 아닐 경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겠는가?

저자는 그것이 **복합적인** 운명이라고 말한다. 왕하 24:20 과 문맥을 연결하는 것은 번역과 마찬가지로 까다롭다. 문두에 나오는 접속사 [키]는 이유/원인을²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키] 여호와와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그것이 일어나[하이타]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면전에서 쫓아내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직역이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카일이 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왕하 24:18-19 의 내용, 즉 시드기야가 악을 행한 것 혹은 시드기야와 같이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왕이

² 여기 접속사 [키]는 강조의 의미(“정말로 ...”)로도 번역될 수 있다. [역자 주: 여기 데이비스가 지적한 단언적 의미의 키(asseverative כִּי)에 대한 것은 WHS 449; GKC 159ee; JM 164b-c; IBHS 40.2.2b 등을 참고하라.]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카일은 세바스찬 슈미트(1680 년경)를 인용한다. “본문은 시드기야가 사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라는 단순하고 조연자들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³ 요컨대, 시드기야 자신도 유다에 대한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일부였으며,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여호와와 그의 도구였다. 여호와께서 한 나라에 주시는 지도자들은 그 나라에 대한 그분의 심판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다의 경우에 이것은 단지 어떤 운명을 두 배로 확실하게 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유다의 역사는 운명이 정해진 역사이다. 우리가 놀라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윌리엄 샤이어가 말한 사건이 생각난다. 1952 년 언젠가 그는 NBC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담당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샤이어가 최근에 쓴 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는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인터뷰를 녹음하여 그 주 토요일에 방송할 예정이었다. 30 분이 지났다. 그들은 부재 중인 면접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마침내 집에 있는 그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NBC 가 일주일 전에 그를 해고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⁴ 그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들이 놀라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유다의 상황이다. 르나세 이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황폐한 나라를 보고 누가 놀랄 수 있겠는가?

III. 슬픈 역사 (왕하 24:8-16; 25:8-17 A Sad History)

본문 위에 드리워진 장막, 곧 저자가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라는 우울함이 있다. 우리는 여호야긴의 짧은 재임 기간에 대한 그의 기록에서 그것을 먼저 느낀다. 여호야긴은 주전 597 년에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때까지 통치했다(왕하 24:8-12). 그것은 유일하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왕하 24:14-16 에서 “유배, 추방”이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개의 절에서 “추방하다, 사로잡아 가다, 유배하다”는 뜻의 어근 [갈라]가 5 번이나 나온다. 느부갓네살은 “온 예루살렘(=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왕하 24:14a 절).” 그가 “사로잡아 간” 사람은 만 명에 이르렀다(왕하 24:14b).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왕하 24:15a 절).” 그는 왕의 어머니, 아내들, 관리들,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왕하 24:15b 절).”

³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510.

⁴ William L. Shirer, *A Native's Return: 1945-1988*, vol. 3 of *20th Century Journey*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90), 195.

그런 다음 저자는 분명히 또 다른 사람들의 집계를 제시하며 느부갓네살이 용사 7 천과 장인과 대장장이 1 천 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왕하 24:16 절).”라고 전한다.⁵ 그것이 주전 597 년의 슬픔, 즉 추방이다. 유다의 알짜배기는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여기서 슬픔은 그들이 남긴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왕하 25:8-17 에 나오는 주전 587 년의 상황에서도 슬픔을 짜낸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도망치는 시드기야를 붙잡은 지 약 한 달 후에, 느부갓네살의 부하들 중 한 사람인 느부사라단이 도착해서 파괴를 감독한다. 그들은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었다(왕하 25:9-10). 그런 다음,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불살랐다고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아주 부적절하다는 듯이, 저자는 그들이 성전에서 약탈한 물품과 기구에 대해 (“애정 어린 듯이”) 자세히 설명한다(왕하 25:14-15). 그들은 단지 휴대용 물건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서 있던 두 개의 놋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11,000 갤런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가져갔다(왕하 25:13, 16). 저자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청동 기둥이 어떤 것인지 묘사해 주었다(왕하 25:17; 훨씬 더 자세히 묘사하는 렘 52:21-23 을 참조할 것).⁶ 그는 주전 587 년의 참패를 묘사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의 닷을 내리고 백성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장소(왕상 8:29-30)인 성전의 약탈과 파괴를 강조한다. 지금은 잣더미가 된 폐허이다. 여기서 슬픔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집중된다.⁷

나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독자들에게 감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그들을 슬프게 만들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그 상황은 허리케인과 같다. 우리 시대의 해안 도시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허리케인의 파괴적인 힘과 그것이 강타할 거의 정확한 순간을 미리 알 수 있다. 대피는 이미 완료되었고 폭풍이 몰아친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가 피해를 조사할 때 그들은 경악한다. 집들은 무너지거나

⁵ 내가 아는 사람 중 왕하 24:14, 16 에 나오는 집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왕하 24:14 은 대략적인 숫자(“만 명”)를 알려주고, 왕하 24:16 은 더 정확한 숫자(“7 천 명과 1 천 명”)를 알려 주는 것인가?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렘 52:28 에 나오는 3,023 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사로잡혀 온 것인가?

⁶ 놋 기둥들과 놋 바다에 관해서는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First King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2), 73-77[=열왕기상 주해, 62-64(7 장. III. 세부사항의 즐거움)]을 보라. 열왕기상 7:16 과 예레미야 52:22 은 각 기둥의 “머리”의 높이를 다섯 규빗으로 제시하지만 여기 왕하 25:17 에서 그것이 3 규빗으로 나온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⁷ 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398 을 참조하라.

폭파되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기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개인 보물이 수 마일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갖고 있는 힘과 그것이 주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포에 떨며 그 참혹한 모습을 바라본다. 유다의 종말도 마찬가지였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했고, 그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추방당하는 자들이 끌려가는 모습과 성벽이 없는 폐허에 연기가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슬픔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혼에 스며든다. 저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슬픔은 때때로 회개를 향한 첫걸음이다(고후 7:8-11). 황폐는 탕자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다.

IV. 어리석은 역사 (왕하 24:1, 20; 25:22-26 A Stupid History)

유다의 몰락 이야기에서 적어도 세 가지 뚜렷한 어리석은 행위가 등장한다. 그 중 두 가지는 여호야김(왕하 24:1)과 시드기야(왕하 24:20)의 반역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스마엘이 그달리야를 암살한 것이다(왕하 25:22-26).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언제 반역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 상처를 치료하고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했던 주전 601 년경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조금만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여호야김은 왕좌를 보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바벨론은 애굽을 역사의 판에서 밀어내고(왕하 24:7), 애굽을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 갇히게 만들었다. 애굽은 여호야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반역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었다. 예레미야의 예언(특히 렘 37-39 장)을 읽은 후, 시드기야가 어떤 것에 대해 확신을 가졌는지 궁금해진다. 아마도 그와 그의 조연자 대다수는 실제로 바로 호프라가 유다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애굽은 말만 많고 허풍을 칠 뿐이었다. 호프라는 바벨론인들을 대항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군대를 보낸 것 같다(렘 37:5-11). 그러나 애굽 군대는 빠르게 후퇴했고 바벨론인들은 예루살렘의 목을 다시 조르기 시작했다. 시드기야는 어리둥절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없었다.

어리석음이 예루살렘의 연기가 되어 사라졌거나 사로잡혀 가는 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떠났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다에는 어리석음이 남아 있었다. 그달리야의 통치 아래 정복된 영토에 일종의 임시 정부가 세워졌다.⁸ 왕하 25:22-24 을 읽고 나면, 유다의 상황이

⁸ 그달리야의 아버지 아히감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개입했고(렘 26:24),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냄을 받은 요시야 왕의 대표단 중 한 명이였다(왕하 22:14).

다시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네 명의 군 지도자들이 각자의 분견대와 함께 미스바(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 마일)에 있는 그달리야의 본부로 왔다. 그달리야는 그들이 바벨론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다(왕하 25:24). 어쩌면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숨 쉴 공간을 누리고 그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만다!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 열 명이 그달리야와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도살한다(왕하 25:25).⁹ 유다의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몹시 서둘러 애굽으로 도망쳤다(왕하 25:26). 우리는 이스마엘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사실, 그는 “왕족”이었고,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의 지원을 받았지만(렘 40:13-14),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이 시기에 바벨론에 대한 반란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스마엘이 단지 “친 바벨론파”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대한 복수를 했고 그의 핏자국이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코건과 태드모어의 의견에 동의한다.¹⁰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스마엘이 있다. 이 세 사람은 유다의 세 꼭두각시이다.

바바라 터크먼(Barbara Tuchman)은 **어리석음의 행진**(*The March of Folly*)에서 “어리석음은 권력의 자식”이며 “명령하는 힘은 종종 생각의 실패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한다.¹¹ 그녀의 논제는 유다와 같은 잔류 국가의 하층은 통치자들과 군벌에 의해 또는 공연히 뿔내는 정권의 권력 투쟁가에 의해 종종 확인된다. 나는 1942 년 이후 히틀러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히틀러는 독감에 걸렸고 그의 의사인 테오도르 모렐은 그에게 몇 가지 주사를 놓았다. 그 후 히틀러의 왼쪽 눈이 찢어지기 시작했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더니 왼손으로 옮겨갔다. 1944 년에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히틀러를 진찰하고 있었다. 그는 모렐 박사가 2 년 동안 “코에스터 박사의 항가스 알약(Antigas Pills)”으로 히틀러의 만성 통증을 완화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스트리키닌과 벨라도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알약은 히틀러의 개인 하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히틀러에게 주었다. 그 전문의는 그의 진찰 결과를 히틀러의 주치의인 칼 브란트 박사에게 보고했다. 브란트는 히틀러에게 그가

⁹ 우리는 시기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만일 왕하 25:25 의 “일곱째” 달이 왕하 25:8 의 “다섯째” 달과 같은 해라면, 이 사건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지 두 달 이내에 일어난 것이다. 어쨌든, 그달리야의 정권은 짧았다.

¹⁰ M. Cogan and H. Tadmor, *// Kings*,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327.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보려면 Robert L. Cohn,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2000), 171 을 참고하라. 이 사건들을 둘러싼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렘 40:1-43:7 을 보라.

¹¹ Barbara Tuchman, *The March of Folly* (New York: Alfred A. Knopf, 1984), 32.

서서히 중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일로 인해 브란트는 그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¹² 나는 돌팔이 모렐이 지속적으로 히틀러를 중독시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마도 놀라운 것은 히틀러가 그것에 대해 평판이 좋은 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일 것이다. 권력과 어리석음은 천생연분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들은 확실히 유다 왕국의 마지막 해들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유다의 통치자들과 하찮은 관료들이 감각 없는 무아지경, 곧 일종의 “덤 앤 더머(dumb-and-dumber 멍청하고 더 멍청한 바보)” 모드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한 나라를 심판의 분노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어리석음이 아닌지 궁금해진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통해 성취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2.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황폐의 슬픔이 종종 우리를 감동시켜 회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현대에 부패한 권력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¹² John Toland, *The Last 100 Days* (New York: Random House, 1965), 12.

30. 희망의 속삭임? (왕하 25:27-30 A Whisper of Hope?)

조지 스매더스는 1950 년 플로리다 예비선거에서 현직 민주당 상원의원인 클로드 페퍼와 맞붙었다. 스매더스는 그 선거에서 페퍼를 물리쳤다. 그의 승리는 부분적으로 스매더스의 선거 운동 관리자가 선거 유세에서 사용한 일부 비방 전술에 기인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로드 페퍼가 워싱턴 전역에서 파렴치한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처제를 등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게는 한때 사악한 뉴욕에서 연극 배우였던 여동생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페퍼 씨가 결혼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독신주의를 피력했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입니다.¹

우리는 그러한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권자의 지능 수준에 대해 절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쁘게 들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말을 한 번만 훑어보면, 그것이 페퍼 씨보다 뉴욕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열왕기하 25:27-30 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과 같다. 이 구절들은 반대쪽 시각을 보인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는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있던 여호야킨이 더 이상 십대의 왕이 아니라 연장자 할인을 받을 나이가 되어[37 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어느 정도 자유와 은총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제점은 반페퍼 선전과 유사하다. 이 부분이 좋게 들리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러한가? 아니면 여호야킨의 승귀가 긍정적인 징조라는 우리의 생각은 그저 순진하고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서 처음에 그렇게 느껴지지는 인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열왕기의 마지막 네 구절(왕하 25:27-30)은 실제로 어정쩡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짐작했겠지만 세 가지 견해가 피력되며 논쟁을 벌인다.

어떤 사람들은 왕하 25:27-30 이 일차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킨은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로 취급된다. 그가 이방 종주인 황제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역사적 종말을 표현하는 그의 전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므로 “여호야킨의 초상화는 ‘종신토록(왕하 25:30)’이라는 애처로운 말이 강조하는 역할을

¹ Paul F. Boller, Jr., *Congressional Anecdotes* (New York: Oxford, 1991), 131.

하는 가운데 절망적인 최종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온다.”²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일차적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본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메모 이상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깊고 부인할 수 없는 희망을 재차 강조하는 **신중하고 의도적인 신학적 주장**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윗에게 주신 왕조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모든 깊은 희망이 이 처량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문단이 추가된 것은 미래가 바벨론의 손아귀를 넘어 하나님의 안전한 손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조차도 유다의 미래를 짓밟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은 희망의 문단은 구조적으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길고 방대한 이야기를 상쇄한다.³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빗나간 것으로 간주하며 하나는 너무 부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좀 더 “원만해진”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 부분은 완전히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나 더 나아가 본토로의 귀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그것은 “정복당한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더 견딜 수 있는 미래”를 예고한다. 그것은 “무시되지 않을” 희망이면서도 “과장되어서는 안 될” 희망이다.⁴ 그것은 “회개하라는 암묵적인 요구”로 기능하며 “미래의

² 이런 입장은 W. J.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162 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39-40, 773, 그리고 Richar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265-67 도 보라. 여기서 넬슨은 “여호야긴의 처지의 제한된 개선은 포로된 민족이 맞이할 암울한 미래의 전조이다(267 쪽).”라고 말한다. 그러나 넬슨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와일드 카드”에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을 보기도 한다(268-69 쪽).

³ Walter Brueggemann, *2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100-101 (강조는 브루그만의 것임). 브루그만이 이 견해를 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의 책 *1 & 2 King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and Helwys, 2000), 606 을 참조하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다른 자료를 위해 Terence E.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9), 224-25, 그리고 Iain W. Provan, “The Messiah in the Books of Kings,” in *The Lord’s Anointed*, ed. Philip E. Satterthwaite, Richard S. Hess, and Gordon J. Wenham (Grand Rapids: Baker, 1995), 67-85 을 보라. 그리고 이 본문이 논쟁거리가 되기 훨씬 전에 긍정적으로 읽은 카일(C. F. Keil)과 헨리(Matthew Henry)의 주석들도 보라.

⁴ Donald F. Murray, “Of All the Years the Hopes—Or Fears? Jehoiachin in Babylon (2 Kings 25:27-3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0/2 (2001): 245-65. 여기 인용된 부분은 265 쪽에 실려 있다.

가능성"을 암시할 뿐이다.⁵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수많은 의견과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룰 것이다.

I.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What does the text say?)

우리 본문의 에월므로닥은 아카드어로 아멜-마르둑("마르둑의 사람")이다. 그는 주전 562 년에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2 년 동안 통치했다. 베로수스에 따르면, 그는 암살당했고 그의 처남인 네리글리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⁶ 에월므로닥이 "여호야긴"을 석방한 것은 그의 즉위년이었고(왕하 25:27b), 정확한 날짜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 년 12 월 27 일"이란 완전한 공식에 드러나 있다(왕하 25:27b).

왕하 25:27a 절에 나오는 이 날짜 공식은 열왕기하 25 장에 나오는 몇 가지 공식들 중 하나이다. 첫째, 시드기야의 통치 제 9 년 10 월 10 일에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왕하 25:1). 둘째, 그 포위는 시드기야 통치 제 11 년까지 계속되었고(왕하 25:2) 그 해 4 월 9 일에 이르자 식량 공급이 고갈되고 성벽이 파괴되었다(왕하 25:3-4; 렘 39:2 참조). 셋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날짜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과 연관지어 언급된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 19 년 5 월 17 일에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과 성읍을 불살랐다(왕하 25:8-10). 넷째, 통치 연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왕하 25:25 의 일곱째 달은 아마도 왕하 25:8 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제 19 년 5 월에 이어 나오는 같은 해의 달일 것으로 보이나 확신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 날짜는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른 날이다(왕하 25:25-26). 다섯째, 여호야긴은 에월므로닥 즉위년, 곧 그가 사로잡혀 간 지 37 년, 12 월 27 일에 감옥에서 풀려나 왕 앞에서 양식을 먹는 새로운 혜택을 받는다(왕하 25:27-30). 이제 나는 아직 옹호되지 않은 견해를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처음 네 가지 날짜는 모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면, 마지막 날짜(왕하 25:27)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주목하면

⁵ J. Gordon McConville, *Grace in the End: A Study in Deuteronomic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3), 89-90, 138. 여기 인용된 것은 89 쪽에 실려 있다. 그리고 J. Gordon McConville, "Narrative and Meaning in the Books of Kings," *Biblica* 70 (1989): 31-49 도 보라.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의 역사에 있어서 Martin Noth 는 오랫동안 부정적인 견해의 핵심 지지자였고, Gerhard von Rad 는 긍정적인 견해의 핵심 지지자였고, H. W. Wolff 는 "회개" 또는 "중간" 견해의 핵심 지지자였다.

⁶ Ronald H. Sack, "Evil-merodach," *ABD*, 2:679.

흥미롭다.⁷ 저자는 열왕기하 25 장에서 마지막 부분(27-30 절)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1-26 절)과 대조가 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던 것 같다.

열왕기하 25 장의 마지막 부분(27-30)을 살펴보자. 첫째, 에월므로닥은 그가 즉위하던 해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왕하 25:27b).” 우리가 이것을 유다의 장래에 대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긍정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항목이다. 물론 요셉 내러티브는 “머리를 들게 하다”는 표현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고(창 40:13), 바로가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어 올려 나무에 매달아 죽일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창 40:19)! 그러나 후자의 입장은 분명히 회복을 표현하는(시 3:3) 방식에 대한 일종의 반전이다. 여호야긴의 감금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그 감금에서 풀려났다.

둘째, 에월므로닥은 “그에게 좋게 말했다(왕하 25:28a).” 이것은 적어도 왕이 그의 봉신에게 친절하게(예: NRSV/NIV, “kindly”) 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선(히브리어 [토브])”과 언약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이 용어가 에월므로닥이 여호야긴과 언약이나 조약을 시작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곤 한다.⁸ 적어도 그것은 호의의 표시이다.

셋째, 여호야긴은 새로운 지위로 격상되었고(왕하 25:28), 그에 걸맞은 새 옷을 입었다(왕하 25:29). 에월므로닥은 바벨론의 모든 봉신 왕들 중에서 여호야긴에게 첫 번째 자리를 부여하였다. 우리는 이것이 여호야긴에게 일대 명예였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⁹ 혹자는 그가 여전히 이방 나라 궁정의 연금 수령자라고 지적할 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최고의 연금 수령자이다.

넷째, 본문은 여호야긴의 지속적인 특권과 지급량을 강조한다(왕하 25:29b-30). 여호야긴은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집안 식구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양식을 지급받았다. 바벨론에서 나온 이른바 “여호야긴 토판들”은 여호야긴이 그곳에 유배되어 있었다는

⁷ 나는 열왕기하 25 장의 이 낱짜 체계에 D. F. Murray, “Of All Years the Hopes,” 248-50 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어째서 왕하 25:27-30 을 “유다에게 일어난 일련의 파괴적인 사건들”의 마지막 구절로 보는지 잘 모르겠다.

⁸ 이것은 에월므로닥의 즉위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때때로 통치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바벨론 사면 프로그램의 일부였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Robert P. Gordon, NIDOTTE, 2:356 을 참고하라.

⁹ K. D.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Calwer, 1972), 364.

사실을 입증하고 그가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에 받은 식량 할당량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다.¹⁰ 그는 이 모든 것을 에월므로닥 치하에서 부가적인 특전으로 함께 받은 것 같다. 왕하 25:27-30 은 그의 새로운 자유와 혜택, 그의 새로운 지위와 지급량을 강조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왕하 25:27 에서 두 번이나 “유다의 왕”으로 불린다.¹¹

II. 본문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What does the text suggest?)

본문의 내용은 긍정적인 맥락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전히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호야긴은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나라 궁정에서 여전히 봉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자신의 운명이 유다의 희망에 대한 어떤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위해 나는 왕하 25:7-30 이 희망에 대한 미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나는 왕하 25:27-30 이 앞에 나온 암울한 에피소드들과 의도적인 대조를 이루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여호야긴 부분(왕하 25:27-30)이 앞에 나오는 시드기야 부분(왕하 25:1-7)의 대응 단락으로 의도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그리고 나는 이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 불운한 시드기야는 탈출구가 없었다. 그는 사로잡혀 리블라[새번역/공동번역/쉬운성경/영어 성경 Riblah; cf. 개역개정/우리말성경: 립나]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모두 처형당한다. 그 학살은 시드기야가 자기 눈으로 보는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는 두 눈이 “뿔히고” 마치 맹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인 듯이 족쇄에 묶여 끌려간다. 그러나 여기 여호야긴이 받는 처우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것은 의도적인가?

그러나 더 가까이에 있는 대조가 있다. 여호야긴의 회복(왕하 25:27-30)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달리야의 실패(왕하 25:22-26)와 대비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되도록 의도되었다. 배르는 그것을 잘 요약한다.

¹⁰ D. Winton Thomas, ed., *Documents from Old Testament Times* (New York: Harper & Row, 1958), 84-86 (W. J. Martin 의 번역), 그리고 John M. Berridge, “Jehoiachin,” *ABD*, 3:662-63 을 보라. 양식 수당으로서의 [아루하]에 대해서는 R. H. O’Connell, *NIDOTTE*, 1:513 을 보라.

¹¹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365.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마무리하는 두 개의 짧은 내러티브[왕하 25:22-26 그리고 왕하 25:27-30]는 단순히 역사에 대한 부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왕하 25:21b]."라는 말에 대한 적절한 에필로그이다.¹²

나는 이것이 책의 끝 부분을 보는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마엘의 전적인 악의와 아둔한 어리석음은 생존자들의 애굽으로의 도피(왕하 25:25-26)와 더불어 유다에서 생존 가능한 삶과 잔류 정권에 대한 모든 희망을 무너뜨린다. 이 그룹의 "마지막 유배는 그들을 '출애굽 이전의' 장소로 되돌려 놓았지만" "여호야긴은 다음 출애굽이 일어날 바벨론에 계속 살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다.¹³ 왕하 25:27-30 에 나오는 여호야긴의 처우는 매우 파스텔 같은 희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드기야와 이스마엘의 재앙을 통해 보면 그것은 상당한 반전이다.

둘째, 저자가 이 부분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를 고려하라. 프리케는 저자가 그의 책을 마무리하는 이 추가 사항이 이전에 보고된 사건들[왕하 25:8]보다 26 년 후에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야긴의 회복은 주전 561 년경에 일어났는데, 유다가 멸망당한 587 년으로부터 26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분명히, Fricke 는 저자가 이 사건(= 27-30 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추론한다.¹⁴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시간상 26 년 후에 일어난 일에 집착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단순히 유배된 왕이 여전히 바벨론에 있다는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왜 왕하 25:26 로 책을 끝내지 않았을까? 유다가 얼마나 완전히 혼란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셋째, 우리는 신학을 고려해야 한다. 왕하 25:27-30 은 단순히 백성의 생존에 대한 일반적인 희망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 대한 집중된 희망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미묘한/은근한(nuanced)" 학자들은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자가 왕하 25:27 에서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이라고 두 번이나 부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전에 다윗 왕국을 찢으실 준비가 되셨을 때에도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로

¹²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301. 주: 나는 앞 장에서 왕하 25:22-26 절을 다루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유대의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2-26 절과 27-30 절이 그야말로 에필로그의 대조적인 부분으로 기능한다는 Bähr 의 요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¹³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224.

¹⁴ Fricke, *Das zweite Buch von den Königen*, 363.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왕상 11:39).”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런 단락의 뒤에 그와 같은 글이 서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는 여호와의 사무엘하 7 장 말씀은 바벨론이나 배교한 유다가 위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¹⁵ 그렇다면 성경 신학은 우리가 유배된 다윗 계보의 왕에게 베푼 이 친절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 같다.

여기서 내가 “긍정적인” 견해를 취했지만, 나는 희망이 이 구절들에 미묘하게 담겨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설교자의 독선적인 신탁이 아니라 저자의 암시적인 내러티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말했듯이 때때로 미묘한 암시는 강력한 격려가 될 수 있다.

앤 무디는 1960년대 미시시피에서 민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학생이었다. 한때 민권 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아침 예배 시간에 대여섯 명의 흑인 학생들을 “백인” 교회로 보내는 일이 포함되었다. 때때로 경찰관들이 안내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거절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들어가게 된 한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었다. 거기서 두 명의 안내원이 그들을 자리로 안내하기 전에 방명록에 서명할 것인지 물었다. 무디는 그녀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거기에 5분 정도 서 있다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나는 전에 백인 교회에서 백인들과 함께 기도해본 적이 없었다. 방명록에 서명한 다음 우리는 우리 팀의 다른 두 여학생 뒤에 있는 두 개의 자리로 안내되었다. 우리는 모두 들어갔다. 교회 예배는 아무 사고 없이 끝났다. 그것은 여느 교회 예배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에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앉아 있었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교회에 내 주위에 앉아 있는 백인 몇 명이 눈에 들어왔다. 만일 그들이 내가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대적하실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목사님은 우리에게 다시 방문하도록 초대했다. 그는 진심인 것처럼 말했고, 나는 조그만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¹⁶

¹⁵ 다윗과 맺으신 여호와의 언약의 불멸성에 대해서는 나의 책 *2 Samuel: Out of Every Adversity*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9), 77-80 [= 사무엘하 주해, 74-78(8 장 IV. 여호와의 항상성)]을 보라.

¹⁶ Anne Moody, *Coming of Age in Mississippi* (New York: Dell, 1968), 285.

그것은 한 교회가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일 뿐이었고, 그녀가 원한다면 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일 뿐이었고, 그녀를 다시 초대하는 목사의 설득력 있는 진지함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조그만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긴의 행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쳐야 할 영향이다. 그들은 조그만 희망을 갖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서두에 있는 그 놀라운 “성탄 설교”를 통해 여호야긴 이후의 암울한 시기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2-16은 열왕기하 25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이 이 실패하고 황폐하고 포로가 된 백성 밑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마 1:12)”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땅(아브라함의 약속)과 왕권(다윗의 약속)을 잃었다. 마태복음 1:12-16의 시대적 분위기에 관해서는, 학개, 느헤미야, 말라기를 읽어 보라. 유다는 여전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삶은 고단하다. 그 책들에서 땅은 대부분 갈색이고, 하늘은 회색이며, 나뭇잎은 창백하고, 바람은 차갑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곧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암울한 이 시기에, 메시아가 주어졌다(마 1:16)! 이 백성이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믿음과 타협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구속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여호와와의 고집이다. 능력과 분노의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후손을 통해 그분의 진노에서 돌이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한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교회가 붕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 역사에서 종종 한 줄기 소망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
2. 오늘날 여러분은 세상의 어디에서 소망의 빛을 보는가?
3.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의 어디에서 소망의 빛을 보는가?
4.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소망을 지탱해 주는가?